

한중인문학연구

82

한중인문학회

한중인문학연구 제82집 목차

■ 기획 논문

기획 주제-한·중 학술교류와 통·번역 담론

朴現圭·한중 국교 이전까지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1
이서이·한용수·중국어 색채어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번역 결과 비교분석	27
조설혜·통번역 교육을 위한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분석	49
유쌍옥·김지혜·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연구	79
강교·중한 가상 이동 표현에 대한 고찰	109

■ 일반 논문

전경·중국 조선어방언 ‘ㅅ’ 불규칙용언 활용양상에 대한 지리언어학적 고찰	133
왕샤오위·수사학적 관점에서의 「건정동필담(乾淨衙筆談)」과 「항전척독(杭傳尺牘)」 텍스트 분석	151
김연지·김원중·『西浦漫筆』上5를 통해서 본 金萬重의 范增論 고찰	185
김근호·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생명의 아이러니와 환대의 윤리학	215
진영하·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선정 및 교재 분석 연구	245
정정순·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267
赵娜·赵新建·韩汉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291
林雪琪·从‘儒夫’到‘战士’	311
黄卓颖·可歌：宋元赋体建构的正统反向	327
滕玉龙·高锡主·‘意大利建国三杰传’在东亚地区的译本特点研究	349
叶蕾蕾·论朴婉绪小说的生态女性主义书写	379

한중 국교 이전까지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朴現圭*

국문요약

본 논고에서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에 한국과 대만 간에 이루어졌던 학술 교류의 제반 모습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 개념은 지역과 지역 개념, 국가와 국가 개념, 지역과 국가의 혼재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는 시기적으로 크게 전통시기, 일제시기, 국교시기(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통시기의 학술 교류는 주로 사절 활동과 해상 표류를 통해 단순 정보를 입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제시기의 학술 교류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상호 정보 교환하며 그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국교시기의 학술 교류는 초반기에 민주 진영 속에서 자유와 반공을 내세우며 상대국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기반 조성에 머물렀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가 가미되면서 상대국을 낯날이 파악하고자 하는 심화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 부록으로 단교 이후의 학술 교류는 정보의 세계화와 양 지역민의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예전보다 더욱 심도 있고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주제어 한국, 대만, 중국, 국교, 학술 교류

<목차>

1. 서론
2. 전통시기 조선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3. 일제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4. 국교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 1) 국교시기 전반부(1945~1970)
 - 2) 국교시기 후반부(1971~1992)
5. 결론

* 순천대학교 중국학과 명예교수

1. 서론

우리는 대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개개인이나 세계 각국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두 가지 사항 -- 한국은 대만과 예로부터 다양하게 교류했던 역사적 사실과 대만·중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기본 전제를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만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에 소재한다. 일제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현 대만의 전신 중화민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만을 주로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며 국교를 맺은 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인적이나 물적으로 대만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 대만성과 복건성 금문도, 마조열도를 현실적 영토로 삼고 있는 대만(중화민국)은 존재감이 미약하다. 전 세계에서 대만과 공식 국교를 맺은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하다.¹⁾ 한국도 대만과 국교 수립이 없고, 명칭 또한 정식 국호 대신 통상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논할 때 대전제는 兩岸에서 출발해야 한다. 兩岸은 본래 하나의 국가였고, 지금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향후 통일 한국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대만과 중국을 하나의 국가로 묶어두어야 한다.

2023년 11월에 한중인문학회가 “한중 국교 수립 이전의 상호 교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본 논고는 한중인문학회가 정한 논술 범주인 1992년 8월 24일 한국(대한민국)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교 수립 이전까지 한국과 대만 간에 이루어졌던 학술 교류의 제반 양상을 살펴본다.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고대 시기부터 맺어왔던 학술 교류의 역사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였던 대만과의 학술 교류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2024년 2월 기준으로 대만과 국교를 맺은 국가를 살펴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3개국(마셜 제도, 팔라우, 투발루), 아프리카 1개국(에스와티니), 유럽 1개국(바티칸),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 8개국(벨리즈,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등 총 12개국이다. 대만 外交部 홈페이지(www.mofa.gov.tw) 참조. 2024년 1월 15일에 나우루는 대만과 국교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 수립.

좀 더 구체적으로 적자면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를 시기별로 전통시기, 일제시기, 국교시기(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여기에 대해 선행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간혹 일제시기를 포함한 업적물도 있지만, 대부분 수교시기 또는 단교 이후 시기를 논하고 있다.²⁾

2. 전통시기 조선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전통시기 대만은 여러 국가 또는 민족이 차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만 역사는 통상 문헌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南島民族(태평양, 인도양 지역에서 들어온 여러 대만 원주민)의 史前 시대, 1624년(천계 4)에 네덜란드 군대가 대만 남부를 차지한 뒤 1642년(송정 15)에 대만 북부를 차지한 스페인 군대를 물리치고 대만 전체를 통치했던 大航海 시대, 1662년(영력 16)에 鄭成功의 군사가 대만으로 들어와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鄭氏王國 시대, 1683년(강희 22)에 청 施郎의 군사가 정씨 왕국을 복속시키고 대만을 청나라 판도로 귀속시킨 청조 통치시대로 나눈다.

조선은 일찍이 『大明一統志』, 『皇明象胥錄』, 『坤輿萬國全圖』 등 문헌을 통해 중국대륙의 동쪽에 대만 본섬이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만 본섬이 미개발 지역인지라 이렇다 할 주목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숙종 연간에 들어와서 조정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1675년(숙종 1)에 대마도태수 平義眞이 서신을 보내 중국에서 일어난 격변 사태에 대해 묻자, 조선 조정은 吳三桂와 鄭錦에 관한 정보를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금은 혹 鄭之龍의 손자이고, 혹 우리나라 사람이라 한다. 海島를 웅

2) 黃寬重·張裊怡, 「海峽兩岸中韓關係史研究的回顧與展望」, 『韓國學報』, 16집,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2000, pp.3~24; 金潤泰, 「由韓國學者看台灣的韓國研究」, 『亞太研究論壇』, 30期,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05, pp.234~244; 宋賢鎬, 「중국 대만 지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1, pp.27~38; 曾天富, 「대만의 한국학 연구 상황과 미래 전망」, 『한국학연구』, 6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pp.333~355; 李荷娜, 「2010年以後臺灣에서의韓國學研究傾向과方向;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의韓國學報수록韓國語文學 및韓國文化關聯論文을中心으로」, 『東아시아古代學』, 57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20, pp.39~79.

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호서 지방과 아주 가깝다. 삼번의 난이 일어나자 정금이 군사를 동원하여 지원에 나섰다.³⁾ 조정 논의 가운데 중국에서 일어난 격변 사태는 삼번의 난, 해도는 정씨왕국이 차지한 대만을 각각 지칭한다. 이보다 앞서 1674년(숙종 즉위년)에 진위사 李滢이 보낸 치계에 오삼계와 정금이 대청 항쟁에 나섰다는 보고가 있었고,⁴⁾ 1675년(숙종 1)에 조선 조정은 정금에게 사절을 보내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⁵⁾

그러다가 한때 대만 정씨 왕국에서 활동했던 장수 출신이 운행한 상선이 조선 땅에 우연히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1688년(숙종 14)에 광둥 潮州에서 출항한 상선이 제주도에 표착했다. 표류 상선의 財主 沈電如, 財付 陳梓, 劉鳳은 정금 아래에서 활동했던 營將과 부장이었다. 조선 조정은 역관 金指南을 보내어 이들에게 대만 정씨왕국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탐문하였다. 다만 조정에서는 정씨왕국이 청나라에 투항한 뒤인지라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⁶⁾

반면 조선인이 대만으로 표류한 사건이 발생했다. 1729년(영조 5)에 尹道成, 宋完 등이 대만 彰化縣 大突頭社(현 彰化縣 溪湖鎮 大突里)에 표착했다. 이들은 청나라 관원의 도움을 받아 중국대륙을 통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尹道成의 <臺灣漂流記>, 宋完의 <臺灣漂流記>는 자신들이 대만에 체류할 때 견문했던 사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⁷⁾

1796년(정조 20)에 제주도 忠壯將 李邦翼 등 8명이 탄 선박이 폭풍으로 대만 해협에 소재한 澎湖島에 표착했다. 이들은 팽호도에서 대만 본섬으로 이송한 뒤 한동안 머물렀다. 이후 중국대륙을 통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이방익 본인이 체험한 사정을 적은 <漂海歌>, 박지원이 이방익의 표류 사정을 듣고 적은 <書李邦翼事>가 있다. 이들 문장은 당시 조선 지식층에게 대만의 존재를 새롭게

3) 『숙종실록』 1년 6월 3일(경신)조.

4) 『숙종실록』 즉위년 11월 7일(병인)조.

5) 『숙종실록』 1년 4월 1일(기축), 2일(경인), 3일(신묘)조 등.

6) 金指南 『東槎日錄』 <戊辰九月初十日濟州漂漢人處問情手本>,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숙종 14년 9월 19일(무자), 22일(신묘) 등 참조.

7)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尹道成 <臺灣漂流記>, 宋完 <臺灣漂流記>.

게 인식시키는 데 좋은 도움이 되었다.

이밖에 조선 사절이 중국대륙에서 대만 원주민을 만났던 적도 있었다. 1790년(정조 14)에 건륭제의 만수절을 참석한 진하사절 黃仁點 일행이 熱河(현承德)와 북경에서 대만 원주민을 만났다. 대만 원주민은 1788년(건륭 53) 대만 林爽文이 반청 의거를 일으켰을 때 청 福康安이 이끄는 관군을 도와 진압에 나선 苗栗, 臺中, 嘉義 일대의 生蕃(원주민)이었다. 다만 대만 원주민들은 한문을 알지 못해 조선 사절과 대면하거나 필담을 나누지 못했다. 진하부사 徐浩修와 수행원 柳得恭은 각각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던 대만 원주민에 대한 인상과 대만 정보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⁸⁾

3. 일제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서구 열강처럼 무력을 앞장세워 타국에 대해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펼쳐나갔다. 그 결과로 대만은 한국보다 좀 더 일찍 일제 야욕의 희생양이 되었다. 1894년(명치 17)에 청일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청나라와 馬關條約(下關條約)을 체결했다. 마관조약에 의하여 대만 지역(본섬과 팽호열도)은 일본에게 할양되었다. 이후 대만은 일제시기에 돌입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만 지역은 다시 중국(당시 중화민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일제시기에 한국과 대만의 교류 양상은 전통시기보다 다양해졌다. 한국과 대만이 모두 일제 역내에 속해있는 영토인 관계로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 다만 두 지역 사이에 거주하는 상대국 인원수는 현격한 차이가 보였다. 선행학자가 정리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한국에 거주한 대만인의 숫자는 연평균 수십 명이고, 대만에 거주한 한국인의 숫자는 연평균 1천 명을 상회한다.⁹⁾

8) 徐浩修 『燕行記』 경술년(1790) 7월 16일조 및 柳得恭 『熱河紀行詩註』〈臺灣生蕃〉.

9) 대만인이 한국에 거주한 인원수는 1925년에 9명, 1930년에 19명, 1932년에 6명, 1933년에 5명, 1934년에 6명, 1935년에 48명, 1936년에 25명, 1937년에 31명, 1938년에 32명, 1939년에 226명, 1942년에 37명이다. 반면 한국인이 대만에 거주한 인원수는 1910년에 2명, 1916년에 2명, 1922년에 145, 1923년에 203명, 1926년에 353명, 1931년에 999명,

이처럼 두 지역 사이의 상대국에 거주하는 인원수가 현격한 차이는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하나는 거주 환경과 소득 수준의 차이이다. 당시 한국인 가운데 당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다소 높은 대만으로 이주해간 자들이 많았다. 한국인이 이주한 지역은 주로 基隆, 高雄 등 항구 지역과 臺北, 臺中, 臺南 등 도시 지역이고, 직업은 어민, 고려인삼 행상, 특수업 종사 여성 등이다. 반면 대만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거주 환경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주하는 자들이 아주 적었다.

다른 하나는 대동아전쟁의 후방 군수지원이다.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 부여받은 남양군도와 제국주의 영토를 넓힐 목적으로 자국인과 역내인을 동원하였다. 이때 다수의 한국인이 역내인의 신분으로 대만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대동아전쟁이 일어나자, 후방 군수지원 지역인 대만에 배속된 한국인이 급증하였다. 이밖에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역을 찾아 대만으로 들어온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申采浩, 趙明河 등이다.

일제시기의 한국과 대만 간에 학술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대만 언론매체에 수록된 한국인의 기고문을 들어본다. 朴潤元은 평북 의주 출신으로 사회 운동에 나선 언론인이다.¹⁰⁾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대만에 체류할 동안 자주 언론매체와 접하며 기고 활동에 나섰다.¹¹⁾ 박윤원의 〈國敎宗敎辨〉은 彰化 崇文社가 동일 주제로 선정한 10편 작품 가운데 들어가 있다.¹²⁾ 또

1932년에 959명, 1933년에 1,191명, 1934년에 1,316명, 1935년에 1,604명, 1936년에 1,694명, 1937년에 1,985명, 1938년에 1,903명, 1939년에 2,260명, 1940년에 2,299명, 1941년에 2,539명, 1942년에 2,662명, 1943년에 2,662명이다. 문명기, 「20세기 전반기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와 귀환: 역외이주 및 귀환 규모의 추산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0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519~520, 526.

10) 朴潤元의 당호는 松山이고, 본관은 밀양 박씨 江井派이다. 1895년(고종 32) 부친 朴泰坤과 모친 全州 曹氏 사이에 태어났다. 본가는 평북 의주 松長面 江井里 2統 1戶이고, 훗날 의주군 成州面 鄕校洞 167번지에 이주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대만에 체류했다. 1930년에 동아일보 의주지국 기자, 1948년에 新義州博物館長을 역임했다.

11) 朴潤元 〈臺灣蕃族과 朝鮮(上)〉: 「나는 一九一九年으로부터 一九二一年까지 約三年間이나 어떤 環境에 依매여 臺灣에 滞在 한 일이 잇섯다.」(『동아일보』 1930년 12월 10일자)

대만 최초 잡지인 『臺灣文藝叢誌』에 타인 작품을 漢譯한 〈堅忍論(二)〉, 〈史前人類論(續)〉을 게재하였다.¹³⁾ 〈堅忍論(二)〉은 원래 崔南善이 Samuel Smiles의 〈지조론(Self Help)〉을 발췌한 문장인데, 최남선의 『時文讀本』 제3권 제10과와 제11과에 수록된 작품이다. 〈史前人類論(續)〉은 『시문독본』 제4권 제21과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리고 박윤원은 대만 정황을 본국 언론매체에 알리는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는 『개벽』 잡지에 대만을 유력하면서 느꼈던 사향을 정리한 〈臺遊雜感〉과 대만 거주 한국 동포의 현황을 담은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을 기고하였다.¹⁴⁾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은 1902년경에 대만에 정착한 韓材龍의 자선 활동을 특별히 소개하였다. 한재룡은 박제윤과 동향인 평북 의주 출신의 사업가이다. 일찍이 중국대륙을 돌아다니며 인삼 판매업에 나섰다. 대만으로 들어가 수만 금 재산을 모았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으로 대만에서 어렵게 사는 동포들을 구제하는 공익 활동을 펼쳤다.¹⁵⁾

1930년에 대만 霧社 지역의 원주민이 일제의 폭거에 대항해서 투쟁하다가 7백여 명이 희생된 제1차 霧社事件이 발생했다. 박윤원은 멀리 한반도에서 대만 원주민의 항일 투쟁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재직하는 『동아일보』에 대만 원주민

12) 박윤원, 〈國教宗教辨〉, 『崇文社文集』, 권3, 蘭記圖書部承印, 1920.

13) 박윤원, 〈堅忍論(二)〉, 〈史前人類論(續)〉, 『臺灣文藝叢誌』, 第3年 第2·3號, 1921.

14) 박윤원, 〈臺遊雜感〉, 『開闢』, 9호, 新文館, 2021.03;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開闢』, 13호, 新文館, 2021.07.

15) 〈臺灣에서 生活하는 우리 兄弟의 狀況〉: “慈善家人 韓材龍氏, 氏의 原籍地는 平北 義州다. 그는 일찍이 俗白의 屨를 脫하고 南支 各地로 遨遊하다가 約 19年 前頃에 渡臺하여 所聚한 金錢도 實로 數萬이었으나 그러나 公益心이 豊富한 그는 數萬의 財産을 散盡하여 同胞의 救濟에 全生命과 全一身을 供獻하였다 하더라도 過言이 아니었었다. 그리하여 牛를 見하고 羊을 見지 못한 그는 故國에서 어렵게 生活하는 自己家族도 顧見할 暇隙이 無하였다. 곳 仔細히 말하면 우리 兄弟間에 渡臺한 者가 携帶金이 豊富한 이는 一人도 無하다. 넉넉하다고 하는 이라야 몇 圓의 餘錢이 잇슬 뿐이요 그러치 안으면 타고 온 人車費까지라도 支出한다. 이러케 困難을 當한 同胞를 爲하여 얼마만큼 自己의 衣食을 經濟하여 가면서 全力을 다하여 指導하며 衣食을 支配하고 商品을 供給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營經하는 鮮興社라는 蓼莊은 無衣無食한 同胞兄弟의 收容所라 하야도 過言이 아니었었다.”

의 사정과 조선 관계를 다룬 〈臺灣蕃族과 朝鮮〉을 3회 나누어 연재하였다.¹⁶⁾ 『동아일보』 편집자가 본고 제목 아래에 臺灣事件, 즉 霧社事件이 발발한 당시에 기고했던 것이나 지면 관계로 지금에야 게재했다고 말을 남겼다.

박운원은 〈臺灣蕃族과 朝鮮〉의 머리말에다 자신이 대만에 체류할 때 蕃族에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펴보았고, 또 본문에다 박지원 『熱河日記』에 보이는 許生傳과 許鎬의 대만 북부 개척설을 들어 蕃族과 조선이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서 霧社事件에 대해 직접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일제의 잔인한 탄압을 비판하고 대만 원주민의 자치를 은근히 지지하였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臺遊雜感〉은 대만 원주민의 역사, 문화 등 제반 모습을 소개하며 이들이 대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堅忍論(二)〉은 사람들이 곤궁에 처한 시기에 좌절하지 말고 강인하게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극복하는 날이 있다며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서 한국 잡지에 수록된 대만인의 문장을 들어본다. 대만 蔡培火가 『삼천리』 잡지에 〈臺灣의 自由運動〉을 기고하였다.¹⁷⁾ 『삼천리』는 1929년 金東煥이 창간한 대중잡지이다. 『삼천리』에 수록된 문장들의 흐름을 보면 1937년 이후에 점차 황국화 되어가는 현상이 보이지만, 초기에는 대만인 체배화의 〈臺灣의 自由運動〉을 실을 정도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였다.

체배화는 雲林 北港 출신의 정치가 겸 민족운동가이다. 〈臺灣의 自由運動〉은 일제 통치하 대만 자치권과 민족운동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1920년에 일본 제국 의회에다 대만의 자치권과 자치의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대만에도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있으니 이것을 살려줄 민정과 예산, 그리고 대만인이 선거로 의원을 뽑을 수 있는 대만통치법을 제정해주기를 바랐다.¹⁸⁾ 이것이

16) 〈臺灣蕃族과 朝鮮〉, 『東亞日報』, 1930년 12월 10일~12일자.

17) 蔡培火, 〈臺灣의 自由運動〉, 『삼천리』, 7호, 1930.7.

18) 〈臺灣의 自由運動〉: 「臺灣은 日本의 통치에 속한지 이에 30년 이 동안에 臺灣人의 경제적, 정치적 자유는 크게 XX되었다. 인내가 강한 평화한 臺灣人들도 곳곳내 참지 못하여 그 자유획득운동을 10년전부터 이르기었다. 그것은 즉 臺灣議會開設의 요구로 1920년 春에 請願의 형식으로써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그 요지는 臺灣고유의 문화와 특유한

바로 臺灣議會設置請願運動이다.

채배회는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新民會』에 가입하고 대만의 민족운동에 나섰다. 1920년에 『臺灣青年』 발행 및 편집을 맡았고, 또 『대만청년』에 대만 민족의식을 고조시킨 〈我島と我等〉을 실었다. 1923년에 蔣渭水 등과 함께 臺灣議會期成同盟會를 조직하고 대만 자치권을 요구하였으나, 치안경찰법에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투옥되었다. 투옥 기간에 〈臺灣自治歌〉를 지었다. 1927년에 臺灣民衆黨을 조직했고, 1930년에 臺灣地方自治聯盟을 조직했다.

1920년대에 한국 지식인 사이에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간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931년에 대만민중당이 일제 당국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하자, 한국 언론매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만민중당의 해산 소식을 전하였다. 『동아일보』는 福岡日日新聞 臺北電을 인용해 대만 유일의 정치결사단체인 대만민중당이 대북시 成建町에서 대표자 160명이 참석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세 방면의 정책을 토의하는 회의 도중에 대만 警務局으로부터 강제 해산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와 동시에 大阪 臺北電을 인용해 대만대중당 臺南支部 주간 聞右泉이 정당 해산이 부당하고, 반드시 재건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였다.¹⁹⁾

또 『삼천리』에서는 河野密의 〈解散된 臺灣民衆黨〉을 실었다. 이 문장에서 대만 민중당의 해산 과정과 제5차 全島大會의 강령 수정초안을 실은 후에 대만 민중당의 해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박했다. 특히 일제 당국이 대만 민중당의 강령에서 내세운 無産階級을 ‘反摠督政治’, ‘反官의民族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경과민이 아니냐고 비난했다.²⁰⁾

한국과 대만 간에 이루어진 학술 교류의 통로를 보면 두 지역의 인사들이 직

민정을 존중할 특별입법-과 또 臺灣예산이 의결권을 부여하는 臺灣주민으로부터 公選된 議員으로써 조직한 臺灣통치법의 제정을 요구함에 엮었다. 이것이 표면운동으로 된 其時機도 대단히 느꼈것고 또 그 운동의 내용과 방법도 극히 연약한 것으로 이런 것도 자유획득의 운동인가고 의심할 정도의 것이었다.」

19) 〈臺灣唯一政治結社 民衆黨 畢竟解散, 三方面政策을 滿場可決하고, 議事進行中 突然命令〉, 〈本島統治方針에 違反 臺灣警務局長談〉, 〈不當한 命令再興을 圖한다 臺南支部 幹部談〉. 『동아일보』 1931년 02월 22일자.

20) 河野密, 〈解散된 臺灣民衆黨〉, 『삼천리』 14호, 1931.04.

접 오갔던 사례가 많지만, 당시 동일 영역에 속한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더욱 많다. 특히 양 지역의 언론매체에 게재된 상대방 보도의 정보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일본 언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양 지역 간의 문학 교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춘향전』은 한국 대표 고전 중의 하나이다. 1906년(명치 39) 6월에 일본 高橋 仏焉은 『춘향전』을 일어로 각색한 『春香伝の梗概』를 博文館의 『太陽』 잡지에 발표했다.²¹⁾ 동년 8월에 臺灣日日新報 기자 李逸濤는 高橋 仏焉의 『春香伝の梗概』를 저본으로 漢文으로 각색한 『春香傳』을 『漢文臺灣日日新報』에 연재하였다.²²⁾ 『臺灣日日新報』는 1898년(명치 31)에 대만 총독부의 조정 아래 『臺灣新報』와 『臺南新報』를 통합해서 창간한 반관방 신문이다. 1901년(명치 34)에 대만 독자들을 위한 漢文 지면이 발간되었다.

이일도 『춘향전』은 한국 고전의 외연 확대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대만본 『춘향전』은 중화권 지역에서 가장 빨리 나왔고, 극중 내용이 현대극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각색되었다. 여기에는 각종 국내본 『춘향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조연 방자, 향단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남원 협객 李孟俠이 등장한다. 춘향이 이맹협을 도움을 받아 남원 감옥에서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히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절식하여 유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소생한다. 전개 형식에서도 중국 장회소설의 장절처럼 〈緒言〉, 〈驚艷〉, 〈定情〉, 〈拷艷〉, 〈繫獄〉(上), 〈繫獄〉(下), 〈團圓〉 등으로 나누었다.²³⁾

21) 高橋 仏焉, 『春香伝の梗概』, 『太陽』 12권 8호, 1906년(明治 39) 6월 1일, pp.128~132.

22) 李逸濤, 『春香傳』, 『漢文臺灣日日新報』 1906년(명치 39) 8월 17일, 18일, 19일, 21일, 22일자.

23) 朴現圭, 「1906年 臺灣 李逸濤 漢文本 『春香傳』 고찰」, 『洌上古典研究』, 37집, 洌上古典研究會, 2013.06, pp.81~111; 「臺灣 李逸濤 『春香傳』의 텍스트 출처와 특징; 日本 高橋 仏焉 『春香伝の梗概』와 비교를 위주로」, 『中國語文論叢』, 61집, 中國語文研究會, 2014.02, pp.369~390.

4. 국교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

1) 국교시기 전반부(1945~1970)

1945년 8월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했다. 10월에 중화민국 臺灣行政長官公署 陳儀가 대북 公會堂에서 일본의 대만총독 安藤利吉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음에 따라 공식적으로 대만 본섬과 펑호열도가 다시 중국의 품에 되돌아갔다. 1949년 12월에 민국정부가 대만으로 천도하는 소위 國府遷臺가 이루어졌다. 대만의 최근 역사는 국부천대를 기점으로 이전을 중화민국 대만성정부가 수권 받아 통치하는 시기, 이후를 중화민국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1945년 8월에 일본 패망과 동시에 광복을 찾았다. 하지만 곧이어 남북한 지역에 사상 체제가 서로 다른 미·소 군정이 들어섬에 따라 끝내 국토가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다. 1949년 1월에 대만의 중화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공식 국교를 맺었다. 이로부터 한국과 대만은 상호 국가 차원에서 공식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전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서는 냉전시기에 돌입했고, 동아시아에 소재한 한국과 대만이 냉전체제의 최일선 국가가 되었다. 냉전체제는 오히려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이끌어가는 발판이 되었다.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만은 본토 수복의 좋은 기회로 삼아 반공 기치를 내세우고 자유진영과 함께 후방에서 한국 지원에 나섰다. 한편 한국도 대만을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최전방 국가로 여기고 긴밀한 연대를 추진하였다.

국교시기 전반부에 한국과 대만의 학술 교류는 자유진영 속에서 나라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국가전략 아래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양 지역에서 불렀던 대만 異稱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만에서는 자국을 자유중국이라 불렀고, 한국에서도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인지 양쪽 진영에는 ‘자유’, ‘반공’과 ‘한국전쟁’이 명기된 책자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대만 측에는 唐昌晉의 『自由中國現況簡介』,²⁴⁾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婦女

工作會의 『自由中國女作家散文 短篇小說選集』²⁵⁾, 倪炎元·國防部丁保參謀次長室의 『北韓戰爭潛力調查』,²⁶⁾ 國防部史政處의 『韓戰輯要』,²⁷⁾ 國防部第二廳, 『入韓匪軍野戰工事圖解』,²⁸⁾ 王東原의 『從韓戰看國軍』²⁹⁾ 등이 있다. 한편 한국 측에는 중앙정보부의 『(基本情報)自由中國現況』,³⁰⁾ 中小企業振興公團의 『自由中國經濟와 機械工業現況』,³¹⁾ 國土統一院의 『自由中國의 對中共弘報政策』, 총무처의 『영예수여: 자유중국 청년반공구국단 집행장 송시선』³²⁾ 등이 있다.

한국과 대만 간의 우호 교류가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 속에 상대국 영수 인물에 대한 평전류 책자로 이어졌다. 물론 세계 각국마다 영수 인물에 대한 평전류 책자가 많이 나오지만, 국교시기 전반부에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다. 한국과 대만 영수 인물에 대한 평전류 책자는 겉으로 자국 내에 상대국 영수 인물을 소개하고 양국 사이의 우호 증진을 촉진하려는 국정 목적이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영수 인물이 자국 내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려는 정치적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교시기 후반부에도 계속 이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병희의 『中國과 蔣總統』³³⁾, 훈현광의 『蔣介石』³⁴⁾,李喜春역의 『蔣介石 回顧錄』,³⁵⁾ 金學圭 역의 『(風雲八〇年의)나의 아버지 蔣介石

24) 唐昌晉, 「自由中國現況簡介」, 改造出版社 1959.

25)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婦女工作會, 『自由中國女作家散文 短篇小說選集』,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婦女工作會, 1955.

26) 倪炎元·國防部丁保參謀次長室編, 『北韓戰爭潛力調查』, 國防部丁保參謀次長室, 臺北, 1959.

27) 國防部史政處編, 『韓戰輯要』, 國防部史政處, 臺北, 1952.

28) 國防部第二廳編印, 『入韓匪軍野戰工事圖解』, 國防部第二廳, 臺北, 1952.

29) 王東原, 『從韓戰看國軍』, 中華民國駐韓大使館, 韓國, 1952.

30) 중앙정보부, 『(基本情報)自由中國現況』, 중앙정보부, 1974.

31) 中小企業振興公團, 「自由中國經濟와 機械工業現況」, 中小企業振興公團 1982.

32) 총무처, 『영예수여: 자유중국 청년반공구국단 집행장 송시선』, 총무처, 1977.

33) 이병희, 『中國과 蔣總統』, 第一出版社 1968.

34) 훈현광, 『蔣介石』, 良書閣, 1969.

35) 蔣介石著, 李喜春역, 『蔣介石 回顧錄』, 新太陽社, 1974.

』, 36) 강명상의 『蔣經國總統傳』, 37) 張基槿 역의 『蔣總統의 德性和 思想』³⁸⁾ 등이 나왔고, 대만 측에서는 蘇德用의 『李承晩與中國』, 39) 李迺陽 역의 『李承晩傳』⁴⁰⁾, 林秋山の 『朴正熙總統論』⁴¹⁾ 등이 나왔다. 한국에서 장개석에 대한 책자가 많이 출간된 현상은 일제시기에 장개석이 대한한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준 인물이었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국교시기 전반부에 한국과 대만에서 발표된 문사철 분야를 훑어보면 각자 지역에서 상대국의 정황을 알아보는 기초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학 기본을 파악하기 위해 통사 위주의 강의용 저술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車相輓의 『中國文學史』, 42) 金敬琢의 『中國哲學思想史』, 43) 金庠基의 『中國古代史綱要』와 『東方文化交流史』, 44) 心鄉學人의 『現代中國革命史』, 45) 金俊燁의 『中國共產黨史』, 46) 蔡義順의 『東洋文化史』와 『東洋史概說』, 47) 曹佐鎬의 『東洋史大觀』, 48) 金圭完의 『東洋外交秘史』⁴⁹⁾ 등이 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주목해야 할 학술 연구소가 나왔다. 대만의 대학에 유학한 최초의 한국학자는 고려대 사학과 교원이었던 金俊燁이다. 김준엽은 1951년에 대만에 들어가 대만대학에 胡適의 강의를 들으며 현대 중국학 연구에 임하다가 1955년에 귀국하였다. 1957년 고려대에 아세아문제연구소를 세워 중국학,

36) 蔣經國저, 金學圭 譯, 『(風雲八〇年의)나의 아버지 蔣介石』, 徵文出版社, 1976.

37) 강명상, 『蔣經國總統傳』, 가리온, 1983.

38) 蔣經國저, 張基槿編譯, 『蔣總統의 德性和 思想』, 太宗出版社, 서울 1978.

39) 蘇德用編輯, 『李承晩與中國』, 中央文物供應社, 1954.

40) 大韓民國公報室輯, 李迺陽譯, 『李承晩傳』,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1956.

41) 林秋山, 『朴正熙總統論』, 幼獅文化事業公司, 1977.

42) 車相輓, 『中國文學史』, 東國文化社, 서울, 1958.

43) 金敬琢, 『中國哲學思想史』, 東國文化社, 서울, 1958.

44) 金庠基, 『中國古代史綱要』, 正音社, 서울, 1948; 『東方文化交流史』, 乙酉文化社, 서울, 1954.

45) 心鄉學人, 『現代中國革命史』, 前進社, 서울, 1946.

46) 金俊燁, 『中國共產黨史』, 思想界社, 서울, 1958.

47) 蔡義順, 『東洋文化史』, 民衆書館, 서울, 1948; 『東洋史概說』, 潮陽社, 서울, 1948.

48) 曹佐鎬, 『東洋史大觀』, 第一文化史, 서울, 1957.

49) 金圭完, 『東洋外交秘史』, 博英社, 서울, 1963.

특히 공산권을 다루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한국과 관계를 증시해서 지난 양국 간에 이루어졌던 우호 교류 상황과 향후 한국학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학술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대표적인 책자가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의 『中韓文化論集』(一, 二)이다. 이 책자에 참가한 저자는 민국정부와 함께 대만에 들어온 대륙 출신의 학자들이다.⁵⁰⁾ 훗날 中華學術院 韓國研究所가 『중한문화논집』을 이어받아 1968년에 제2집, 1975년에 제3집, 1978년에 제4집, 1985년에 제5집을 출간했다. 중화학술원 한국연구소는 1966년에 중국문화대학 산하 기관으로 창립되었다. 초대 원장은 중국문화대학을 창립하고 훗날 교육부장관을 지낸 역사학자 張其昀이다.

국교시기 전반부에 한국과 대만은 반공 중심의 외교 관계와 상대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술 교류를 이끌어갈 학과 개설이 필요했다. 한국 지역에서 개설된 중국 관련 학과를 꼽아보면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46),⁵¹⁾ 신홍대학 중어중문학과(1952),⁵²⁾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1954), 성균관대학교 중국문학과(1955)가 있다. 한편 대만 지역에서 개설된 한국 관련 학과를 꼽아보면 政治大學 東方語文學系 韓文組(1956),⁵³⁾ 中國文化大學 東方語文學系 韓

50)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中韓文化論集』(一, 二), 中華文化出版事業委員會, 臺北, 1955; 董作賓의 「檀紀和中國古史年代」, 李迺陽의 「中韓一家」와 「史前時代的朝鮮半島」, 石璋如의 「石器時代的朝鮮半島」, 韓道誠의 「中韓文化同源學」, 梁容若의 「從文化上論中韓關係」, 勞榘의 「中韓關係論略」, 彭國棟의 「中韓使節詩話」, 蘇瑩輝의 「中韓金石文字因緣」, 蔣復璁의 「中韓書緣」, 梁嘉彬의 「從韓國「明刀」出土看東漢以前的中韓交通」, 宋喆의 「韓國抗日名將李舜臣」, 嚴耕望의 「新羅留唐學(生與僧徒)」, 宋希尚의 「漢代的水利專家——樂浪人王景」, 宋希尚의 「漢代的水利專家——樂浪人王景」, 姚從吾의 「唐客卿高麗高仙芝遠征怛羅斯與中國造紙術的西入歐洲」, 李光濤의 「記李氏朝鮮實錄」, 吳湘湘의 「李朝實錄對於明清史研究之貢獻」, 楊予六의 「中韓關係大事年表」, 國立中央圖書館編의 「臺灣公藏高麗本聯合書目」, 「中國刊行韓國著述目錄」, 「臺灣公藏高麗本聯合目錄」 등이다.

51)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신은 1926년에 설치된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支那語學·支那文學전공이다.

52) 신홍대학은 1960년에 경희대학교로 개칭하였다.

53) 정치대학 東方語文學系 韓文組의 초기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張基權, 李元植 등이 강의했다. 2000년에 韓國語文學系로 승격되었다.

文組(1963)⁵⁴)가 있다. 반면 한국 지역의 중국 관련 학과가 개설된 시기가 대만 지역의 한국 관련 학과보다 조금 빠른 이유는 한국이 예로부터 중국 연구를 해왔고, 또한 중국을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던 점이 감안되었다.

2) 국교시기 후반부(1971~1991)

국교시기 후반부에 한국과 대만의 관계는 반공 우방이라는 기존 기조에다 상호 협력과 국제 경쟁이 더해지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착수된 경제개발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여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국이 취한 경제 구조가 비슷한 관계로 상호 협력과 국제 경쟁 관계가 심화되었고, 그 현상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모두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자국의 대처 방안을 알아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교시기 후반부에 국내의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71년에 중국은 국제 연합에 가입하고, 대만은 부득불 자진 탈퇴했다. 1972년에 미국과 중국은 평풍 외교를 통해 국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중국에서도 1975년 4인방의 몰락, 1981년 鄧小平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을 통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걸어나갔다.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형성되었던 냉전 체제가 본격적으로 해체되어갔다.

대만은 국제연합 탈퇴 이후 국제적으로 점차 고립되어가자 옛 우방국가와 민간 교류 형식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을 펼쳤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접촉하지 않고(不接觸), 담판하지 않으며(不談判), 타협하지 않는다는(不妥協) 소위 三不政策을 선언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했다. 그러나 1986년 中華航空의 납치사건, 1987년 대만 중국 간 紅十字會(적십자회) 접촉, 1989년 대만 언론의 중국 취재 허가로 삼불정책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후 그동안 적대시했던 중국과 경제 위주의 협력 관계를 맺고 새로운 兩岸 관계로 접어들어갔다.

또 대만은 국내에서 민주화 요구가 점차 강해지자 헌정 질서를 개편하는 과감

54) 중국문화대학 東方語文學系 韓文組의 초대 학과장은 李元植이고, 초기에 한국 유학생 許世旭, 許璧, 金忠烈, 金在先, 張公子, 權德周, 朴斗福, 成元慶 등이 강의했다. 1994년에 韓國語文學系로 승격되었다.

한 조치를 하였다. 1986년에 그동안 재야에 머물렀던 黨外運動이 공식 정당(民主進歩黨)으로 바뀌었고, 1987년에 국부천대 이래 계속 시행된 대만성계엄령이 해제되어 민주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88년 蔣經國이 사망했다. 1991년 李登輝는 대만 영토 내의 중화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국부천대 직전인 1948년부터 실시해온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정 체도를 시행했다.

수교시기 후반부에 한국도 대만과 엇비슷한 노선을 걸었다. 국제 외교는 탈냉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승하여 과감한 개방정책을 펼쳤다. 1988년 노태우는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개방을 표방한 7·7선언과 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이 결과는 1990년 소련과 국교 관계, 1991년 남북한 동시 국제연합 가입,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하고 대만과 국교 단절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국내 정치는 4·19 혁명 이래 국민이 즐기치게 요구한 민주화의 노력이 점진적으로 결실을 거두어가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국내 민주화 발전의 초석을 다졌고, 1987년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어 헌정구조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국정의 집권당이 민주 선거를 통해 계속 바뀌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교시기 후반기에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1970년대부터 한국 내에 중국 관련 학과가 급증한 현상부터 살펴본다.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72),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72), 청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74),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74), 영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1976)를 비롯하여 1990년대 초까지 전국에 40여 개 중국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한국에서 중국 관련 학과를 급증한 소이가 장차 중국과 수교를 염두에 두고 인재를 배양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까지는 중국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이 시기에 배출한 한국의 중국 관련 졸업생은 자연스럽게 대만으로 진출함에 따라서 역설적으로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대만에서는 수교시기 전반기에 설치한 한국 관련 학과 외에 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음으로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를 이끈 주요 학술기관을 들어본다. 한국에서 창립역사가 오래된 중국학 연구단체인 韓國中國學會가 있다. 1957년 1세대 중국학 학자인 金俊燁, 車柱環, 車相轅, 李相殷 등이 발족했고, 1962년에 정식 창립했다.⁵⁵⁾ 본 학회의 『중국학보』는 1963년에 제1집이 발간된 이래 거의 년 1집씩, 1998년부터는 년 2집, 2015년부터는 년 4집을 내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제102집이 나왔다. 단교 이전에는 駐韓國中華民國大使館, 단교 이후에는 駐韓國台北代表部가 후원하고 있다. 논술 분야는 중국 문사철이 위주이나 간혹 정치, 경제, 사회도 들어가 있다. 이 중에 대만 지역과 직접 관련된 논문은 드문데, 최초 논문은 차주환의 「서평: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11종」이고,⁵⁶⁾ 대만 학자의 논문은 葉乾坤의 「新羅詩歌文學與佛教的傳入」이다.⁵⁷⁾

대만에서 창립역사가 오래된 한국학 연구단체인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가 있다. 1980년 정치대학 韓文組와 歷史系, 중국문화대학 韓文組, 대만대학 歷史系, 중앙연구원 近代歷史研究所 등의 학자들이 주축이 되었다. 1983년에 中央研究院의 협조 아래 臺北에서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등지에 한중관계사 학자들을 모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中韓關係史國際研討會論文集: 九六〇—一九四九』(부제: 慶祝中華民國建國七十週年)를 출간했다. 이때 한국학자 全海宗⁵⁸⁾이 참석했다. 본 학회의 『韓國學報』는 1981년 제1기가 발간되었고, 2022년말 기준으로 제38기가 나왔다. 단교 이전에 『韓國學報』에 논문 수록된 한국 학자는 李慶善,⁵⁹⁾ 金都鍊,⁶⁰⁾ 宋龍準,⁶¹⁾ 李章佑,⁶²⁾ 金周淳,⁶³⁾ 李炳漢⁶⁴⁾ 등이

55) 1962년에 창립한 한국중국학회는 본 논고의 시대 구분상 국교시기 전반부에 속하지만, 1980년에 창립한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교시기 후반부로 옮겼다.

56) 車柱環, 「서평: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11종」, 『중국학보』, 2집, 1964.

57) 葉乾坤, 「新羅詩歌文學與佛教的傳入」, 『중국학보』, 2집, 1964.

58) 全海宗, 「韓中學術交流之一端」, 『中韓關係史國際研討會論文集: 九六〇—一九四九』,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臺北, 1983.

59) 李慶善, 「韓國古小說所表現之對外意識」, 『韓國學報』, 2期, 1979.

60) 金都鍊, 「燕巖朴趾源의文學論與作風」, 『韓國學報』, 5期, 1985.

61) 宋龍準, 「韓國中文研究現況」, 『韓國學報』, 5期, 1985.

62) 李章佑, 「『老稼齋燕行錄』小考」, 『韓國學報』, 7期, 1988.

있다.

한국·대만 양국 간 전통 우의를 바탕으로 인문학 교류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한 한국의 韓中教育基金會와 대만의 中韓文化基金會가 있다. 한중교육기금회는 1976년 청주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기금회이며, 초대 이사장은 총장 金潤培이다. 中韓文化基金會는 1977년 대만 교육부 주도 아래 발족한 기금회이고, 초대 董事長은 蔡鴻文이다. 두 기금회는 우호 강연회와 문화 행사, 책자 출판 지원,⁶⁵⁾ 장학금 등 사업을 펼쳤고, 1979년 대북 淡江大學에서 제1차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양 국가의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공동 학술회의를 이끌어갔다. 2018년에 제38차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두 기금회 주최의 국제학술회의에 주도한 인물 가운데 中韓文化基金會 董事長을 역임한 林秋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추산은 대만 雲林 출신으로 대만에서의 한국학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노력을 펼친 학자이다.⁶⁶⁾

한국과 대만의 학술 교류에 나선 기관 가운데 대만 언론기관이 후원한 국제학술회의가 있다. 1981년 대만 聯合報는 文化基金會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國學文獻館을 두었다.⁶⁷⁾ 초대 관장은 清史 연구의 거두인 대만대학 교수 陳捷先이다. 陳捷先은 국학문헌관의 주요 목표인 해외 漢籍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기 위해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를 주관했다.⁶⁸⁾ 1986년 제1회 국제회의를

63) 金周淳, 「陶淵明對韓國詩人之影響」, 『韓國學報』, 7期, 1988; 「高麗漢詩中有關陶淵明之用事考」, 『韓國學報』, 8期, 1989.

64) 李炳漢, 「朝鮮文人歌詞中有關中國學術文化成分」, 『韓國學報』, 8期, 1989.

65) 韓中教育基金會와 대만의 中韓文化基金會가 지원한 대표적인 우호 책자는 張基謹 역의 『蔣總統의 德性和 思想』, 林秋山의 『朴正熙總統論』 등이 있다.

66) 林秋山은 대만 雲林 麥寮鄉 출신이다. 정치대학 新聞系 학사를 나왔다. 1957년 경희대학교 총장 趙永植과 만난 것을 계기로 경희대에 유학하여 1963년에 석사(「近世朝鮮과 袁世凱와의 關係에 대한 연구」), 1975년에 박사(大韓民國臨時政府에 對한 中華民國의 支援政策에 關한 研究)를 획득했다. 이후 중국문화대학 한국학계 주임, 台北市留韓同學聯誼會 會長, 교육부 문화교 처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과 대만의 학술 교류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

67) 「創立緣起——代發刊詞」, 『國學文獻館館訊』 1期, 1982.6; 陳龍貴, 「追思陳捷先教授與聯合報系國學文獻館」, 『明史研究』, 32期, 2019.6, p.2에서 재인용.

68) ‘域外’의 본의는 일정한 범위 바깥 지역을 지칭한다. ‘中國域外漢籍’은 중국 이외의 漢籍

일본 東京에서 시작하여 이후 臺北, 서울, 대구, 仙台 등지에서 번갈아 개최했고, 1999년 대북에서 제10회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대만 국학문헌관은 매년 국제회의의 논문을 모아 『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論文集』이라는 책명으로 출간했다. 한국 측의 주요 협력 학술기관은 대구 소재 慕山學術財團과 그 산하 慕山學術研究所이다.⁶⁹⁾ 한국 학자로는 洪瑀欽, 金周漢, 金榮淑, 朴現圭 등이고, 주로 한국·중국에서 출간된 漢籍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한국과 대만의 여러 대학, 연구소, 학술 연구단체 등도 각자 상대국 학자, 학술기관과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했다.

국교시기 후반부에 발표된 학술 논저물은 국교시기 전반부부터 활동한 학자인 외에 학문 후속세대가 속속들이 등장함에 따라 양적으로 대폭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와 「대만 國家圖書館 資源查詢」 사이트에서 상대국 명칭을 집어넣고 검색해보면 이내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대만 지역의 한국학 연구 논저물은 黃寬重이 여러 차례 편집한 중한관계증문목록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⁷⁰⁾

국교시기 후반부의 논저물은 국교시기 전반부에 반공, 기초학문 분야에 치우쳐졌던 데에서 벗어나 학문 전 분야로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국과 대만 간에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경제, 산업 분야에 관한 문장이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韓國과 臺灣의 企業經營行態 比較 分析』,⁷¹⁾ 『韓·臺灣의 主要産業實態와 育成對策 比較』,⁷²⁾ 『韓國·臺灣의 主要通商政策 比較: 對美 通商摩擦을 中心으로』,⁷³⁾

을 지칭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중국 학술이 중심이고 해외 국가는 바깥이라는 주종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詞學의 거두 夏承濤의 『域外詞選』이나 중국 南京大學 域外漢籍研究所의 『域外漢籍研究集刊』도 이와 비슷하다.

69) 모산학술재단은 1988년에 한국 시가 연구의 거두인 沈載完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학술재단이다. 모산학술연구소는 2010년에 東亞人文學會로 개칭했다.

70) 黃寬重, 「韓國研究著作目錄」, 『韓國學報』 4기, 1984; 黃寬重,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 漢學研究資料及服務中心, 臺北, 1987; 黃寬重編輯, 張斐怡助理編輯,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增訂本)』, 中央研究院東北亞區域研究, 臺北, 2000.

71) 韓國貿易協會, 『韓國과 臺灣의 企業經營行態 比較 分析』, 韓國貿易協會, 서울, 1980.

72) 韓國貿易協會, 『韓·臺灣의 主要産業實態와 育成對策比較』, 韓國貿易協會, 서울,

亞細亞經濟研究所의 『韓國과 臺灣의 經濟開發比較』,⁷⁴⁾ 産業研究院의 『臺灣과 韓國의 컴퓨터·半導體産業 比較分析』⁷⁵⁾, 함근식의 『韓國과 臺灣의 産業政策 比較研究』,⁷⁶⁾ 윤상철의 『韓國과 臺灣의 國際競爭力 比較』,⁷⁷⁾ 차병각의 『대만 한국 경제비교』⁷⁸⁾ 등이 있다.

또 대만에서는 行政院 國際經濟合作發展委員會 公共關係處의 『擴展中的 韓國輸出貿易』,⁷⁹⁾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 經濟研究處의 『韓國主要工業發展現況與展望』,⁸⁰⁾ 『韓國整廠設備輸出之現況』,⁸¹⁾ 『韓國重化工業發展概況』,⁸²⁾ 張祖璿의 『考察日韓國土綜合開發計畫報告』,⁸³⁾ 國家建設委員會의 『中韓拓展對外貿易的比較研究』,⁸⁴⁾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都市及住宅發展處의 『韓國第二次國土綜合開發計畫』,⁸⁵⁾ 韓國第二次國土綜合開發計畫修政計畫(1987-1991),⁸⁶⁾ 財團法人資訊工業策進會의 『韓國個人電腦産業』,⁸⁷⁾ 張慶堂

1982.

- 73) 韓國貿易協會, 『韓國·臺灣의 主要通商政策 比較: 對美 通商摩擦을 中心으로』, 韓國貿易協會, 서울, 1988.
- 74) 亞細亞經濟研究所, 『韓國과 臺灣의 經濟開發比較』, 亞細亞經濟研究所, 서울, 1976.
- 75) 産業研究院, 『臺灣과 韓國의 컴퓨터·半導體産業 比較分析』, 産業研究院, 서울, 1987.
- 76) 함근식, 『韓國과 臺灣의 産業政策 比較研究』, 大韓商工會議所 韓國經濟研究센터, 서울, 1983.
- 77) 윤상철, 『韓國과 臺灣의 國際競爭力 比較』, 産業研究院, 서울, 1990.
- 78) 차병각, 『대만 한국 경제비교』, 다독출판사, 서울, 1983.
- 79) 行政院國際經濟合作發展委員會公共關係處編, 『擴展中的 韓國輸出貿易』, 行政院國際經濟合作發展委員會公共關係處, 臺北, 1970.
- 80)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編, 『韓國主要工業發展現況與展望』,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 臺北, 1979.
- 81)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編, 『韓國整廠設備輸出之現況』,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 臺北, 1979.
- 82)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編, 『韓國重化工業發展概況』,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經濟研究處, 臺北, 1985.
- 83) 張祖璿, 『考察日韓國土綜合開發計畫報告』, 行政院建設會, 臺北, 1970.
- 84) 國家建設委員會編, 『中韓拓展對外貿易的比較研究』, 國家建設研究委員會, 臺北, 1978.
- 85)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都市及住宅發展處譯, 『韓國第二次國土綜合開發計畫』,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都市及住宅發展處, 臺北, 1983.

등의 『韓國金融制度』,⁸⁸⁾ 黃欽龍의 『韓國資訊工業發展現況分析』 등이 있다.⁸⁹⁾

국교시기 후반부 문사철 분야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중국학을 연구하는 기관·학자들이 대폭 증가했고, 또한 대만 연구기관·학자와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문사철 업적물이 나왔다. 이들 문사철 업적물은 절대다수가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대만 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만 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문사철 업적물을 들어보면 책자로 全在東의 『臺灣：全在東 紀行詩集』 등,⁹⁰⁾ 영상물로 KBS영상사업단의 『대만의 고궁박물관』⁹¹⁾ 등, 논문으로 柳晟侯의 「六十年代 臺灣의 新詩와 小說 概觀」,⁹²⁾ 김종현의 「대만의 향토문학 성격」,⁹³⁾ 李明의 「臺灣과 中共(臺海兩岸)의 문예발전」,⁹⁴⁾ 朴現圭의 「대만 공공학술기관에 소장한 한국고서적 분석」⁹⁵⁾ 등이 있다.

86)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都市及住宅發展處譯, 『韓國第二次國土綜合開發計畫修政計畫(1987-1991)』,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都市及住宅發展處, 臺北, 1989.

87) 財團法人資訊工業策進會編, 『韓國個人電腦產業』, 財團法人資訊工業策進會, 臺北, 1986.

88) 張慶堂, 沈英明, 許欽洲著, 『韓國金融制度』, 中華民國加強儲委推行委員會金融研究小組, 臺北, 1984.

89) 黃欽龍, 『韓國資訊工業發展現況分析』, 經濟婦工業局委託財團法人資訊工業策進會, 臺北, 1987.

90) 全在東, 『臺灣：全在東 紀行 詩集』, 聖書文學社, 서울, 1991.

91) KBS영상사업단, 『대만의 고궁박물관』, KBS영상사업단, 서울, 1988.

92) 柳晟侯, 「六十年代 臺灣의 新詩와 小說 概觀」, 『中國研究』, 9집,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研究센터 中國研究所, 1985.

93) 김종현, 「대만의 향토문학 성격」, 『중국학』, 4집, 대한중국학회 1988.

94) 李明, 「臺灣과 中共(臺海兩岸)의 문예발전」, 『東亞研究』, 19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95) 朴現圭, 「臺灣 國立中央圖書館에 所藏된 韓國本古書에 대한 分析」, 『圖書館』, 44권 1호, 國立中央圖書館, 1989; 「中華民國 故宮博物院에 所藏된 韓國古書籍에 대한 分析」, 『中國語文學』, 18집, 嶺南中國語文學會, 1990; 「臺灣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傅斯年圖書館에 所藏된 韓國古書籍에 대한 分析」, 『圖書館』, 46권 1호, 國立中央圖書館, 1991.

한편 대만에서는 크게 민국정부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넘어온 학자진과 대만에서 배출된 학문 후속 세대 등 두 축으로 나누어 문사철 한국학 연구를 이끌어갔다. 민국정부와 함께 중국대륙에서 넘어온 학자진은 주로 역사학 분야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李光濤의 『朝鮮「壬辰倭禍」研究』,⁹⁶⁾ 胡春惠의 『韓國獨立運動在中國』,⁹⁷⁾ 劉家駒의 『清朝初期的中韓關係』,⁹⁸⁾ 張存武의 『清代中韓關係論文集』,⁹⁹⁾ 胡春惠·趙中孚·張存武의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의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¹⁰⁰⁾ 등이 있다.

대만에서 배출된 학문 후속세대는 거의 한국 유학을 다녀왔다. 이들은 대만의 대학 강단에서 필요한 현대문학과 어학분야를 많이 발표했다. 이들의 업적물은 1992년 한국과 단교한 이후에 대만의 한국학 연구와 대만 사회의 한국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陳伯豪의 『韓國新詩의 流變』,¹⁰¹⁾ 葉乾坤의 『韓國現代短篇小說選』,¹⁰²⁾ 戴郁軌의 『韓華大辭典』,¹⁰³⁾ 楊人從의 『韓語讀本』,¹⁰⁴⁾ 高崇雲의 『韓國與韓國人』¹⁰⁵⁾ 등이 있다.

이밖에 한국에서 유학 또는 강의에 나갔던 대만 학자, 대만에서 유학 또는 강의에 나갔던 한국 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물이 소수이지만 양국의 문사철 연구에 일조하였다. 예를 들면 金榮華의 『中韓交通事論叢』,¹⁰⁶⁾ 林秋山 역의 『韓國史新論』¹⁰⁷⁾, 許世旭의 『韓中詩話淵源考』,¹⁰⁸⁾ 金渭顯의 『高麗史中中韓關係史

96)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臺北, 1972.

97) 胡春惠, 『韓國獨立運動在中國』, 中華民國史料研究中心, 臺北, 1976.

98) 劉家駒, 『清朝初期的中韓關係』, 文史哲出版社, 臺北, 1986.

99)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商務印書館, 臺北, 1987.

100)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編, 『國民政府與韓國獨立運動史料』, 中央研究院, 臺北, 1988.

101) 陳伯豪의 『韓國新詩의 流變』, 林白, 臺北, 1974.

102) 葉乾坤選譯, 『韓國現代短篇小說選』, 商務印書館, 臺北, 1973.

103) 戴郁軌主編, 『韓華大辭典』, 名山出版社, 臺北, 1983.

104) 楊人從編著, 『韓語讀本』, 明文, 臺北, 1991.

105) 高崇雲, 『韓國與韓國人』, 問學, 臺北, 1979.

106) 金榮華, 『中韓交通事論叢』, 福記文化圖書公司, 臺北, 1985.

料彙編』,¹⁰⁹⁾ 朴現圭의 『臺灣公藏韓國古書籍聯合書目』¹¹⁰⁾ 등이 있다.

5. 결론

오늘날 대만 명칭에 담겨있는 개념은 통치 국가가 각각 달랐던 역사나 거주민이 다양한 구성원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중국대륙의 동쪽, 즉 대만해협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구성원은 史前時代に 정착한 여러 南島民族(대만 원주민), 명칭 시대에 중국대륙에서 들어온 본토인(주로 민남인과 객가인), 국부천대 때 민국정부와 들어온 외성인 등으로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대만 지역은 17세기 전반에 네덜란드와 스페인, 17세기 중반에 정씨 왕국,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청나라, 19세기 말부터 일본이 각각 차지하다가 20세기 중반에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은 중화민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적 영토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신들의 신성한 고유 영토였다고 주권 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 관계는 대만 명칭에 담겨있는 개념처럼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때로는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개념, 때로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 개념, 때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혼재된 교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양국 또는 양 지역 간의 학술 교류를 논할 때 이러한 전제 조건을 충실히 반영해서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전통시기 조선과 대만 간의 교류 양상은 주로 사절 활동과 해상 표류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선 조정은 한때 정씨왕국이 대만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사절 파견 없이 정보 수집 및 대책 논의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 조선 지식층은 대만 정보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흥미로운 눈빛으로 대만의 지리, 풍속,

107) 李基白著, 林秋山譯, 『韓國史新論』, 編譯官, 臺北, 1985.

108) 許世旭, 『韓中詩話淵源考』, 黎明文化事業公司, 臺北, 1979.

109) 金渭顯,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 食貨出版社, 臺北, 1983.

110) 朴現圭, 『臺灣公藏韓國古書籍聯合書目』, 文史哲出版社, 臺北, 1991.

대만 원주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일제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 양상은 일제 경내에 속해있는 영역인 관계로 상호 방문과 학술 교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교류 방향은 상대국과 직접 통하는 통로와 일본을 경유하는 우회 통로가 모두 열려 있었다. 학술 교류는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도 간간히 자국 동포의 현황과 자선 활동, 대만 원주민의 반일 투쟁, 자국민 자치와 민족운동 등을 보도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다.

국교시기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 양상은 자유 민주 진영에 속해있는 관계로 상호 방문과 학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초반부에는 주로 체제 유지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반공과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학술 교류의 기반을 닦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상호 협력과 경쟁 관계가 가미되면서 교류 분야가 다양해졌다. 학술 교류도 예전의 기초 단계에서 벗어나 상대국의 제반 사정까지 낱낱이 파악하고자 하는 심화 초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번 한중인문학회에서 정한 논술 범주에서 벗어났지만, 1992년 단교 이후 한국과 대만 간의 학술 교류에 대해 개괄적으로 적어본다. 단교 직후에 한때 각종 교류가 약간 주춤거리는 현상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까운 이웃에 소재한 지리적 위치와 민주 자유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관계로 정상적으로 회복하였다.

오늘날 한국과 대만 간의 교류 양상을 보면 외교적으로는 대만과 대륙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공식 국교는 없지만, 양 지역에 각각 代表部를 설치하여 사실상 준외교급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는 모두 상대방을 협력과 교류 파트너로 인정하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 지역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서로 떼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또한 서로 성숙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이에 편승하여 학술 교류도 단교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더욱 심도 있고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 [燁燁之樂室；癸卯雨水後一日]

◆ 참고문헌

1. 저서

黃寬重編輯, 張斐怡助理編輯,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增訂本)』, 中央研究院東北亞區域研究, 臺北, 2000.

2. 논문

黃寬重·張斐怡, 「海峽兩岸中韓關係史研究的回顧與展望」, 『韓國學報』, 16집,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2000, pp.3-24.

金潤泰, 「由韓國學者看台灣的韓國研究」, 『亞太研究論壇』, 30期, 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2005, pp.234-244.

宋賢鎬, 「중국 대만 지역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1, pp.27-38.

曾天富, 「대만의 한국학 연구 상황과 미래 전망」, 『한국학연구』, 6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pp.333-355.

李荷娜, 「2010年以後臺灣에서의韓國學研究傾向과方向;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의韓國學報수록韓國語文學 및韓國文化關聯論文을中心으로」, 『東아시아古代學』, 57집, 東아시아古代學會, 2020, pp.39-79.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8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7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7일

Abstract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aiwa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ark, Hyunkyu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various aspects of acade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aiwa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of Korea with China in 1992. The concept of exchange between Korea and Taiwan has been applied differently over time, with shifting perspectives that encompass regional and national concepts, as well as hybrid notions that intertwine both. Chronologically, the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raditional, Japanese colonial, and diplomatic periods, which themselves are subdivided into early and late phases. During the traditional period, academic exchanges were mostly limited to the acquisition of basic information through envoy activities and maritime drift. In the colonial period, the exchanges primarily occurred through media outlets, where both countries sought to understand their respective national identities.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diplomatic period, the exchanges were largely confined to the foundational phase of getting to know each other within a democratic sphere, emphasizing themes of freedom and anti-communism. Entering the late phase of the diplomatic period, the relationship evolved to include mutual cooperation and competition, marking a more nuanced and in-depth phase of understanding each other. Current academic exchanges are being conducted more vigorously and in greater depth, enabled by the global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open-mindedness of citizens from both countries.

Keyword Korea, Taiwan, China,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Academic exchange

중국어 색채어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번역 결과 비교분석

- '黑+중첩접미사'류 형용사의 중한번역을 중심으로 -

이서이* · 한용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하는 색채어 형용사 예문의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기계 번역의 결괏값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중국어의 경우 국내와 국외의 대화형 AI 언어모델 중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네이버사의 'Hyper Clova X'이다. 다음으로, '黑+중첩접미사'류 형용사를 포함한 구문의 기존 신경망 기계번역 프로그램 'Papago'와 대화형 AI 언어모델 'Hyper Clova X'에서 번역 결과 대체로 Clova X의 번역 품질이 더 높았다. 끝으로, 중한번역에서 대화형 AI 언어모델 활용 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한국어 조사, 어미 등에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한 문장이 축약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출력값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중국어 결합구조를 활용한 테스트를 통하여 여러 상황에 AI 기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 기계 번역, AI 번역, Papago, Hyper Clova X

<목차>

- 서론
-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번역 결과 비교분석
- 결론

* 제1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중국어학전공 박사수료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하는 색채어 형용사 예문의 인공지능 경망 기계 번역 서비스와 대화생성형 AI 기계 번역 서비스의 번역 결과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¹⁾ 2022년 11월 ‘OPEN AI’가 출시한 ‘Chat GPT’는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²⁾ Chat GPT가 LLM(Large Language Model) GPT-3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히 언어학계 관심이 뜨거웠다. AI 기술이 여러 산업에 접목되며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어학 분야에서 또한 기계 번역의 관점에서 Chat GPT와 같은 대화형 생성 AI 서비스는 구글 번역, 네이버 Papago 등의 기존 번역 플랫폼 출현 이후와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사용자들은 기존의 기계 번역 플랫폼보다 자연스러운 결괏값을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문서, 이미지, 음성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Chat GPT가 기존의 기술 번역 플랫폼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경망 기계 번역 플랫폼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화형 AI 언어모델의 중한번역 수준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 결괏값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어 기계 번역 선행연구 가운데 챗 GPT를 활용한 연구에는 이아형(2023)의³⁾ 챗 GPT를 활용한 의료, IT, 우주 항공 등 6개 과학기술 분야의 텍스트 번역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는 연구 결과로 오류 분석 유형 및 윤문 가이드를 제공하여 번역 수업에서 AI 기계번역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챗 GPT의 중한번역 오류에는 원문 직역, 단어, 문장 분석, 시제, 문장 증감 오류 등이 나타났다.⁴⁾ 이에 대한 윤문 가이드로는 프리 에디팅, 포스트 에

-
- 1) 본 연구는 저자가 2022년도에 발표한 「중국어 색채어 ‘黑’ 신경망 기계번역 의미 오류 분석-‘黑’류 형용사가 쓰인 문장의 중한번역을 중심으로-」의 후속 연구임을 밝힌다.
 - 2) 이후 2023년 3월 GPT-4가 출시되고 최근 유료 버전인 ‘GPTs’에서는 사용자가 개인 맞춤형 Chat GPT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 3) 이아형, 「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지』, 85, 중국어문학회, 85, 2023, pp.153-176.

디팅, 최종 윤문 3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과정에서 전문 용어 파악, 용어 통일, 문맥에 따라 다듬기 등의 과정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행연구가 과학기술 분야의 텍스트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색채어라는 기존 연구의 텍스트보다 함축적인 표현을 내포한 중한번역의 결핍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미정(2023)⁵⁾은 구글 번역과 챗 GPT를 활용한 한일 번역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기계 번역의 오류가 비교적 많은 관용구와 속담이 포함된 단문, 길이별 구어체 텍스트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역 플랫폼을 비교·대조한 결과 선행연구는 챗 GPT가 문장의 맥락에 기반한 번역, 원하는 답변을 얻을 때까지 재생성이 가능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텍스트에 대하여 완성형 번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글 번역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번역에 가까워졌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일 번역 관점과 달리 중한번역의 측면에서 이전 신경망 기계번역과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의 번역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주요 연구 재료라 볼 수 있는 색채어는 시각적으로 색깔을 표현하는 의미 이외에도 각 색채가 가진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를 지니므로 어학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이서아·한용수(2022)는⁶⁾ 중국어 ‘黑’류 형용사가 포함된 문장을 네이버의 신경망 기계번역 프로그램 ‘Papago’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첫째, ‘黑 +중첩접미사’의 형식에서 접미사가 가진 단어의 의미가 세밀하게 번역되지 않으며, 둘째, 사람의 심리, 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黑’류 형용사의 번역에 오류가 잦고, 셋째, 문장의 길이보다 앞뒤 정보의 유무가 완성도 있는 번역에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던 ‘黑

4) 무오류 문장의 비율은 30%였다.

5) 박미정, 「생성형 AI와 기계번역-챗GPT 번역을 통한 한일통역교육 고찰」, 『통번역학연구』, 27(3),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3, pp.27-56.

6) 이서아·한용수, 「중국어 색채어 ‘黑’ 신경망 기계번역 의미 오류 분석-‘黑’류 형용사가 쓰인 문장의 중한번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6,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2022, pp.69-99.

+중첩접미사' 형태의 형용사를 포함한 문장을 중심으로 'Papago'를 개발한 네이버의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Hyper CLOVA X'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 기존 번역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외 플랫폼인 'Chat GPT-3'와 중한번역 결괏값을 함께 비교·대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류 형용사를 포함한 구문의 AI 번역 오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의 경우 국내 (네이버 'Hyper Clova X')와 국외(오픈 AI의 'Chat GPT')의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중 어떤 것이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가?

둘째, '黑+중첩접미사'류 형용사를 포함한 구문의 기존 인공지능망 기계번역 프로그램(네이버 'Papago') 결과와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네이버 'Hyper Clova X')에서 번역 결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중한번역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활용 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연구대상은 《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⁷⁾과 《汉语形容词用法词典》⁸⁾에서 발췌한 '黑+중첩접미사' 형용사 표현 '黑沉沉, 黑洞洞, 黑乎乎(糊糊), 黑溜溜, 黑茫茫, 黑蒙蒙, 黑漆漆, 黑黢黢, 黑森森, 黑魑魑, 黑压压, 黑油油, 黑黝黝' 13개와 각 형용사의 예문이다. 다음 2장에서는 첫째, 연구대상으로 발췌한 13개의 '黑+중첩접미사'의 종류와 의미를 알아본다. 둘째, 국내외의 번역 틀을 사용하여 선정 한 예문의 출력값을 비교 대조한 후 더 높은 품질의 한중번역 결괏값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정한다. ⁹⁾ 셋째, 이서이·한용수(2022)의 선

7) 李行健, 《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4. 본 사전은 중국 어학 교육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전으로 중국 어학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现代汉语规范词典-第七版》과 비교했을 때 색채어 '黑'류 형용사와 각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해당 사전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8) 郑怀德, 《汉语形容词用法词典》, 北京:商务印书馆, 2003.

9) 이때 사용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에는 국내 네이버의 'Hyper Clova X'와 국외 오픈 AI의

행연구에서 기존 신경망 기계번역을 활용한 중한번역 결과와 앞서 선정한 대화형 AI 언어모델 플랫폼의 중한번역 결과를 비교·대조한다. 끝으로 3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2.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번역 결과 비교분석

1) ‘黑+중첩접미사’의 종류와 의미

‘黑’는 ①석탄과 같은 흰색과 대비되는 색깔, ②빛이 어두움, ③시비(是非)나 선악(善惡), ④나쁜, 악독한, ⑤은밀한, 불법적인, ⑥반동(反動)의 6가지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黑+중첩접미사’의 특징으로는 먼저, 대부분 ①번 또는 ②번의 의미로 쓰이며 黑이 가진 ③~⑥번의 비유적 의미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접미사에 어떤 글자가 오는지에 따라 의미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앞의 6가지 뜻과 아예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黑压压는 사람이나 물건이 떼를 지어 새까만 모양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 이것은 앞서 黑이 가진 6가지 의미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없다. 끝으로, ‘黑+중첩접미사’와 같은 ABB 형식은 A위치에 자리한 형용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다음 <표 1>은 색채어 ‘黑+중첩접미사’의 종류와 사전적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黑+중첩접미사’의 종류와 사전적 의미

번호	‘黑+중첩접미사’	의미	
1	黑沉沉	1. 形容十分黑暗或昏暗	(주로 하늘빛이) 어둡다. 컴컴하다.
2	黑洞洞	1. 形容没有光线或光线很暗	(일정한 공간이) 컴컴하다. 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칠흑 같다.
3	黑乎乎(糊糊)	1. 形容颜色发黑或光线昏暗	(색상이) 시커멓다. 새까맣다.

‘Chat Gpt 3.5’를 사용한다. 중국의 대화형 AI 서비스로는 ‘바이두(百度)의 文心一言’이 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은 중국어와 영어만 지원하고 있어 본연구에서 한중번역 품질 결과를 논의하기 어렵다.

		2. 形容成堆或成片密集的人或物模糊不清	어두 킴킴하다. 어둡다. 캄캄하다. 새까맣다. 거무스름하다. 우중충하다. 사람이나 물건이 많이 모여 있어 멀리서 보면 모호하여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4	黑溜溜	1. 形容乌黑发亮的样子	까맣고 빛이 나는 모양.
5	黑茫茫	1. 形容一片漆黑, 无边无际	캄캄하고 망망한 모양. 온통 캄캄한 모양.
6	黑蒙蒙	1. 形容光线昏暗, 模糊不清	어두킴킴한 모양.
7	黑漆漆	1. 形容很黑很暗	칠흑같이 어두운 모양. 매우 캄캄한 모양.
8	黑黢黢	1. 形容很黑	새까만 모양. 캄캄한 모양.
9	黑森森	1. 形容黑暗阴森 2. 形容黑而浓密的样子	음침한 모양. 어둡고 음산한 모양. 까맣고 뻑뻑한 모양.
10	黑魇魇	1. 形容光线很暗	캄캄하다. 껌껌하다. 시꺼맣다. 새까맣다.
11	黑压压	1. 形容人或物多而密集成片的样子	(사람이나 물건 등이 많이 밀집하여) 새까만 모양.
12	黑油油	1. 黑得发亮	꺼머번지르하다.
13	黑黝黝	1. 光线发暗, 看不清楚	꺼머번지르하다. 거무칙칙하다. 어두킴킴하다. 검실검실하다.

이상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黑+중첩접미사’의 종류, 특징,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표현들이 쓰인 각각의 예문들이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국내외 대화형 AI 플랫폼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출력값을 살펴보고자 한다.

2) ‘黑+중첩접미사’의 국내외 대화형 AI 번역 품질 비교

본 절에서는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예문을 입력문으로 했을 때, 중국어의 경우 국내 네이버 ‘Hyper Clova X’(이하 ‘클로바’)와 국외 오픈 AI의 ‘Chat GPT’(이하 ‘챗 지피티’)의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중 어떤 것이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챗 지피티와 클로바는 모두 고품질 재

생성(rephrase) 기능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챗 지피티는 최대 2번, 클로바는 3번 가능하다. 대화형 AI 서비스는 만약 첫 번째로 제안된 답이 사용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 번 다른 번역을 제시해준다는 게 기존 인공지능망 기계 번역과의 차이이다. 아래 <표 2>는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예문을 입력문으로 했을 때 각각의 플랫폼에서 번역되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예문의 대화형 AI 번역 출력문¹⁰⁾

번호	‘黑+중첩접미사’ 예문	Chat GPT 3.5 출력문	Hyper Clova X 출력문
1	天空忽然变得黑沉沉的。	하늘이 갑자기 어둡게 변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2	隧道里头黑洞洞的, 伸手不见五指。	터널 안은 어둡고 손을 내밀면 손가락 다섯 개도 보이지 않는다.	터널 안에서 깜깜해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3	黑乎乎的一大片, 分不清谁是谁。	검게 어두운 큰 영역, 누가 누구지 구분하기 어렵다./검어 두렁한 큰 영역,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다.	까만 큰 덩어리가 있어서 누가 누구지 구분할 수 없다.
4	转动着一双黑溜溜的大眼睛。	검정빛으로 빛나는 큰 눈알을 돌리고 있습니다./검은 빛나는 큰 눈알을 돌리며.	까맣고 반짝거리는 큰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5	冲入黑茫茫的太空。	검은 넓디넓은 우주로 돌진하다./ 흑범벽한 우주로 돌진하다.	까만 우주로 돌진하다. /깜깜한 우주로 돌진하다.
6	前边黑蒙蒙的什么也看不清。	앞쪽은 흑범벽하게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앞쪽에는 흐릿하게 뭘 보기 힘들게 검게 어두웠다.	앞이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7	外面黑漆漆的, 伸手不见五指。	밖은 깜깜해서 손을 내밀면 손가락 다섯 개도 보이지 않는다./밖은 캄캄하게 어둡고, 손을 내밀면 손가락 다섯 개도 보이지 않는다.	밖에 새까매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8	地道里黑黢黢的。	터널 속은 까마귀 머리만큼	땅굴 안에서 새까맣다./ 땅굴 안

10) 표에서 Chat GPT와 Hyper Clova X의 재생성 문장들은 ‘/’로 구분하였다. 같은 문장이 재생성되는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이 경우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어둡다./터널 안은 캄캄하게 어둡다.	이 캄캄하다.
9	黑森森的树林。	까마귀한 숲./어둡고 무서운 숲.	새까만 숲.
10	屋里黑魆魆的。	집 안은 캄캄하다./집 안은 어둡고 캄캄하다.	집 안이 어두컴컴하다./ 집 안이 캄캄하다.
11	人群黑压压的, 一眼望不到边。	인파가 밀려있어서 겹겹 깔려 있고, 한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사람들이 어둡게 군락하고, 한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많아서 한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뺨뺨하게 많아서 한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12	头发黑油油的。	머리카락이 까만 유채색이다./머리카락이 까만 윤광을 띠고 있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새까맣다. /머리카락이 기름져 번들거린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검다.
13	淡淡的月光下, 西边的群山黑黝黝的。	얇은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어둡게 그림자지고 있다./연한 달빛 아래, 서쪽 산맥은 어둡게 검어져 있다.	은은한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위 표에서 두 플랫폼의 출력값을 비교하면 총 13개의 예문 중 두 번역이 거의 비슷한 예문은 1개, 챗 지피티의 번역 결과가 더 자연스러운 예문은 2개, 클로바의 번역 결과가 더 자연스러운 예문은 9개, 두 플랫폼의 번역이 모두 어색한 문장은 1개이다.¹¹⁾ 위 결과를 살펴보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중한번역에서 클로바의 번역 결과가 비율로 환산하면 약 70%로 챗 지피티보다 훨씬 번역 품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신경망 기계번역 플랫폼인 ‘파파고’와 ‘클로바’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
- 11) 위 평가는 이서이 한용수(2022)의 의미 오류 평가항목과 점수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의미 누락 1점, 의미 이해 불가 2점, 부정확한 의미 3점, 약간 어색함 4점, 자연스러움 5점이다. 두 번역이 비슷한(점수가 같은) 예문 10번, 챗 지피티가 더 자연스러운 예문 1번, 7번, 클로바가 더 자연스러운 예문 2, 4, 5, 6, 8, 9, 11, 12, 13번, 모두 어색한 예문 3번이다.
- 12) 이러한 결과는 강병규·이지은(2018)의 신경망 기계번역 번역의 중한번역 정확률 연구에서 구글, 네이버, 바이두 신경망 번역 프로그램 가운데 네이버 신경망 번역 프로그램이 구글 신경망 번역 프로그램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3) ‘黑+중첩접미사’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기계 번역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黑+중첩접미사’ 13개의 예문(ST)에 대하여 2022년도 네이버 ‘Papago’(이하 ‘파파고’) 번역 출력문(MT1)과 현재 2024년도 네이버 ‘Hyper Clova X’(이하 ‘클로바’)의 번역 출력문(MT2)을 비교 대조하여 각 플랫폼의 번역 결과의 차이를 살펴본다.¹³⁾ 이서이·한용수(2022)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파파고는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구문의 번역에서 각각의 접미사가 가진 세밀한 번역의 차이를 반영한 출력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래 각각의 번역 출력값의 표현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최근 대화형 AI 기계 번역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黑沉沉

- ST: 天空忽然变得黑沉沉的。
 MT1: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MT2: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黑沉沉에서 沉은 다음 3가지 의미가 있다. 1.(물속에) 가라앉다. 잠기다. 빠지다. 2.(푹)꺼지다. 함몰하다. 3. (주로 추상적인 것을) 누르다. 억제하다. 진정하다. 黑沉沉은 주로 하늘빛이 어두운 경우를 묘사한다. 입력문에 대해 파파고와 클로바 모두 같은 출력문을 제공하였으며 입력한 문장의 모든 요소를 누락 없이 자연스럽게 번역하였다.

(2) 黑洞洞

- ST: 隧道里头黑洞洞的, 伸手不见五指。
 MT1: 터널 안이 깜깜하여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13) 파파고와 클로바는 모두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번역 플랫폼이다. 이 두 플랫폼을 비교한 이유는 먼저 두 개의 플랫폼이 중한번역 정확도가 가장 높은 네이버사의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클로바가 파파고의 상위 버전의 번역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기계 번역의 발전을 확인하기에 두 플랫폼의 비교가 의미 있다고 보았다.

MT2: 터널 안이 깜깜해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黑洞洞에서 洞은 명사로는 ‘구멍, 동굴’의 의미, 형용사로는 ‘분명하다, 명백하다’는 의미가 있다. 예문에서 쓰인 隧道은 터널로 구멍, 동굴의 성격을 띠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파파고와 클로바는 공통으로 黑洞洞를 ‘깜깜하다’로 번역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어미 부분이 달라졌는데 ‘깜깜하여’와 ‘깜깜해서’는 문장의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보기 어렵다. 이 밖에도 伸手를 ‘손을 내밀어도’, ‘손을 뻗어도’라고 달리 번역하였는데 이 또한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어 파파고와 클로바의 번역에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렵다.

(3) 黑乎乎(糊糊)

ST: 黑乎乎的一大片, 分不清谁是谁。

MT1: 시커먼 대작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MT2: 까만 큰 덩어리가 있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

黑乎乎(糊糊)에서 乎乎는 형용사 또는 부사 뒤에 오는 경우 어기를 강하게 해주는 접미사이다. 糊는 ‘뜸이나 구멍을 막다, 메우다, 칠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문에서 黑乎乎的一大片은 많은 인파가 뻘뻘하게 모여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파파고는 ‘시커먼 대작’, 클로바는 ‘까만 큰 덩어리’로 각각 번역하였다. 두 표현 모두 많은 인파를 연상하기 어려운 번역으로 뒤에 谁라는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대명사가 쓰이고 있음에도 번역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4) 黑溜溜

ST: 转动着一双黑溜溜的大眼珠。

MT1: 시커먼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MT2: 까맣고 반짝거리는 큰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黑溜溜에서 溜는 ‘미끌거리다, 미끄럽다’는 의미가 있으며 예문에서 一双黑

溜溜的大眼睛의 眼珠는 눈동자를 보석에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파파고는 이를 ‘시커먼 눈동자’라고 번역했지만, 클로바는 ‘까맣고 반짝거리는 큰 눈동자’라고 번역하였다. 여기서 클로바의 번역은 이전 파파고의 출력문에 비해 단음절 뒤 형용사 중첩의 강조 의미와 수식한 명사의 문맥적 의미를 상당히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黑茫茫

ST: 冲入黑茫茫的太空。

MT1: 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MT2: 까만(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黑茫茫에서 茫은 ‘아득하다, 망망하다, 망막하다’의 의미가 있다. 이를 중첩하면 그 여기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한없이 넓다, 희미하다 등의 의미로 확장된다. 따라서 예문과 같이 우주를 묘사할 때 黑茫茫의 표현이 사용되는데 파파고와 클로바의 번역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모두 ‘캄캄한’, 또는 ‘까만 우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는 두 번역 모두 茫茫이 가진 중첩접미사의 여기가 온전히 출력문에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6) 黑蒙蒙

ST: 前边黑蒙蒙的什么也看不清。

MT1: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MT2: 앞이 킁킁(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黑蒙蒙에서 蒙은 ‘덮다, (덮어)쓰다, 가리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에서 黑蒙蒙的什么은 앞을 가리는 검은 무언가를 뜻하는데 파파고와 클로바 모두 앞이 ‘캄캄하여’ 또는 ‘킁킁해서’로 번역하였다. 이 두 번역에 큰 차이는 없으며 모두 중첩접미사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 黑漆漆

ST: 外面黑漆漆的, 伸手不见五指。

MT1: 밖이 캄캄하여 손끝이 보이지 않는다.

MT2: 밖에 새까맣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黑漆漆에서 漆는 옷칠이나 페인트 등을 ‘칠하다, 검다, 까맣다’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에서 外面黑漆漆의 의미는 밖이 칠흑같이 어두움을 나타낸다. 파파고는 이를 ‘밖이 캄캄하여’로, 클로바는 ‘밖에 새까맣서’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의 경우 앞서 클로바가 ‘黑+중첩접미사’의 번역에서 대개 파파고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거나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시한 것과 달리 오히려 이전보다 부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뒷 절의 伸手不见五指은 파파고에서 伸手에서 의미 누락이 있었으나 클로바에서는 정확히 번역되었고, 五指 또한 손끝이 아닌 손가락으로 더욱 정확히 번역되었다.

(8) 黑黢黢

ST: 地道里黑黢黢的。

MT1: 땅굴 안이 캄캄하다.

MT2: 땅굴 안이 새까맣다.(검검하다.)

黑黢黢에서 黢는 이미 黑을 내포하고 있듯이 ‘검다, 어둡다, 캄캄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중첩접미사 외에도 黢黑의 형태로도 많이 쓰인다. 예문에서는 지하도 또는 터널을 가리키는 地道 안이 파파고는 ‘캄캄하다’, 클로바는 ‘새까맣다, 검검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 또한 앞서 (7)의 예문과 비슷하게 파파고의 번역이 더 자연스럽다. 클로바에서는 黑黢黢를 ‘새까맣다’는 표현을 선택하였는데 공간이 어두움을 나타낼 때 새까맣다는 표현은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9) 黑森森

ST: 黑森森的树林。

MT1: 시커먼 숲.

MT2: 새까만 숲.

黑森森에서 森은 이미 숲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나무가 무성하여 뻑뻑한 모양, 많은 모양, 어둡고 으스스한 모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문을 살펴보면 黑森森은 树林을 수식하는데 나무가 뻑뻑이 들어서 새까만 숲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杳杳와 崑崙의 번역을 살펴보면 두 출력문 모두 예문의 본래 뜻을 연상하기 어렵다.

(10) 黑魑魑

ST: 屋里黑魑魑的。

MT1: 방안이 캄캄하다.

MT2: 집 안이 어두컴컴(컴컴)하다.

黑魑魑에서 魑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 ‘갑자기, 느닷없이’라는 뜻이 있어 魑黑과 같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를 묘사하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 ‘새까맣다, 어둡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예문에서는 屋里를 묘사하는데 杳杳고는 ‘방안이 캄캄하다’, 崑崙는 ‘집 안이 어두컴컴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두 번역 모두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중첩접미사의 느낌을 더욱 잘 살린 번역은 崑崙의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11) 黑压压

ST: 人群黑压压的，一眼望不到边。

MT1: 군중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한눈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MT2: 사람들이 (뻑뻑하게) 많아서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黑压压에서 压는 ‘압력을 가하다, 누르다, 압도하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문에서 黑压压는 人群을 수식한다. 杳杳고는 이를 ‘군중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崑崙는 ‘사람들이 (뻑뻑하게) 많아서’로 각각 번역하였다. 두 개의 번역

을 비교해보면 파파고는 ‘새까맣게’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黑+중첩접미사의 쓰인 단어 그 자체를 번역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었고, 클로바는 ‘뻑뻑하게 많아서’로 번역함으로써 문맥의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黑油油

ST: 头发黑油油的。

MT1: 머리가 시커멓다.

MT2: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새까맣다(검다). (머리카락이 기름져 번들거린다.)

黑油油에서 油 자체는 ‘기름’을 나타내고 동사로 ‘기름, 페인트 따위를 칠하다, 바르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예문에서 수식하는 头发는 머리 색이 검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름처럼 윤기 나는 상태’를 묘사한다. 파파고는 이 예문에서 黑油油를 그냥 ‘시커멓다’로 번역한 반면 클로바는 이것을 ‘윤기가 흐르고 새까맣다’ 또는 재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기름져 번들거린다’라고 번역하였다. 클로바의 번역에서 흥미로운 점은 黑油油에 대한 번역이 파파고보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가지 맥락의 번역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13) 黑黝黝

ST: 淡淡的月光下, 西边的群山黑黝黝的。

MT1: 옅은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다.

MT2: 은은한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黑黝黝에서 黝는 ‘거무스레하다, 거무스름하다’는 뜻이 있다. 黑黝黝는 12번의 黑油油와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예문을 살펴보면 黑黝黝는 群山的 모습을 묘사한다. 파파고는 산들이 ‘거무스름하다’로 클로바는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로 번역하였다. 두 번역은 어미에 약간의 변화를 두는데 클로바가 더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표 3>는 앞서 살펴본 각각 2022년도의 파파고와 2024년도 클로바 출

력문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표 3〉 파파고와 클로바의 출력문 결과

번호	‘黑+중첩접미사’ 예문	파파고 출력문	클로바 출력문
1	天空忽然变得黑沉沉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2	隧道里头黑洞洞的, 伸手不见五指。	터널 안이 캄캄하여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터널 안이 캄캄해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3	黑乎乎的一大片, 分不清谁是谁。	시커먼 대작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까만 큰 덩어리가 있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
4	转动着一双黑溜溜的大眼睛。	시커먼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까맣고 반짝거리는 큰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5	冲入黑茫茫的太空。	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까만(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6	前边黑蒙蒙的什么也看不清。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앞이 컴컴(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7	外面黑漆漆的, 伸手不见五指。	밖에 캄캄하여 손끝이 보이지 않는다.	밖에 새까매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8	地道里黑黢黢的。	땅굴 안이 캄캄하다.	땅굴 안이 새까맣다.(컴컴하다.)
9	黑森森的树林。	시커먼 숲.	새까만 숲.
10	屋里黑魇魇的。	방안이 캄캄하다.	집 안이 어두컴컴(컴컴)하다.
11	人群黑压压的, 一眼望不到边。	군중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한눈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뽁뽁하게) 많아서 한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12	头发黑油油的。	머리가 시커멓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새까맣다(검다). (머리카락이 기름져 번들거린다.)
13	淡淡的月光下, 西边的群山黑黝黝的。	얇은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다.	은은한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이처럼 모든 ‘黑+중첩접미사’의 출력문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파파고와 클로바의 출력문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문장은 13개의 예문 중 7개, 다음으로 파파고와 클로바 중 파파고가 더 정확도가 높은 번역 결과를 보여준 예문은 1개, 클로바가 더 정확도가 높은 예문은 4개, 끝으로 파파고와 클로바 모두 제대로 된 번역을 해내지 못한 문장은 1개였다.

먼저, 파파고와 클로바의 출력문이 같거나 비슷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아래 예문들은 모두 하늘, 터널, 우주, 땅굴과 같은 공간이나 빛의 어두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4〉 파파고와 클로바의 출력문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예문	파파고	클로바
天空忽然变得黑沉沉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隧道里头黑洞洞的，伸手不见五指。	터널 안이 캄캄하여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터널 안이 캄캄해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冲入黑茫茫的太空。	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까만(캄캄한) 우주로 돌진하다.
前边黑蒙蒙的什么也看不清。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	앞이 컴컴(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地道里黑黢黢的。	땅굴 안이 캄캄하다.	땅굴 안이 새까맣다.(컴컴하다.)
黑森森的树林。	시커먼 숲.	새까만 숲.
淡淡的月光下，西边的群山黑黝黝的。	엷은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다.	은은한 달빛 아래 서쪽의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보인다.

다음으로 파파고의 번역이 클로바보다 자연스러운 결괏값을 제공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 예문을 통해 대화형 AI 클로바의 번역에서 사용자는 한국어의 ‘밖이, 밖에’ 등 黑+중첩접미사의 번역에서 앞뒤 명사의 조사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파파고의 번역이 클로바보다 자연스러운 경우

예문	파파고	클로바
外面黑漆漆的，伸手不见五指。	밖이 캄캄하여 손끝이 보이지 않는다.	밖에 새까매서 손을 뻗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다.

클로바가 파파고보다 나은 결괏값을 제공하는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6〉의 ‘黑+중첩접미사’는 예문에서 사람의 눈동자, 머리카락을 묘사하거나 사람들이 뻘뻘하게 모여든 모습을 묘사한다. 이렇게 사람 자체를 묘사하거나 색 또는 빛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의미를 나타낼 때 클로바의 번역이 파파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지난 이서이·한용수(2022)의 선행연구에서 신경망 기계번역의 특징은 이러한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을 연구 결론으로 제시하였는데 클로바의 대화형 AI 번역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클로바의 번역이 파파고보다 자연스러운 경우

예문	파파고	클로바
转动着一双黑溜溜的大眼珠。	시커먼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까맣고 반짝거리는 큰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屋里黑魆魆的。	방안이 캄캄하다.	집 안에 어두컴컴(컴컴)하다.
人群黑压压的，一眼望不到边。	군중들이 새까맣게 모여서 한 눈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빹빹하게) 많아서 한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
头发黑油油的。	머리가 시커멓다.	머리카락이 윤기가 흐르고 새까맣다(검다). (머리카락이 기름져 번들거린다.)

파파고와 클로바 모두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7〉의 예문을 살펴보면 黑+중첩접미사인 黑乎乎가 수식하는 것은 ‘一大片’이다. 一大片的 片은 조각, 편의 의미를 지니어 클로바는 ‘까만 큰 덩어리’로, 양사로 쓰이는 경우 영화 또는 드라마의 편수를 묘사하니 파파고는 ‘시커먼 대작’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앞서 〈표 6〉에서 黑+중첩접미사가 많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표 7〉의 예문에서는 人群과 같은 직접적인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7〉 파파고와 클로바의 번역이 모두 부자연스러운 경우

예문	파파고	클로바
黑乎乎的一大片，分不清谁是谁。	시커먼 대작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다.	까만 큰 덩어리가 있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다.

정리해 보면 신경망 기계번역과 대화형 AI 번역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색채 본래의 의미, 어떤 사물이나 공간에서 빛의 어두움을 나타낼 때 출력값이 비슷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사+양사+명사’로 그 의미 표현이 나타나는 구조에서 ‘一大片’과 같이 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즉 문장에서 직접 수식하는 명사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 기계 번역에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두 번역 서비스의 차이점으로는 한국어 문장에서 조사의 적절한 쓰임은 자연

스러운 대화체를 구사하는 네이버 클로바더라도 그 출력값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전에 파파고와 달리 클로바는 사람의 눈동자, 머리 카락, 군중의 모습 등 문맥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하는 색채어 형용사 예문의 신경망 기계 번역과 생성형 AI 기계 번역의 결괏값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의 경우 국내 (네이버 ‘Hyper Clova X’)와 국외(오픈 AI의 ‘Chat GPT’)의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중 더 높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네이버사의 ‘클로바’이다. 대화형 생성 AI의 기계 학습 원리와 개발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국내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다량의 한국어 데이터를 보유하고 학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클로바가 챗 지피티보다 높은 수준의 중한번역 품질을 제공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둘째, ‘黑+중첩접미사’류 형용사를 포함한 구문의 기존 신경망 기계번역 프로그램(네이버 ‘파파고’) 결과와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네이버 ‘Hyper Clova X’)에서 번역 결과의 차이는 대체로 클로바의 번역 품질이 파파고보다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중한번역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모델 활용 시 사용자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번역 결과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먼저, 문맥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번역 결괏값을 선택해야 한다.¹⁴⁾ 다음으로, 한국어 조사, 어미 등의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¹⁵⁾ 끝으로, 입력한 문장에서 가리키는 내용이 함축적이거나

14) p40. 黑油油의 예문 참고, 예를 들어, 클로바가 제시한 번역 결괏값이 해당 문장의 번역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결괏값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 한국어는 특히 조사와 어미 사용이 매우 까다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출력문 결괏값이 자연스러움에도 입력문의 본래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

직접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출력값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어 색채어 ‘黑+중첩접미사’를 포함한 예문의 인공 신경망 기계 번역과 대화형 AI 기계 번역의 변화 및 발전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계 번역 기술이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신 기술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인간에 더욱 가깝게 발전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중국어 결합 구조를 활용한 텍스트를 통하여 중한·한중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고, 여러 상황에서 AI 기술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대식, 『챗 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의 대화』, 서울: 동아시아, 2023
- 郑怀德, 《汉语形容词用法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2003.
- 李行健, 《现代汉语规范词典-第3版》,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4.

2. 논문

- 강병규·이지은, 「신경망 기계번역의 작동 원리와 번역의 정확률 - 중한 번역을 실례로」, 『중어중문학』, 73, 한국중어중문학회, 2018, pp.253-295.
- 문려화, 「기계번역을 통한 한중 소설 번역의 양상과 전망 - 윤대녕의 소설 ‘누가 고양이 죽었나’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60, 이화어문학회, 2023, pp.5-32.
- 박미정, 「생성형 AI와 기계번역 - 챗GPT 번역을 통한 한일통역교육 고찰」, 『통번역학연구』, 27(3),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3, pp.27-56.
- 이서이·한용수, 「중국어 색채어 ‘黑’ 신경망 기계번역 의미 오류 분석-‘黑’류 형용사가 쓰인 문장의 중한번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66,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2022, pp.69-99.
- 이아형, 「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문학지』, 85, 중국어문학회, 2023, pp.153-176.

임소영·임소정, 「구어체 문장의 한중 기계번역 오류 개선을 위한 프리에디팅 가이드라인 연구 - 중국어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8,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3, pp.129-157.

진준화, 「중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 ‘생성형 AI 언어 모델 서비스: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국과 중국학』, 50,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3, pp.165-196.

3. 기타 사이트

ChatGPT 3.5, <https://chat.openai.com/>

Hyper Clova X, <https://clova-x.naver.com/>

文心一言, <https://yiyan.baidu.com/>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8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Comparative Analysis of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and Conversational AI Translation in Mandarin Chinese
-Focus on the Chinese Translation of '黑+compound suffix' Type Adjectives-

Lee, Seo-Yi · Han, Yong-su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sults of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and generative AI machine translation for color adjectives containing the Chinese '黑+compound suffix'. Firstly, within the realm of Chinese language, 'Hyper Clova X' by the domestic company Naver provides higher-quality translations amo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versational AI language models. Subsequently, when examining translations of sentences with '黑+compound suffix' type adjectives, the existing 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program 'Papago' and the conversational AI language model 'Hyper Clova X' were compared, revealing that, in general, Clova X exhibited superior translation quality. Finally, in utilizing conversational AI language models for Chinese translation, users should be attentive to potential errors in Korean particles, verb endings, and other grammatical elements. Additionally, caution is advised when the input sentence contains condensed information, as this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errors in the output. Building upon this research, it is anticipated that ongoing studies in related fields will continue to explore diverse Chinese syntactic structures, facilitating the coexistence an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human communication in various contexts.

Keyword Chinese Color Language, 黑+compound suffix, Machine Learning, AI Translation, Papago, Hyper Clova X

통번역 교육을 위한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분석

-언어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조설혜*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연설문의 일정한 장르성을 밝히고, 통번역 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설문 장르적 지식을 탐구하고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외교 연설문은 통번역 교육에서 자주 활용되며, 이에 대한 장르적 지식 교육은 통번역 품질의 향상에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약 9.7만 자, 2.2만 어절로 구성된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소형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설문의 언어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Bhatia(1993)의 장르적 분석 틀을 바탕으로, 어휘·문법적 특징 및 패턴화된 언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장르 분석을 통해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에서는 문장 길이가 길고 복잡한 구조를 띠며, '현황전달', '희망/축복', '호소/설득적 효과', '연설자 주장 제기' 등 정형화된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 언어학적 장르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의 통번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분석, 코퍼스, 언어학적 특징, 통번역 교육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및 절차
4. 연구 결과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수료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의 언어학적 요소를 분석하여 연설문의 일정한 장르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B 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위한 연설문 장르적 지식을 탐구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설문은 구어와 문어의 중간 형태이며 연설문의 텍스트 구조와 갈래는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설문 텍스트는 사전에 작성되어 발표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글이기 때문에 통번역 훈련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나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발표하는 텍스트로서 상당한 완결성과 형식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급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¹⁾. 그러나 연설문이 구어적인 형식을 드러낸 문어 텍스트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 수업에서 모두 세밀하게 다루지 못할 경우가 많다. 송연석(2019)은 연설문은 통역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텍스트이지만 입말 중심 통역 훈련 수업에서는 글쓰기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번역 수업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설문 번역 연습도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AB 방향 통번역 훈련에서도 학습자에게 연설문(통)번역 교육내용이 충분히 다루지지 못하면 B 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학습자에게는 더더욱 많은 난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B 언어로서 한국어 통번역 학습자에게는 모어 화자보다 한국어 각 장르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직관이 없기 때문에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정확한 어휘문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함채원(2017)에서는 통번역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장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번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축자적인 번역물을 생산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통번역을 위한 연설문 장르분석을 진행하여 연설문의 언어학적

1) 박세리, 「통역 교육 텍스트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어휘적 측면에서 통역 난이도 기중 요인 분석」, 『통번역학연구』 제 19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p. 81-103.

인 특징을 밝히고 전문 통번역 교육을 위한 (장르 지식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장르(Genre)란 특정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만드는 텍스트이다²⁾. 또한 장르 지식은 한 언어권의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에 관해 서로 공유하는 지식이며 특정한 상황에서 텍스트를 구현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형적이고 패턴화되는 언어 지식과 텍스트 형식 구조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하고 장르를 구별하는 기제로서의 지식들은 어휘, 문법, 문장 구조, 수사적 패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한다. 장르 지식과 의사소통 기능 및 텍스트 유형의 형태-기능 관계에 대한 지식들은 특수목적영어와 특수목적언어 분야에서 언어학자에게 중요할뿐더러 그 분야에서 번역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많이 중요한 연구과제이다³⁾. 그러나 현재까지 장르 연구에 대한 관심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게 되어 있으며 전문 통번역 교육을 위한 장르 분석 연구는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연설문은 통번역 교육 과정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텍스트로서 이에 대한 장르 분석 연구는 더욱 필요성을 보인다.

기존에 통번역 관점에서 이뤄진 연설문 연구는 박미정(2013), 박세리(2015), 송연석(2019)이 대표적이다. 박미정(2013)은 한일/일한 연설문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에 대해 고찰하였고, 박세리(2015)는 한국어 연설문 자료의 통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송연석(2019)은 메타담화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연설문의 한영 번역 텍스트에서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밝혀 보았다. 상기 통번역 교육을 위한 연설문 연구는 연설문의 특징적인 어휘 요소, 담화표지 등 어휘 차원에서의 언어적 특징을 많이 제시하지만 한국어 연설문 텍스트에 대한 통사 및 표현 차원에서의 언어적인 특성을 밝히는 논의가 아직 찾기 어렵다.

2) 김미경, 「한-중남미 대통령 연설문 무브분석」, 『통번역학연구』, 27(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3, pp. 7-46.

3) Anna, Trosborg, 텍스트 유형론. 이승연·권영교 역, 서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pp. 51.

통번역 연구 이외에는 지금까지 언어학 관점에서 연설문에 대한 언어적 특징을 제시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강범모(1999)는 계획연설·강연 텍스트에서는 ‘지시사’의 사용, 청유에 관한 표현, 이유 및 설명, 그리고 조건에 관한 접속사 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코퍼스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각 텍스트 유형의 장르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으나 연설문 분석에 있어서 방송 강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설문의 일반적인 장르성을 밝히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김현국(2001)에서는 21세기 이전의 한국어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를 중심으로 연설문의 어휘의 양, 고빈도어, 문장 길이 및 복잡성, 문장의 종결 형태, 서술어, 텍스트 구조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대통령 취임 연설문의 일정한 장르적 특성을 밝혔다. 이정복(2003)은 대통령 연설문에서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분석했고 정혜현(2019)은 체계기능언어학 관점에서 대통령 연설문에서의 동성 체계 선택과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고 연설문에서 대명사 ‘우리’의 높은 빈도 사용 현상에 대해 재해석하였다. 이외에는 유희재(2017), 김재희(2018), 김영준·김경일(2019) 등이 사회언어학 관점, 언어행동적 특성 등 차원에서 대통령 연설문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전에 대통령 연설문을 위주로 하는 연설문 분석은 장르성에 대한 논의로까지 깊이 천착하지 못했지만 최근에 김미경(2023)와 김미경, 한원덕(2023)의 연구에서는 정치 연설문의 장르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통번역 교육에서 연설문에 대한 장르성 탐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두 가지 논의에서는 각각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국-중남미, 한국어-스페인 대통령의 정치 연설문을 중심으로 무브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대통령 연설문의 일정한 장르적 구조 특징을 밝혔다.

그동안 정치외교 연설문은 전문 통번역 교육에서 활용도가 높은 전문 분야 텍스트 장르 중의 하나이지만 장르 분석 연구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목적언어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뭉치를 기반한 장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르적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정치외교 연설문 코퍼스를 구축하여 연설문 장르에서 일부 언어학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B 언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학습자를 위한 일정한 정치외교 연설

문의 장르관습 지식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은 어떠한 언어학적 특징이 있는가?

둘째, 정치외교 연설문의 장르적 특성을 통해 B 언어로서의 통번역 분야에 어떠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장르 개념 및 장르 분석

장르(genre)라는 개념은 ‘종류’나 ‘형식’을 뜻하며 문학 작품의 텍스트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최초로 사용하게 된다. 장르와 유사한 용어로 텍스트 유형(text type), 텍스트 장르, 텍스트 종류, 레지스터(register) 등이 있다. Biber(1988)를 따라, 장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의 레지스터와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텍스트 유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강범모, 2000: 18). Swales(1990)에 따르면 ‘장르’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들이 만든 텍스트이다. Bhatia(1993)는 Swales(1990)의 바탕으로 장르는 직업적, 학문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이해하고 정의한 의사소통적 목적에 의해 특징지어져 인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활동(박수연, 2016:22)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에 Hyland(2019)에서는 ‘장르’란 한 문화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의사소통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 의사소통 목적으로 장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 담화공동체 구성원들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그들이 공용되는 장르의 특징에 대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장르 인식에 대한 지식이 제 2 언어 쓰기 교육에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장르를 분석하는 작업은 특수목적영어 교육(ESP)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Swales(1990, 2004)와 Bhatia(1993)로 대표되는 학자들은 학술담화와 전문 직업적인 담화 상황에 관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장르적 분석을 시도하는 모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다. Swales(1990)는 학술 텍스트의 수사적 구조를 분석하는 일반화된 모형인 CARS(Create a Research Space) 모형을 제시했으며 또한 장르 분석은 크게 ‘어휘분석’과 ‘무브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Bhatia(1993)은 장르분석을 어휘·문법 요소 분석, 언어의 관습적 사용, 텍스트 구조 분석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는 Swales의 바탕으로 특정한 장르 맥락을 선정하여 코퍼스를 마련하고 장르의 언어학적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측면의 분석 기준을 아래<표 1>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1> Bhatia(1993)에서의 장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층위

level 1	어휘·문법적 특징 분석	특정한 장르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휘 및 문법 요소 통계 분석
level 2	언어의 관습적 사용	특정 장르에서 나타난 어휘, 표현, 문장 등 분석
level 3	텍스트 구조적 특징	해당 장르의 일반적인 전개 구조 (무브분석)

장르분석에 적용되는 ‘어휘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취한다⁴⁾. 코퍼스를 기반으로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어휘를 분석할 때 고빈도 어휘, 문장 수, 문장 길이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학술 논문 장르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학술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해 세부적인 어휘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장르 분석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수사적 구조에 따라 한국어의 각 문장 성분, 특징적인 언어 요소 사용, 정형화된 표현⁵⁾ 등을 분석하고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제 장르 분석 연구를 학문 목적을 넘어 실용적인 텍스트 유형 및 장르에까지 확장하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hatia(1993)의 장르 분석 기본 원리 및 분석 틀에 입각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문 통번역 분야에 의의를 갖는 장르지식 탐구할 예정이

4) 김미경, 「코로나19 진단 하위장르 분석-한서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5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1, pp. 6.

5) 대량의 말뭉치를 활용한 말뭉치 주도 연구(corpus-driven approach)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이루는 의미의 단위가 개별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연속체, 즉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s)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해왔다. (납길임, 최준, 2013: 65-66에서 재인용)

다. 통번역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치외교 연설문을 중심으로 코퍼스를 기반한 장르 분석을 실시하여 계량적으로 한국어 연설문 텍스트의 ‘어휘·문법적 특징’과 ‘언어의 관습적 사용’ 측면에서의 장르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

정치 텍스트는 정치의 일부 또는 결과이며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결정된다⁶⁾. 정치 텍스트는 정치 활용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정치 활동, 정치사상, 정치적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정치 담화의 가장 큰 특징은 폭넓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양한 정치와 관련된 텍스트 유형들이(연설문, 선거 전달문, 인터뷰, 정치인 기자 회견 등) 있지만 전문 통번역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접촉된 텍스트 유형은 정치인들이 초국가적 환경에서 하는 정치·외교와 관련된 연설문이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초국가적 환경에서 합의를 이루고 반영하려는 전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 결과물의 문화 특수적 생산 조건을 확실히 반영하는 텍스트 유형이다⁷⁾. 정치외교 연설문은 일반적으로 본국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외국의 청중들이나 외국 국민(國賓)을 대상으로 하기에 통번역의 필요성이 높은 장르라 할 수 있다.

황창호 외(2015)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은 ‘만찬사/환영사’, ‘기념사’, ‘치사’, ‘성명/담화문’, ‘국회연설/신년사’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만찬사/환영사’와 같은 외교순방 연설은 공식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김미경(2023)은 지적한다.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관들이 발표하는 연설문도 정치-외교 연설문의 범주에 속한다. 張玉芳(2007)에 따르면, 외교 연설문은 ‘국가 원수(元首) 또는 고급 외교관이 자국의 대외 정책을 논의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본국 국가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발표하는 연설’로 정의된다⁸⁾. 이러한 정치외

6) Anna, Trosborg, 『텍스트 유형론』, 이승연·권영교 역, 서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pp.200.

7) Anna Trosborg(2000)/이승연·권영교(역), 상기 논저, pp.211.

8) 박병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 분석」, 『한국

교 연설문은 국내 정치적인 이슈나 국가의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Bhatia(1993)의 장르 분석 방법은 전문 커뮤니케이션과 전문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장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⁹⁾. 이에 따라 특정 장르의 특성을 정의할 때 해당 장르를 사용하는 목적, 활용되는 특정 상황, 사용되는 특정 공동체, 그리고 시간과 상황에 따른 장르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외교 연설문의 기본적인 장르적 특성에 대하여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정치외교 연설문의 연설자는 국가 원수(元首) 혹은 고위 외교관들이다.
- ② 정치외교 연설은 일반적으로 초국가적 환경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 ③ 정치외교 연설문의 발표 목적은 자국의 대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논의하며 대외관계에서 자국 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 ④ 정치외교 연설은 일반적으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외국 국민(國賓)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코퍼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정치외교 연설문의 언어학적 장르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¹⁰⁾’와 대한민국 ‘외교부 연설문 사이

정치학회보』, 제49 권 4호, 한국정치학회, 2015, pp. 182.

- 9) Bhatia의 장르 분석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한다. 특정 장르를 분석하고 장르 특징을 정의할 때 ‘목적성(장르는 목적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다.)’, ‘상황성(장르는 특정한 전문적, 학문적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 상황은 장르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성(장르는 특정한 전문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장르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동태성(장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해당 전문 공동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등의 네 가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0)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

트11)를 통해 연설문 자료를 선정하여 소형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그중에서 2008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총 29편,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외교부 연설문 11편, 총 40편의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한 텍스트들은 정치외교와 직접 관련된 주제이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편폭을 지닌다. 구체적인 코퍼스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정치외교 연설문 코퍼스 구성

전체 글자수(음절수)	97070 자 (Python 통계)
평균 글자수(편당)	2427 자
전체 어절수	22432 어절 (AntConc 통계)
전체 타입수	16942 타입 (AntConc 통계)
전체 문장수	1649 개
편당 평균 문장 수	58.87 개
연설문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 이명박 대통령 (15편), 박근혜 대통령(5편), 문재인 대통령(9편) 외교부 연설문 사이트: 외교장관(11편)

2) 코퍼스 분석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연설문에 대한 장르 분석은 언어학적 특징에 주목하여 Bhatia의 세 가지 분석 층위 중 level 1과 level 2인 ‘어휘 문법적 특징 분석’과 ‘언어 관습적 사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의 특징을 고려하여 ‘어휘·문법적 특징’에서는 ‘문장 길이’, ‘문장의 복잡성’ 두 가지를 분석하고, ‘언어의 관습적 사용’ 측면에서는 ‘정형화된 표현’을 분석하도록 한다. 문장의 길이는 텍스트의 통사 복잡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 보고 많은 연구에서 적용해 온 지표이다. 하지만 그 문장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이뤄지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는 텍스트에서 문장의 확대 방식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주어와 서술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11) 외교부 연설문 사이트: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list.do

어의 관계가 문장 안에 몇 번을 출현하는지가¹²⁾ 문장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정치외교 연설문은 일반 방송 강연, 강의 등 구어적인 성격이 강한 연설문과 달리, 연설자, 연설 목적, 연설하는 상황, 그리고 청중이 매우 독특한 유형이므로, 정치외교 연설문의 문장 복잡성은 장르 특징을 발견하는 데 있어 아주 특별한 지표이다. 따라서 통번역 과정에서 정치외교 연설문의 문장의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보다 잘 해석하고 도착어로 연설문의 논리성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장르)에 따라 높은 고빈도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 또한 해당 텍스트의 장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언어학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장르연구에서는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개념 이외에는 ‘관형 표현’, ‘관용표현’, ‘표현문형’ 등 용어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더 광범위로 수용을 받는 ‘정형화된 표현’ 개념을 후문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즉, ‘정형화된 표현’은 어휘 단위보다 크고 문장에서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문법적 기능이나 화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덩어리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설문의 언어학적 특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 및 절차를 걸쳤다. 첫째, 수집된 연설문 자료를 TXT 파일에 정리하고 문서에서 외국어, 특수부호, 각주와 같은 설명주석 등을 제거한다. 둘째, 코퍼스 자료를 Python 파이썬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토큰 수, 문장 수, 평균 길이 등 기본 통계를 집계한다. 셋째, 파이썬에서 한국어 분석 도구 KoNLPy의 Kkma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말뭉치 자료를 형태소 분석 처리하고 모든 언어 형태의 사용 빈도를 통계 처리한다. 넷째, 토큰화된 언어 자료의 오류 수정 및 이형태를 통일한 다음 AntConc 4.0 프로그램의 N-Gram 기능을 활용하여 말뭉치에서의 관형적인 표현을 도출하고 빈도에 따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적인 특징과 결합하여 기존 양적으로 분석된 언어 사용 양상들을 장르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2) 고영근·구본관(2018)에 따르면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문장은 단문(홀문장)이고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진 문장은 복문(겹문장)으로 본다.

4. 연구 결과 분석

1) 문장 길이

먼저 <표3>의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의 편당 글자수는 2427자(편차 600.25)이고 텍스트 평균 문장수는 41개(편차: 14.68)이며 편차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설문의 문장 길이는 연설자의 호흡, 사과의 전개 방식과 논리성, 연설할 때의 분위기 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문장 길이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치-외교 연설문의 문장 평균 글자수는 38.61자부터 76.97자에 이르고 전체 문장 평균 길이는 58.87자(표준편차: 11.03)로 확인할 수 있다. 박갑수(1998)에 의하면 한국어에 대한 몇몇 텍스트 유형별 문장의 평균 길이는 신문기사가 62.3자, 논문이 50.8자, 현대 소설은 31.2자로 나타났고, 또한 현대 국어 문장 길이는 그 중앙치가 50자로 나타났다(김현국, 2001:45-46에서 재인용)¹³⁾. 이를 참고하여 정치외교 연설문에서의 평균 문장 길이는 현대 국어 평균 문장 길이보다 조금 긴 편이라 볼 수 있다.

<표 3>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 문장 길이 통계

번호	연설문 제목	전체 길이		문장 평균 길이(문장당 글자수)
		글자수	문장수	
1	1-M 문재인 러시아 방문	2525.00	33.00	76.52
2	2-M 인도네시아 방문	3692.00	78.00	47.33
3	3-M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연설	3046.00	60.00	50.77
4	4-M 지역균형 발전 연설	2709.00	46.00	58.89
5	5-L 한-아프리카 협력주간 총청 오찬사	1918.00	35.00	54.80
...
...
32	32-L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	2472.00	45.00	54.93

13) 이 기준에 따라 40~60자의 길이인 문장들은 일반적인 한국어 문장 길이라 할 수 있고 60자 넘는 문장은 긴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획식 환영사			
33	33-W 한미외교 공동 연설 발언	2981.00	51.00	58.45
34	34-W 한-중남미 미래 계획 발언	2382.00	31.00	76.84
35	35-W 경제안보센터 축사	1695.00	29.00	58.45
36	36-W 유엔가입 30주년 기념사	2003.00	32.00	62.59
37	37-W 한일 축제한마당 축사	1859.00	25.00	74.36
38	38-W 한중공외교포럼 축사	2160.00	30.00	72.00
39	39-W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인사말 씀	2232.00	29.00	76.97
40	40-W 세계사이버페이스총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 축사	1903.00	29.00	65.62
	평균	2427	41	58.87
	표준편차	600.25	14.68	11.03

또한, 연설문의 문장 길이에 있어서는 김현국(2001)과 櫻木一紀(2006)에서 대통령의 취임사의 문장 길이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김현국(2001)에서는 대한민국 제1대~15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 텍스트의 문장 길이 분석한 결과, 취임사의 평균 문장 길이는 68.5글자이며 다른 여러 텍스트 유형의 문장 길이 보다 긴 편이고 장문(長文)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사의 문장 길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단화(短化)된다는 추세도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櫻木一紀(2006)는 김현국(2001)를 바탕으로 2006년까지 대통령 연설문의 문장 길이를 측정된 결과는 한 문장의 내용어 수는 5~6개 단어로, 한 문장당 약 20~30자 이내인 단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논의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대상으로 문장 길이를 측정하였고 정치적 연설문의 문장 길이가 2000년 초반에 들어서 점차 이독성¹⁴⁾을 고려해서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밝혔다.

대통령 취임사의 문장 길이가 점점 단화되는 것과 달리, 최근 20년의 정치의

14) 이독성은 '가독성'으로도 지칭하며 문장이나 글을 쉽게 읽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문장의 길이는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가 복잡해지고 독자나 청자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교 연설문 텍스트의 평균 문장 길이는 매우 긴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코퍼스 전체 평균 문장 길이보다 긴 연설문 텍스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39#W]: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 말씀](평균 문장 길이: 76.9글자)

바쁜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27호)에 따라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이렇게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략...)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년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한 이유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큰 전략적인 틀에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은 역내 아세안의 위상 강화는 물론, 크개는 동아시아 협력과 지역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로서도 아세안과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와 앞으로의 협업 과정에서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행사는 외교 행사라는 프레임을 넘어, 한·아세안 관계의 의의와 중요성을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서로 함께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 對아세안 정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후략...)

위에 정치외교 연설문 사례에는 평균 문장 길이는 약 77글자이며, 최소 27자부터 최대 118글자이다. 연설문 텍스트의 문장 길이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연설문 텍스트가 구어성과 문어성을 겸비하는 특징을 방증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문단을 살펴보면 한 문단이 2~3개 긴 문장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고 한 문장에서 내용어 단어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의 문장 길이가 김현국(2001)과 璽木一紀(2006)에서 대통령 연설문의 문장 길이보다 긴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연설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정치외교 연설 발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에 관련된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이며 더 전문성이 강조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미가 복합적인 문구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으로 해석될 것 있다. 두 번째는 연설문의 청중과 관련이 있다. 정치외교 연설문의 주된 대상자는 외국 정상과 전문가들로, 일반 국민에 비해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적은 청중이다. 이러한 청중의 특성 때문에 정치외교 연설문은 대통령 취임사 등 일반 정치 연설문보다 문장 길이가 더 길고, 전체적인 텍스트의 난이도가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2) 문장 복잡성

연설문 텍스트는 미리 계획된 후 이루어진 구어 담화이므로 일반 구어 텍스트보다 복잡한 구조를 띠기 마련이다(주희민, 2012:340). ‘강연’ 등의 연설문 유형과 달리 정치외교 연설문은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구어로 발표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문어 특성도 많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설문의 문장 복잡성에 있어서 다른 텍스트 유형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문장 복잡성에 있어서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문장 안에 몇 번 나타나는지가 문장 복잡성을 대표하는 척도로 본다. 고영근·구본관(2018)에 따르면 한국어 문장이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복문은 문장 단위를 확대하는 방식에 따라 접속문과 내포문으로 분류된다. 남길임(2006)에서는 문장 구조의 복잡성은 통사적인 복잡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문장의 통사적 복잡성이 문장 내 접속절, 내포절의 수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복문의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어미의 사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연결어미는 접속문의 형성과 관련되고, 전성어미는 내포문의 형성과 관련되며 문장 복잡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언어 요소들이다. 이 절에는 연설문 코퍼스에서 연결어미¹⁵⁾와 전성어미의 사용 양상을 통해 연설

15) 고영근·구본관(2018)에 따르면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시키는 어미는 종속적 연결어미, 본용언에 보조용언을 이

문 텍스트의 일정한 문장 복잡성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1) 연결어미

정치외교 연설문에는 40종류의 연결어미가 총 2045회 사용되었고 구체적으로 대등적 연결어미는 14종, 총 605회, 보조적 연결어미는 4종, 총 650회¹⁶⁾, 종속적 연결어미는 22종, 총 990회가 나타난다.

연결어미 중의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등접속문에서 사용되고 종속적 연결어미는 종속접속문에서 나타나면서 문장 복잡성과 직접 관련되는 연결어미 유형이다. 코퍼스에서 이 두 가지 연결어미의 양상 중 빈도에 따라 전 15순위의 양상들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코퍼스 분석의 결과, 문장 복잡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는 연설문의 한 문장에서 평균 1.15회로 나타나고 그중에서 ‘-아/어’, ‘-고’, ‘-아서/어서’, ‘-며/으며’, ‘아야/어야’, ‘-도록’, ‘-게’의 출현빈도가 상위권이였다. 전체적으로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봤을 때 종속적 연결어미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고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주는 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정의한다. 연결어미 중 ‘-아/어, -게, -지,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 그리고 종속적 연결어미 중 두 가지 기능을 겸하는 것들이다. ‘-아/어’와 ‘-고’는 ‘있다’를 본용언에 연결시켜 동작상이나 양태성을 표시하는 경우, ‘-게’는 보조동사 ‘되다’를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지’는 ‘않다/못하다/말다’ 등 부정문에서 나타난 경우에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종속적 연결어미와 대등적 연결어미는 접속문과 직접 관련되는 언어요소로 정하고 보조적 연결어미와 구분해서 통계하였다.

16)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조동사가 종속적 연결어미와 대등적 연결어미와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조동사를 문장 복잡성을 판정할 때 주요 요소로 보기 어렵다. 남길업(2006)에서도 보조동사 구성을 동사의 복문 구성으로 볼 것인가 혹은 단문 구성으로 볼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장의 확장 방식 및 문장 복잡성을 연구할 때 보조동사를 단문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연결어미를 통계할 때 제거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는 이를 참고해서 보조적 연결어미를 통계 처리하지만 문장 복잡성의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4〉 연설문 코퍼스 연결어미 사용 양상 및 빈도(1~15순위)

순위	연결어미 양상	출현빈도	빈도 사용 분포	연결어미 하위 분류
1	-아/어	407	0.89%	종속적 연결어미
2	-고	341	0.75%	대등적 연결어미
3	-어서/아서	128	0.28%	종속적 연결어미
4	-며/으며	119	0.26%	대등적 연결어미
5	-어야/아야	95	0.21%	종속적 연결어미
6	-도록	83	0.18%	종속적 연결어미
7	-면서/으면서	57	0.13%	대등적 연결어미
8	-게	56	0.12%	종속적 연결어미
9	-면/으면	39	0.09%	종속적 연결어미
10	-고자	35	0.08%	종속적 연결어미
11	-라	29	0.06%	종속적 연결어미
12	-기로	26	0.06%	종속적 연결어미
13	-는데	24	0.05%	종속적 연결어미
14	-ㄴ다면/는다면	23	0.05%	대등적 연결어미
15	-라고	22	0.05%	종속적 연결어미

코퍼스에서 비슷한 문장 길이의 예문 3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결어미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예문(1)은 80자 좌우 긴 문장이며 문장에서 연결어미는 3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3) 평균 문장 길이의 수준인 문장이어도 연결어미가 3개가 사용된다.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봤을 때 연설문 텍스트에서의 접속문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예문(1):

정부도 이러한 동포 여러분의 노력에 발맞춰서 동포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포사회 역량 제고를 위한 한인 네트워킹 확충에 중점을 둔 맞춤형 동포사회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9-B] (82자)

예문(2):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되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면 세계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또 장기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24-L] (53자)

예문(3):

우리는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고, 이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공정함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8-M] (56자)

(2) 전성어미

코퍼스를 분석된 결과, 연설문 텍스트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총 5가지 유형, 11종류 양상, 총 2872회로 나타나고, 명사형 전성어미는 두 가지 유형, 3종류 양상, 총 227회로 출현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설문의 한 문장당 평균적으로 1.88개의 전성어미가 사용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전성어미 출현 양상과 빈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연설문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아래 <표5>와 제시했듯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는/은’은 다른 전성어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연설문 코퍼스의 토큰수의 4.77%에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전성어미 출현빈도 순위는 ‘-르/을’(596), ‘-기’(203), ‘-라는/다는/란’(84), ‘-(으)ㄴ’(24), ‘-ㄴ다는/는다는’(15), ‘-려는’(2) 순이다.

<표 5> 연설문 코퍼스에서 전성어미 사용 양상 및 빈도

빈도 순위	전성어미 양상	출현 빈도	빈도 사용 분포	전성어미 하위 분류
1	-ㄴ/는/은	2175	4.77%	관형사형 전성어미
2	-르/을	596	1.13%	관형사형 전성어미
3	-기	203	0.45%	명사형 전성어미
4	-라는/다는/란	84	0.18%	관형사형 전성어미
5	-(으)ㄴ	24	0.05%	명사형 전성어미
6	-ㄴ다는/는다는	15	0.03%	관형사형 전성어미
7	-려는	2	0.00%	관형사형 전성어미

연설문 코퍼스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관형사형어미의 결합 환경을 살펴볼 때, 연설문 텍스트에서 선행어가 동사인 경우가 2028회, 형용사인 경우가 581회로 동사의 결합이 형용사 결합의 3.5 배 정

17) 이승연 외(2016)에서는 44373자의 신문기사 코퍼스에서 전성어미가 총 1444회가 나왔는데 신문기사 말뭉치 전체의 전성어미 출현 횟수가 본고에서의 연설문의 전체 출현 횟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텍스트의 문장당 출현 횟수로 환산할 때 신문기사 텍스트에서 전성어미가 문장당 1.65회만 나타나며 본고의 연설문 코퍼스(1.88회)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도나 되었다. 관형사형어미의 높은 사용 현상은 아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0~60자 길이의 문장 안에서 네 개의 관형사형어미를 사용하는 문장이 연설문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는 문장 내에서 관형어로서의 부속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따라서 정보의 양이 풍부해지고 문장의 구조와 의미가 더 복잡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문(4):

청년 인재가 찾아오고 정주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M] (45자)

예문(5):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1-M] (60자)

다음으로 연설문에서 명사형 전성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기’는 총 203회가 나타나고, ‘-(으)ㄴ’은 총 24회를 사용되고 있다. ‘-기’의 사용은 ‘-(으)ㄴ’의 사용 빈도보다 9배 정도가 많다. ‘-(으)ㄴ’ 명사절과 ‘-기’ 명사절을 포함하는 내포문의 사용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으)ㄴ’은 이미 일어났거나 정해진 사실, 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태를 가리킬 때 쓰이고 ‘-기’는 앞으로 기대되는 가상적인 상황이나 정해지지 않은 사실, 일반화된 객관적 사태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향이 있다(유현진·구본관 외, 2018: 447). 명사절 내포문이 ‘-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외교 상황을 포함한 대다수 정치적 연설문에서는 ‘희망/축복’ 의미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설문 텍스트에서 ‘-기’의 후행절에서 83회가 ‘-바라다’, ‘-희망하다’, ‘-기대되다’ 등 ‘축복과 희망’과 관련된 용언이 이어진다. 이는 아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예문은 명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해 내포문을 형성하는 문장들을 일반적으로 짧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예문(6): [4-M]:

1.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

다.
 나.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 바랍니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7): [27-L]:
 가. 여러분도 한국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앞으로 양국이 투자를 서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문(8): [35-W]:
 다시 한번 경제안보외교센터의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 하신 자문위원님들과도 앞으로 계속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3) 정형화된 표현

연설문 코퍼스에서 많이 활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계량적 언어 표현 추출 방식인 ‘N-gram;¹⁸⁾’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어의 N-gram 추출은 주로 2~10 gram의 범위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정형적인 표현을 고찰하는 데 주력해왔다(최준 외 2010, 원미진 2015, 김정아 2019, 안령주 2022, 정미경 2023 등)¹⁹⁾. 최준 외(2010)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는 5-gram은 가장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혔고, 김정아(2019)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N-gram을 추출할 때 2-gram부터 5-gram까지의 범위가 가장 의미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빈도의 정형화된 표현 목록을 추출할 때 빈도와 분포,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추출하였다. 100만 어절 이상인 대형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10만 어절에서 5회 이상 출현하는 정형화된 표현을 고빈도로 판정하고, 그리고 사용 분포상 5개 텍스트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면서 소형말

18) N-gram 추출 방법은 일반적으로 말뭉치에서 고빈도 형태소의 연쇄성을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N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말하는 것이다.

19) 최준, 송형주, 남길업(2010), 원미진(2015), 안령주(2022) 등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형화된 표현을 추출해 보았고, 김정아(2019), 정미경(2023) 등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 표현을 N-Gram 추출방법을 통해 추출해 보았다.

문치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연설문 코퍼스 내에서 2~5 gram 범위의 고빈도 정형화된 표현을 N-Gram 방법으로 추출하고, 빈도가 5회 이상으로 나타나고 분포상 5개 텍스트 이상에 출현하는 정형적인 표현들을 목록화하였다. 그 결과를 아래 <표6>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6> 정치외교 연설문 코퍼스 고빈도 정형화된 표현 목록

고빈도 정형화된 표현 목록
-고 있다(281); -르/을 것이다(193); -르/을 수 있다(172); -어야/아야 하다(87); -을/를 통해(67); -게 되다(64); -에 대한(60); -을/를 위해(55); -지 않다(52); -을/를 위한(48); -와/과 함께(45); -아/어 있다(31); -고자 하다(30); -기 위해(30); -기를 기대하다(29); -에 대해(24); -기 바라다(22); -기를 바라다(20); -기로 하다(19); -을/를 바탕으로(17); -기 위한(16); -다고 생각하다(16); -뿐만 아니라(15); -기 때문에(10);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에서 현황 소개할 때 시간 표현 ‘-고 있다’의 사용, 희망/축복을 드러내는 정형화된 표현인 ‘-기 바라다’, ‘-기를 기대하다’의 사용, 그리고 연설문의 설득 효과를 실현하는 의무 표현 ‘-아야/어야 하다’; 연설자 주장을 밝히는 표현 ‘-르/을 것이다’, ‘-를 위해’, ‘-기 위해’ 등의 사용, 이 네 가지 장르성 특징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현황전달

연설 주제를 둘러싼 현황 설명에 관한 내용은 연설문에서 꼭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 연설문에서는 어떤 현황을 소개할 때 지속적인 동작상 표현인 ‘-고 있다’가 많이 사용된다. 정치외교 연설문 코퍼스에서 ‘-고 있다’ 표현은 총 281회 등장하며, 하나의 텍스트에서 평균 7번 나타나고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이다.

예문(9): [2-M]

ㄱ. 한국 기업의 투자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품질 경쟁력과 우수한 부품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ㄷ.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생산·수출국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문(10): [19-B]

ㄱ. 한국과 멕시코는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ㄴ. 수많은 멕시코 한류 동호회 회원들이 K-Pop을 즐기고 있고, 4천여 개에 달하는 태권도장에서 200만 명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ㄷ.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크게 웅비해 나가는 길에 지구촌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희망/축복 표현

정치외교 연설문은 국가 정상과 고위 외교관들이 중요한 행사 자리와 회의에서 발표하는 글로서 일반적으로 청중과 참석자에게 연설자의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추출된 고빈도 정형화된 표현 중 ‘-기를 기대하다’, ‘-기 바라다’, ‘-기를 바라다’와 같은 표현들은 연설문의 독특한 언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희망·축복 의미를 담은 정형적 표현들은 코퍼스에서 총 71회 출현하며, 한 텍스트당 평균적으로 약 1.78 회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예문 양상은 앞에 4.2.2 절에서 예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3) 호소/설득적 효과

Brinker(2004)는 텍스트 유형을 텍스트의 기능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했으며, 여기에는 제보 텍스트, 호소적 텍스트, 책무 텍스트, 접촉 텍스트, 선언 텍스트가 포함된다. 이 분류에 따라 櫻木一紀(2006)는 한국 정치 연설문을 주로 호소적 기능과 설득적 기능을 지닌 텍스트로 정의하였다. 정치적 연설문 텍스트의 호소적·설득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 의미를 드러낸 표현이 많이 사용

된다. 연설문 코퍼스에서는 의무 표현 ‘-어야/아야 하다’가 총 87회가 나타나며 구체적인 사용 예문은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예문(11) : [36-W]: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문(12): [8-M]:
지금 두 손 안의 작은 눈 멍치를 우리는 함께 굴리고 조심스럽게 **굴려 가야 합니다.**

예문(13): [29-L]:
한·아세안 관계도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서 새롭게 **도약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4) 연설 주장의 제기

‘추측’ 및 ‘의지’의미 기능을 가진 양태 표현 ‘-리/을 것이다’는 코퍼스에서 총 193회가 나타나고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의 정형화된 표현이다. 이는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에서 연설자의 연설 목적, 연설 주장을 제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예문(14): [2-M]:
ㄱ. 양측 국민의 삶을 잇는 인적 교류 활성화는 모든 협력을 뒷받침해 주는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추측]
ㄴ. 아세안과 한국의 깊은 협력이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추측]

예문(15): [34-W]:
ㄱ. 또한,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보다는 중앙정부-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 간 다차원적인 상생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추측] [의지]
ㄴ.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또 내년 APEC 정상회의 등 중남미에서 개최되는 다차 정상회의는 한-중남미 간 정상외교를 통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추측] [의지]

또한 연설문 텍스트에서 연설자의 의도와 계획을 ‘-을/를 위해’, ‘-기 위해’와 같은 ‘목적성’을 담은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치외교 연설문

은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 발전 방향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연설의 의도와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코퍼스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을/를 위해’는 총 55회, ‘-을/를 위한’은 48회, ‘-기 위해’는 30회, 총 133회가 나타나며 한 텍스트에서 평균 3.3 회가 사용되었다.

예문(16): [10-M]:

저탄소 전환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그린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만큼 시너지 또한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예문(17): [16-W]:

ㄱ. 여러분, 코로나 19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료제,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시급합니다.

ㄴ. 그래서 우리나라는 UNESCO의 주요 프로그램인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우호국 그룹을 만들어서, 코로나 19가 심화시킨 차별, 혐오, 배제에 맞서자는 목소리를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문(18): [27-L]:

ㄱ. 양국은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더 나은 **세계질서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ㄴ. 나는 21세기 한, 브라질 간 **경제협력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의 ‘3대 융합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합니다.

위에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연설문에서 ‘목적’ 표현은 연설의 목적과 제안을 명확히 하고, 연설자의 의도를 명시할 때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N-gram 추출 방법으로 연설문 장르성과 관련된 고빈도의 정형적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현황 전달’ 표현, ‘희망 및 축복’ 표현, ‘호소 및 설득적 효과’, 그리고 ‘연설 주장 제기’ 등의 정형화된 표현 사용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빈도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들은 연설문의 내용과 텍스트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연설문 텍스트 분석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에 초점을 맞추어 소형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의 언어학적 및 장르적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통번역 교육에서 연설문은 자주 활용되는 텍스트 유형(장르)으로, 장르 분석 연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인식된다. 이 연구에서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로 중심으로 진행된 장르 분석은 ‘문장 길이’, ‘문장 복잡성’ 그리고 ‘정형적인 표현’의 세 가지 측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어 정치외교 연설문 텍스트에서 긴 문장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긴 문장의 사용은 정치외교 연설문의 연설 상황과 연설대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대통령 취임사와 같이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정치 연설문과 달리, 정치외교 연설문은 외국 정상과 국민을 주요 청중으로 하고 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어, 한 문장 안에 풍부한 메시지를 담기 위해 긴 문장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정치외교 연설문의 문장 복잡성을 문장 확장에 관여하는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사용 빈도 및 예문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코퍼스 분석 결과, 연결어미는 총 40종류, 2045회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다양하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연결어미가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다양하고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연설문에서 복문 구조가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나타나 주술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성어미는 코퍼스에서 총 2872회가 나타났고 이 중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빈번한 사용 현상은 연설문에서 관형어와 관형사형 내포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의 사용 빈도를 통해 정치외교 연설문의 통사적 문장 복잡성이 높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N-gram’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코퍼스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전형적인 표현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외교 연설문 장르성과

관련된 표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연설문 텍스트에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경우 ‘-고 있다’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쓰이고, 연설문에서 축복 및 기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기를 기대하다’, ‘-기 바라다’ 등 표현이 자주 쓰인다. 또한 연설문 텍스트가 호소적, 설득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야/어야 하다’와 같은 의무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연설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의지 및 추측 표현 ‘-을 것이다’, 목적성 표현 ‘-기 위해(서)’, ‘-을 위하여’ 등이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퍼스를 기반으로 정치외교 연설문에 대한 언어학적 및 장르적 분석된 결과를 결합하여 통번역 교육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몇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연설문의 긴 문장 및 문장 복잡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한 문장에서 여러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경우, 어절과 어절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긴 문장에서 여러 번의 연결 관계가 존재할 때, 번역할 시에 문장의 주술 관계를 소홀하거나 잘못 번역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어의 특장상 관형어와 관형사절이 문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특징은 특히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관형사절이 문장에 내포된 경우, 관형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설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거나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외교 연설문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정형화된 표현을 연설문의 장르 관습적 지식으로 미리 알려줘야 한다. 통번역 교육에서 장르 지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번역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특정한 텍스트 장르에서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은 B 언어로서의 통번역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통번역할 때 장르의 어휘적인 측면을 많이 신경을 쓰나, 문법과 표현에 대해서는 장르적 관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상황 및 맥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의 학습은 학습자들의 문법 차원에 장르관습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장르에 따른 언어학적 특성들이 통번역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

식을 키워줘야 한다. 장르는 텍스트 구조와 스타일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번역 및 통역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연설문을 번역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구어적 요소와 문어적 정밀성이 혼합된 독특한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설문의 설득적 어조, 정교한 어휘 사용, 그리고 논리적인 구조 전개가 중요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학습자들이 통번역 훈련하는 과정에서 직관을 키워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정치외교 연설문 코퍼스를 구축하고 계량적으로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연설문의 장르적 특징을 밝혀내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연설문 텍스트는 통번역 교육에서 많이 주목받는 텍스트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대한 장르 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정치외교 연설문의 장르적 특징을 바탕으로 통번역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연설문 통번역 교육내용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외교 연설문의 일부 언어학적 특징만 초점을 맞추며, 핵심어, 품사 사용 및 분포 등 다른 측면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기타 코퍼스와 비교해서 장르적 특징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앞으로는 연설문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통번역 교수학습에 대한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후속 연구로 남기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외교부 연설문 사이트: https://www.mofa.go.kr/minister/brd/m_20033/list.do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2. 단행본

강범모, 『한국어의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고영근, 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 박갑수, 『일반국어의 문체와 표현』, 집문당, 1998.
- 유현진, 구분관 외,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2018.
- 함채원, 『전문번역 교육 수업 모델 설계와 적용』, 한국문학사, 2017.
- Anna, Trosborg, 『텍스트 유형론』, 이승연·권영교 역, 한국통역번역학회, 2017.
- Brinker, K,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의 기본 개념과 방법』, 이성만 역, 역락, 2004.
- Biber, D.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reprinted 1995), 1988.
- Bhatia, V. K., *Analysis genre: language use in professional settings*, Burnt Mill, Harlow, Essex, England, New York, Longman, 1993.
- Knapp & Watkins, 『장르, 텍스트, 문법: 작문교육을 위한 테크놀로지로서의 문법』, 주세형 외 역, 사회평론아카데미, 2008.
- Ken Hyland, 『장르와 제2언어 글쓰기』, 이수미·이소연 역, 하우, 2019.
- Swales, J.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s*, Cambridge [Engl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 논문

- 감범모 외,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제 22집,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998, pp.32-57.
- 김미경, 「한-중남미 대통령 연설문 무브분석」, 『통번역학연구』, 제27집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3, pp.7-46.
- 김미경, 한원덕,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 무브분석」, 『이베로아메리카 硏究』, 제 34(3)집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23, pp.173-197.
- 김민혜, 「학위논문 〈선행연구〉의 텍스트 구조와 서술 표현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영준, 김경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연설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인지과학』 제30-3집, 한국인지과학회, 2019, pp.105-132.
- 김재희,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페어클로의 비평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44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8, pp.1-33.
- 김정아,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항목 선정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현국, 「연설문의 문체 연구-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혜진, 「코퍼스에 기반한 신문 텍스트의 장르성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 59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pp.191-225.
- 남길임, 「텍스트 장르에 따른 문장 확대 양상 연구-학술개론서와 학술강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제 21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6, pp.179-206.

- 남길임, 최준,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핵심 구문의 추출-국어국문학 학술논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 6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pp.65-92.
- 隈木一紀, 「대통령 정치 연설문의 텍스트성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박나리, 「초근 한국어 교재의 ‘여행’ 텍스트에 대한 장르 기반적 분석」, 『이화어문논집』, 제32집, 이화어문학회, 2014, pp.95-116.
- 박미정, 「BA 번역의 언어간섭과 수용성에 대한 일고찰-한일/일한 연설문번역 비교를 중심으로」, 제 63집, 『日本語教育』,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3, pp.31-47.
- 박병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외교연설 중국 전통사상 인용의 수사 오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4호, 한국정치학회, 2015, pp.181-212.
- 박세리, 「통역 교육 텍스트로서 한국어 연설문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어휘적 측면에서 통역 난이도 가중 요인 분석」, 『통번역학연구』 제 19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p.81-103.
- 박수연, 「선행연구 검토」 장르의 내용 구조에 관한 연구-한국어교육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43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5, pp.59-95.
- 張玉芳, 「基於西方修辭學的外交演講解讀之研」, 『修辭學習』, 第 4 期, 2007, pp.34-39.
- 송연석, 「정부 및 공공기관 연설문 번역의 메타담화분석」, 『번역학연구』, 제 20권 1호, 한국번역학회, 2019, pp.157-175.
- 안령주, 「한국어교육학 학술텍스트 서론에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제 56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pp.363-393.
- 원미진,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표현 사용의 쓰기 교육 효과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제35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5, pp. 157-181.
- 유희재, 「정치적 담화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이미지와 대통령의 정략적 위치짓기-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3호, 이화어문학회, 2017, pp.119-142.
- 이승연, 심지연, 신정하,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기사문 장르분석-신문기사 및 교재 기사문의 언어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제28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pp.53-83.
- 이정복,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33, 배달말학회, 2003, pp.213-237.
- 정미경,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 표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정혜현, 「통일 관련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동성 체제 선택과 인식 분석」, 『한국어문교육』 제27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pp.123-153.
- 주희민, 「한중 연설문 텍스트의 문법적 응결 장르 대조 연구」, 『한국어학』 제61집, 한국어학회, 2012, pp.339-367.
- 최준 송형주, 남길임,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 인지』 제17집, 담화·인

지언어학회, 2010, pp.163-190.

황창호, 이혁우, 임동완,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9집 4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5, pp.27-50.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Genre Analysi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 for Kore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Focused on linguistic features-

Cao, Xuehui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specialized corpus centered on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es. Our analysis delved into the unique linguistic features and genre-specific attributes of these speeches. We employed a genre analysis approach, focusing on three key aspects: sentence length, sentence complexity, and the use of stereotypical expressions. A notable finding is the prevalence of lengthy sentences in these texts. Additionally,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es frequently and diversely employ conjunction endings, alongside a substantial use of adjective prepositional endings. This highlights the elevated syntactic complexity inherent in such speeches. Moreover, we utilized the N-gram extraction method to identify and analyze recurrent phrases within the corpus. Our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presence of genre-specific expressions in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es. The linguistic genr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this research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field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viding practical educational implications.

Keyword Political and Diplomatic Speech, Genre Analysis, Corpus, Linguistic Features, Kore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연구*

유쌍옥** · 김지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문 번역텍스트에서 선행동사의 동사부류가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신문 텍스트 한·중 병렬 말뭉치에서 ‘-어 오-’는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 상표지 ‘在’, ‘着’, ‘下來’로 번역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행 동사의 동사부류에 따라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달성동사와 결합하는 ‘-어 오-’는 ‘在’, ‘下來’, ‘着’와의 결합 시 제약을 받으며 주로 ‘一直’, ‘着’으로 번역되었다. 상표지 ‘着’과 ‘下來’는 완수동사와 결합은 가능하지만, 완수동사와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어 오-’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완수동사와 결합하는 ‘-어 오-’는 ‘下來’, ‘着’으로 번역되지 않고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 상표지 ‘在’로 번역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위동사와 결합하는 ‘-어 오-’는 ‘着’과 결합 제약을 가져 ‘着’을 제외한 ‘在’, ‘着’, ‘下來’, 시간부사 ‘一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제어 상표지, 한중번역, 문장 성분, 동사부류, 결합 양상, 병렬 말뭉치

〈목차〉

1. 서론
2. ‘-어 오-’의 상적 의미와 신문 텍스트에서의 중국어 번역 양상
3. 선행동사와 ‘-어 오-’, ‘在’, ‘着’, ‘下來’, ‘一直’의 결합 양상
4. 선행동사 동사부류에 따른 ‘-어 오-’의 중국어 번역
5. 결론

* 본 연구는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교내 연구 프로젝트 ‘篇章视角下的汉韩体标记对比与翻译转换研究(KYZX22A019)’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전임교수

*** 교신저자, 중국 북경제2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외국인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상표지 ‘-아/어 오-(이하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선행동사의 동사부류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한국어 상표지에 대한 중국어 대응 및 대조 연구는 주로 ‘-고 있-’, ‘-어 있-’, ‘-는 중이-’에 치중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어 오-’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적은 편이며 이마저도 주로 ‘-어 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양상을 제시하는 데 그친 연구가 대부분이다. 우선 아래의 선행 연구들을 훑아보며 이 글에서 주목한 논의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상표지 ‘-어 오-’에 관한 중국어 대응표현 연구는 이남(2009), 徐彬(2010), 최영(2014), 이양(2014), 왕용리(2020), 刘虹杉(2020), WANGKEXIN(2022) 등이 있다. 이남(2009), 이양(2014)에서는 ‘-어 오-’가 ‘지속’과 ‘단독적 반복’의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의 ‘-어 오-’는 중국어 ‘一直’, ‘渐渐……起来了’와 대응하고 단독적 반복의 ‘-어 오-’는 중국어 ‘一直’, ‘从古至今’, ‘越来越……’와 대응된다고 지적하였다. 徐彬(2010)에서는 ‘-어 오-’의 상적 의미를 동작 진행, 기준점에 이른 진행, 동작 지속, 상태 지속, 상태 변화 지속, 단속적 반복으로 나누어 예문을 사용해 중국어 대응표현을 제시하였다. 동작 진행과 동작 지속의 경우에는 중국어 ‘一直(以来)’, ‘下来’와 대응되고 기준점에 이른 진행의 경우에는 중국어 ‘快’와 대응되며 상태 지속과 단속적 반복의 경우에는 ‘一直(以来)’와 대응되고 상태 변화 지속의 경우에는 ‘起来’, ‘下来’와 대응된다고 주장하였다.

최영(2014)에서는 ‘-어 오-’가 ① ‘진행’, ② ‘상태변화 지속’의 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하게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왕용리(2020)에서는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어 오-’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봤는데 ‘-어 오-’는 어떤 행위나 상태,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본용언이 동사인 경우 중국어 ‘一直’, ‘下来’로 표현되고 본용언이 형용사인 경우에는 ‘渐渐(越来越)’로 표현된다고 지적하였다.

刘虹杉(2020)에서는 행위(과정)동사, 형용사와 결합한 '-어 오-'는 진행의 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어 시간조사 '着'과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WANGKEXIN(2022)에서는 '-어 오-'와 선행 상황유형의 결합에 따른 상적 의미와 대응된 중국어 표현을 제시하였다. 상태 상황유형과 결합한 '-어 오-'는 중국어 표현 '正(在)'와 대응되고 행위 상황 유형과 결합한 경우에는 중국어 부사 '一直'와 대응되며 달성 상황 유형과 결합한 경우에는 중국어 '동보구조+快要...了'와 대응되고 완수 상황 유형과 결합한 경우에는 중국어 동보구조와 대응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어 오-'에 관한 연구는 대조 연구나 대응 연구가 대부분이며, '-어 오-'의 중국어 대응 표현으로 부사 '一直', 상표지 '在', '着', 방향보어 '下來' 등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상표지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런 대응 관계는 실제 텍스트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주지하다시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라도 번역의 과정에서 반드시 1:1 대응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번역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기존 어휘 단위의 대응 및 대조 연구를 넘어 문장 차원에서의 번역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위 선행 연구들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만든 예문을 통해서 '-어 오-'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장에서 신문 텍스트와 그 번역문에 나타난 실제 번역 양상과 비교하며 논의를 재검토해 보였다. 이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생산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번역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신문텍스트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여 원문 및 번역 텍스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신문 기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이다. 이 두 신문사는 한국의 대표 신문사로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중문사이트는 비교적 영향력이 크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의 한국어 기사문과 이에 대한 중국어 번역 기사문을 수집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고 비교적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논평의 5가지 파트의 기사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번역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해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은 분야마다 기사문 120편씩 총 1,200편의 한국어 원문텍스트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번역텍스트를 수집하여 병렬말뭉치를 구축하였다¹⁾. 이를 활용하여 해당 자료에 등장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제시 및 분석하고, ‘-어 오-’의 중국어 번역 표현이 선행동사와 어떤 결합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결합 양상이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겠다.

-
- 1) 본고에서 구축한 병렬 말뭉치는 1,769,038 단어(어절) 수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한국어 원문텍스트는 972,970 단어 수의 규모를 갖는다. 구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사문을 HWP 파일에 수집하여 ‘-어 오-’가 속한 문장들과 이를 번역한 번역 텍스트의 문장들을 추출한 뒤 Excel에 정리하였다. 한국어 동사 기본형과 중국어로 번역된 단어를 찾아서 말뭉치를 구축한 뒤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상표지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하였다.
- 1단계: 한국어 원문 텍스트 HWP 파일에서 ‘오’, ‘온’, ‘왔’, ‘올’의 음절이 포함된 단어들 중 ‘-어 오-’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문장을 Excel 파일에 옮긴다. 이때, 해당 음절이 있는 단어가 ① 일반 명사인 경우, ② 본동사인 경우, ③ ‘본동사+고 본동사’의 결합인 경우, ④ 합성동사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 2단계: 1단계에서 추출된 한국어 원문의 중국어 번역문을 찾아서 Excel에 함께 기재한다.
- 3단계: 2단계에서 구축된 자료에서 한국어 상표지 ‘-어 오-’에 연결된 본동사를 상태·순간·행위·완수·달성 등의 동사부류로 분류한다.
- 4단계: 한국어 상표지의 중국어 번역을 따로 기재하며 3단계에서 표시한 동사부류를 참고 하여 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2. '-어 오-'의 상적 의미와 신문 텍스트에서의 중국어 번역 양상

1) '-어 오-'의 상적 의미

이동 동사에서 문법화 된 것으로 인식되는 한국어 상표지 '-어 오-'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진행'이나 '지속'의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어 오-'를 진행상으로 보는 학자로 이주행, 박덕유, 고영근, 남신혜 등이 있다. 이주행(1976)에서는 '-어 오-'를 '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박덕유(1998)는 '-고 있-'과 함께 '-어 오-'를 진행상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화자가 도달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도달점을 향해 현재로 진행해 오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²⁾"이라고 하였다. 고영근(2006)에서는 '-어 오-'를 진행상의 하위 범주로 보고 '접근성 진행'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남신혜(2018)에서는 '-어 오-'를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계속 진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³⁾.

'-어 오-'가 지속의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서정수, 박선옥, 배수자, 도재학 등이 있다. 서정수(1996)에서는 '-어 오-'를 지속 보조 용언으로 보고 "과거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선옥(2005)에서는 [+상태성]의 선행동사와 결합한 '-어 오-'가 과거부터 기준점까지의 상태 지속 표현이라고 지적하였고 배수자(2007)에서는 '-어 오-'는 상태동사와 결합할 때 상태 변화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⁴⁾. 도재학(2014)에서는 '-어 오-'는 상황의 변화에 초점이 있으며 형용사와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진행상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마지막으로 '-어 오-'가 '반복'의 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김윤신과 박혜진이 있다. 김윤신(2008)에서는 전형적인 달성사건과 완성사건이

2) 박덕유, 「국어의 상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문법적 동사상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55,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p.147.

3) 남신혜, 「한국어 상적 표현문형의 용언 결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211.

4) 배수자,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173.

5) 도재학, 「우언적 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국어학』 제71집, 국어학회, 2014, p.288.

결합할 때 ‘-어 오-’는 동일 유형 사건의 반복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으며⁶⁾, 박혜진(2022)에서는 ‘-어 오-’를 습관상으로 간주하면서 대체로 기준 시점까지의 반복이나 습관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⁷⁾.

본 연구에서는 선행동사의 동사부류가 ‘-어 오-’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므로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해 낸 상적 의미를 되도록 다양하게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행’, ‘지속’, ‘반복’의 세 가지 측면에서 ‘-어 오-’의 번역 양상 연구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2) 신문 텍스트에서의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

본 절에서는 신문텍스트에서의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정리하고 ‘-어 오-’가 주로 번역된 중국어 표현을 귀납하여 이런 중국어 표현들이 선행동사와 어떤 결합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하겠다. 더불어 이러한 결합 양상이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은 크게 중국어 번역이 실현된 경우와 실현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번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무효와 생략의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표지의 상적 의미는 결합한 동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사가 대응 번역어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였다. 동사부류 외의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생략된 경우도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구축한 병렬말뭉치에서 ‘-어 오-’에 대한 중국어 번역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 <표1>과 같다.

6) 김윤신, 「상 보조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제52집, 한국언어학회, 2008, p.70.

7) 박혜진,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 · 담화인지언어학 공동학술 대회 논문 발표집』, 2022, p.32.

〈표1〉 신문텍스트에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⁸⁾

상표지	중국어 번역 양상	횟수	비율		
'-어 오-'	시간부사	一直	99	105	73%
		至今	1		
		多次	1		
		经常	2		
		逐渐	1		
		始终	1		
	상표지	在	18	35	25%
		着	13		
		下来	4		
	시간부사 +상표지	一直+在	2	3	2%
		一直+着	1		
	합계		143		

〈표1〉에서 제시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귀납하면 다음 두 가지 특징으로 정리된다. 먼저, 신문텍스트에 나타난 '-어 오-'는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11가지의 다양한 중국어 대응 표현으로 번역된다. 위 11가지 중국어 대응 표현은 크게 '시간부사', '상표지', '시간부사+상표지'로 분류 가능하며 그 중에서 시간부사 '一直'과 상표지 '在', '着', '下来' 순으로 많이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 오-'는 중국어로 번역할 때 상표지로 번역되는 경우보다 시간부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중에서 '一直'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된 횟수가 높은 시간부사 '一直', 상표지 '在', '着', '下来'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동사와 이런 표현들과 어떤 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이런 결합 양상이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3. 선행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문장의 각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상

8) 본 연구가 구축한 병렬말뭉치에서 '-어 오-'는 총 386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국어 번역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243회로 나타났다.

표지 ‘-어 오-’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에도 다른 통사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행동사에 따라 ‘-어 오-’가 지니고 있는 상적 의미가 다르므로 중국어 번역 시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김윤신(2006)에서는 문장의 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동사의 어휘상이라고 지적하였다⁹⁾. 어휘상은 동사 어휘의 고유한 의미자질 중 시간과 관련이 있는 자질, 즉 각각의 동사에 내재된 시간적 특성을 뜻하는 것이며 문법상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휘상을 배제한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휘상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Smith(1997)¹⁰⁾에서 제시한 동사부류 체계를 근거로 연구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Smith(1997)의 분류 체계를 연구 틀로 삼아 선행동사¹¹⁾의 동사부류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달성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달성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상적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시작과 동시에 종결되며 사태가 종결된 후에는

9) 김윤신,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 『한국어학』 제30집, 한국어학회, 2006, p.33.

10) Smith(1997)에서는 [정태(static)/동태(dynamic)], [완성(telic)/비완성(atelic)], [지속(durative)/순간(instantaneous)] 세 가지 상적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동사를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동작류	동태성 (dynamic)	지속성 (durative)	완성성 (telic)
상태동사(states)	-	+	-
행위동사(activity)	+	+	-
완수동사(accomplishment)	+	+	+
순간동사(semelfactive)	+	-	-
달성동사(achievement)	+	-	+

11) 본 연구에서는 달성동사, 완수동사, 행위동사 세 부류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 한다. 다섯 부류 중에 상태동사와 순간동사는 실제 신문텍스트에서 ‘-어 오-’와 결합한 예문이 없었으므로 상태동사와 순간동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상태가 지속된다¹²⁾. 한국어 달성동사의 하위 부류에 대해서 박덕유(2007)에서는 인식동사¹³⁾를 달성동사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인식동사를 상태동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의견을 모두 일부 수렴하여 달성동사를 일반적인 달성동사와 인식동사 두 측면으로 나누고, 달성동사와 한국어 상표지 '-어 오-', 중국어 상표지 '在', '着', '下来', 시간부사 '一直'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어 오-'

박선옥(2004)에서 '-어 오-'는 시간적 지향점을 기준으로 과거부터 그 지향점까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승희(2016)도 '-어 오-'가 진행의 상적 의미를 가지면서 상황의 내부단계 일부에서 지속되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조건을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지속성]의 상적 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한국어 상표지 '-어 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작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만이 '-어 오-'와 결합이 가능하므로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달성동사와 결합제약을 가지게 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한국어 상표지 '-어 오-'와 달성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예1) 가: *그는 총장을 말아 왔다.

나: *원인 모를 이유로 강아지가 죽어 왔다.

다: *실험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해 왔다.

라: *내 친구는 그를 믿어 왔다.

(예1)의 '말다', '죽다', '발견하다'는 전형적인 달성동사에 해당하며 '믿다'는 인식동사에 해당한다. 위 네 동사들은 모두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12) 조민정,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p.109.

13) 박덕유(2007:140)에서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인식의 작용으로 정서, 기억, 상상, 추리를 포함하는 지적 작용 동사를 인식동사로 정의하였다.

때문에 ‘-어 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에서 ‘-어 오-’와 달성동사가 결합한 예문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다른 통사적 요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래의 예문에서 달성동사가 ‘-어 오-’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예2) 가: 그는 2년 동안 총장을 맡아 왔다.
 나: 원인 모를 이유로 강아지들이 죽어 왔다.
 다: 실험을 통해서 많은 규칙을 발견해 왔다.
 라: 내 친구는 수십 년 동안 그를 믿어 왔다.

김윤신(2008)에서는 일정 기간의 구간을 지정하는 표현과 같이 사용할 때 ‘-어 오-’가 달성동사와 결합하여 결과 상태가 지금까지 혹은 발화시까지 지속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예문 (2가, 라)는 지속성 시간표현인 ‘2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을 추가한 문장으로 두 문장 모두 자연스러워졌다. 이는 ‘총장을 맡고 있는 상태’, ‘그를 믿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시간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도 달성동사와 ‘-어 오-’의 결합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혜진(2022)에서는 달성동사와의 결합에서 ‘-어 오-’는 일반적으로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사태를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태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문 (2나)에서의 ‘죽다’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동작이므로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의 복수화(複數化)로 인해 ‘죽다’라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2다)에서의 ‘발견하다’ 역시 지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목적어의 복수화로 인해 발견하는 동작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이 표현되었다.

14) 김윤신, 「상 보조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제52집, 2008, p.68.

(2) '在'

呂淑湘은 《现代汉语八百词》에서 '在'를 시간부사로 분류하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거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刘月华는 《汉语虚词词典》에서도 '在'는 동작의 지속이나 동작이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유쌍옥(2018)에서는 중국어의 전형적인 진행상 표지로서 '在'는 [+동태성]과 [+지속성]의 자질을 지니는 동사들과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¹⁵⁾. 이에 따라 [-지속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는 달성동사는 '在'와 결합적 제약을 갖는다. 다음으로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달성동사와 '在'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3) 가: *他在受伤。

나: *老师在理解我。

(예3)에서 일반적 달성동사인 '受伤'과 인식동사 '理解'는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상황의 내부단계를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진행상 표지로서의 '在'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3) '着'

기존 연구에서 중국어 상표지 '着'는 '진행'과 '지속'의 상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着'를 동태조사로 간주하면서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房玉清(1992)에서는 '着'가 시간부사 '正', '在', '正在'와의 사용 여부에 따라 '着1'과 '着2'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着1'은 '正', '在', '正在'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동사와 결합하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着2'는 '正', '在', '正在'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다음은 달성동사가 '着'와 결합한 예문이다.

15) 유쌍옥, 「한국어 동작상 '-고 있-'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58.

(예4) 가: 他闭着眼睛。
나: *老师忘记着我。

(예4가)의 ‘闭眼睛’은 일반적인 달성동사에 해당하여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상표지 ‘着’과 결합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인식동사는 중국어 상표지 ‘着’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4나)의 ‘忘记’는 인식동사에 해당하는데 중국어 동사분류 체계에서 상태동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동태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태성]을 요구하는 중국어 상표지 ‘着’과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다.

(4) ‘下來’

현대중국어에서 ‘下來’는 대표적인 방향보어인데 상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呂叔湘(1984)에서 ‘下來’는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에서 현재로의 행위지속’을 나타내고 형용사와 결합할 때 ‘상태의 시작 혹은 지속 발전’의 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陈前瑞(2008), 陳昌來(2017)는 ‘下來’가 행위나 상태 지속의 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수경(2020)에서는 ‘下來’의 공간이동이 행위의 진행으로 투사되면서 완성 시점 이전의 시간구간과 지속성이 부각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⁶⁾. 즉 ‘下來’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달성동사는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下來’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5) 가: *他丢失下来钱包。
나: *他知道下来我。

위의 예문은 달성동사가 중국어 상표지 ‘下來’와 결합한 예문인데 모두 비문이다. (예5가), (5나)에서의 ‘丢失’, ‘知道’은 일반적인 달성동사, 인식동사에 해

16) 유수경, 「중국어 방향보어의 상적 기능에 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89집,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20, p.183.

당하여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下來'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다.

(5) '一直'

《现代汉语虚词词典》에 따르면 '一直'은 상태 지속과 동작 진행 및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정(2014)에서는 '一直'을 지속성 시간부사로 분류하여 일정 기간 이어지는 시간을 표현하며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贾改琴(2009)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시간부사로서의 '一直'과 결합한 동사는 지속성의 특징을 지녀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달성동사의 경우 동작이 순간적으로 끝나므로 내부단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결과단계는 갖는다. 결과 단계가 지속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一直'과 결합하여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一直'과 달성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6) 가: 他一直担任这个班的班主任。

나: 我一直相信他。

(예6가)과 (6나)에서의 '担任', '相信'은 일반적인 달성동사, 인식동사에 해당하여 결과단계를 지니고 있다. 중국어 시간 부사 '一直'과 결합하여 결과단계를 가시화하여 담임을 맡고 있는 상태와 그 사람을 믿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제시한 달성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달성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의 결합 양상

달성동사		상표지					
		-어 오-	在	着 ₁	着 ₂	下来	一直
일반적인 달성동사	말다	X	X	○	X	X	○
인식동사	믿다	X	X	○	X	X	○

2) 완수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완수동사는 하나의 사태가 지속되고 진행되는 내부단계를 가지며 자연적인 종결점을 지니는 동사이다¹⁷⁾. 즉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예문을 통해 완수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어 오-’

‘-어 오-’와 결합하는 동사는 앞서 언급한 [+동태성]과 [+지속성] 외에 [-완성성]의 의미 자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남신혜(2018)는 ‘-어 오-’가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옴을 나타내는 의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태의 시작점이 상정되는데 반해 끝점은 일반적으로 상정되지 않는다¹⁸⁾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완성성]을 지닌 완수동사는 ‘-어 오-’와 결합제약을 갖는다.

(예7) 가: *그 사람은 이 빌라를 지어 왔다.

나: *철수는 에어컨을 수리해 왔다.

예문 (7가)의 ‘짓다’, 예문 (7나)의 ‘수리하다’는 완수동사에 해당하여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완성성]의 의미자질도 지닌다. 위에서 제시한 예문처럼 완수동사가 ‘-어 오-’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다만 박혜진(2022)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시간표현, 다수의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사용하면 결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¹⁹⁾.

17) 이승희, 「한중동사분류와 결합계약 대조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90.

18) 남신혜, 「한국어 상적 표현문형의 용언 결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217.

19) 박혜진,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 공동학술 대회, 2022, p.29.

(예8) 가: 그 사람은 2년 전부터 이 빌라를 지어 왔다.

나: 철수는 몇 년 동안 에어컨을 수리해 왔다.

다: 철수는 수 십대의 에어컨을 수리해 왔다.

위의 예문은 '-어 오-'가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예문이다. (예7가, 나)보다 (예8가, 나, 다)가 더 자연스럽다. (8가)의 경우, '2년 전부터'와 같이 사용해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빌라를 짓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8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동안'의 영향을 받은 '-어 오-'는 '수리하다'와 결합하여 일주일동안 에어컨을 수리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8다)의 경우는 '수 십대의' 영향을 받아 목적어가 복수화되고 에어컨 수리하는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일정 기간과 다수의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추가하면 '-어 오-'는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게 되고 동작이 반복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在'

대표적인 진행상표지로서 중국어 상표지 '在'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사가 [+동태성], [+지속성]의 의미 자질을 지녀야 중국어 상표지 '在'와 결합할 수 있다. 완수동사는 [+동태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在'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9) 가: 保安在锁门。

나: 工作人员在修电视。

예문 (9가, 나)는 완수동사 '锁', '修'가 중국어 진행상 표지 '在'와 결합한 예문이며 모두 자연스럽다. 예문에서의 '锁门'과 '修电视'는 중국어 상표지 '在'와 결합하여 문을 잠그는 동작과 텔레비전을 고치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낸다. 두 예문을 통해 완수동사가 중국어 진행상 표지 '在'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着’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着1’ 과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着2’로 나눌 수 있다. ‘着1’은 행위가 종결된 후에 결과 단계를 가시화하고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합한 동사가 [+동태성]과 [+완성성]을 지녀야 된다. ‘着2’은 사건이나 사태의 내부단계를 가시화하여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着2’과 결합한 동사는 [+동태성],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녀야 한다.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着1’, ‘着2’과 모두 결합할 수 있다. 예문을 통해서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0) 가: 舅舅在厨房里做着菜。

나: 那个男人穿着皮鞋。

위의 예문은 완수동사가 중국어 상표지 ‘着’와 결합한 경우이다. (예10가)의 경우 ‘做菜’는 완수동사에 해당하며 ‘着’와 결합하여 내부단계를 가시화하여 요리를 만드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 (10나)의 ‘穿’은 완수동사의 하위 분류 중 착용동사에 해당하며 ‘着’와 결합할 때 일반적인 완수동사와 다른 결합 양상을 지니고 있다. 김정애(2013)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着’는 착용동사와 결합할 경우에 상태 지속의 상적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⁰. ‘穿’은 내부단계와 결과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着’와 결합할 때 결과단계만 가시화하여 그 남자가 구두를 신고 있는 결과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4) ‘下來’

연속상 표지로 간주되는 ‘下來’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려면 결합동사가 [+동태성],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완

20) 김정애, 「한국어 결과상 ‘-고 있다, -아/어 있다’ 구문과 중국어 ‘着’구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20.

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을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下來'와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下來'가 완수동사와 결합하면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유수경(2020)은 중국어 방향보어는 자체의 어휘적 특징으로 인해 결과적인 이동방향을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위 완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완성의 의미자질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²¹⁾. 다음은 예문을 통해서 '下來'와 완수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겠다.

(예11) 가: 这座房子装修下来的话, 大概需要十几万。

나: 这件衣服, 是我出钱买下来的。

위의 예문은 완수동사가 중국어 상표지 '下來'와 결합한 예문으로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예문 (11)에서의 '装修', '穿'은 완수동사에 해당하여 '下來'와 결합하여 인테리어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을 나타낸다. (예15나)의 경우는 옷을 구입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는 동작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5) '一直'

완수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부단계뿐만 아니라 결과단계도 갖는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속성 시간부사 '一直'은 지속과 반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一直'은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동작의 진행, 반복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一直'과 완수동사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겠다.

(예12) 가: 姨妈一直在厨房里做菜。

나: 他那一直穿在身上的长衫已经破了。

21) 유수경, 앞의 논문, p.165.

예문 (12)에서의 ‘做菜’, ‘穿’은 완수동사에 해당하며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예문 (12가)의 경우 ‘一直’이 ‘做菜’와 결합하여 요리를 만드는 동작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 (12나)의 경우 ‘一直’은 ‘穿’과 결합해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지속됨을 표현한다. 완수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완수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완수동사 \ 상표지	-어 오-	在	着 ₁	着 ₂	下来	一直
만들다	X	○	○	○	○	○
신다	X	○	○	X	○	○

3) 행위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Smith(1997)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행위동사는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움직임이 있는 동작이므로 이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가 있으며 이 행위자가 움직임을 끝내고자 할 때 언제라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행위동사의 종결점은 동사가 지시한 상황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다²²⁾. 이로 인해 행위동사는 내부단계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단계는 없다. 아래에서 행위동사와 상표지 ‘-어 오-’, ‘在’, ‘着’, ‘下来’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 오-’

행위동사는 진행상 표지 ‘-어 오-’와 결합하여 동작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행위동사와 ‘-어 오-’의 결합 양상은 다음과 같다.

(예13) 가: 그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 왔다.

나: 그녀는 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왔다.

22) 유쌍옥, 앞의 논문, p.48.

위의 예문은 행위동사와 상표지 '-어 오-'가 결합한 예문이다. (예13가, 나)의 '운동하다', '일하다'는 행위동사에 해당하며 상표지 '-어 오-'와 결합하여 운동하는 동작과 일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2) '在'

중국어 상표지 '在'는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태성]과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요구한다. 행위동사는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어 상표지 '在'와 결합하여 내부단계를 가시화시키고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예14) 가: 选手在运动。
나: 爷爷在看电视。

(예14)의 '运动'과 '看电视'은 행위동사에 해당하여 [+지속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14가)의 경우 '运动'은 '在'와 결합하여 선수가 운동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14나)의 경우 '看电视'은 '在'와 결합하여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가 진행 중임을 표현한다.

(3) '着'

중국어 상표지 '着'는 선행동사에 따라 동작의 진행과 상태의 지속을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행위동사는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어 내부단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행위동사는 '着'와 결합하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예15) 가: 爷爷在屋里看着电影。
나: 敏英在教室上着课。

위의 예문은 중국어 상표지 '着'가 행위동사와 결합한 예문으로 모두 자연스

러운 문장이다. (예15)의 ‘看电影’, ‘上课’는 내부단계를 가지고 있는 행위동사에 해당하며 중국어 상표지 ‘着’와 결합하여 영화를 보는 동작과 수업을 하는 동작이 진행됨을 표현한다.

(4) ‘下來’

卢英顺(2000)은 ‘下來’를 연속상 표지로 간주하면서 선행동사가 [+동태성]과 [+지속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³⁾. 행위동사는 이 두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下來’와 결합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예16) 가: 李明不但坚持下来, 而且是表现最好的人,
나: 这种工作方法, 虽然略显麻烦, 但仍沿袭使用下来。

(예16)에서 ‘坚持’, ‘使用’은 행위동사이며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 두 행위동사는 종결점이 없기 때문에 내부단계만 가지며 결과단계는 없다. 이에 따라 중국어 상표지 ‘下來’와 결합하여 견디는 행위와 작업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거에서 말하는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5) ‘一直’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행위동사는 중국어 시간부사어 ‘一直’와 결합할 수 있다. 《现代汉语八百词》에서 ‘一直’은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행위동사는 내부단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一直’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낼 수 있다.

23) 卢英顺, 「现代汉语中的“延续体”」, 『安徽师范大学学报』, 第3期, 2000, p.430.

- (예17) 가: 为了保持竞争力, 他一直学习新技术。
 나: 孩子一直看电视, 不睡觉也不写作业。

위의 예문은 행위동사가 '一直'과 같이 사용된 예문이다. (예17가)에서의 '学习新技术'는 '一直'과 결합해서 신기술을 공부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17나)의 경우 행위동사 '看电视'이 '一直'과 결합하여 텔레비전을 보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다. 앞서 제시한 행위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을 종합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행위동사와 '-어 오-', '在', '着', '下来', '一直'의 결합 양상

행위동사 \ 상표지	-어 오-	在	着 ₁	着 ₂	下来	一直
운동하다	○	○	X	○	○	○
실시하다	○	○	X	○	○	○

4. 선행동사의 동사부류에 따른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

앞의 3장에서는 달성동사, 완수동사, 행위동사와 한국어 상표지 '-어 오-', 중국어 상표지 '在', '着', '下来', 중국어 시간부사어 '一直'의 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병렬말뭉치에 나타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동사부류에 따라 <표5>와 같이 정리하고,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통하여 이런 결합 양상이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5> 동사부류에 따른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

동사부류	중국어 번역 양상		횟수
달성동사	시간부사	一直	19
	상표지	着 ₁	4
	합계		23
완수동사	시간부사	一直	37
	상표지	在	3

	합계	40		
행위동사	시간부사	一直	43	
	상표지	在	15	26
		着 ₂	9	
		下来	2	
합계	69			

신문 텍스트 분석 결과, <표5>에서와 같이 선행동사의 동사부류에 따라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달성동사와 ‘-어 오-’가 결합할 때 ‘-어 오-’는 동작의 반복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데이터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달성동사와 결합하는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번역 양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와 중국어 상표지 ‘着’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상표지 ‘在’, ‘着’, ‘下来’가 달성동사와의 결합체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着’보다 ‘一直’로 번역된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一直’로 번역된 경우가 15회인데 반해, 상표지 ‘着’로 번역된 경우는 4회이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一直’이 동작의 반복뿐만 아니라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번역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18) 가: 그 동안 삼성의 미전실은 대형 인수합병(M&A) 등 그룹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약 60개 계열사를 통솔하는 역할을 해왔다.

此前三星的未来战略室决定大型并购(M&A)等集团的主要事件, 扮演着统帅约60家分公司的角色。

나: 1999년 하사로 임관해 항공관제 임무를 담당해 온 정 준위는 조종사의 꿈을 안고 2004년 조종 준사관에 도전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초의 여성 헬기 조종 준사관이 됐다.

郑准尉自1999年被任命为下士后一直负责航空管制任务, 怀揣着飞行员的梦想于2004年挑战飞行准士官, 并在22比1的竞争中脱颖而出, 成为首位女性直升机飞行准士官。

다: 최씨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왔다.

崔某此前一直拒绝出席国会的听证会。

라: 나이앤티크이 지금까지 맥도널드, 스타벅스 등 대형 요식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되진 않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Niantic迄今为止一直与麦当劳和星巴克等大型餐饮服务企业缔结合作关系, 中小企业很难成为合作的对象, 但事实是, 就企业而言绝对是一次不想错过的机会。

위의 번역 사례는 시간부사, 목적어 등 문장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어 오-’가 달성동사와 결합하게 된 경우이다. (예18가, 나)의 ‘역할을 하다’, ‘임무를 담당하다’는 달성동사에 해당하며 앞에 ‘그 동안’, ‘1999년’의 영향을 받아 ‘-어 오-’와 결합하여 ‘미진실이 통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 ‘항공관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예18가)에서의 ‘-어 오-’는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 예문 (18나)는 중국어 상표지 ‘着’로 번역되었다. (예18다, 라)의 ‘거부하다’와 ‘제휴를 맺다’는 ‘그동안’, ‘요식업체들의 영향을 받아 ‘-어 오-’와 결합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거부하는 동작과 제휴를 맺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표현했다. 이 경우에는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로 번역되었다.

완수동사와 결합한 경우 ‘-어 오-’는 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표5>에 따르면 완수동사와 ‘-어 오-’가 결합할 때 ‘-어 오-’의 번역 양상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과 상표지 ‘在’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완수동사와의 결합 양상만 보면 ‘着’과 ‘下來’는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완수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상적 의미가 ‘-어 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下來’, ‘着’으로 번역되지 않는다. 즉 ‘-어 오-’는 완수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완수동사와 결합할 경우에 ‘下來’는 동작의 완성, ‘着’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두 번째 특징은 ‘-어 오-’를 ‘一直’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在’가 다수의 사태를 표현하는 맥락에서만 동작의 반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완수동사와 결합할 때 ‘在’보다 ‘一直’의 사용범위가 더 넓다.

(예19) 가: 국방부는 “199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현 상황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韩国国防部表示, “这一演习从1996年以来每年都在举行。”认为不宜将它与眼下局势联系起来。

나: 실제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의 발사 성공 이후 ICBM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독려해 왔다. 事实上, 北韩劳动党委员长在去年2月份成功发射远程导弹(光明星号)之后, 一直积极督促有关洲际导弹的技术开发。

다: 서울시가 2013년 미래유산으로 지정했지만 출입구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首尔市虽然在2013年把它定为未来文化遗产, 但一直备受指责, 连出入口都没有管理好, 会发生各种安全事故等危险。

라: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 등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해 왔다.

在野党此前一直要求总统退居二线, 委任国会推荐总理等的“有序下台”。

위의 번역 사례는 완수동사와 결합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사례이다. (예 19가)의 ‘실시하다’는 ‘1996년부터 연례적으로’, ‘-어 오-’와 결합하여 훈련이 해마다 반복되었음을 나타낸다. 중국어 번역문에서도 ‘-어 오-’를 상표지 ‘在’로 번역하여 ‘每年’과 같이 사용하여 해마다 훈련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냈다. (예 19 나, 다, 라)의 경우, ‘독려하다’, ‘지적을 받다’, ‘요구하다’는 완수동사에 해당하며 ‘발사 성공 이후’, ‘2013년’, ‘그동안’의 영향을 받아서 ‘-어 오-’와 결합하여 독려하는 동작, 지적을 받는 동작, 요구하는 동작이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이 표현되었다. 이로 인해 위 예문에서의 ‘-어 오-’는 모두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로 번역되고 있다.

행위동사는 ‘-어 오-’와 결합하여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낸다. <표5>를 통해서 우리는 행위동사와 결합한 ‘-어 오-’가 달성동사·완수동사의 경우와는 다른

번역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행위동사와 결합한 ‘-어 오-’가 중국어 상표지 ‘在’, ‘着’, ‘下來’, 시간부사 ‘一直’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在’, ‘着’, ‘下來’, ‘一直’는 행위동사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20) 가: 삼성전자는 이미 2007년부터 인도 북부 노이다(Noida)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과 연구 개발(R&D) 센터를 운영해 왔다.

三星电子已从2007年开始在印度北部运营着智能手机生产工厂和研发中心。

나: 리튬이온 2차전지 소재 시장은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도하다 한국 소재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해 왔다.

锂离子电池的原材料市场, 一直由日本企业依靠技术力量把持, 但韩国企业也在迅速追击, 不断缩小距离。

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 이어져 오던 신정 이틀 휴식이 김정은 시대에는 ‘배려’라는 명목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이다.

在金日成和金正日时代持续下来的元旦休息两天的惯例, 到了金正恩时代, 在“关怀”的名义下变成时短时长的安排。

라: 2014년부터는 국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수출해 왔다.

从2014年开始一直向蒙古国出口韩国中小企业的多种商品。

위의 예문은 행위동사와 결합한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사례이다. (예20가, 나, 다)는 각각 ‘-어 오-’를 중국어 상표지 ‘着’, ‘在’, ‘下來’로 번역된 사례이다. ‘운영하다’, ‘추격하다’, ‘이어지다’는 중국어 ‘运营’, ‘追击’, ‘持续’에 해당하며 중국어 상표지 ‘着’, ‘在’, ‘下來’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동작, 추격하는 동작, 이어지는 동작이 진행됨을 나타낸다. (예20라)는 ‘-어 오-’를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으로 번역한 사례이며 한국어 ‘수출하다’의 대응표현 ‘出口’와 결합하여 수출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표현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문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상표지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실제 번역 텍스트를 통해서 선행동사의 동사부류가 ‘-어 오-’의 중국어 번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선행동사의 동사부류에 따라 ‘-어 오-’의 중국어 번역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 오-’는 일정 기간을 표현하는 시간표현, 복수 사태를 표현하는 주어·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의 영향을 받아 달성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 오-’는 동작의 반복이나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중국어 상표지 ‘在’, ‘着’, ‘下來’는 달성동사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의 반복의 상적 의미를 나타낼 때 ‘-어 오-’는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로 번역되고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에는 주로 시간부사 ‘一直’과 상표지 ‘着’로 번역되었다.

달성동사처럼 일정 기간과 복수 사태를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사용하면 ‘-어 오-’는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상표지 ‘着’과 ‘下來’는 완수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완수동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상적 의미가 ‘-어 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완수동사와 결합한 ‘-어 오-’는 ‘下來’, ‘着’로 번역되지 않고 주로 중국어 시간부사 ‘一直’, 상표지 ‘在’로 번역된다.

[+동태성], [+지속성], [-완성성]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행위동사는 ‘-어 오-’와 결합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着’만이 행위동사와 결합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오-’를 중국어 상표지 ‘在’, ‘着’, ‘下來’, 시간부사 ‘一直’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지면상의 이유로 ‘-어 오-’의 중국어 번역을 연구하는 데에 선행동사의 동사부류만 초점으로 하고 시간부사, 주어, 목적어 등 다른 문장 성분이 번역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깊이 분석하지 못한 데에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4.
 박덕유, 『한국어의 相 이해』, 제이앤씨, 2007.
 박선옥,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역락, 2005.
 呂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4.
 Smith, C. S.,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7.

2. 논문

- 고영근,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제30집, 한국어학회, 2006, pp.1-30.
 김윤신, 「한국어 동사의 사건구조와 어휘」, 『한국어학』 제30집, 한국어학회, 2006, pp.32-61.
 _____, 「상 보조 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제52집, 한국언어학회, 2008, pp.57-78.
 김정애, 「한국어 결과상 ‘-고 있다, -아/어 있다’ 구문과 중국어 ‘着’구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구종남,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제76집, 한국언어학회, 2011, pp.5-33.
 남신혜, 「한국어 상적 표현문형의 용언 결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박덕유, 「국어의 상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문법적 동사상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55, 한국국어교육학회, 1998, pp.131-163.
 박혜진, 「보조용언 구성 ‘-어 오-’의 상적 의미에 대하여」, 『2022년 가을 한국영어학학회·담화인지언어학 공동학술 대회 논문 발표집』, 2022, pp.22-35.
 배수자,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173.
 왕용리, 김선정, 「한국어 보조용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9집,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pp.423-449.
 이승희, 「한중동사분류와 결합제약 대조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갑남, 「코퍼스 기반 현대중국어 방향보어 ‘下來/下去’의 의미·용법 연구」, 『동아인문학』 제61집, 동아인문학회, 2022, pp.143-181.
 이 남,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 양, 「한국어 보조동사 ‘-어 가다, -어 오다’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주행, 「국어 조동사 연구 문제의 제기」,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11집, 한국어

교육학회, 1976, pp.121-164.

유수경, 「현대 중국어 ‘V下(来/去)’ 구문의 의미-통사적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_____, 「중국어 방향보어의 상적 기능에 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89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20, pp.159-193.

유쌍옥, 「동작상 ‘-어 있-’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13집, 한국어교육연구소, 2018, pp.86-109.

_____, 「한국어 동작상 ‘-고 있-’의 중국어 번역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중국어 상표지 ‘着’의 한국어 번역 양상 연구」, 『중한문화언어연구』 제19집, 천진사범대학한국문화연구소, 2020, pp.229-255.

조민경,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刘虹杉, 「한중 시제와 상의 대조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曹洪豫, 「汉语复合趋向补语与动词关联度的实证研究」, 『外语研究』, 第6期, 2001, pp.40-45.

陈前瑞, 「汉语体貌系统研究」, 华中师范大学博士论文, 2003.

高顺全, 「体标记“下来”、“下去”补议」, 『汉语学习』, 第3期, 2001, pp.12-14.

贾改琴, 「现代汉语时间副词的形式语义研究」,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09.

刘正光, 「“下来”、“下去”作补语时的句法语义限制及其认知解释」, 『外语学刊』, 第1期, 2013, pp.60-64.

卢英顺, 「现代汉语中的“延续体”」, 『安徽师范大学学报』, 第3期, 2000, pp.430-435.

苗守艳, 「谓词性宾语句中体标记与谓词配置研究」, 『宁夏大学学报』, 第2期, 2021, pp.430-435.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9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Aspect ‘-e o-’

Liu, Shuangyu · Kim, Jihye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how the verb category of the preceding verb in actual translated texts may influence the Chinese translation of the Korean grammatical form ‘-e o-.’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collected newspaper texts to build a Korean–Chinese parallel corpus. The analysis of the Chinese translation patterns of ‘-e o-’ revealed that it is primarily translated into Chinese using the temporal adverb ‘yizhi’ and the markers ‘zai,’ ‘zhe,’ and ‘xialai.’ Subsequently, the study analyzed the combination patterns of achievement verbs, completion verbs, and action verbs with ‘-e o-,’ ‘yizhi,’ and the markers ‘zai,’ ‘zhe,’ ‘xialai’ through actual translation c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Chinese translation patterns of ‘-e o-’ vary depending on the verb category. ‘-e o-’ combined with achievement verbs, which have combinatory constraints with ‘zai,’ ‘xialai,’ and ‘zhe²,’ are primarily translated into ‘yizhi’ and ‘zhe¹.’ However, ‘-e o-’ combined with completion verbs, which can be combined with ‘zai’ and ‘xialai,’ is not translated into ‘xialai’ and ‘zhe¹’ due to the lack of semantic congruence between completion verbs and the conveyed meaning of ‘-e o-.’ Instead, it is mainly translated into the Chinese temporal adverb ‘yizhi’ and the marker ‘zai.’ ‘-e o-’ combined with action verbs, which only has combinatory constraints with ‘zhe¹,’ exhibits diverse translations into Chinese as ‘zhe¹,’ ‘zai,’ ‘xialai,’ and ‘yizhi.’

Keyword Aspect, Korean–Chinese Translation, Sentence Components, Verb Category, Combination Patterns, Parallel Corpus

중한 가상 이동 표현에 대한 고찰

-표현 유형과 언어 유형을 중심으로-

강 교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한 가상 이동 표현을 연구하여 두 언어 가상 이동 표현의 유형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Talmy의 'fictive motion' 논의,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 언어의 특성을 제시하고, 개별성을 추출하였다. 중한 가상 이동의 유형을 대조하고, 이동 사건 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동 사건에서의 유형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almy의 주장에 따라 이동 사건의 핵심 도식인 '경로'를 발산 경로, 패턴 경로, 틀 상대적 이동, 도래 경로, 접근 경로, 동연 경로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을 토대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이동 사건 유형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Talmy가 제시한 6가지 유형의 가상 이동 표현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는 위성 틀 언어 및 동사 틀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해 양 언어가 특정한 언어 범주에 속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신 균등 틀 언어의 범주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양국 가상 이동 표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중국어와 한국어 이동 사건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주제어 가상 이동, 유형, 동사 틀 언어, 위성 틀 언어, 균등 틀 언어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생

〈목차〉

1. 서론
2. 가상 이동에 대하여
 - 1) Talmy의 가상 이동 설
 - 2) 중한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3. 이동 사건 유형학
 - 1) 중국어, 한국어 이동 사건의 유형 귀속
 - 2) Talmy 이동 사건 유형에 대한 보정
4. 결론

1. 서론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The mountain range goes from Canada to Mexico¹⁾.’ 같은 표현을 접하거나 산출하기도 한다. 위 문장에 이동 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전체의 동(動)적인 의미 속성이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mountain’이 고정된 실체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나 공간 범주에서 정(靜)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나 우리가 이 사건에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적인 사유로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 현상은 전통적으로 학교문법에서 의인법과 같은 수사학적 수단으로 연구되었다. 인지언어학자 Talmy가 먼저 이와 같은 언어 현상에 주목하여 ‘가상 이동(fictive motion)’이라고 명명하였다.²⁾ 그간 가상 이동 표현에 관한 연구로는 가상 이동 표현 본체 연구, 언어 간 대조 연구, 가상 이동 구문 습득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 이동 표현 본체 연구는 다시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인

1) MATSUMOTO, YO, *Subjective motion and English, Japanese verbs*, Cognitive Linguistics, vol. 7(2), 1996, pp183-226.

2) Talmy의 연구에 따라 ‘virtual motion’이라고도 하였지만, 최종적으로 ‘fictive motion’으로 명명하였다. 그와 동시기, 또는 그 후의 다른 학자들도 ‘subjective motion’, ‘abstract motion’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본고에서는 ‘fictive motion’을 택하기로 하였다.

지 기제 등 연구를 세분화한다. 언어 간 대조 연구에 대부분은 영한, 영중, 영일 등 영어를 위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국어 분야에서는 아직 몇몇 사람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³⁾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양 언어가 가상 이동 표현을 공존하고 있다. 이렇듯 양국 언어 중 가상 이동 표현들은 구체적인 구문적 특징에 차이가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사건 인식에 있어서 공유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메커니즘은 흡사하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파악한다면, 언어 유형학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Talmy의 ‘이동 사건 틀 이론’, 인지언어학 이론 등을 바탕으로 중한 양 언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분석하겠다. 이를 통해 양국 가상 이동 표현과 이동 사건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가상 이동에 대해

1) Talmy의 가상 이동 설(說)

‘이동(motion)’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 어떤 실체가 위치/자리에 있어 지각적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한다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의 인지언어학자 Talmy가 먼저 이동 사건을 관심사로 삼고 이를 이동 사건 틀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동 사건을 심도 있게 해석하였다. Talmy(1975)⁵⁾에서 처음으로 가상 이동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중복 체계⁶⁾’의 이론적 틀에서 가상 이동 표현에 관

3)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임지룡(1998), 이기동(2000), 임태성 (2012) 등이 인지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가상 이동 표현을 연구한 바가 있다.

4) 임지룡,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제5권 제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998, p.181.

5) Talmy,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5, pp.419-430.

6) 중복 체계(overlapping systems)의 기능은 인간이 동일한 객관적인 물체에 대해 진실성과 허구성의 두 가지 인지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인지적 경험이 서로 작용하며 정적인 물체에 대해 동적인 의미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인간이 시시각각 몸소 실천으로 한 모든 이동 사건을 일반 이동 사건과 가상 이동 사건으로 양분된다. 그 후 Talmy(2000a)⁷⁾의 연구에서는 이동 사건은 주로 6가지 의미 속성⁸⁾, 즉 ‘전경’, ‘배경’, ‘이동’, ‘경로’, ‘방식’, ‘원인’ 의미 속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동 사건 틀에서 가상 이동 표현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 즉 ‘의미 속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상 이동 표현의 특징, 또는 생성 원리를 알 수 있다. Talmy는 ‘가상 이동’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동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명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비이동체’를 ‘이동체’로 인식하고 인지 활동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가상 이동 표현을 이해하고 산출하는 것은 가상 이동이 아닌 일반 이반 이동 사건에 의뢰하는 동시에 인지적인 가공을 덧붙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이동이 가상 이동과 같은 개념적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일반 이동 사건의 개념적 구조를 바탕으로 은유, 환유, 계슈탈트 등 여러 인지언어학, 심리언어학적 기제로 가상 이동 표현을 생성하고 해석한다. 이해하기 쉽게 일반 이동 사건과 가상 이동 사건의 영상도식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7)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8) 임태성(2018)에 따라 Talmy는 ‘의미 속성(meaning compon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전의 연구에서는 ‘의미역(semantic role)’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가상 이동 표현을 구성하는 의미 속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경, 배경, 이동, 경로 네 가지가 내부 의미 속성이 되고 방식, 원인은 외부 의미 속성이 된다. 한편, 정상환(2015)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들을 정의한 바가 있다.

전경(figure): 움직이거나 개념상 이동할 수 있는 대상

배경(ground): 전경이 움직일 때 관계를 맺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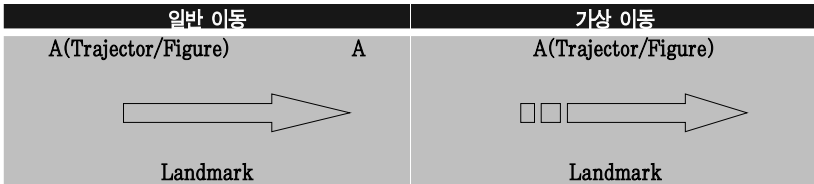
이동(motion): 동작 자체의 현존

경로(path): 배경과 관계하여 전경이 따라가는 경로

방식(manner): 이동/동작이 일어나는 양상/방식

요인(cause): 사건 발생의 원인

9) 영상 도식은 공간 구조를 개념 구조에 투사하기 위해 지각 경험을 축약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1〉 일반 이동 사건과 가상 이동 사건의 영상도식 비교

일반 이동 도식에서 탄도체 A는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인지 주체는 지표를 참조하여 탄도체 A가 처한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조적으로, 가상 이동 도식에서 탄도체 A는 실제 이동을 겪지 않으므로 점선 화살표로 탄도체 A의 이동 방향과 경로를 나타내었다. 이때 인지 주체는 지표를 참조하여 탄도체 A의 상대적 정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가상 이동의 생성 기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보다 더 활발히 진행해왔다. Lakoff & Johnson(2008)¹⁰⁾에서 가상 이동은 ‘FORM IS MOTION’, 즉 개념적 은유의 특수한 언어 표상 형식이라 하고 영역 간 투사(cross-domain mapping)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Langacker(1987)¹¹⁾에서는 가상 이동은 인지 주체가 심적 주사¹²⁾를 통해 경로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보고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의 가공과 이해에 심적 주사와 동태적 해석의 참여는 필수라고 보았다. 또, 개념적 혼성 관련하여 Fauconnier(2002)¹³⁾은 가상 이동 표현은 입력공간 I 과 입력공간II의 개념적 혼성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魏在江(2018)¹⁴⁾에서는 문

10)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1)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ol.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12) 여기서 말하는 주사(走査, scanning)는 개념화자가 사물을 바라볼 때, 시점 이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공간에서도 그것을 역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13) Gilles Fauconnier,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2002

14) 魏在江, 「语境与隐喻的产生与理解—认知语言学中的语境研究之三—」, 『中国外语』第6期, 2018, pp.33-38.

법적 환유를 가상 이동 구문 형성의 동인으로 여겼고 이와 더불어 동사 의미의 일반화, 경로 정보의 공기 현상, 인지 경험의 재현은 모두 환유적 사유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 이동 현상에 대한 인지적 해설 이외에도 국내외 학자들은 가상 이동 표현의 의미적, 구문적 특징 등을 연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Talmy의 이동 사건 틀 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사를 살펴보면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에 관해서 중국 학계에서는 거의 Talmy의 이동 사건 틀 이론을 전반적으로 흡수하고 중국어 이동 사건을 연구하는데 Talmy의 연구를 인용하였다.¹⁵⁾ 연구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인 만큼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론과 현실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후술하겠지만, Talmy의 이론을 적용한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에 있어 영어와 중국어가 다른 어족에 속하는 관계로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 분류의 불균형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도 한국어가 교착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서구 가상 이동에 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도 괴리가 나타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내 학자 임태성(2018)¹⁶⁾은 임지룡(1998)¹⁷⁾ 등의 연구 결과를 발전시켜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을 재분류하고 체계화하였다.

2) 중한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일부 가상 이동 연구는 연구 대상 또는 언어 재료의 단위를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의도적으로 가상 이동 표현의 언어 단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 서술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상 이동 표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 Talmy(2000b)¹⁸⁾는 경로 의미 속성은 이동 사건의 핵심 도식이 된다고 하였고 Matsumoto(1996)¹⁹⁾도 경로 의미 속성이 가상 이동 사건을 구성

15) 대표적인 연구로는 陶竹·毛澄怡(2011), 钟书能(2012), 范娜(2014), 白雪飞(2018), 陈碧泓(2020) 등이 있다.

16) 임태성, 『가상 이동』, 한국문화사, 2018.

17) 위의 논문, pp.181-205.

18)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IT Press, 2000, pp.218.

하는 필수 요소로 보아 이동 사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almy(2000 a)²⁰⁾에서는 가상 이동 표현의 ‘경로’ 의미 속성별로 ‘발산 경로(emanation paths)’, ‘패턴 경로(pattern paths)’, ‘틀 상대적 이동(frame-relative motion)’, ‘도래 경로(advent paths)’, ‘접근 경로(access paths)’, ‘동연 경로(coextension/coverage paths)’ 여섯 가지 유형²¹⁾을 분류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Talmy의 가상 이동 표현 분류

가상 이동 표현의 유형	하위 유형
발산 경로	방향 이동 경로
	방사선 이동 경로
	그림자 이동 경로
	감각 이동 경로
	의사소통 이동 경로
패턴 경로	×
틀 상대적 이동	글로벌 틀
	로컬 틀
도래 경로	×
접근 경로	×
동연(同延) 경로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발산 경로’ 유형 가상 이동 표현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하위 유형을 다시 ‘방향 이동 경로(orientation paths)’, ‘방사선 이동 경로(radiation paths)’, ‘그림자 이동 경로(shadow paths)’, ‘감각 이동 경로(sensory paths)’, ‘의사소통 이동 경로(communication paths)’ 다섯 가지를 가진다. 틀의 상대적 이동은 ‘글로벌 틀(global frame)’과 ‘로컬 틀(local frame)’

19) 위의 논문, pp.194.

20) 위의 논문, pp.99-176.

21) Talmy나 MATSUMOTO는 한국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였는데 두 사람의 연구는 주로 내성법으로 가상 이동 표현을 범주별로 유형화하였다. 국내에서 ‘emanation paths’, ‘pattern paths’, ‘frame-relative motion’, ‘advent paths’, ‘access paths’, ‘coextension/coverage paths’에 대한 번역은 각기 다르다. 본고에서 임태성(2018)의 ‘발산 경로’, ‘패턴 경로’, ‘틀 상대적 이동’, ‘도래 경로’, ‘접근 경로’, ‘동연 경로’ 등의 용어를 취하도록 한다.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된다.

(1)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Talmy가 분류한 6가지 유형은 모두 중국어에 반영되어 있으며, 중국어의 가상 이동 표현의 기본 유형이 된다.

① 발산 경로

발산 경로 유형 가상 이동은 인간이 만질 수 없는 실체가 전경이 되고 특정 지점에서 출발한 선형(線形) 경로를 통해 가상적인 이동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상 이동의 전경은 일반적으로 광선, 그림자, 소리 등에 해당한다²²⁾.

(1)²³⁾

ㄱ. 灯光照在牆上

등불이 벽을 비추고 있다.²⁴⁾

ㄴ. 雷声总是隱伏着穿行茫茫天宇.....²⁵⁾

천둥소리는 언제나 은은하게 드넓은 하늘을 가로지른다.....

예문 중 전경으로 파악된 것은 각각 등불, 천둥소리이고 이와 연계되는 배경은 ‘벽’, ‘하늘’이다. (1ㄱ)의 가상 이동 경로를 보면 등불은 사건 해석 참여자가 만질 수 없는 무수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1ㄴ)의 경우, 소리 전파는 매질의 밀도, 온도 등과 관계가 있지만 ‘천둥소리’는 배경인 하늘에서 직선으로나 곡선으로나 전파가 가능하고 가상 이동 행위를 완성한다.

22) 陳碧泓, 「現代漢語虛擬位移表達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20, pp.50.

23) 현행 대규모 중한, 중한 병렬말뭉치가 없어 용례를 제시하는 데에 다른 학자들의 용례들을 인용하였다. 본고에서 출처를 밝힌 중한, 한중 용례를 제외한 것들은 모두 필자가 직역하였음을 밝혀둔다.

24) 박미애, 「현대중국어 가상이동의 구문 특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40호, 2023, p.126.

25) 白雪飛, 「漢韓虛擬位移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pp.41.

② 패턴 경로

패턴 경로 가상 이동은 어떤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순서 있게 배열되어 선형(線形)의 경로를 통해 가상 이동된 전경이 하나의 전체가 되도록 한다. 중국어 패턴 경로 가상 이동 표현은 아직 쟁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에 관련하여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패턴 경로 유형 가상 이동은 실제 이동, 즉 일반 이동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이러한 유형의 가상 이동 표현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

ㄱ. 濕疹都起到胸口上来了²⁶⁾

습진이 가슴까지 올라왔다/퍼졌다.

ㄴ. 樓后的草地上依次鋪着許多塊小石板，沿着草地延伸到前方的教學樓²⁷⁾

건물 뒤의 잔디 위에는 작은 석판이 차례로 깔려 있고 잔디를 따라 앞의 강의동까지 뻗어 있다.

예문 (2ㄱ)에서 습진이 피하조직에서 표피로 침투하는 것은 실제 이동 행위에 해당하지만, 인체 표피의 습진들이 마치 서로 연결되고 가슴으로 퍼지는 것은 가상 이동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즉, 표피층 위에서 습진이 확산되는 것은 가상 이동에 해당한다. (2ㄴ)의 경우 여러 개의 석판이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이어 하나의 길, 즉 패턴이 되어 가상 이동을 구성한다. Talmy가 영어 패턴 경로 유형 가상 이동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문 (2ㄷ)의 가상 이동 발생 원리는 역시 (2ㄱ, ㄴ)과 동일하다.

(2)

ㄷ. As I painted the ceiling, (a line of) paint spots slowly progressed across the floor.

천장을 칠할 때 페인트 얼룩이 바닥을 가로질러 천천히 갔다.

26) 陶竹·毛澄怡, 「漢語虛擬位移現象探析」,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2011, pp.119.

27) 위의 논문, pp.68.

③ 틀 상대적 이동

Talmy(2000)에 따르면 언어 시스템에서의 가상 이동 현상은 지각 시스템(perception system), 정확히 말하면 시각 시스템(visual system)에서 그 해당 표현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가상 이동은 우리의 지각 시스템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 표현을 통해 심적 영상이 촉발되기 때문이다. 틀 상대적 가상 이동 표현은 관찰자(observer)를 기반으로 한 가상 이동 유형이다. 우리는 물체를 관찰하고 기술할 때 항상 특정한 틀(frame)과 참조물을 선택한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경험될 때, 그것은 반드시 관찰되는 틀에서 정적인 물체를 통해 해석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물체의 물리학적 속성과 결부되어 질점(mass point), 기준틀(reference frame), 좌표계(coordinate system) 등 동역학 이론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은 다시 ‘글로벌 틀’과 ‘로컬 틀’ 두 가지 틀로 분류되는데 글로벌 틀은 정지와 움직임에 대해 그대로 묘사하는 것인데 반면에 로컬 틀은 실존에 대해 허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틀’과 ‘로컬 틀’은 일정한 조건에서 서로 호환될 수 있다. 틀 상대적 이동은 언어 장치로서 글로벌 틀을 로컬 틀로 전환하여 일정한 공간에 처하고 있는 전경, 배경 등을 인지적 가공을 통하여 정지 혹은 움직임 상태에서 허구적으로 묘사한다. 상술한 분류 방식에 적용되어 중국어 틀의 상대적 이동 유형 가상 이동 표현을 체계화할 수 있다.

(3)

- ㄱ. 途中, 街市繁华, 不断有漂亮建筑从车窗外闪过。(CCL)
도중에 시장은 번화했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 ㄴ. 大地像一块色彩斑斓的地毯, 在车窗外掠过。(CCL)
대지는 마치 알록달록한 카펫처럼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 ㄷ. 乘车沿着展现科威特风貌的滨海大道驰骋, 一道道风景掠过眼帘。(CCL)
쿠웨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해안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니 한 줄기 풍경이 스쳐 지나간다.

(3ㄱ, ㄴ ㄷ) 예문을 통해 개념화자인 관찰자가 모두 달리는 차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찰자는 자신, 혹은 자신이 타고 있는 차를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정지 상태로 간주한다. 이와 호응하여 관찰 대상인 ‘건물’, ‘대지’, ‘풍경’이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전환되어 가상적으로 이동한다. 이때 관찰자가 배경으로 바뀌면서 ‘건물’, ‘대지’, ‘풍경’이 전경으로 전환된다.

④ 도래 경로

Talmy(2000)에 따르면 도래 경로형 가상 이동은 개념화자에게 관찰되는 물체가 어떤 출발지점에서 암시된 물리적 경로를 통해 현재 처해 있는 장소에 오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상 이동 유형이다. 중국어 도래 경로 가상 이동 표현²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 ㄱ. 四周是柳树环绕的幽静湖泊。(CCL)
사방은 버드나무로 둘러싸인 한적한 호수다.
- ㄴ. 安沛机场地形复杂, 濒临红河, 群山环抱。(CCL)
안페이 공항은 지형이 복잡하고 홍강에 인접해 있으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 ㄷ. 数根笋状柱形石塔直逼云天, 高度错落有致。(CCL)
여러 개의 죽순 모양의 석탑이 하늘로 향해 솟아 있고 높이가 엇갈린다.

(4ㄱ, ㄴ)과 같은 도래 경로 가상 이동 표현은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둘러싸다’라는 가상적 이동 과정을 거쳐 현재 있는 위치에 도착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바로 가상 이동을 통해 전경으로서의 관찰 대상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예문 (4ㄷ)도 마찬가지이다.

28) 陈碧泓 (2020 : 71) 에서는 중국어 도래 경로 가상 이동 표현을 ‘到达型’과 ‘显现型’로 재분류하였는데 여기서 장황하게 기술하지 않기로 하였다.

⑤ 접근 경로

접근 경로 가상 이동은 어느 정적인 물체의 위치를 묘사하는 데에 다른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물체가 이 정적인 물체에 가까이 오는 이동 궤적을 통해 기술되는 가상 이동 유형이다. 도래 경로 가상 이동 표현에는 가상 표상과 실상(實相) 표상이 공존한다²⁹⁾. 서술되는 정적인 물체가 실상 표상에 해당되고 물체가 암시된 경로를 따라 정적인 물체에 접근하는 것은 가상 표상에 해당한다. 즉 정적인 물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이고, 이 실체에 향하여 가상 이동 행위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물체는 허구적인 것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5)

ㄱ. 广阔的欧亚大陆一直延伸下去, 穿过荒凉的西伯利亚、蒙古沙漠与青藏高原, 中国北京, 远远地处在地图的边缘。(CCL)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은 황량한 시베리아, 몽골 사막, 칭짱 고원을 거쳐 쪽뻗어 있으며, 중국 베이징은 지도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ㄴ. 出永安门, 沿护城河往西, 过了北京永定门火车站不远, 有个叫侨园的饭店, 专门接待来北京的洋学生。(CCL)

용안문을 나와 해자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베이징 용정문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이징으로 오는 유학생을 전문으로 받아들이는 교원이라는 호텔이 있다.

예문 (5ㄴ)에서 교원 호텔의 위치를 용안문, 해자, 용정문 기차역 이 세 가지 지점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가상적 이동을 통해 묘사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바로 Langacker의 주관성 이론과 관련이 있다. Langacker(1987: 144-6)³⁰⁾에 의하면 개념화자가 ‘요약 주사’로 (5ㄴ)과 같은 이동 사건을 인지한다. 요약 주사는 사건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간의 연결 관계를 부각한다.

29) 위의 논문, pp.72.

30) 위의 책, pp.144-6.

⑥ 동연 경로

동연 경로형 가상 이동은 개념화자가 공간 범주에서 어떤 연성(延性)과 전성(展性)을 가지는 물체의 외관, 방향, 위치 등을 파악할 때 기술되는 표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동연 경로 유형 가상 이동에 관한 연구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왔다.

(6)

- ㄱ. 都市带以米兰-都灵-热那亚三角区为中心沿地中海向南沿伸到比萨和佛罗伦萨。(CCL)
도시군은 밀라노-토리노-제노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중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피사와 피렌체까지 뻗어 있다.
- ㄴ. 陆从海岸向外延伸, 开头坡度较缓, 相隔一段距离后, 坡度突然加大, 直达深海底。(CCL)
대륙은 해안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며 처음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다가 일정 거리를 지나면 급격하게 경사가 높아져 깊은 해저에 이른다.
- ㄷ. 328国道蜿蜒东去, 古镇曲塘被其一破为二。(CCL)
328번 국도가 동쪽으로 구불구불하게 뻗어 있고, 취탕이라는 고대 도시가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예문 (6ㄱ) 중 삼각지대는 전경으로서 정적인 속성을 띠고 있지만, 관찰자가 도시군의 외관이나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서는 전경의 가상 이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삼각지대에서 출발하여 해안을 따라 도착지점인 피사와 피렌체까지의 이동은 가상적인 것인데 언어 표현으로 이를 개념화할 때 심적 주사의 작동이 필요하다. 예문 (6ㄷ) 경우도 비슷하다. 관찰자는 인간으로서 시야 범위는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물의 전부를 한 번에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개념화자는 가상 이동을 통하여 인지적 가공을 거쳐 사건 전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상으로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어에서의 6가지 가상 이동 표현은 영어처럼 유형화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陈碧泓(2020: 49)에서는 위의 분류 방식에 적용하여 베이징대학교 CCL말뭉치³¹⁾에

서 수록된 395개의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출현 빈도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현대 중국어에서 발산 경로 가상 이동 표현과 동연 경로 가상 이동 표현은 각각 149, 145개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수량이 비교적 많고 두 유형이 가상 이동 표현 전체 수량의 7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여섯 가지의 가상 이동 표현 중 패턴 경로 가상 이동 표현 수량이 제일 적게 나타나 10개밖에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상술한 통계를 통해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분포상 비대칭, 불균형 양상을 대략 알 수 있다. 또 말뭉치의 체제를 살펴보면, 395개의 가상 이동 표현은 90% 이상이 문학적 텍스트이고 나머지의 일부 기상 이동 표현은 구어성 텍스트였다.

(2)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 분류 방식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 분류 방식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국내 주류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분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Talmy 이동 사건 틀 이론을 기반으로 한 분류 방식, 즉 위의 중국어와 같은 분류 방식³²⁾이며 다른 하나는 임지룡(1998), 임태성(2018)의 분류 방식이다. 첫 번째 분류 방식이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방식과 동일하여 여기서 다시 서술하지 않겠다³³⁾. 국내 임태성(2018: 87)³⁴⁾에서는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을 두 가지 분류하였는데 ‘상대적 이

31) 베이징대학교 중국언어학연구센터(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에서 구축한 대규모 중국어 말뭉치이다.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32) 이러한 분류 방식을 취하는 학자는 백설비(2018), 맹경흠(2018)이 있다.

33) 국내서 맹경흠(2018: 39)에서는 Tamly, Matsumoto의 분류 방식을 취하여 연구하였는데 단, 여섯 가지의 가상 이동 유형을 재명명하였다.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맹경흠(2018)에서의 분류	대응되는 가상 이동 유형
연장형	동연 경로(Tamly)
변위형	도래 경로(Tamly)
발산형	발산형(Tamly)
지시형	접근 경로(Tamly)
형태 변화형	주관적 변화(Matsumoto)
상대 전환형	틀 상대적 이동(Tamly)

동 및 ‘심리적 이동’의 큰 테두리에서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을 다루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전치사와 같이 동사의 의미를 보는 영어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임태성(2018)에 의하면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을 다음 <표 2>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표 2> 임태성(2018)의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 유형

한국어 가상 이동					
하위 분류	상대적 이동 ³⁵⁾			심리적 이동 ³⁶⁾	
	개념화자의 이동		참조 대상의 이동	육안 관찰적 이동	심안 관찰적 이동
	도보 이동	탈것 이동			
예문 ³⁷⁾	(7). 성큼성큼 걸음들이 빠르다. 산이 지나가고 개천이 지나가고. 大步流星, 被山川和溪流擦过。	(8). 차는 한 곳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흘러가는 것은 도로다. 车子似乎停在一处。流动的似乎是条道路。	(9). 연안을 따라 시베리아 철도가 달린다. 西伯利亚铁路沿海岸线奔跑。	(10). 산등성이 내륙을 향해 달린다. 山脊向内陆奔跑。	(11). 쪽 끝은 도로가 종점에서 위로 뻗고 있다. 笔直的道路从终点向上延伸。

위의 각 유형 가상 이동 표현의 분류 방식은 간소해 보이는데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도 중국어처럼 6가지 유형을 포괄할 것인바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가상 이동 표현을 모두 망라할 수 있을지에 다소 의심스럽다. 그러나 앞에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전치사가 없어 이동 사건의 유형을 고려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위의 분류 방식은 Talmy의 여섯 가지 분류 방식에 비추어 보면 다음 <표 3>과 같은 대응 관계를

34) 위의 책, pp.87..

35) 임태성 (2018)에서는 상대적 이동은 개념화자가 참조점인 이동체를 통해 비이동체의 이동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36) 임태성 (2018)에서 심리적 이동은 개념화자가 정지 상태에서 비이동체의 이동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37) 임태성(2018) 참조, 중국어 역문은 필자가 직역하였음.

알 수 있다.

〈표 3〉 임태성(2018) 분류와 Talmy(2000a) 분류의 대응 관계

임태성(2018) 가상 이동 분류 방식			Talmy의 가상 이동 분류 방식
상대적 이동	개념화자의 이동	도보 이동	틀 상대적 이동
		탈것 이동	
	참조 대상의 이동		접근 경로
심리적 이동	육안 관찰적 이동		동연 경로, 도래 경로
	심안 관찰적 이동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임태성(2018)의 분류 방법은 Talmy의 분류 방식과 조금씩 다른데 6 가지 가상 이동 유형 중의 발산 경로, 패턴 경로를 제외한 네 가지의 유형과 각각 대응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원인을 이 두 가지 가상 이동 표현 유형의 구체적 명명 방식의 차이에서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3. 이동 사건 유형학

1) 중국어, 한국어 이동 사건의 유형 귀속

Talmy는 동사의 형태론적 성질에 따라 세계 언어를 부사건언어(Co-Event Language, 副事件言語), 경로언어(Path Language), 전경언어(Figure Language)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이론적 토대는 바로 이동 사건 틀 이론이다. Talmy에 따르면 이동서건 틀 이론은 틀 사건(Framing-Event)과 부사건(Co-Event)의 합성으로 하나의 매크로 사건(Macro-Event)이 이루어 지는데 매크로 사건에서 틀 사건이 주된 사건이 되고 부사건이 부차적인 사건이 된다. 매크로 사건을 구성하는 데에 틀사건이 필수불가결한 성분이 되고 부사건은 틀사건이 어느 이동 사건을 진술할 때 부사건의 부재로 사건의 확립이 안 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종속적인 성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사건’³⁸⁾이라는 것은 앞

38) 부사건의 구성에 방식(manner), 원인(cause), 전제(enablement), 반-전제(reverse

서 언급한 외부 의미 속성을 포함할뿐더러 범위가 더 넓고 구성 요소가 더 많다. 이와 상반되는 ‘주(主)사건’, 즉 틀 사건은 내부 의미 속성인 전경, 배경, 이동, 경로 네 가지를 포함한다. 틀 사건에서 이동 의미 속성은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하나 전경, 배경, 경로 의미 속성은 문맥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두 예외 없이 중국어를 부사건언어의 범주에 분류시키고 한국어를 경로언어의 범주에 분류시켰다.³⁹⁾

언어에 따라 이동 사건을 묘사하는 데에 유형학적 차이가 나타나고 이들은 의미 속성의 사용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2.1에서 서술했다시피 Talmy는 의미 측면에서 이동 사건의 의미 속성을 전경, 배경, 이동, 경로, 방식, 요인 6가지를 분리한다고 하였다.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이동 사건을 표현할 때 이러한 의미 속성들의 선택과 표현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건 통합의 관점에서, 이동의 핵심 도식(core schema)(즉, 경로의 전형적인 표현 형식에 근거하여, 세계의 언어는 두 가지 하위 범주, ‘동사 틀 언어’와 ‘위성 틀 언어’⁴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동사 어근 혹은 동사로 경로 의미역을 표현하는 반면 후자는 접사나 전치사 또는 동사 어근과 관련이 있는 부속 성분으로 경로를 표시한다. 즉, 동사 틀 언어는 경로가 주(主)동사에 표현되며 위성 틀 언어는 경로가 위성어에 나타난다. 대부분 연구는 한국어를 동사 틀의 범주, 중국어를 위성 틀 언어의 범주에 분류시켰다.⁴¹⁾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사 틀 언어

enablement), 연속(subsequence), 수반(concomitance), 공존 결과(concurrent result) 등이 있다.

39) 陈碧泓(2020)에서는 중국어, 인도유럽어족(로망스어군 제외)과 같은 언어는 부사건언어의 범주에 속하며 그의 융합 형태가 이동+부사건(Motion+Co-Event)이라 하고, 한국어, 로망스어군 언어, 터키어, 일본어 등은 경로언어의 범주에 속하며 융합 형태가 이동+경로(Motion+Path)라고 하였다.

40) 동사 틀 언어는 이동 사건의 ‘경로 의미 속성’이 동사로 나타나며 위성 틀 언어는 경로 의미 속성이 동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위성(satellite)으로 구현이 된다. Talmy는 ‘위성’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성’은 명사구와 전치사구 두 가지를 제외한 동사 어근에 종속되는 모든 문장 성분인 문법적 범주이다. 이것에 해당되는 성분은 접사일 수도 있고 독립성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

41) 동사 틀 언어 및 위성 틀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위성 틀 언어: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영어)→‘into’는 위성어임.

에는 터키어, 로망어, 일본어, 한국어와 같은 언어들에 속하며, 특히 스페인어는 전형적인 동사 틀 언어로 간주되어 왔다. 반면에 위성 틀 언어에는 로망어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도유럽어, 핀란드어, 중국어, 그리고 다양한 미국 원주민 언어들에 속하며, 특히 영어는 많은 견해에서 전형적인 위성 틀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2) Talmy 이동 사건 유형에 대한 보정

Talmy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어는 위성 틀 언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그의 원인으로는 중국어 이동 사건에서 경로 의미 속성이 주로 방향보어(方向补语)⁴²⁾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꼭 그렇지 않은 표현들도 존재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중국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살펴보겠다.

(12)

- ㄱ. 涪江大桥纵跨南北。(CCL)
부강대교는 남북을 중횡무진 가로지른다.
ㄴ. 走进 客舱(객실로 들어간다.)
걷다 들어가다 객실

Talmy의 관점으로 예문 (12 ㄱ) ‘纵跨’ 중의 ‘纵’과 (12 ㄴ) ‘走进’ 중의 ‘进’은 위성어로 간주되어 중국어는 여타의 쟁점 없이 마땅히 위성 틀 언어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12 ㄱ)에서 ‘纵跨’는 ‘纵’과 ‘跨’를 분리하여 그의 위성 틀 언어적 성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纵’은 경로 의미 속성으로서 이동 동사 ‘跨’를 수식하고 한정하여 위성어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 예문 (12 ㄴ)에서도 볼 수 있듯이 ‘走进’는 ‘走’와 ‘进’ 두 개 동사로 쪼갤 수 있다. ‘走’는 사건에서 이동 의미 속성에 해당하고 ‘进’는 핵심 도식인

동사 틀 언어: 기차가 터널로 들어갔다.(한국어)→동사 ‘들어갔다’는 영어 전치사 ‘into’의 역할까지 함.

42) 술어 뒤에 쓰여 동작·행위의 방향이나 일·상황의 진전·발전 등을 나타내는 문장 구성 성분이다.

경로 의미 속성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국어는 동사 틀 언어의 특성도 결들이긴 한다. ‘进客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走客舱’이 비문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중국어의 많은 개사(介詞)는 고대 중국어에서부터 진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개사는 아직 완전히 개사화되지 않으며 동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중국어 이동 사건에서 경로 의미 속성의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이처럼 중국어가 위성 틀 언어에 속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쟁점이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귀속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보겠다.

(13)

ㄱ. 고속 도로가 거미줄같이 사방으로 뻗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高速公路像蜘蛛网一样四处伸展。

ㄴ. 연못 옆에는 팔각정 누각이 솟아 있었다.(연세한국어사전)

莲花池旁边耸立着八角亭楼阁。

표면적으로는 예문 (13 ㄱ, ㄴ)이 비슷한 가상 이동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13 ㄱ)과 (13 ㄴ)의 이동 동사는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13 ㄱ)에서 고속 도로에 관한 가상 이동 현상을 이동 동사 ‘뻗다’로 실현하는데 경로 의미 속성은 별도의 성분 ‘사방으로’로 나타내었다. 즉 ‘거미줄 같이’의 방식 의미 속성을 통해 고속 도로 가상 이동의 선형 형태를 묘사하면서 ‘사방으로’의 경로 의미 속성을 통해 고속 도로의 공간 속에서 가상 이동 경로를 부각한다. 반면에 예문 (13 ㄴ)에서는 가상 이동을 이동 동사 ‘솟다’로 실현하였고 경로 의미 속성도 같은 이동 동사로 표현하였다. 바꿔 말하면 예문 (13 ㄴ)에서 이동 동사 ‘솟다’는 가상 이동의 이동 의미 속성과 경로 의미 속성 두 가지로 겸용되었다. 전경인 ‘누각’은 ‘솟다’가 뜻하는 이동과 경로를 통해 가상 이동 사건을 구성한다. 여기서 ‘솟다’는 별도의 위성어 필요 없이 경로를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Talmy의 이동 사건 유형학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일부 표현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다. Slobin 등은 Talmy의 2분법으로 세계의 모든 언어

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어는 동사 틀 언어의 범주에도 위성 틀 언어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Slobin은 균등 틀 언어(equipollently-framed language)를 제안하여 Talmy의 2분법에 새 유형을 도입하여 3분법을 제시하였다. 균등 틀 언어는 방식과 경로 의미 속성이 문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중국어의 이동 사건에서 나타나는 복합동사의 ‘방향보어’ 부분을 부사적 성격으로 간주한다면, 중국어는 위성 틀 언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복합동사에서 ‘방향보어’ 부분을 동사로 취급하고 이것이 앞의 동사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중국어는 동사 틀 언어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또한, 만약 앞의 동사와 ‘방향보어’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어는 Slobin이 언급한 균등틀 언어의 특성도 나타낼 것이다.

이상을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동 사건 유형을 분석하고 Talmy의 전통적인 2분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각각 동사 틀 언어와 위성 틀 언어에 속하는 것에 반증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 언어는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어와 중국어의 귀속은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에서 언어에 따른 이동 사건 유형학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동 표현 교육에서는 언어의 이동 사건 유형학적인 특성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적인 함의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한 가상 이동 표현을 대상으로 양 언어의 가상 이동 표현 유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양 언어의 가상 이동 표현 유형을 비교하고, 이동 사건 틀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동 사건 유형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Talmy의 여섯 가지 기본 유형 가상 이동 표현

인 발산 경로, 패턴 경로, 틀 상대적 이동, 도래 경로, 접근 경로, 동연 경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자의 분류 방식에 따라 어느 특정한 유형을 가상 이동 범위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중국어에서는 패턴 경로, 한국어에서는 발산 경로와 패턴 경로 가상 이동 표현이 가상 이동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말뭉치 통계나 언어 자체의 유형학적인 특성으로 가상 이동 표현 유형 간의 비대칭과 불균형 양상도 확인될 수 있다.

둘째, 이동 사건 유형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과거의 연구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각각 동사 틀 언어와 위성 틀 언어에 범주로 분류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예문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 언어는 모두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는 동사 틀 언어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위성 틀 언어의 특징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는 위성 틀 언어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동사 틀 언어의 특징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이중성으로 양 언어가 특정한 언어 범주에 속한다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대신 균등 틀 언어의 범주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수렴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가상 이동 표현 유형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 언어의 이동 사건 유형학적인 특징을 도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대규모 병렬말뭉치를 통해 중한 양 언어의 가상 이동 표현을 연구하지 못한 것은 큰 결점이라 할 수 있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인터넷 자료

연세한국어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표준국어대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语料库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2. 단행본

- 임태성, 『가상 이동』, 한국문화사, 2018.
- Gilles Fauconnier, Mark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2002.
- Lakoff, G., & Johnson, M.,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Langacker, R.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ol.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김종도 역, 『인지문법의 토대: 이론적 선행 조건들』, 박이정, 1999.
-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IT Press, 2000.
- _____,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2: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IT Press, 2000.

3. 논문

- 맹경희, 「한국어 가상 이동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박미애, 「현대중국어 가상이동의 구문 특징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4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23, pp.121-149.
- 성상환, 「구문문법과 제2언어습득 -독일어의 동작동사구문을 중심으로-」, 『독어학』 제31호, 한국독어학회, 2015, pp.71-98.
- 임지룡,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 특성」, 『담화와 인지』 제5권 제2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998, pp.181-205.
- 임태성, 「가상 이동의 의미 구성 방식 연구-‘달리다, 걷다, 뛰다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연구』 제66집, 언어과학회, 2013, pp.219-242.
- _____, 「가상 이동의 개념과 인식에 대한 연구」, 『한글』 제320호, 한글학회, 2018, pp.399-431.
- _____, 「경로 동사를 통한 가상이동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미학』 제68권, 한국어의미학회, 2020, pp.49-71.
- 白雪飛, 「漢韓虛擬位移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 陳碧泓, 「現代漢語虛擬位移表達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20.
- 陶竹·毛澄怡, 「漢語虛擬位移現象探析」,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115-120, 2011.
- 唐晓磊, 「现代汉语运动类事件表达的结构特征」, 『天津外国语学院学报』 第4期, 2008, pp.27-30.
- 魏在江, 「语境与隐喻的产生与理解-认知语言学中的语境研究之三-」, 『中国外语』 第6期, 2018, pp.33-38.

- 鍾書能, 「語言中虛擬移位的認知研究」, 『華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2012, pp.122-127.
- MATSUMOTO, YO, “Subjective motion and English and Japanese verbs”, *Cognitive Linguistics*, vol. 7(2), 1996, pp.183-226.
- Slobin, Dan I., “The Many Ways to Search for a Frog: Linguistic Typology and the Expression of Motion Events”.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Typ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Vol. 2, 2004, pp.219-57.
- Talmy,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975, pp.419-430.
- Talmy, L., “How language structures space”. In H. Pick & L. P. Acredole, *Spatial Orient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Press, 1983, pp.225-282.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2월 29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fictive motion in Chinese and Korean
-Based on the types of expressions and linguistic typology-

Kang Qiao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different types of fictive motion expressions used in Korean and Chinese. Through this analysis, we compared the fictive motion expression types present in both languages. From this analysis we can draw the following two conclusions.

First, both Korean and Chinese contain all six of Talmy's basic fictive motion expression types. However, scholars disagree on how certain types should be classified, which could exclude some from being considered true fictive motion expressions. Specifically, there is disagreement about the status of pattern path fictive motion in Chinese and radiation path and pattern path fictive motion in Korean.

Secondly, based on their motion event typology, previous research has categorized Korean as a verb-framed language and Chinese as a satellite-framed language. However, our analysis reveals that both languages exhibit a dual nature in this regard. Due to this duality, it is difficult to definitively assign Korean and Chinese to one specific linguistic category. Instead, it seems more accurate to consider them closer to equipollently-framed languages in characterization.

Keyword fictive motion, type, verb-framed language, satellite-framed language, equipollently-framed language

중국 조선어방언 ‘ㅅ’ 불규칙용언 활용양상에 대한 지리언어학적 고찰

전 경*

국문요약

언어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 형태가 발달되어 있고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 다양한 교체양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모습을 달리하는 불규칙적인 교체양상을 흔히 보게 되는데 이는 불규칙활용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대 한국어에는 여러 가지 불규칙활용을 보이는 어휘들이 존재하는데 방언에 따라 다양한 활용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프로젝트 <중국 조선어 방언지도>에서 조사된 77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긋다(劃)’를 중심으로 우선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통시적인 변화양상을 확인한 다음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 및 구체적인 방언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ㅅ’ 불규칙용언의 활용양상을 보면 ‘낫다(愈)’는 ‘ㅅ’ 규칙활용, ‘ㅅ>ㅅ’ 규칙활용, ‘ㅅ>ㄷ’ 불규칙활용,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경우; ‘긋다(劃)’는 ‘ㅅ’ 규칙활용, ‘ㅅ>ㄷ’ 불규칙활용,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불규칙활용을 할 때, 모음충들의 환경에서 모음탈락 과정을 겪은 변이형이 나타났고, ‘긋다(劃)’의 경우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을 할 때 일부 방언에서 어두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알아보고 이러한 방언 분포 특징을 보이게 된 원인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였다.

주제어 중국 조선어방언,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 긋다(劃), 활용양상, 지리적 분포

*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중국소수민족언어문학학과 박사과정

〈목차〉

1. 서론
2. ‘ㅅ’ 불규칙용언의 활용양상
3. ‘ㅅ’ 불규칙용언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특징 및 원인 분석
4. 결론

1. 서론

언어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하는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 형태가 발달되어 있고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 다양한 교체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용언이 활용할 때 대부분의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진다고 해도 그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일부의 용언은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형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규칙활용, 후자를 불규칙 활용이라 하고, 이러한 용언을 규칙용언, 불규칙용언이라 한다. 불규칙활용은 크게 (1) 어간의 불규칙; (2) 어미의 불규칙; (3)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ㅅ’ 불규칙활용은 첫 번째 유형, 어간의 불규칙활용에 속한다. 여기서 ‘ㅅ’ 불규칙활용이란 ‘ㅅ’을 말음으로 가진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ㅅ’가 탈락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ㅅ’ 불규칙용언의 구체적인 활용양상 및 지리적 분포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 중점항목 〈중국 조선어 방언지도〉 프로젝트¹⁾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방언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1) 본 프로젝트는 연변조선족자치주,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산재지구, 장백조선족자치현, 내몽골자치구에서 총 77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자연발화와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음운(단모음, 이중모음, 고저장단), 어휘(방언어휘, 사회방언어휘), 문법(곡용, 활용, 서법) 등 방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선정기준은 (1) 제보자의 연령 및 성별 요

문법(활용) 관련 조사항목에서 ‘ㅅ’ 불규칙활용과 관련된 조사항은 ‘낫다(愈)’와 ‘긋다(劃)’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긋다(劃)’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우선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활용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하고, 다음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 및 구체적인 방언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활용양상의 방언 분포 지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리적 분포 특징을 정리하고 이러한 방언 분포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방언 분포 지도는 ‘ArcGIS Online Chin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 ‘ㅅ’ 불규칙용언의 활용양상

표준어에서 ‘ㅅ’ 불규칙활용을 보이는 ‘낫다(愈)’와 ‘긋다(劃)’는 중세국어시기에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졌던 용언들이다. ‘ㄷ’은 15세기 말에 ‘ㄹ’ 모음 앞에서 먼저 ‘ㄷ>∅’와 같은 변화 과정을 겪어 소실되기 시작하여 16세기에 들어 점차 다른 모음 앞에서도 소실되어 16세기 후반에는 이미 약화·탈락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ㅅ’ 불규칙용언은 15세기 국어에서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그대로 실현되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규칙활용을 하다가 그 후에 ‘ㄷ>∅’의 음운변화가 일어나면서 ‘ㄷ’이 자음체계에서 점차 소실되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불규칙활용을 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선 먼저 문헌자료를 통해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긋다(劃)’의 통시적

구: 70세 이상의 남성. (2) 조사지에서 태어나고 현재까지 주로 본 지역에서 생활하여야 함. (3) 발음이 정확하고 신체가 건강하여야 함. (4) 본 지역의 주요방언을 구사하여야 함. 제보자를 7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정한 이유는 본 조사의 목적은 사회방언학 연구가 아니라 전통 지리언어학적 연구이므로 본 토박이말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년층을 선택하였고, 남성의 언어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취지에 남성을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70세 이상의 남성 제보자 없을 경우 60세 이상의 남성 제보자를 선정하거나 70세 이상의 여성 제보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인 변화양상을 확인한 다음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과 구체적인 방언 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방언 조사 자료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조사항목이 모두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용언의 규칙 및 불규칙 활용양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만 살펴볼 것이다.

1) '났다(愈)'의 활용양상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ㅅ' 불규칙용언 '났다(愈)'의 활용양상과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火化호미 나소미 곧디 못혀며 <法華6:155a>(1463)
- ㄴ. 문져 粥을 먹어 나온 後에 飲食을 任意로 먹으라 <蒙老7:8a>(1790)
- ㄷ. 그 병이 나아 능히 말하고 능히 드러니 <聖教切要16a>(1882)

'났다(愈)'는 15세기 문헌에서는 'ㄷ'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고 있고 '나소미'와 같이 규칙활용을 한 예를 확인할 수 있으며, 18세기, 19세기 문헌에서는 'ㄷ'이 탈락되어 '나은', '나야'로 불규칙활용을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과 구체적인 방언형을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의 공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1) 규칙활용의 예

- ㄱ. 나스니까, 나스니까이, 나스니까, 나즈니까
- ㄴ. 나스면, 나사면, 나즈면
- ㄷ. 나사도, 나서도, 나서두, 나스도, 나자도, 나즈도
- ㄹ. 나사라, 나서라, 나스라, 나자라, 나즈라

예(1ㄱ~ㄹ)은 'ㅅ' 불규칙용언 '났다(愈)'의 어간에 각각 어미 '-으니까', '-으면', '-아도', '-아라'가 결합하여 규칙활용의 모습을 보인 방언형이다. 일반적인

로 규칙활용은 ‘ㅅ’ 형으로 실현되지만 일부 지역에서 ‘ㅅ>ㅈ’ 형으로 실현되는 특이한 활용양상을 보였다.

이기문²⁾에서는 일반적으로 ‘△’은 소실되고 말지만, ‘손소>손조’, ‘몸소>몸조’, ‘남진(<*남신(男人)>), ‘삼질(<*삼실(三日)>’ 등과 같이 몇몇 예에서 ‘△>ㅈ’의 변화가 있었고 주로 ‘m_V’ 환경에서 (드물게 ‘n_V’ 환경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소신애³⁾에서는 중세국어의 ‘△’ 어사는 방언에 ‘ㅅ’ 형, ‘∅’ 형, ‘ㅈ’ 형으로 반사되어 있으며 ‘△>ㅈ’의 변화를 겪은 어사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ㅈ’의 변화 환경은 비음과 모음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ㅈ’으로 변화된 예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였고, 이기문에서 제시한 음운 변화환경에 ‘ㄱ_V’, ‘V_V’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ㅈ’으로 변화한 예로 문헌자료에 나타난 ‘호사>호자(獨), 아술>아줄(苳), 호슴>호즘(渾), 것바시>거어지, 그스->신직-(牽), 즈서리티->즌저리티-’ 등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방언자료로부터 추출한 예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중 몇몇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잇다(잇-)(繼)>잇고, 잇어; 이어; 이저(자)라’, ‘젓다(젓-)(搖)>저서(사)라, 젓어라; 저어; 저저(자)라’ 등과 같이 중세국어시기에 ‘△’을 지닌 어사가 현대 방언에서 ‘ㅅ’ 형, ‘∅’ 형, ‘ㅈ’ 형으로 나타났다. 이준환⁴⁾에서는 ‘손소, 몸소, 남신, *명실’의 ‘△’이 모두 ‘ㅈ’으로 변한 것은 ‘ㄴ’, ‘ㄹ’, ‘ㅇ’ 다음에 하향성 활음처럼 각각 유성 파열음이 수반된 [d], [b], [g]에 의한 파열적 요소가 ‘z’와 결합하면서 [dz]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이것이 ‘ㅈ’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이외의 환경에서의 ‘△>ㅈ’는 자유 변이음인 [dz]가 ‘ㅈ’으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낫다(愈)’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ㅅ>ㅈ’으로 규칙활용하여 ‘나즈니까, 나즈면, 나자(즈)도, 나자(즈)라’ 등과 같은 방언형이 나타난 것은 일부 방언지역에서는 ‘△>ㅈ’의 변화과정을 겪어 이

2) 이기문,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1972, p.39.

3) 소신애, 「국어의 △>ㅈ 변화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114호, 진단학회, 2012, p.51.

4) 이준환, 「중세 국어 /△/(반치음)의 음성적 실현과 변화의 관계」, 『어문론집』 제86집, 중앙어문학회, 2021, p.104.

와 같은 활용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2) 불규칙활용의 예

- ㄱ. 나오니까, 나니까
- ㄴ. 나오면, 나오믄, 나면
- ㄷ. 나아도, 나도
- ㄹ. 나아라, 나오라, 나라

예(2ㄱ~ㄹ)은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의 어간에 각각 어미 ‘-으니까’, ‘-으면’, ‘-아도’, ‘-아라’가 결합하여 불규칙활용의 모습을 보인 방언형이다. 방언형을 보면 대체로 ‘나오니까, 나오면(믄), 나아도, 나아(으)라’와 같이 모음탈락 과정을 겪지 않은 형태와 ‘나니까, 나면, 나도, 나라’와 같이 모음탈락 과정을 겪은 변이형이 나타났다. 이는 불규칙활용 과정에서 어간 말음의 탈락으로 인해 단모음이 연속되는 모음층들의 환경이 형성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가지 변화양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1)비록 ‘△’∅’의 변화과정을 겪어 모음층들 환경이 형성되었지만 ‘△’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흔적으로 모음탈락 과정을 겪지 않은 방언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2)어간 말음의 탈락으로 인해 모음층들의 환경에서 매개모음 ‘으’가 탈락하거나, 모음 ‘야’로 시작하는 어미 ‘아도’, ‘아라’가 결합할 때 동음모음탈락 과정을 겪어 이와 같은 변이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3)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공존의 예

- 나오니까, 나아면, 나아도, 나사라; 나스니까, 나스면, 나아도, 나아라
- 나오니까, 나스면, 나사도, 나아라; 나오니까, 나스면, 나서도, 나사라
- 나오니까, 나오면, 나사도, 나사라; 나스니까, 나오면, 나아도, 나오라
- 나스니까, 나오믄, 나아도, 나아라; 나오니까, 나오면, 나즈도, 나아라
- 나오니까, 나사면, 나사도, 나스라; 나스니까, 나스면, 나사도, 나오라
- 나오니까, 나스면, 나스도, 나스라

일부 방언지역에서는 예(3)과 같이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의 활용에서 부

동한 어미가 결합할 때 규칙활용을 하는 예와 불규칙활용을 하는 예가 모두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설명이 불가능한 수의적인 활용양상을 보였다.

2) ‘긫다(劃)’의 활용양상

문헌자료에서 나타난 ‘ㅅ’ 불규칙용언 ‘긫다(劃)’의 활용양상과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논고 커늘 使者 | 자보되 더 급히 햏야 긫 굶어 드려 도라오거늘 그제 窮子 | 제 念호되 <法華2:200b>(1463)
- ㄴ. 안자셔 七曜曆을 알오 소느로 三軍ㅅ 양즈를 굶어 뵈눏다 <杜詩 22:33a>(1481)
- ㄷ. 허름 犯티 아니호미니 十誦律에 니르샤되 짜 그셔 字 지수메 <永嘉下 77a>(1464)
- ㄹ. 라오를 짓거 보니 올 제 디나온 디를 짜해 그셔 뵈느다 <杜詩19:28b>(1481)
- ㅁ. 라오를 짓거 보니 올 제 디나온 디를 짜해 그어 뵈느다 <杜重19:28b>(1632)
- ㅂ. 하늘을 ㄱ르티며 싸흘 그어 서로 튜장햏니 <關義4:72b>(1756)

‘긫다(劃)’는 15세기 문헌에서는 ‘ㅅ’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고 있었고 활용을 할 때 ‘긫어’와 같이 분철 표기되는 예와 ‘그셔’와 같이 연철 표기되는 예가 모두 확인되었다. 17세기 문헌에서는 ‘ㅅ’이 탈락되어 ‘그어’로 활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과 구체적인 방언형을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의 공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4) 규칙활용의 예

- ㄱ. 그스니까, ㅍ스니까
- ㄴ. 그스면, ㅍ쓰면, ㅍ스므
- ㄷ. 그셔도, 그스도, ㅍ셔도
- ㄹ. 그서라, ㅍ서라, ㅍ스라

예(4ㄱ~ㄴ)은 ‘ㅅ’ 불규칙용언 ‘긫다(劃)’의 어간에 각각 어미 ‘-으니까’, ‘-으면’, ‘-어도’, ‘-어라’가 결합하여 규칙활용의 모습을 보인 방언형이다. 앞서 살펴본 ‘낫다(愈)’의 규칙활용양상과 같이 ‘ㅅ’ 형으로 실현되었고, 그 외에 어두경음화 과정을 겪은 방언형 ‘끄스니까, 끄쓰면(스므), 끄서도, 끄서(스)라’ 등이 나타나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상규⁵⁾는 경음화 현상은 어휘부 내에서의 환경과 음절경계 환경에서 관찰되는데, 특히 어휘부 내부의 어두음절에서 경음화 현상은 수의적인 실현을 보이며, 또한 방언차이를 보여주는데 지역별로 남부방언에서 북상되는 과정에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대개 어두경음화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은 제주방언이며, 경음화가 강화된 지역은 남부방언권이며 중부방언 그 이북지역의 방언은 경음화가 어휘에 따라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어두경음화의 지역적 분포는 남부방언에서 가장 먼저 개신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함경, 평안, 경기방언이 그 중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주방언이 가장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황해방언과 함남방언은 여타 중부 이북 지역의 방언보다는 경음화가 현저하게 실현된다고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어두경음화 과정을 겪은 방언형은 대부분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5) 불규칙활용의 예

- ㄱ. 그으니까, 그니까, 끄으니까, 끄으니까이, 끄니까, 꺼니까, 끄니까
- ㄴ. 그면, 그으면, 끄으면, 꺼으면, 끄면, 끄문
- ㄷ. 그어도, 끄어도, 꺼어도, 끄도, 거도, 꺼도, 꺼두
- ㄹ. 그어라, 그으라, 꺼어라, 끄어라, 끄으라, 그라, 끄라, 꺼라

예(5ㄱ~ㄴ)은 ‘ㅅ’ 불규칙용언 ‘긫다(劃)’의 어간에 각각 어미 ‘-으니까’, ‘-으면’, ‘-어도’, ‘-어라’가 결합하여 불규칙활용의 모습을 보인 방언형이다. 불규칙활용을 할 때에도 규칙활용의 경우와 같이 어두경음화 과정을 겪은 방언형이 나타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낫다(愈)’의 경우와 같이 모음탈락 과정을 겪지 않은

5) 이상규, 『方言學』, 학연사, 2002, p.239.

방언형과 모음탈락 과정을 겪은 변이형이 모두 나타났다. 예(5ㄱ~ㄴ)를 보면 모음충돌의 환경에서 매개모음 ‘으’가 탈락한 방언형 ‘그니까, ㄸ니까(께), 그면, ㄸ면(븐)’; 매개모음 ‘으’가 탈락한 후 어간 모음 ‘으’의 음운론적 변화과정을 거친 방언형 ‘꺼니까(ㄸ으니까)ㄸ니까)꺼니까)’가 나타났다. 예(5ㄷ~ㄹ)의 방언형 ‘ㄸ도, 그라, ㄸ라’와 ‘꺼도, 꺼도(두), 꺼라’ 등은 각각 결합되는 어미의 첫음절 모음 ‘어’가 탈락된 형태와 이와 같은 탈락과정을 겪은 후 어간 모음 ‘으’의 음운론적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그 외 ‘꺼어도, 꺼어라’의 경우는 모음충돌의 환경에서 모음탈락 과정을 겪지 않고 어간 모음 ‘으’의 음운론적 변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형태이다.

예(6)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공존의 예

그으니까, 그스면, 그서도, 그서라; 그으니까, 그스면, 그어도, 그서라
 그으니까, 그으면, 그서도, ㄸ서라; 그으니까, 그으면, ㄸ서도, ㄸ어라
 ㄸ으니까, 그으면, 그스도, ㄸ어라; 그스니까, 그으면, 그서도, 그어라
 그스니까, 그으면, 그어도, ㄸ어라; 그스니까, 그으면, 그어도, 그어라
 그스니까, ㄸ스면, ㄸ서도, ㄸ어라; ㄸ스니까, ㄸ스면, ㄸ어도, ㄸ서라
 ㄸ스니까, ㄸ면, 꺼도, 꺼라; ㄸ니까, ㄸ스면, ㄸ서도, ㄸ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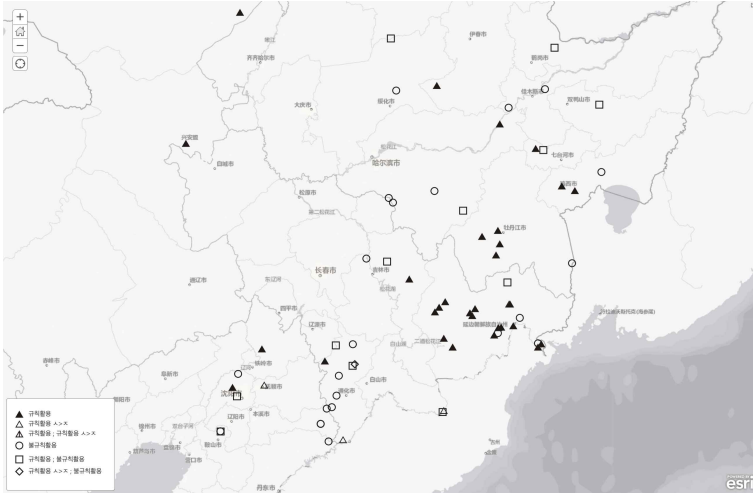
‘ㅅ’ 불규칙용언 ‘긫다(劃)’의 경우도 예(6)에서와 같이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활용양상을 보였다.

3. ‘ㅅ’ 불규칙용언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특징 및 원인 분석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긫다(劃)’의 활용양상에 따라 방언 분포 지도를 작성하여 지리적 분포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방언 분포 특징을 보이게 된 원인에 대해 간단히 분석하고자 한다.

1) '낫다(愈)'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의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다음 <지도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지도 1> '낫다(愈)'의 활용양상 지리적 분포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의 활용양상은 대체적으로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공존으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규칙활용에 'ㅅ' 규칙활용, 'ㅅ>ㅅ' 규칙활용, 'ㅅ' 규칙활용 및 'ㅅ>ㅅ' 규칙활용의 공존; 'ㅅ' 불규칙활용;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공존에 'ㅅ'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의 공존, 'ㅅ>ㅅ'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의 공존 등 6가지 유형이 있다.

규칙활용에서 'ㅅ' 규칙활용을 하는 지역은 31곳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흑룡강성 목단강지역과 동북부지역의 9곳,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연변지역의 12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연변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충청도 방언섬인 돈화시 현유진 현유촌, 경상도 방언섬인 안도현

명월진 신촌, 전라도 방언섬인 안도현 송강진 복도촌, 강원도 방언섬인 안도현 영경향 조양촌에서도 ‘ㅅ’ 규칙활용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김수영⁶⁾에 따르면 ‘낫-(癒)’의 방언 분포는 규칙활용을 하는 ‘ㅅ’형은 동북방언과 서남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 등에서 확인되어 그 분포가 넓은 편이고, 이와 달리 불규칙활용을 하는 ‘∅’형은 ‘ㅅ’형을 제외한 지역 즉 경기, 강원, 충북을 포함한 중부지역과 충남동부, 평안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충청도 방언섬인 돈화시 현유진 현유촌과 강원도 방언섬인 안도현 영경향 조양촌에서 ‘ㅅ’ 규칙활용을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은 지리적으로 연변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함경도 방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길림성 산재지역에 2곳, 내몽골자치구에 2곳,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요녕성 심양시 대흥조선족향 홍광촌과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요녕성 개원시 팔보진 청풍촌에 분포되어 있다. ‘ㅅ>ㅈ’ 규칙활용을 하는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길림성 산재지역 집안시 양수조선족향 영천촌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장백조선족자치현 마룩구진 과원촌에 분포되어 있다. ‘ㅅ’ 규칙활용과 ‘ㅅ>ㅈ’ 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는데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요녕성 무순지 전전진 신복촌에 분포되어 있다.

‘ㅅ’ 불규칙활용을 하는 지역은 22곳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흑룡강성 중부지역, 경상도 방언과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길림성과 요녕성의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 충청도 방언섬인 도문시 양수진 정암촌에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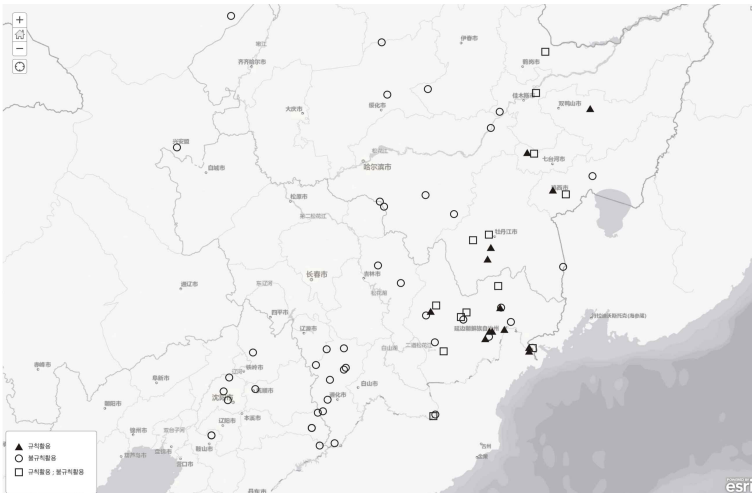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총 13곳으로 나타났고, 그 중 ‘ㅅ’ 규칙활용과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12곳, ‘ㅅ>ㅈ’ 규칙활용과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1곳이다. ‘ㅅ’ 규칙활용과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흑룡강성에서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상지시 어지조선족향 신흥촌과 북안시 주성조선족향 주성촌,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칠대하시 발리현 행수조선족향 조양촌, 쌍안산시 우의현 성부조선족만족향 성부촌, 학강시 나북현 동

6) 김수영, 「‘ㅅ’ 불규칙 활용의 변화」, 『방언학』, 제29호, 한국방언학회, 2019, p.44.

명조선죽향에 분포되어 있고, 길림성 산재지역에서 전라도 방언섬인 교하시 천북진 영진촌, 경기도 방언섬인 통화시 유하현 강가점조선족향 오성촌,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요원시 동풍현 삼합만족조선족향 선명촌,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장백조선족자치현에 분포되어 있으며, 요녕성에서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심양시 훈하민족개발구 만용촌과 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안산시 달도만진진풍조선족촌에 분포되어 있다. 그밖에 경상도 방언섬인 왕청현 천교령진 동신촌에서 나타났다. ‘ㅅ’>’ 규칙활용과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통화시 유하현 강가점조선족향 서광촌에 분포되어 있다.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규칙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긱다(劃)’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ㅅ’ 불규칙용언 ‘긱다(劃)’의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지리적 분포 양상을 보면 다음 <지도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지도 2> ‘긱다(劃)’의 활용양상 지리적 분포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ㅅ’ 불규칙용언 ‘긷다(劃)’의 활용양상은 대체적으로 ‘ㅅ’ 규칙활용, ‘ㅅ’ 불규칙활용, ‘ㅅ’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의 공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ㅅ’ 규칙활용을 하는 지역은 13곳으로 나타났는데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흑룡강성 목단강지역과 동북부지역의 5곳,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연변지역의 7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밖에 충청도 방언섬인 돈화시 현유진 현유촌에서 나타났다.

‘ㅅ’ 불규칙활용을 하는 지역은 42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모든 방언구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분포상황을 보면, 흑룡강성에 10곳, 길림성 산재지역에 13곳, 연변지역에 6곳, 요녕성에 11곳, 내몽골자치구에 2곳 분포되어 있다.

‘ㅅ’ 규칙활용과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13곳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흑룡강성 목단강지역과 동북부지역, 연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연변지역에 위치한 경상도 방언섬인 왕청현 천교령진 동신촌과 안도현 명월진 신촌, 전라도 방언섬인 안도현 송강진 북도촌에 분포되어 있다. 그밖에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진 녹강촌에서 나타났다.

3) 지리적 분포 특징에 대한 원인 분석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긷다(劃)’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특징과 이러한 방언 분포를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방언 분포는 대체적으로 조선반도의 방언 분포와 일치하지만 예외적인 분포 특징도 보이고 있다.

김수영⁷⁾에 따르면 ‘ㅅ’ 불규칙 어간 가운데 ‘낫-’, ‘잇-’, ‘젓-’은 서북방언과 중부방언에서 ‘△>∅’ 형으로, 동북방언, 서남방언, 동남방언, 제주방언에서는 ‘△>ㅅ’형으로 나타나고, 반면 ‘긷-’, ‘붓-’, ‘젓-’, ‘줍-’은 ‘△>∅’ 형이 동남방언

7) 위의 논문, p.39.

에까지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낫다(愈)’와 ‘긋다(劃)’의 ‘ㅅ’ 규칙활용은 주로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조선반도의 방언 분포와 일치한 모습을 보이지만,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ㅅ>ㅈ’로 규칙활용을 하거나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ㅅ’ 불규칙활용을 하는 예외적인 분포 특징을 보였다. 또한 ‘낫다(愈)’에 비하면 ‘긋다(劃)’의 ‘ㅅ’ 불규칙활용의 분포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이주해 온 이주민족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조선반도의 언어와 기원이 같지만 오랫동안 중국 땅에서 살면서 언어는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본적지 고유의 방언형태를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어방언만의 특징적인 방언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조선어는 지금까지 조선반도 북부(조선) 언어와 남부(한국) 언어의 영향 그리고 한어의 영향을 받아 왔다. 특히 한중 수교 전에는 조선어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수교 이후에는 한국어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이주 후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역 간의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면서 어느 특정 방언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방언권의 화자들이 어울려 함께 생활해 가면서 서로 영향을 준 결과 중국 조선어방언은 특정 방언지역 안에 다른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 지금은 방언구획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중국 조선어는 조선어와 한국어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조선어방언 또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⁸⁾

둘째,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불규칙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수영⁹⁾에서는 동남방언은 ‘△>ㅅ’의 변화가 활발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ㅅ’를 겪은 예와 ‘△’가 탈락한 예가 공존하기도 한다

8) 이러한 현상은 중국 조선어 방언어휘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조사된 방언형에 조선반도 본적지 방언과 주변 방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변이형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또한 중국 조선어 방언어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9) 위의 논문, p.57.

고 하였다. 또한 백두현¹⁰⁾에서도 '믈 부서', '믈를 부어', '병이 나왔더라', '병이 나스나' 등이 시기에 상관없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ㅅ'가 필수적인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방언도 '△'이 탈락하는 변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필자는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이러한 활용양상이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방언 접촉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본다. 강용택¹¹⁾에서는 중국 조선어방언은 방언구획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어느 한 특정 방언지역 안에 다른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조선어방언은 함경도 방언, 경상도 방언, 평안도 방언을 위주로 3대 방언구역을 이루고 중부방언, 전라도 방언은 3대 방언구역에 방언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방언화자가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지역 간의 교류가 점차 빈번해지고 타 지역 방언화자들과의 교류가 점차 많아지면서 타 방언의 영향을 받아 본래는 규칙활용을 하거나 불규칙활용을 하던 방언지역에서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이 수의적으로 실현되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 조선어방언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방언 제보자 개인의 교육수준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본 조사의 제보자는 대부분 일정한 문법지식을 갖추고 있는 방언 화자들이기 때문에 본래는 본토방언의 영향 하에 규칙활용을 하던 것이 점차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활용을 하게 되어 공존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70세 이상의 노년층 제보자이지만 대부분 학교 교육을 일정하게 받아 문화지식수준을 어느 정도 갖춘 방언화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외 통신매체가 점차 발달되면서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를 접하게 되어 표준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제보자가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백두현, 『嶺南 文獻語 音韻史 研究』, 태학사, 1992, p.331.

11) 강용택, 「지리언어학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어방언 연구에 대한 생각」, 『중국조선어문』, 제5호, 길림성민족사무원회, 2018, p.13.

4. 결론

지금까지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긋다(劃)’를 중심으로 중국 조선어방언에서의 활용양상과 지리적 분포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ㅅ’ 불규칙용언 ‘낫다(愈)’와 ‘긋다(劃)’의 활용양상은 대체적으로 규칙활용, 불규칙활용,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낫다(愈)’는 ‘ㅅ’ 규칙활용, ‘ㅅ>ㅆ’ 규칙활용, ‘ㅅ’ 규칙활용 및 ‘ㅅ>ㅆ’ 규칙활용이 공존, ‘ㅅ’ 불규칙활용, ‘ㅅ’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 ‘ㅅ>ㅆ’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활용양상이 나타났다, ‘긋다(劃)’는 ‘ㅅ’ 규칙활용, ‘ㅅ’ 불규칙활용, ‘ㅅ’ 규칙활용 및 ‘ㅅ’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활용양상이 나타났다. 불규칙활용을 할 때, 어간 말음이 탈락되면서 모음충돌의 환경이 형성되어 모음탈락 과정을 겪은 변이형이 나타났고, ‘긋다(劃)’의 경우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을 할 때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에서 어두경음화 과정을 겪은 방언형이 나타났다.

활용양상의 지리적 분포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의 방언 분포는 대체적으로 조선반도의 방언 분포와 일치하지만 예외적인 분포 특징도 보이고 있다.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ㅅ’ 규칙활용은 주로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조선반도의 방언 분포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규칙활용을 하거나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불규칙활용을 하는 예외적인 분포 양상을 보였다. (2) 중국 조선어방언에서 규칙활용 및 불규칙활용이 공존하는 지역은 불규칙적인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언 분포 특징을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1) 중국 조선어방언은 조선반도의 방언과 기원이 같지만 오랫동안 분단되어 언어는 독자적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의 중국 조선어방언은 본토방언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방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 방언 접촉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언어접촉으로 인한 언어변이가 발생하였고 방언 간에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3) 방언 제보자의 교육수준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본 조사의 제보자는 대부분 일정한 문법지식을 갖추고 있는 방언화자들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백두현, 『嶺南 文獻語 音韻史 研究』, 태학사, 1992.
 이기문, 『國語音韻史研究』, 탑출판사, 1972.
 이상규, 『方言學』, 학연사, 2002.

2. 논문

강용택, 「지리언어학 시각에서 본 중국 조선어방언 연구에 대한 생각」, 『중국조선어문』 제5호,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18, pp.11-17.
 김수영, 「‘ㅅ’ 불규칙 활용의 변화」, 『방언학』 제29호, 한국방언학회, 2019, pp.39-68.
 _____, 「한국어 방언 접촉 양상에 대하여: 중간 방언과 방언 균일화를 중심으로」, 『방언학』 제32호, 한국방언학회, 2020, pp.65-96.
 소신애, 「국어의 Δ>ㅅ 변화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114호, 진단학회, 2012, pp.357-390.
 _____, 「접진적 음운변화로로서의 ㅅ>Δ: 방언 반사형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62호, 국어국문학회, 2012, pp.45-83.
 이준환, 「중세 국어 /Δ/(반치음)의 음성적 실현과 변화의 관계」, 『어문론집』 제86집, 중앙어문학회, 2021, pp.73-110.
 최명옥,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p-, s-, t- 變則動詞를 中心으로」, 『국어학』 제14호, 국어학회, 1995, pp.217-222.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9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Geolinguistic Study of the Conjugation Patterns of 'ㅅ(S)' Irregular Verbs in Chinese-Korean Dialects

Quan, Jing

In Korean, which linguistically belongs to the agglutinative language type, the forms of particles and verb endings are well-developed. In the conjugation of verbs, various substitution patterns emerge during the combination of stems and endings. However, irregular substitution patterns, where stems and endings take different forms during conjugation, are commonly observed and have been traditionally addressed as irregular conjugations. Modern Korean includes various vocabulary items demonstrating irregular conjugations, and these patterns exhibit diversity depending on regional dialects.

This study focuses on a geolinguistic analysis of 77 surveyed points from the National Soci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Key Project, "Chinese-Korean Dialect Atlas." The study centers on the 'ㅅ' irregular verbs '낫다(愈)' and '긋다(劃)'. Initially, the paper confirms diachronic changes through literary materials and then examines usage patterns and specific dialectal forms in Chinese-Korean dialects. The conjugation patterns of 'ㅅ' irregular verbs reveal that '낫다(愈)' can be categorized into 'ㅅ' regular conjugation, 'ㅅ>ㅈ' regular conjugation, 'ㅅ>∅' irregular conjugation, and cases where regular and irregular conjugations coexist. Similarly, '긋다(劃)' is divided into 'ㅅ' regular conjugation, 'ㅅ>∅' irregular conjugation, and cases where regular and irregular conjugations coexist. During irregular conjugations, variant forms experiencing vowel deletion are observed in environments of vowel collision. Notably, in the case of '긋다(劃)', some dialects exhibit characteristics of vowel darkening during both regular and irregular conjugations. Finally, the paper briefly discusses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patterns of regular and irregular conjugations and explores the reasons behind the observed dialectic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Keyword Chinese-Korean Dialects, 'ㅅ(s)' Irregular Verbs, 낫다(愈), 긋다(劃),
Conjugation Patterns, Geographical Distribution

수사학적 관점에서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항전척독(杭傳尺牘)」 텍스트 분석

왕샤오위 (汪小鈺)*

국문요약

본고는 18세기 홍대용의 연행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항전척독(杭傳尺牘)」 두 자료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당시 한·중 문인의 의사소통 양상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1765년 홍대용이 북경에 연행 가는 과정에서 세 명의 항저우 문인과 만나서 필담을 나누게 된 상황, 홍대용이 조선에 들어온 후 중국 쪽 문인과 지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소통 배경과 관련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두 자료를 둘러싼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의사소통 목적으로 나누게 된 「건정동필담」과 동양 전통 문론 범위에 포함되는 편지 집인 「항전척독」은 홍대용의 문체를 잘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서 두 자료를 수사학 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2장에서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전통 동양 문예이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가능성과 이유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발췌하여 원문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과 수법 등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홍대용이 중국 문인과 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모델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이 말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문’이라는 공통 코드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문인들이 일반적인 교양 지식으로 익힌 문예관이나 한문체의 특징들을 홍대용의 척독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과 청나라의 문인들이 유교 경전과 동양 전통 문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양쪽 문인이 상대를 인정하여 감정을 교감해 ‘천애지기(天涯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과정 수료. 수료 전 마지막 학기에 김종철 교수님과 이종묵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배움에서부터 한 편의 논문으로 완성해낸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두 분 교수님과 이러한 성장 과정을 공유한 모든 동학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심사 과정에서 각주를 포함해서 세심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글을 완성하면서 학부 시절에 들었던 정명교 교수님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강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기록해둔다.

知己)의 우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건정동필담」과 「항전척독」의 언어 표현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자료를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의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18세기 홍대용의 글쓰기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홍대용, 담헌서(湛軒書), 필담(筆談), 척독(尺牘),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론, 수사학, 18세기 한-중 문인 교류

〈목차〉

1. 서론
2. 수사학 관점에서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정
3. 「건정동필담(乾淨衡筆談)」과 「항전척독(杭傳尺牘)」 자료 소개와 분석
 - 1) 「건정동필담」의 언어 표현 분석
 - 2) 「항전척독」의 언어 표현 분석
4. 결론

1. 서론

본고는 「건정동필담(乾淨衡筆談)」¹⁾과 「항전척독(杭傳尺牘)」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건정동필담」과 한문학 장르인 척독 형식을 갖춘 「항전척독」의 언어 표현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목적에서 나누게 된 필담 텍스트를 언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척독문을 동양 문예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1) 그간 홍대용 필담 자료를 다룬 선행 연구를 보면 「간정동필담」과 「건정동필담」을 혼용한 경우가 있다. 이는 한자 ‘乾’의 한글이 ‘건’자인 관계로 원래 자료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기록된 용어인 ‘건정동(乾淨衡)’은 북경의 ‘간정호동(甘井胡同)’인 것으로 밝혀졌다.

(<https://sinology.org/archives/18838>) 본고는 한자에 의거하여 ‘건’자에 따랐다. 또한, 그간 선행 연구에서 ‘동’자를 다르게 표시한 것은 원 저작을 밝히는 것에서 원문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한다.

필담이란 18세기 동아시아 지역인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의 문인과 외교 사신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한문 글쓰기를 통해 서로의 의사를 표하며 상호 교류 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의사소통 방식이다.²⁾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서 ‘학예 공화국’이라 부를 만큼 국경을 초월한 문인들 간의 수평적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필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 이처럼 18세기의 필담은 언어와 문화 분야에서 중요한 한문학 글쓰기 양식을 드러내며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 양상을 고찰 하는 데에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⁴⁾

여러 필담 자료 중에서 담헌 홍대용의 연행록은 대표적인 자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홍대용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조 41년(1765년)에 계부(季父) 홍억(洪億)의 연행을 따라 중국 문인과 교류하여 한문학에 기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⁶⁾ 1765년 12월 말에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조선 사행단(使行團)을 따라 중국 북경으로 떠난 홍대용은 3월1일까지 중국에서 머무는 60일 동안에 육비(陸飛),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⁷⁾ 등 세 명의 중국 문인과 일곱 차례의 만남을 통해 필담을 나눠 인연을 맺었고, 연행 여정이 끝나 조선으로 들어온 후에도 그들과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⁸⁾ 홍대용은 중국 문인과 교류한 자료들을 「

2) Wong, TS, Li, SC, 「汉文笔谈—一个以纸笔做緘默交谈的近代传意模式」, 『辭書研究 (Lexicographical studies)』 第1期, 2021, pp.81-89.

3) 染谷智幸 編, 「朝鮮通信使と燕行使の文学」, 『はじめに交流ありき：東アジアの文学と異文化交流』, 東京：文学通信, 2021, p.95.

4) 위의 글, p.87.

5) 홍대용, 김태준 편, 『燕行錄：을병 연행록』, 서울：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연구자는 장서각본 『을병연행록』 해제 부분에서 한글본과 한문본으로 나뉘지는 홍대용의 연행록 자료를 소개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6) 김동욱, 「고전문학：18세기 한(韓)·중(中) 지식소통에 관한 연구(研究) - 홍대용(洪大容)의 「항전척독(杭傳尺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 26권, 2009, p.235.

7) 필담문과 척독에 기재된 호칭을 이해하기 위해 세 명의 문사의 호(號)와 자(字)를 여기서 표기한다. 육비(陸飛)의 자는 기잠(起潛)이고 호는 소음(篠飲)이다. 엄성(嚴誠)의 자는 역암(力闇)이고 호는 철교(鐵橋)이다. 반정균(潘庭筠)의 자는 난공(蘭公)이고 호는 추루(秋廬)이다.

건정동필담』과 「항전척독」으로 엮여 연행 과정의 다른 자료와 함께 자신의 문집 『담헌서(湛軒書)』에 수록하였다.⁹⁾ 본고는 담헌 연행 기록 중 중국 문인과의 직접 교류를 기록한 필담과 척독을 연구 자료로 삼았다. 원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한국고전번역원 종합 DB의 원문과 번역본, 광건행이 교정한 『乾淨衛筆談』, 박상수가 옮긴 홍대용의 『항전척독』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이들 자료에 수록되는 필담 기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담 원문은 주로 한국고전번역원 종합 DB의 『담헌집』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박상수가 옮긴 홍대용의 『항전척독』은 한글 번역과 주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홍대용의 척독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일차적인 자료로 삼았다. 「건정동필담」과 「항전척독」 두 자료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홍대용이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가 있는 동안 육비, 엄성, 반정균 등 세 명의 중국 문인과 여러 차례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내용은 「건정동필담」에 있고, 조선에 들어온 후에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왕래를 이어갔다는 홍대용의 편지는 「항전척독」에 수록되었다. 이런 점에서 두 자료 중 의사소통 관계에 놓인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하고 교류 과정에 있어 시간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의사소통 양쪽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같은 화제에 둘러싸여 여러 번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확장해나갔기 때문에 두 자료를 하나의 맥락에서 살펴보기에 적절한 연구 시도라고 할 수 있다.¹⁰⁾

8) 洪大容 著, 『乾淨衛筆談』, 鄭健行 點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pp.1-2; 장경남, 「홍대용의 척독집 「杭傳尺牘(항전척독)」 연구」, 『동방학지』 제202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p.176.

9) 홍대용의 필담집에 대한 소개는 여럿이 있다. 현전하는 홍대용의 연행 기록을 모아 엮은 장경남,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湛軒外書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서울: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2021. 해제에 따르면 홍대용 연행 과정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들은 「연행기(燕行記)」, 「필담집(筆談集)」, 「척독집(尺牘集)」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본고는 담헌 연행 기록 중 중국 문인과 주고받는 필담과 척독의 원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로 한국고전번역원 종합 DB의 『담헌집』 자료를 확인하였다. 또한 원문 대조와 번역본을 광건행이 교정한 『乾淨衛筆談』과 박상수가 옮긴 홍대용의 『항전척독』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10) 김동욱, 앞의 글, p.239, pp.236-237. 담헌 홍대용이 연행 중 중국 항저우 문인 세 명과 교류한 내용을 「건정동회우록(이후의 건정동필담)」에서 전해지게 된다. 후일 이는 『담헌서(湛軒書) 외집』에 수록되어 있는 「항전척독(杭傳尺牘)」과 「건정동필담(乾淨衛筆談)」

20세기에 들어서 홍대용의 필담이나 중국 문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자료들은 많은 학자로부터 관심을 모으게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홍대용 필담 텍스트에 대한 소개와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이나 의미에 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더 나아가 홍대용 필담에 드러난 한·중 문인의 교류 양상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학 연구라는 접근으로 살펴본 논의도 많았다.¹²⁾ 이처럼 홍대용의 『담헌서』에 수록된 한문 텍스트를 둘러싼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홍대용이 중국 문인과의 교류를 다룬 텍스트의 언어 표현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가 부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홍대용과 중국 문인 간 의사소통의 실용적인 목적에서 나누게 된 「건정동필담」과 그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지게 한 「항전척독」 두 자료의 텍스트를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언어의 기능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먼저 2장에서 텍스트 분석을 위한 수사학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분석 틀을 마련한다. 그 다음으로 두 자료의 텍스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수사학적 관점에서 그 특징을 자세히 분석한다.

으로 알려졌다.

- 11) 홍대용, 김태준 편, 앞의 책; 후마 스스무,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신로사 외 옮김,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夫馬進, 「朝鮮奇書－關於洪大容《乾淨洞會友錄》, 《乾淨筆譚》之若干問題」, 『中國文哲研究通訊』 第23卷, 第1期, 2013.
- 12) 관련 선행 연구로는 夫馬進·張雯, 「朝鮮洪大容《乾淨會友錄》與清代文人」, 『聊城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期, 2012; 이철희, 「특집2 - 18세기 연행록의 다면성: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와 천예지기(天涯知己)의 조건 - 홍대용(洪大容)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5권, 2014; 김동욱, 앞의 글, 2009; 김풍기, 「필담의 문화사」, 『비평문학』 제42호, 한국비평학회, 2011; 정혜중, 「필담과 통역을 통해 본 조선과 중국의 지적교류」,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第29回, 東洋史學會 冬季研究討論會, 2010; 윤승준, 「홍대용의 중국 체험과 청조문인과의 교류 - 『을병연행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1집, 2010; 이종묵, 「한시의 보편적 가치와 조선 후기 중국 문인과의 시문 교류」, 『한국시가연구』 제30권, 2011; 張伯偉, 「東亞文人筆談研究的回顧與展望」, 『人文中國學報』 第22期, 2016;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 허버드 연청 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과주: 문학동네, 2014 등이 있다.

2. 수사학 관점에서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방법론 설립

텍스트 분석에 적용할 이론에 대해 먼저 로만 야콥슨의 언어 기능 이론 (Jakobson's model of linguistic communica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로만 야콥슨은 20세기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표적인 언어학자로 언어 습득과 커뮤니케이션학, 기호학, 시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언어학과 문예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서양 수사학 연구사를 소개한 선행 연구에서는 20세기 초기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와 문학 이론가인 로만 야콥슨은 언어학의 입장에서 텍스트의 문학과 문학 연구를 탐구한 인물로 소개된다.¹³⁾ 특히 그는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고, 모든 언어 소통 행위에 여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 여섯 가지 요소에 각각에 집중했을 때 언어의 기능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이론을 탄생시킨 그는 기존 학계에서 언어 기능에 관한 선행 논의에 이어 모든 언어적/텍스트적 커뮤니케이션에는 ‘발신자(addresser)’, ‘수신자(addressee)’, ‘메시지(message)’, ‘상황/맥락(context)’, ‘접촉(contact)’, ‘코드(code)’ 등과 같은 여섯 가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정리하였다.¹⁵⁾ 아울러 이 여섯 가지 요소는 ‘감정 표시적(emotive) 기능’, ‘능동적(conative) 기능’, ‘지시적(referential) 기능’, ‘시적(poetic) 기능’, ‘친교적(phatic) 기능’, ‘메타 언어적(metalingual) 기능’ 등과 같은 기능(function)을 성립시킨다고 설명하였다.¹⁶⁾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모형은 나중에 ‘화행론’의 근간을 제공하기도 하여 소통 과정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밝혀

13) 朱志榮, 『西方文論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pp.283-284.

14) 위의 책, p.285.

15) 언어학과 시학의 관계에서 발전되어온 언어의 기능에 관한 연구사 검토는 김태욱, 『담화·텍스트·언어시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pp.470-515에 자세히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Roman Jakobson·Morris Halle,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9, pp.119-120에서는 야콥슨의 언어 기능 작동 모형을 표로 도식화한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6) 로만 야콥슨, 권재일 옮김, 『일반언어학이론』, 서울: 민음사, 1989, 제11장. pp.215-222. 야콥슨은 시학과 언어학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제시한 각각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해명하였다.

진다.¹⁷⁾

과거 한·중 문인은 한문이라는 공통 코드로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것은 「건정동필담」을 비롯한 필담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담 행위는 소리보다 주로 붓글씨로 이루어져 실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지언이 있었겠으나, 필담 텍스트 자체는 홍대용을 비롯한 한국 문인이 중국 문인과 언어적으로나 텍스트적으로나 같은 시공간 안에서 직접 의사소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홍대용이 중국 문인들과 나눈 필담에서 지속적인 소통 양상을 보여주고, 이는 국경을 초월한 양국 문인 의사소통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선행 연구에서 주목받은 바이다. 필담을 나눈 과정에서는 양쪽 사이 맺어진 관계와 관련된 이러한 상호작용의 상황이 야콥슨의 이론과 연관 지어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하게 존재하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본고와 같은 접근은 필담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할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로만 야콥슨의 언어 기능 이론을 문학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여 송강 정철 「훈민가」 텍스트의 기능적 특징을 밝힌 권두환의 연구와 윤선도 집구시를 이해하는 신은경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고, 이들 연구 결과는 이런 고전 텍스트 분석에 야콥슨 이론 접근의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¹⁸⁾ 본고는 로만 야콥슨의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판적 검토를 다루기보다 커뮤니케이션 상황과 관련된 야콥슨이 제시한 모형에 기반하여 필담 의사소통 상황과 텍스트의 언어 특징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17) Roman Jakobson·Morris Halle,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앞의 책, pp.120-121.

18) 권두환, 「송강의 訓民歌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42권, 진단학회, 1976, pp.163-164. 이 연구에서 송강 「훈민가」 텍스트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글쓴이 송강 정철은 발신자로서 「훈민가」라는 메시지를 수신자인 강원도 백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명령적인 측면보다 민중 서로의 능동적(conative)인 기능이나 정서적인 역할을 통해 강원도 백성을 연결할 수 있었다. 신은경, 「尹善道 集句詩 연구 - 로트만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론을 토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1권 제1호, 2017, 연구자는 윤선도 집구시에서 작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독자가 수용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간주하여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반하여 작가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집구시의 독특한 텍스트성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 성과를 통해 밝힌 바를 기반으로 하여 이 이론을 분석 방법론으로 삼을 가능성과 그 의의를 제시하는 데에만 그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 방법에 관해 보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전성(田星)의 연구에 주목하게 되었다.¹⁹⁾ 이 연구에서는 중국 내 야콥슨의 언어 기능 이론에 대한 연구 성과의 한계를 검토하고 야콥슨이 제시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여섯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소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야콥슨 이론에서의 여섯 가지 요소들은 각각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 전달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한다. 이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배치되느냐에 따라 정보의 의미와 변화가 결정되며,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기능을 생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발신자에 초점을 맞추면 ‘감정 표시적 기능’이 형성되어 대화 주제에 대한 발신자의 태도를 나타낸다.²⁰⁾ 정보의 수신자에 집중하면 ‘능동적 기능’이 발생하여 듣는 이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기능을 드러낸다. 그리고 정보의 언어적 문맥에 중점을 두면 지시적 기능이 강조되는데, 이는 언어가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에 대해 이해하도록 기능한다. 또한 연구자가 야콥슨(1958/1981a)을 인용하여 특정 정보가 주로 소통을 구축하고 연장하거나 중단하는 데 사용되는 친교적 기능을 소개하였다.²¹⁾ 그 외에 소통의 양측은 소통 경로가 원활한지에 대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코드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도 작동하는 것은 ‘메타 언어적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자체에 집중할 때 드러내는 시적(poetic) 기능에 관해 설명하였다. 시적 기능은 언어 형식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 예

19) 田星, 「论雅各布森的语言艺术功能观」, 『外语与外语教学』第6期, 2007, pp.13-16, 이 연구에서는 동양 고전 텍스트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 기능을 설명하였고, 야콥슨의 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 위의 글, p.14, 감정 표시적 기능은 보통 감탄사나 감탄구를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동한 시기의 시인인 양홍(梁鸿)이 쓴 〈오희가(五噫歌)〉에서 ‘噫’라는 감탄사가 사용됨으로써 궁궐의 웅장함과 국민들의 고된 노력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시인의 강한 분노와 한탄이 전해진다.

21) 위의 글, p.14, 이는 형식적인 인사말에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연장하는 데에도 나타나며 소통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술 기능의 핵심이 된다.²²⁾ 전성의 논문에서 제시한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구성과 관련되는 개념은 대체로 앞서 제시한 야콥슨 이론을 개괄한 다른 학자의 관점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선행 연구 관점을 종합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분석 틀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하고자 한다.²³⁾

<표1>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론에 「건정동필담」 분석을 위한 구조

발신자 (addresser)	수신자 (addressee)	메시지 (message)	맥락 (context)	접촉 (contact)	코드 (code)
감정 표시적(emotive) 기능 ²⁴⁾	능동적(tonative) 기능 ²⁵⁾	시적(poetic) 기능 ²⁶⁾	지시적(refere- ntial) 기능 ²⁷⁾	친교적(phatic) 기능 ²⁸⁾	메타 언어적(metalin- gual) 기능 ²⁹⁾

22) 위의 글, pp.14-15.

23) 야콥슨의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소개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박영원, 「시각적 이미지의 재미에 관한 연구 -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43권, 한국기호학회, 2015. pp.130-133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시각 문화 콘텐츠를 분석 주제로 삼아 본고에서 설정한 분석 자료인 필담 텍스트가 아니지만 야콥슨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소개와 분석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그 분석틀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본고는 박영원 논문에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되 일부 서술 용어와 야콥슨의 이론 구상을 Roman Jakobson·Morris Halle, 박여성 옮김, 앞의 책, 2009, 117-120면과 로만 야콥슨, 권재일 옮김, 앞의 책; 田星, 앞의 글, pp.13-16의 논의를 종합하여 텍스트 분석 구조를 보완하였다.

24) 발신자의 감정, 태도를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는 것.

25) 또는 행동 촉구적/지명적인 기능, 수신자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하거나 의사 표현하는 것.

26)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여 미학적인 요소 등과 같은 다른 일반적인 언어 요소와 변별 지점이 첨가되어 있는 것.

27) 메시지가 이루어진 맥락에 대해 사실적 또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

28)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을 완성하는 것. 이는 소통 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9)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된 코드 그 자체에 대한 메타적 인식.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메타적인 접근으로서 언어적 코드를 논의하거나 설명하는 것, 소통의 양측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원래 텍스트에 내재하는 지식을 증진시키고 체계화한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전통시대 한·중 양국 문인을 비롯한 동양 문학 장르나 문예의 관점에서 볼 때 「향전척독」은 하나의 한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글쓰기 양식을 드러낸다.³⁰⁾ 이는 홍대용뿐만 아니라 동시대 다른 조선 문인이 즐겨 구현하던 한문 글쓰기 장르이기도 하다.³¹⁾ 본고는 기존 홍대용의 척독문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 등과 같은 일반론을 넘어 동양 전통 수사학적 관점에서 「향전척독」의 언어 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찍이 중국을 비롯한 동양 문예 세계에서 문예나 수사학 관련 논의는 문학, 철학, 논리학, 미학, 수필, 주석, 음성학 등 여러 학문과 통합되어 다루고 있는데 수사학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경전 해설, 문학이나 역사, 시문, 수필에 관한 담론 등에 흩어져 체계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³²⁾ 중국인 학자 등문빈(鄧文彬)의 조사에 의하면 전통시대 중국의 수사학은 선진 시대의 〈묵자(墨子)·소취(小取)〉에서부터 위진 남북조에 나온 육기(陸機)의 『문부(文賦)』, 특히 유험의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출현 등으로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 후 남송 시대에 진규(陳騏)가 『문즉(文則)』을 저술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고대 중국

30) 동양과 서양 글쓰기의 범위를 소개하는 내용에 따르면 시(詩)를 비롯하여 오늘날 관점에서 실용문에 해당하는 글까지 포괄해 ‘시문(詩文)’이라고 일컬어 문예(文藝)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吳承學·沙紅兵, 「中國古代文體學學科論綱」, 『文學遺產』第1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2005, p.24. 중국 전통 시대 ‘문학’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구현한 전통 문체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과 ‘문체’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문’의 ‘문체’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되고 기교와 수정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언어와 글을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수사학, 일상적인 공적이나 사적 글 외에도 수많은 ‘텍스트’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심경호, 「한국 한문 산문의 서술 문체 및 수사 논리와 역사·문화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87호, 한국한문학회, 2023, pp.12-13에 의하면 근대 이전에는 ‘문’의 개념이 광의에서는 학술과 문학을, 협의에서는 순문학뿐만 아니라 공용문과 실용문까지 모두 포괄했다. 한국한문학은 한문을 사용하여 민족의 사상과 감정, 현실을 표현하면서 허구성을 가미한 문학, 역사 기록, 학문적 사색, 외교 관계, 공적, 사적 생활에서의 독특한 수사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다루었다.

31) 홍인숙,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 한문 서간, 그 지적 욕망의 문화사』, 파주: 태학사, 2020, p.16. ‘척독(尺牘)’은 짧은 편지 글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 문예미학을 대표하는 박지원, 이덕무 등이 소품문으로 즐겨 썼던 서간 장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32) 鄧文彬, 「中國古代修辭學的產生與早期的修辭學著作」,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第12期, 2005, p.367.

수사학이 공식적으로 정립되었다.³³⁾ 후우란(侯友蘭)은 중국 현대 수사학의 정립 과정에서 서양 수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국 수사학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 전통시대 수사 표현의 논의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⁴⁾ ‘수사’라는 어휘는 최초 선진시대의 『역경(易經)·건(乾)·문언(文言)』에 기록되는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에서 발견되는데, 공자는 ‘사달이이의(辭達而已矣)’라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인격 수양과 결합했다.³⁵⁾ 이는 중국 수사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내어 전통 중국 수사학의 연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공자 때부터 전해 내려진 이와 같은 유가 사상의 언어관 등을 비롯해서 문인 글쓰기에 대부분 유가적 문이재도(文以載道)의 문학관을 보여주고 있다.³⁷⁾ 이는 동양의 수사 전통에서 문학의 심미적 기능보다 효용적 기능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문심조룡』은 중국 선진시대에서 육조(6세기)까지의 중국 문학 현상을 시대순으로 집대성한 문학 이론서로 동양 전통 문예에 커다란 영향을 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문심조룡』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문학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두 측면인 ‘문심(문학 활동을 위한 인간의 정신과 감정 및 영감의 작용)’과 ‘조룡(문학을 구상하는 세심한 표현과 기교)’에 관한 문학 이론과 미학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었고, 서양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위치와 비견된 만큼 동양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³⁹⁾ 또한, 『문심조룡』에서 특히 문학예술의 주체와 모범 사례, 그리고 규칙이 정해진 데서 경전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즉 하늘과 땅과 사람에 관한 이치를 담은 경전의 창조에서의 언어 표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예를 들어 「징성(徵聖)」

33) 위의 글, pp.367-368.

34) 侯友蘭, 「中國傳統修辭學的繼承」, 『紹興文理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第25卷 第4期, 2005, p.71.

35) 위의 글, p.71.

36) 위의 글, p.71.

37)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2003, pp.29-30. (수사법의 여러 가지 양식, 인용, 비유, 인유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38) 유헌, 김민나 옮김, 『문심조룡(동양 문예학의 집대성)』, 서울: 살림, 2005, p.17.

39) 위의 책, pp.16-18.

편에서는 창작가가 성인이라 명시하여 성인 공자를 경서의 주체로 모범으로 삼았고,⁴¹⁾ 『정채(情采)』 편에서 이 점에 이어 성인의 글들을 문장이라 일컫는 이유는 그 언어 표현에 있다고 설명했기도 한다.⁴²⁾ 더 구체적으로 문학예술의 특징에 관한 기록에서 동양의 수사에는 지나친 수식을 경계하며 내용과 형식이 하나의 통일체로 보았음을 이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다.⁴³⁾ 이외에 앞에 중국 수사학 기원을 소개한 두 논문에서 조사되지 않은, 중국 고대 문예비평의 기준을 마련해준 『문선(文選)』에도 유가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아 정치 교화의 내용이나 효용적인 측면을 중요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문선』은 중국 양나라 소통(蕭統)이 편찬한 문집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통시대 문학 비평 저작이다. 소통은 주나라를 시작으로 남조 양나라까지 총 800년을 거쳐 특히 육조 문학(六朝文學)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선택하여 『문선』에 수록하였다.⁴⁴⁾ 『문선』에서는 모든 문학 장르를 38종으로 규정하여 이들을 사와 부[詞賦], 시가와 각종 변문(駢文)과 산문(대부분은 변문으로 이루어짐) 등 세 개의 큰 부류로 나누었다.⁴⁵⁾ 또한, 시와 문이 동양 문예를 형성하는 주요 장르라는 점에서 전통 동양

40) 위의 책, pp.208-212.

41)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征聖第二」: 是以論文必征于聖, 窺聖必宗于經. 해설: 글을 쓸 때는 성현의 사상이 검증의 기준이 되고, 성현의 사상을 찾는 것은 경전에 근거해야 한다.

42) 위의 책, pp.74-75. 「征聖第二」 ‘夫作者曰聖, 述者曰明. 陶鑄性情, 功在上哲. 夫子文章, 可得而聞, 則聖人之情, 見乎文辭矣.’; 「情采第三十一」 ‘昔詩人什篇, 為情而造文; 辭人賦頌, 為文而造情. 何以明其然?’

43) 유협, 김민나 옮김, 앞의 책, pp.224-225, pp.219-221; 王運熙·周鋒, 앞의 책, 2012, 「情采第三十一」에서 문학예술의 특징, 동양 문예의 핵심과 문예 작품 내용과 형식의 규범 및 수식을 구사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44) 蕭統 編; 李善 注, 『文選』, 서울: 文選研究會, 1983, p.1. 왕운희(王運熙) 해제 부분 참고.

45) 위의 책, p.3. 『문선』에서 규정한 38개의 문학 장르는 다음과 같다. 부(賦), 시(詩), 소(騷), 칠(七), 조(詔), 책(冊), 령(令), 교(敎), 문(文)/책문(策文), 표(表), 상서(上書), 계(啟), 탄사(彈事), 전(箋), 주기(奏記), 서(書), 격(檄), 대문(對問), 설론(設論), 사(辭), 서(序), 송(頌), 찬(贊), 부명(符命), 사론(史論), 사술찬(史述贊), 론(論), 련주(連珠), 잠(箴), 명(銘), 퇴(誄), 애(哀), 비문(碑文), 묘지(墓誌), 행장(行狀), 조문(吊文), 제문(祭文).

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경(詩經)』에 보인 전통 수사에 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동양 최초 시가집인 『시경』에서의 ‘부(賦)’, ‘비(比)’, ‘흥(興)’은 시가 창작 과정에서 주요 수법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표현 수법을 통해 시인은 감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⁴⁶⁾ 『시경』에 드러난 ‘부’, ‘비’, ‘흥’ 표현 수법은 후세의 시문 창작에 널리 유전되어 동양 문예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오기 때문에 동양 문예문의 언어 표현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⁷⁾ 조선 후기의 홍대용은 본인의 필담과 척독문의 글 쓰기 양식을 구현했을 당시에 『문심조룡』과 『문선』 등을 시작으로 한 동양 문예문의 전통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 시대 척독문의 유래에서 찾을 수 있고, 홍대용이 필담 자료나 중국 문인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동양 전통 시문을 짓거나 『문선』을 읽고 기뻐했다는 기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⁴⁸⁾

이상으로 본고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홍대용의 「건정동필담」을 아홉손의 언어 기능 이론을 적용한 분석 틀에서 분석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항전척독」을 동양 문예 비평의 관점과 동양 시문을 다룬 경전을 근거로 삼아 텍스트의 수사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6) 袁行霈等, 『中国文学史(第3版)』1,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4, pp.64-65. 『시경』의 예술 특징은 ‘부’, ‘비’, ‘흥’의 사용을 통해 두드러진다. 그간 ‘부’, ‘비’, ‘흥’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많았으나 대체로 ‘부’는 설명하기 위한 서술의 표현이고, ‘비’는 비유이며 ‘흥’은 어떤 사물을 통해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일종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수사임이 알려지고 있다.

47) 위의 책, pp.66-68.

48)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서술문체 및 수사논리와 역사 문화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87호, 한국한문학회, 2023, pp.9-10, p.28에서 한국의 수사 논리의 기원과 조선 지식층의 척독 문체 문제를 소개하였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조선의 지식층은 척독(尺牘) 문체를 익히기 위해 금나라 두인결(杜仁傑) 편찬의 구소수간(歐蘇手簡)을 교본으로 삼았고, 한국 한문산문의 수사 논리는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의 “수사입기성(修辭立其誠)”이란 구절에서 나왔다. 홍대용, 박상수 옮김, 앞의 책, pp.278-279, p.307. 홍대용이 손용주에게 보내는 편지(與孫蓉洲書)에서 “容素不喜聲詩, 年來病中無聊, 偶見昭明選詩, 始欣然慕之” 등 기술을 통해 소명의 「문선」 관련 내용을 직접 다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항전척독(杭傳尺牘)」 자료 소개와 분석

1) 「건정동필담」의 언어 표현 분석

「건정동필담」은 홍대용이 연행 과정 중 항저우에서 과거(科擧) 시험을 보러 북경에 온 세 명의 중국 문인과 직접 만나 한문으로 교류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 앞서 <표 1>에서 본고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소개하고 필담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건정동필담」 분석에 이 이론 모형을 적용했을 때 필자 개인의 해석과 분류로 「건정동필담」 텍스트의 각 구조 요소와 거기에 드러나는 기능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불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분석한 바를 통해 표에서 일대일로 대응시켜 제시한 것은 기존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모형의 적용법을 시도한 결과이고, 각 텍스트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냐에 따라 그와 대응하는 기능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1⁴⁹⁾

49) 본문 지면상의 제한으로 원문 확인을 위한 한국고전번역원 DB에 있는 필담 원문과 번역문을 각주로 제시한다. 또한, 원 번역문의 종결 어미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를 나눈 격식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원 번역문의 종결 어미를 합쇼체와 하오체로 통일한 점을 밝혀둔다. 한국고전번역원 DB 『湛軒書外集卷二』, p.5, ㉠ 蘭公曰：先生以貴胄而不爲官，必立身行己之君子也。余笑曰：無才無學，官自不來。㉡ 平仲曰：今承兩位德儀，益覺中華人物之不可企及也。蘭公曰：中華雖文物之邦，近名榮利者比比皆是。㉢ 余曰：邂逅良晤，深愜鄙願，未知繼此而可得見耶。㉣ 蘭公曰：人臣無外交，恐難再圖良會。㉤ 余曰：此戰國時語也，今天下一統，豈有彼此之嫌。㉥ 蘭公有喜色曰：天子以天下爲一家，況貴國乃禮教之邦，爲諸國之長，自當如此。俗人之議，何足道哉。㉦ 天涯知己愛慕無窮，寧以中外遂分彼此耶。或他時得邀微官，奉使東方。當詣府叩謁。中心藏之。何日忘之。번역문：㉠ 난공(蘭公)이 “선생이 양반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입신행기(立身行己)하는 군자일 것입니다.” 내가 웃으며 “재주 없고 학식 없으니 벼슬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 평중(平仲)이 “지금 두 분의 덕의(德儀)를 접하니 더욱 중화인물의 따를 수 없음을 느낍니다.” 난공

	예문	텍스트에 드러난 기능에 관한 설명
감정 표시적 기능	㉔天涯知己愛慕無窮。寧以中外遂分彼此耶。	㉔ 에서 발신자는 “耶”라는 감탄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시한다.
능동적 기능	㉕余曰：邂逅良晤，深愜鄙願，未知繼此而可得見耶。	㉕ 에서 홍대용은 중국 문인과 다음번의 만남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 스스로 감탄하며 상대방의 반응과 의견을 유도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화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기능을 한다.
시적 기능	㉖蘭公曰：先生以貴胄而不爲官，必立身行己之君子也。 ㉗蘭公曰：人臣無外交，恐難再圖良會。	㉖ 중의 ‘입신행기지군자(立身行己之君子)’ ㉗ 구절에서의 ‘人臣無外交’ 등 내용은 의사소통에 참여한 발신자가 동양 유교 군자관이나 경전 <예기(禮記)> ⁵⁰⁾ 중에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 등을 인용하여 수사적인 기능을 통해 텍스트의 문예 수준을 높였다.
지시적 기능	㉘余曰：此戰國時語也。今天下一統，豈有彼此之嫌。	㉘ 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화자 홍대용은 반정군이 <예기>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여 양쪽의 다음 만남이 어렵겠다고 제시한 근거의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지시한다.

(蘭公)이 “중화가 문물의 나라라 하나 명예와 공리를 추구하는 자가 태반입니다.” ㉕ 내가 “우연히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니 깊이 나의 소원에 흡족합니다. 이 뒤로 어떻게 더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㉖ 난공이 “신민(臣民)으로서 외교(外交)할 수 없으니 아마 다시 양회(良會)를 도모(圖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㉗ 내가 “이것은 전국(戰國) 때의 말입니다. 지금 천하(天下)가 통일되어 하나이니 어찌 피차의 혐(嫌)이 있겠습니까?” ㉘ 난공(蘭公)이 “기뻐하며 천자(天子)는 천하로써 일가(一家)를 삼거던, 하물며 귀국이 예교(禮教)의 나라로서 제국(諸國)의 어른이 되는데 마땅히 이려해야 하지요, 속인(俗人)의 의논을 어찌 중히 이르겠습니까?” ㉙ “천애(天涯)의 지기(知己)로 애모(愛慕)하기 끝이 없는데 어찌 중외(中外)로써 피차를 나누겠습니까? 혹 다른 때에 미관(微官)을 얻어가지고 동방(東方)에 봉사(奉使)하면 마땅히 맥에 찾아가 뵈겠습니다. 가슴 속에 간직한 생각을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50) 禮記註疏 鄭玄(漢) 註;孔穎達(唐) 疏, 汲古閣, 崇禎12年(1639)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C04653_00 해제 설명에 따르면 <예기(禮記)>는 전국(戰國)에서 한초(漢初)에 이르는 유학자들이 예의(禮儀)에 관해 산발적인 논저를 모아 편집한 것으로, 전통시대 중국 예제(禮制)와 문물(文物)과 진한(秦漢) 이전의 유가사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전적이다. 李育民, 「晚清人臣無外交」의 異變及其 趨向, 『史學月刊』, 第7期, 2019, p.60에 따르면 “신하가 외교를 하지 않는다(人臣無外交)”라는 표현은 <예기·곡례상(曲禮上)> 중 ‘為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뜻은 신하가 외교를 하지 않으며 감히 통치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오랫동안 중국 대외 관계의 외교 제도적 규칙으로 실행되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도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친교적 기능	<p>㉠ 蘭公曰：先生以貴胄而不爲官。必立身行己之君子也。㉡ 平仲曰：今承兩位德儀。益覺中華人物之不可企及也。㉢ 蘭公有喜色曰：天子以天下爲一家。況貴國乃禮教之邦。爲諸國之長。自當如此。俗人之議。何足道哉。天涯知己愛慕無窮。</p>	<p>㉠ 문장에서 난공 반정균은 양쪽에서 모두 유교적 학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군자론’으로 상대방을 칭찬하였고,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모델로 상대방에 비유한다는 친교적 기능을 한 효과를 드러낸다. ㉡에서 평중 김재행은 중국 문인 두 분을 만나 중화 인물의 실력을 감탄하였다고 한 것이다. ㉢에서 화자 난공이 홍대용 말에 공감하여 친분을 확인한다는 메시지는 접촉을 더 깊은 층위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가능하다.</p>
메타 언어적 기능	<p>㉣ 余曰：此戰國時語也。</p>	<p>㉣ 문장에서 수신자 홍대용은 상대방 발신자가 제시한 ‘人臣無外交’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앞의 담화 내용을 해석한 내용을 제시한다.</p>

텍스트 2⁵¹⁾

- 51) 한국고전번역원 DB 『湛軒書外集卷二』, pp.17-18, ㉠ 力闇曰：弟極好談理學，恨無同志耳。今日可謂有朋自遠來，竊幸吾道之不孤。最恨言語不通。不然暢談雖累月。不休也。㉡ 余曰：儒門最言慎獨。願聞獨字之義。㉢ 力闇曰：微哉。遂笑而不言。蓋力闇意余言出於嘗試。微笑良久。乃曰：朱子云人所不知而己獨知之。看來尙有己也不知之處。㉣ 余曰：己也不知，是何境界。㉤ 力闇曰：慎獨之前。欠一段工夫。則己心之初發。是非邪正。焉能知之。未發時最難潛養。此處一差。卽墮入佛氏之頑空矣。㉥ 余曰：此論見得甚高。此是着手不得。然不著手力不可。力闇頷之。- 중략 - ㉦ 力闇曰：工幾深造後。可說餘事。豈有先講餘事之理。如吾恐好餘事之心不敵好學之心。大可懼也。㉧ 余曰：反躬自省。若是真切。無得於學者。烏能如是。弟雖不才。言下頗有領悟。幸多賜嘉訓。번역문：㉠ 역암이 “제가 극히 이학(理學) 말하기를 좋아하나 동지가 없어 한 되더니 오늘이야말로 벗[朋]이 있어 멀리부터 왔다고 하겠습니까. 그속이 우리의 도가 외롭지 않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되는 것은 언어가 통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달을 두고 이야기해도 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내가 “유문(儒門)에서는 가장 신독(慎獨)을 많이 말하니 독(獨)자의 뜻을 듣기 원합니다.” ㉢ 역암이 “미묘(微妙)합니다.”하고, 드디어 웃고 말하지 않았다. 대개 역암은 내가 시험해 보는 말인가 생각하고 미소 짓다가 한참 만에 “주자(朱子)는 말하되 ‘남은 알지 못하고 나만 홀로 아는 데다.’라고 하나, 내 보기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내가 “자기도 모르는 곳이란 어떤 경계입니까?” ㉤ 역암이 “신독(慎獨)하기 전에, 일단 공부 없으면, 자기마음의 처음 발(發)할 때 시비사정(是非邪正)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발시(未發時)에 가장 잠양(潛養)하기 어려우니, 이곳에서 한 번 틀리면 곧 불씨의 완공(頑空)에 떨어져 들어갑니다.” ㉥ 내가 “이 논의 견해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손을

	예문	텍스트에 드러난 기능에 관한 설명
감정 표시적 기능	㉠力闇曰：弟極好談理學，恨無同志耳。今日可謂有朋自遠來，竊幸吾道之不孤。最恨言語不通。不然暢談雖累月，不休也。	㉠ 텍스트에서 역암 업성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맥락에서 유학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상대(동지)를 만났다는 기쁨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아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표출은 발신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기능한다.
능동적 기능	㉡余曰：儒門最言慎獨。願聞獨字之義。 ㉢余曰：己也不知，是何境界。	㉡ 과 ㉢의 발화 맥락은 홍대용이 상대에게서 가르침을 청하여 상대방의 화행 행위를 유발하도록 기능한다.
시적 기능	㉠力闇曰：...今日可謂有朋自遠來，竊幸吾道之不孤。最恨言語不通...	㉠ 에서 발신자 역암은 논어 구절 '유봉자원방래(有朋自遠來)'를 인용함으로써 수사학적 기능을 갖추게 하여 텍스트의 예술적 특징을 부여받도록 기능한다.
지시적 기능	㉣余曰：此論見得甚高。此是着手不得。然不著手力不可。 ㉤力闇曰：微哉，遂笑而不言。盖力闇意余言出於嘗試。	㉣ 에서 홍대용은 역암의 견해에 부응하여 의사소통한 맥락과 이유를 지시한다. ㉤에서 역암은 앞서 상대방 홍대용이 '신통'에 대한 질문한 의도를 알아본다는 상황을 지시한다.
친교적 기능	㉦力闇曰：工幾深造後。可說餘事。豈有先講餘事之理。如吾恐好餘事之心不敵好學之心。大可懼也。 ㉧余曰：反躬自省。若是真切。無得於學者。烏能如是。弟雖不才。言下頗有領悟。幸多賜嘉訓。	㉦, ㉧ 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역암은 자신이 주자학에서 공부의 방법에 관해 터득한 바를 말하자 홍대용은 이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상대방과의 연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쓰지 못하는 곳이지만 손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역암이 끄덕였다. - 종락 - ㉡ 역암이 “공부가 거의 심조(深造)한 뒤에야 여사(餘事)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먼저 여사를 강(講)할 리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여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학(學)을 좋아하는 마음을 대적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크게 근심스럽습니다.” 내가 “반궁(反躬) 자성(自省)이 이같이 절실하니, 학에 얻은 바 없이 어찌 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제구가 없으나 말을 듣고 자못 깨달은 바 있으니,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언어적 가능	㉠力闇曰：微笑而不言。蓋力闇意余言出於嘗試。微笑良久。乃曰：朱子云人所不知而已獨知之。看來尙有己也不知之處。	㉠ 의사소통 상황에서 역암은 홍대용이 '신독'의 의미를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함으로써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하다.
--------------	--	--

텍스트 3⁵²⁾, 텍스트 4⁵³⁾

- 52) 한국고전번역원DB 『澁軒書外集卷三』, 50면, ㉠ 而洪君每與予講性命之學, 其言大醇, 蓋深有得于湛字之義者。予雖不文。方將自勉于君子之道。以求無負於良友。并欲以洪君之文行。遍示中國之士。亦何敢以禿管形論萬一。未審溪湖先生聞余言以爲何如也。杭郡潘庭筠頓首拜譔。余書贈蘭公四句。又書高遠亭賦曰, ㉡ 秀野之園, 散襟之石。有翼其亭。君子攸息。扁以高遠。蓋取昭曠。目極川原。雲烟萬狀。大容作頌。賦而且比。其主伊誰。惟伯高氏。有石盤陀兮山之阿。上蔭松栢兮下出寒泉。辟蒙茸兮掃青苔。緝翠茅兮架素椽。繁陽葩兮晝炫。疏石澗兮夜聲。若有人兮坐素月。戴蕪笠兮烏竹纒。歌商頌兮浩蕩。響瑤琴兮泠泠。山之外兮路險難。攀桂枝兮聊逍遙。風颯颯兮雲漠漠。靈鳳飛盡兮鷓鴣晝號。悵塵事兮多違。惟予所兮盤桓。憑檻兮遠望。見龍門兮高山。積一拳兮成萬仞。蠡螺鬢兮高插天。顧茲居兮雖信美。且遠遊兮四荒。駕長風兮沛然。履周道兮翱翔。脂名車兮策良驥。願從子兮斯征。又書曰。余素拙於書。殆不成字樣。以是凡贈人文字。必借手於能者。㉢ 今於鐵橋之請。乃奮然下筆。不少讓焉。無他。以鐵橋之意不在書也。㉣ 嗚呼, 此意良厚, 吾未敢言矣。 [이하 생략] 번역문: ㉠ “홍군이 매양 나와 성명(性命)의 학을 강하면 그 말이 아주 순(醇)하니 대개 깊이 담(湛)자의 뜻에 얻음이 있는 자입니다. 내 비록 글을 못하나, 스스로 군자의 도에 힘써, 좋은 벼를 저버리지 않게 하며, 아울러 홍군의 문행(文行)으로써 중국의 사(士)에게 두루 보이고자 하나, 또 어찌 감히 독필(禿筆)으로써 만의 하나인들 형용하여 논(論)하라” “알지 못하거나와 미호 선생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항군(杭郡) 반정군(潘庭筠)은 머리 숙여 배찬(拜譔)합니다.” 나는 난공에게 네 시구(詩句)를 써주고 또 고원정(高遠亭)의 부(賦)를 다음과 같이 써주었다. ㉡ 수야의 동산과[秀野之園] 산금의 돌에[散襟之石] 날개 같은 정자 있으니[有翼其亭] 군자가 쉬는 곳이라도[君子攸息]. 고원이라 이름하니[扁以高遠] 밝고 넓은 뜻이러라[蓋取昭曠] 눈은 내와 들을 다하고[目極川原] 구름 연기는 만 가지 모양이네[雲烟萬狀]. 대용이 송을 지으니[大容作頌] 부이고 또 비이다[賦而且比] 그 주인이 누구인가[其主伊誰] 큰덕 고씨뿐이러라[惟伯高氏] 산 언덕에 바위 있어 안장같이 생겼으며[有石盤陀兮山之阿] 위에는 송백이 우거지고 아래는 찬 샘이 나온다[上蔭松栢兮下出寒泉] 우거진 풀 헤치고 푸른 이끼 쓸어내며[辟蒙茸兮掃青苔] 띠를 이어 엮고 서까래 없어 놓았네[緝翠茅兮架素椽] 낮에는 꽃이 피어 눈이 부시고[繁陽葩兮晝炫] 밤에는 돌샘에서 물이 흐르네[疏石澗兮夜聲] 밝은 달빛 속에 누가 앉았는고[若有人兮坐素月] 오죽 갓 끈에 풀 샷샷 썼구나[戴蕪笠兮烏竹纒] 상송을 노

텍스트 3과 텍스트 4는 몇 번의 직접 만남을 거쳐 후 친분을 쌓이게 된 홍대용 일행이 항저우 문인과 편지를 오간 일부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3에서 발췌한 것은 난공 반정균이 홍대용에게 보낸 <담헌기(湛軒記)>의 일부 내용과 홍대용이 그 편지에 답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텍스트 4는 엄성이 다시 홍대용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다루는 내용이다. 두 텍스트를 하나의 맥락에서 그중에 드러난 수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문	텍스트에 드러난 기능에 관한 설명
감정 표 시적 기능	㉞嗚呼, 此意良厚, 吾未敢 言矣.	“오호(嗚呼)”라는 감탄사를 통해 홍대용은 상대방 철교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며 의사소통의 감정적 효과를 부각한다.

래하니 이 기개 호탕하고[歌商頌兮浩蕩] 요금을 울리니 그 소리 차디차다[響瑤琴兮冷冷] 산은 멀리 떨어지고 길은 걷기 험난하여[山之外兮路險難] 계수 가지 휘어잡고 간신히 소요하네[攀桂枝兮聊逍遙] 바람이 쌀쌀한데 구름도 흩어지니[風颯颯兮雲漠漠] 봉황은 날아가고 올빼미 낮에 운다[靈鳳飛盡兮鷗梟晝號] 슬프다 세상일 뜻대로 아니 되니[悵塵事兮多違] 그대의 처소에서 망설일 뿐이라네[惟子所兮盤桓] 난간에 의지하여 멀리멀리 바라보네[憑檻兮遠望] 용문이 보이는데 높디높은 산이로다[見龍門兮高山] 한 줌 돌이 쌓여서 만장 높이 이루고[積一拳兮成萬仞] 우뚝 솟은 나환은 하늘이 꽃혔네[蠹螺鬣兮高插天] 이 집이 생각하면 아름답기 사실이나 [顧茲居兮雖信美] 그래도 멀리 떠나 사방으로 떠다니네[且遠遊兮四荒] 긴 바람 타고 꽤연히 떠나[駕長風兮沛然] 큰 길을 따라 빙빙 날아도네[履周道兮翩翩] 명거를 장만하고 천리마 채찍질하여[脂名車兮策良驥] 그대를 따라 여정에 오르려네[願從子兮斯征]. 또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본래 줄필이라 글자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므로 무릇 남에게 주는 문자는 반드시 능자(能者)에게 손을 빈다오. ㉞ 지금 철교(鐵橋)의 청에 붙연히 붓을 들어 조금도 사양하지 않는 것은 님이 아니라 철교의 뜻이 글씨에 있지 않기 때문이오. ㉞ 아아! 이 뜻은 참으로 두터운 것이니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하겠소.”

- 53) 한국고전번역원 DB 『湛軒書外集卷二』, p.51, [이상 생략] 十八日俱已辦就。無由繳上。并一小札。亦都未達。今籍使納上。惟默鑒此忱耳。㉞前蒙書冊內德行文藝及德性問學之語，切中膏肓，謹當陳之左右，以作終身之佩。敢不拜嘉。前札忘謝。今并及之。率佈鄙意。並請近安。不備。[이하 생략] 번역문 : 부탁한 모든 글씨는 18일 모두 이미 써 냈는데 보내 드릴 길이 없다오. 아울러 한 소찰(小札)도 또 모두 전달하지 못하였소. 지금 사람을 시켜 보내 올리니 이 마음을 살펴주기 바라오. ㉞ 전에 주신 서책 안에 덕행과 문예와 덕성과 문학에 관한 것은 나의 병통에 절실히 들어맞으니 삼가 좌우에 놓아두고 종신토록 잊지 않겠소.

능동적 기능	㉞嗚呼，此意良厚，吾未敢言矣。	㉞에서 홍대용은 자신이 엄성의 뜻을 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반응을 요청하는 역할을 기능한다.
시적 기능	㉞“秀野之園，散襟之石。有翼其亭。…願從子兮斯征。”	㉞은 홍대용이 난공 반정균에게 지은 고원정부(高遠亭賦)를 옮긴 내용이다. 원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홍대용은 매 구절에서 ‘혜(兮)’라는 어조사를 사용하여 굴원이 창조한 ‘소체(騷體)’ 전형적인 문체와 구식을 갖춘 소체부(騷體賦)를 창작하였다. ⁵⁴⁾ 또한 “大容作頌賦而且比”에서 본인이 기술한 바와 같이 ‘부’와 ‘비’의 전형적인 수사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시적 기능을 드러낸다.
지시적 기능	㉞今於鐵橋之講。乃奮然下筆。不少讓焉。無他。	㉞에서 홍대용 본인이 스스로 글쓰기에 능하지 못하여 철교의 청에 응하기 위한 글뿐이라고 자백한 후 절교의 뜻을 온전히 다루지 못했다는 의사를 지시하고 있다.
친교적 기능	㉞而洪君每與予講性命之學。其言大醇。蓋深有得于湛字之義者。	㉞에서 반정균이 홍대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자겸의 표현을 사용하여 친교적 의사소통의 효과를 이루게 돕는다.
메타언어적 기능	㉞ 前蒙書冊內德行文藝及德性問學之語。切中膏肓。謹當陳之左右。以作終身之佩。	㉞에서 엄성은 홍대용의 편지에서 ‘덕행, 문예, 문학 등 내용’을 포함하였음을 상대방이 전달한 것을 한 번에 재정리하여 그 내용을 높이 평가한 것을 드러낸다.

텍스트 555), 텍스트 656)

54) 袁行霈의, 앞의 책, p.12, 중국 문학의 ‘부(賦)’라는 장르는 굴원의 <초사(楚辭)>에서 그 첫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김학주, 『중국문학사』, 서울: 신아사, 2013, p.124. 저자가 <초사(楚辭)>에 나타나는 구식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초나라 노래의 가장 기본적인 구형은 ‘000兮000’이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구식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000兮00’ 또는 ‘00兮00’ 등과 같이 구식에 변화를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55) 한국고전번역원 DB 『湛軒書外集卷三』, p.23, 蘭公曰：兄乃不作詩。不必多言。㉞ 余曰：頃教小序云云。略有奉答。而詩令方嚴。恐作殺風景。㉞ 蘭公曰：小序亦詩事。余曰：素不嫻於文字。所答太涉支離。且遺辭之際。頗有觸犯。然亦質問之不得不爾。㉞ 起潛曰：辨者必求其明。余乃出而示之。起潛與諸人讀之曰。㉞ 無一語之敢譏云云。此鄉愿之道也。朱子之賊也。過矣二字。亦其太恕矣。但古人云不敢自信而信其師。亦不可遽以己意作爲鐵板而擯斥其說。不少顧籍也。[…] 詩之掃去小序。爲其最得意處而大有功於聖門矣。㉞ 及聞兄輩之論。不覺爽然而自失矣。번역문 : 난공이 “형은 시를 짓지 않는 것이니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㉞ 내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서(小序) 운운’한 것은 약간 답론(答論)을 드리려고 하나 열심히 시를 짓는 중이시니 시흥을 해질까 두려워하십니다.” ㉞ 난공이 “소서도 또한 시에 관한 일입니다만.” 내가 “본래 문자에 단련되지 못하여 답변한 것이 너무 지리한 데 흘렀고, 또 어구(語句)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못 의견이 저축되어 노여움을 살 것도 있으나, 그러나 또한 질문에 대한 것이라 부

텍스트 5와 텍스트 6은 홍대용과 항저우 문사들이 주자가 시경 주석에서 〈소서(小序)〉를 삭제한 것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내용이다. 홍대용의 「건정동필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소서〉에 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양쪽에서 〈소서〉 논의에서 나아가 문학 비평 등을 둘러싸여 의견을 교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⁷⁾ 이는 상대방이 공유하는 언어나 담

득이 합니다.” ㉔ 기잠이 “변론이란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니까.” 나는 곧 이것을 꺼내어 보았다. 기잠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읽었다. 그것은 이리하다.[...중략...] ㉕ 주자의 주해라고 하여 한 마디의 말도 감히 평론할 수 없다고 운운한 것은, 이는 향원(鄉愿)의 도요, 주자의 반적이니, 형이 말한 ‘잘못이다[過矣]’라는 두 글자는 도리어 너무 너그러운 평이라 하겠습니까. 다만 옛사람이 말하기를, ‘감히 자신(自信)하지 못하겠으면 그 스승을 믿으라.’고 하였는데, 자기의 의견을 변동할 수 없는 철관(鐵板)으로 생각하고 그 주자의 설을 배척하되 조금도 돌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주자의 경전 해석이 어느 것이고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역(易)을 점서(占筮)의 글로 단정한 것과 시에서 소서를 제거한 것은 그 가장 득의(得意)한 곳으로서 크게 성인의 문에 유공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㉖ 이제 형들의 의론을 들으니 망연 자실(茫然自失)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56) 한국고전번역원 DB 『湛軒書外集卷三』, p.23, 看畢。蘭公曰：小序。原不可廢。若以詩注。謂非門人手筆。則欲護朱子而反以累朱子也。力闇曰：童子佩鐃。小序謂譏衛惠公之詩。朱子非之。何也。又曰：辨語甚當。惟小序事。不敢苟同。㉔ 余曰：何可苟同也。但彼此虛心更詳之。可也。㉕ 惟尊經學古之義。宜汲汲乎其大同也。至於文義之出入。雖終身不合。亦何傷乎。言言而求其合。事事而求其同。友道之大病而交道之不能保其終也。力闇甚喜。此時酬酢頗多而皆不能記。起潛在椅上。方草答語。번역문 : 다 읽어 보고 나서, 난공이 “소서(小序)는 원래 폐기할 수 없는 것이며, 시경의 주석을 문인의 수필(手筆)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자를 보호하려다가 도리어 주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역암이 “동자패휴(童子佩鐃) 위풍(衛風)의 환란장(芟蘭章)를 소서에서 위 혜공(衛惠公)을 비방한 시라고 하였는데, 주자가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또 “변명하신 말씀은 매우 타당하게 여기나 다만 소서에 대한 것만은 감히 함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㉖ 내가 “어찌 함부로 동의해서 되겠습니까? 다만 피차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다시 더 상론하는 것이 옳겠지요. ㉗ 오직 경전을 존중하고 옛 학문을 배우는 의리에 있어서는 마땅히 대동(大同)하기를 서둘러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 뜻에 대한 견해의 차이 같은 것이야 비록 중신토록 합일되지 않는다 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말마다 합하기를 구하고 일마다 같기를 구하는 것은 벗하는 도리의 큰 병통이어서 사림을 끝까지 보전할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역암은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에 수작(酬酢)한 것이 상당히 많았지만 다 기억할 수 없었다. 기잠은 의자 위에 앉아서 바야흐로 답변서를 초안하고 있었다.

57) 韓衛星, 『洪大容文學與中國之關聯研究』,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p.62,

화 내용들이 양쪽의 대화와 교감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었음을 설명해준다. 야콥슨의 수사학 이론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	텍스트에 드러난 기능에 관한 설명
감정 표시적 기능	㉔及聞兄輩之論。不覺爽然而自失矣。	㉔에서 홍대용은 상대방에게서 들은 〈소서〉에 관한 견해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도록 기능한다.
능동적 기능	㉕辨者必求其明。	㉕은 홍대용이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을 망설여 하는 것에 욕비가 발화 요청하기 위한 말한 것이다.
시적 기능	㉖無一語之敢議云云。此鄉愿之道也。朱子之賊也。 ㉗惟尊經學古之義。直汲汲乎其大同也。	㉖에서는 홍대용이 〈논어(論語)·양화(陽貨)〉중에 '향원, 덕지적아(鄉原, 德之賊也)'를 인용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향원'을 반대해야 하는 도리를 설명하며 인용의 효과로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㉗에서 홍대용은 양쪽 문인들이 숙지한 전통 동양문에 비평에서 경전을 강조한 논의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수사학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지시적 기능	㉘余曰。頃教小序云云。略有奉答。	㉘은 홍대용의 발화 의도를 제시한다.
친교적 기능	㉙余曰。何可苟同也。但彼此虛心更詳之。可也。	㉙에서 홍대용은 앞서 역암의 말을 이어 상대방이 의견이 다르게 나온 것에 당연한 일이라 인정해주는 기능을 한다.
메타 언어적 기능	㉚蘭公曰。小序亦詩事。	㉚에서 난공 반정균은 홍대용이 말한 메시지인 '소서' 자체가 시에 관한 논의라고 덧붙여 설명한다.

이상으로 제시한 텍스트를 통해 「건정동필담」에 나타난 양쪽 문인의 의사소통 상황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건정동필담」은 홍대용을 비롯한 조선 문인들이 중국의 문사들과 필담으로 의사소통한 결과다. 양쪽에서 한문을 통해 이루어진 교류를 하나의 책으로 엮은 만큼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알 수 있다.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할 때, 당시 필담 교류 상황 중 양쪽 의사소통에서는 필수적인 여섯 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양쪽의 연속적인 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데에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발휘했다고

pp.64-65. 연구자는 필담 텍스트에서 기록된 홍대용과 중국 문인들이 〈소서〉를 둘러싼 담론을 예로 들어 홍대용의 시문에 관한 비평론을 설명하였다.

판단된다. 특히 양쪽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특징은 유학자로서 모두 잘 알고 있는 유교 경전 내용을 거듭 인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동양 문예비평 관련 논의를 숙지한 양쪽 문인의 교류를 지속해서 이어 나가게 해 주었고, 상호 간 소통의 깊이를 더하게 기능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항전척독」의 언어 표현 분석

예시 1: 추루 반정균에게 보낸 편지(與潘秋厓庭筠書)⁵⁸⁾

홍대용이 반정균에게 보낸 이 편지는 비교적 짧은데도 불구하고 편지에서 홍대용은 시문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의 학문적 깊이와 현재 타국에 있는 벗에 대한 그리움을 모두 드러냈다. 원문의 ‘嗚呼，樂莫樂兮新相知，悲莫悲兮生別離，千古屈大夫，已說盡吾號意中事，更有何言’을 보면 홍대용이 초나라 사람인 굴원의 『초사(楚辭)』 「구가(九歌)」 중 한 구절인 ‘낙막낙혜신상지(樂莫樂兮新相知), 비막비혜생별리(悲莫悲兮生別離)’를 인용하여 벗과의 이별에 대한 설움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굴원’과 같은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활용한 ‘용사(用事)’는 동양 고전 문학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수사법인데 이는 주로 전고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할 때 텍스트의 함의나 호소력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의 문체에 있어서 홍대용은 앞서 제시한 필담 텍스트에서도 <고원정부>라는 장르적 글쓰기를 재현하였음을 상기시킬 수 있다. 이처럼 짧은 텍스트 안에 홍대용은 전형적인 척독문의 형식과 전통적인 동양 문예문의 언어 표현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58) 본고는 홍대용, 박상수 옮김, 앞의 책을 「항전척독」을 분석하는 기본 자료로 삼아 연구자의 한글 번역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大容頓首白。別後起居萬安，會聞得失何居。無由承聞，徒切。嗚呼，樂莫樂兮新相知，悲莫悲兮生別離，千古屈大夫，已說盡吾號意中事，更有何言。[중략] 多少都在冬間節使之行，姑不暇縷陳，惟知己默會而已，不備。번역문: 대용은 머리를 조아려 말씀 드립니다. 헤어지고 나서 몸은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회시(會試)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식을 들을 길 없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 새로 사람을 알아서 사귀는 것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고, 생이별보다 도 더한 슬픔이 없습니다. 옛날에 굴 대부(屈大夫)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말했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중략] 나머지는 동지사(冬至使) 편에 전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히 말씀드릴 겨를이 없으니 벗께서 묵묵히 이해해 주시지만 바랄 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예시 2: 소음에게 보내는 편지(與篠飲書)⁵⁹⁾

홍대용은 소음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논어(論語)〉 「안연(顏淵)」 편 의 원문을 인용하여 벗을 사귀는 데에 우도론(友道論)을 펼치고 있다.⁶⁰⁾ 이를 기반으로 소음의 기풍을 〈논어〉 「안연」 편에서 언급한 것과 오늘날 벗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소음과 같은 벗은 옛 벗의 전형으로서 소중한 감탄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인용해 상대방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통 방식이고 읽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글쓴이의 감정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교우관은 홍대용이 낭재 주문조(朗齋 朱文藻)에게 답하는 편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홍대용이 〈예기(禮記)〉 중 원문

59) 홍대용, 박상수 옮김. 앞의 책, pp.17-30. 大容頓首，初秋一書，已登崇覽否，春風分袂，忽已履霜，願言懷人，歎息彌襟，不審際茲涼節，起居極勝，伏惟神明所護，百福并臻，閒居靜養，日就昭曠，容聞友者所以責善而輔仁也，夫善與仁者，人之所以爲人而不可一日而闕者也，欲爲善與仁者，又無責，不可以強學，無輔，不可以進德，此友之所以爲重而參之於君臣父子之倫也，若今之所謂友者，拍肩執袂，貌同心異，執禮爲疎，責難爲迂，善柔以相癢，勢利以相招，淪胥爲鄉原而不以爲非也，是亦可謂友乎，是亦可以參之於君臣父子之倫乎，容自一見吾兄以來，其於德量之弘達，氣味之脫灑，惟其愛慕，若將心醉，所以傾心托契，仰其責輔， 번역문: 대용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초가을에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 보셨는지요? 봄바람 불 때 헤어졌는데 어느새 서리 내리는 계절이 되었으니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에 탄식만 가득합니다. 이 서늘한 계절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만복이 가득하시고 한가로이 정양하시며 잘 지내고 계신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벗이란, 서로 선(善)을 권하고 인(仁)을 돕는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선과 인은 사람이 사람인 이유이니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과 인을 닦으려는 사람도 선을 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학문에 힘쓸 수 없고, 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덕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벗의 소중한이니 군신과 부자와 함께 오류에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벗이란, 어깨를 치고 소매를 붙잡으며 서로 사귀면서도 길과 속을 달리 하며 예를 찾으면 소원해지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 멀어지며 환심이나 사면서 서로를 병들게 하고 권세와 이익으로 서로 불러들여 결국에는 향원(鄉原)이 되어 가면서도 잘못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를 벗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군신과 부자의 오류 속에 넣을 수 있던 말입니까? 제가 한번 형을 만나고 나서 넓고 활달한 덕의 도량과 얽매이지 않는 시원스러운 기풍을 사모해 심취한 듯 온 마음을 다해 교본을 맺었으니 이는 선을 권하고 인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서입니다.” [이하 생략한 내용에서 홍대용은 〈논어(論語)〉, 〈맹자(孟子)〉를 비롯한 많은 유교 경전의 원문을 인용하여 차례대로 벗의 의미, 고문고, 주자학, 왕양명의 양지학(良知學), 예학, 장자의 「제물론(齋物論)」 등 많은 학문 논하다 편지를 끝맺었다.]

60) 위의 책, p.17.

을 인용하여 ‘도의지교(道義之交)’와 ‘성명지교(性命之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견해를 깊이를 더하여 이어진 것이다.

예시 3: 철교에게 보내는 편지(與鐵橋書)⁶¹⁾

철교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홍대용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비유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칭찬을 하였다. 이어서 편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용건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면서 <맹자> <고자 하(告子下)> 중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궁핍하게 해, 그가 행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의 성질을 굳게 참고 버티도록 해서, 그가 잘하지 못했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함이다(天將降大任於是人也,必先苦其心志,勞其筋骨,餓其體膚,空乏其身,行拂亂其所爲,所以動心忍性,增益其所不能)”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과거 급제를 못한 상대방을 권유하며 자신의 견해를 전하였다.

예시 4: 엄구봉에게 보내는 편지(與嚴九峰書)⁶²⁾

61) 위의 책, pp.71-83. 大容白. 正月初二日, 憑曆官回便, 獲承八月朔日惠書, 恭審駕返浙鄉, 侍率萬安, 區區慰賀, 筆舌難盡, 且文如鏗玉, 字如貫珠, 故人手澤, 爛其盈掬, 一讀三歎, 神乎奇哉. [중략] 承諭以究心於濂洛之書, 此其爲德義之本而令譽之基矣. 公車之失利, 其天之困苦之增益之, 將以降大任於斯也. 此容之所以爲賀也, 未知盛意以爲如何. 번역문: 대용은 말씀드립니다. 1월 2일 역관이 돌아오는 편에 8월 1일 보내신 편지를 받았는데 절강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 모시고 식구들과 편히 지내신다니, 위안되고 축하드리는 마음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글은 옥구를 구르듯 쟁쟁하고 글자는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아 벗의 손때 묻은 편지가 두 손 가득 빛이나 한 번 읽고 세 번 감탄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중략] 편지에서 엄락(濂洛)의 글을 탐구한다고 하시니 이것이 바로 덕의 근본이 되고 훌륭한 명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은 바로 하늘이 곤란과 고통을 더 주어 그대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축하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62) 위의 책, pp.239-252. 嗚呼, 弟何人斯, 乃能得此心於鐵橋哉, 白描傳神, 最難得真, 今此帖影驟看, 未見其肖, 摩挲日久, 典型漸親, 奇俊之姿, 秀潔之格, 坦直之味, 峻嶒之氣, 開卷悅惚, 如承驚咳. 번역문: 대용은 삼가 아립니다. [중략] 아!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 마음을 철교에게 얻었더라 말입니까? 백묘(白描)로 전신(傳神)을 한다는 것은 가장 진상을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 첩영(帖影)을 열면 파서는 닳지 않은 듯하더니 오래 두고 어루만지니 전형이 점점 친근해져 기이하고 준결한 자태와 수려하고 깨끗한 풍격과 태연하고 정직한 맛과 드높고 준엄한 기개가 영첩을 열면 황홀해 마치 말씀이라도

이 텍스트에서는 홍대용이 엄성의 형 엄과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이다. 홍대용은 편지 시작 부분에서 상대에게 전한 인사말을 이어 소공(蘇公)이 주나라의 경사가 된 포공을 비난하기 위해 지은 시인 『시경(詩經)·소아(小雅)·하인사(何人斯)』 중의 ‘하인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이는 인용법을 통해 스스로 원망하듯 엄성과 우정을 맺게 된 것의 마음의 상태[心境]을 감탄한 것이다. 홍대용은 엄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형상화하기 위해 감탄, 비유, 역설, 비례(排比) 등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편지를 읽는 사람도 발화자의 그리움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기능한다.

예시 5: 손옹주에게 보내는 편지(與孫蓉洲書)⁶³, 예시 6: 손옹주에게 보내는 편지(與孫蓉洲書)⁶⁴

듣는 듯했습니다.

- 63) 위의 책, pp.273-274, p.276, 大容再拜啓. [중략] 秋庫身居近密, 畏憊固然, 來教各行其是云云及引孔聖云云, 高明爽快, 大義卓爾, 讀之令人胸次灑然, 天下一家, 四海兄弟, 義有可據, 跡無可嫌, 同心之交, 麗澤之樂, 其可以徒然而舍之乎. 惟人之多言, 亦可畏也, 謹密之教, 甚善甚善. 번역문: 대용은 재배하고 말씀드립니다. [중략] 추루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삼가는 것은 본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보내 주신 말씀에, ‘각각 옳은 것을 행한다’라고 한 것과 ‘성인이신 공자를 인용해’라고 한 것은 고명하고 상쾌하며 대의가 우뚝해 읽는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천하는 한 집안이고 세상은 모두 형제입니다. 근거할 만한 의리가 있고 혐의스러워할 행동이 없는데 마음을 같이하는 사귀고 공부할 친구 간의 즐거움을 부질없이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두려운 일이니 근신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 64) 위의 책, pp.278-279, p.307, 容素不喜聲詩, 年來病中無聊, 偶見昭明選詩, 始欣然慕之. 不惟才思卑劣, 性本狃滯, 語多躁妄, 且窮居排辭, 時逞憤慨, 不能安分養精. 此其本源病根, 不特爲詩學之疵而已. 承此批教, 敢不益自警省耶. 蓋詩貴沖遠, 寧拙無巧, 又必本之以溫厚文心, 如寄來亭廬諸作是也, 心服心服. 出仕期在何年, 寄信一道, 切祈預圖. 抑身已仕進, 外交有嫌, 亦宜一言示知, 不當冒受黽勉爲也. 번역문: 저는 본래 시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요사이 들어 병중에 무료해서 우연히 소명(昭明)의 선시(選詩)를 보고서 비로소 기뻐하며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주와 생각이 용렬할 뿐 아니라 천성이 본래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으며 언어는 대부분 조급하고 망령됩니다. 게다가 곤궁하게 지내며 울분이 쌓일 때면 분개한 마음을 드러내니 분수를 편안히 여겨 정신을 수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병의 근원으로 한갓 시학의 허물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니 감히 더욱 스스로 경계하며 살피지 않겠습니까? 대개 시는 깊고 심원함을 귀하게 여겨 줄필할지라도 아름답게 꾸며서 짓는 말아야 합니다. 또 반드시 온후한 문심(文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보내 주신 정려(亭廬) 등과 같은 여러 작품들이 바

예시 5와 예시 6에서는 홍대용이 용주 손유의(蓉洲 孫有義)와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이다. 두 편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홍대용이 편지에서 주로 손유의와 벗에 관한 이야기나 시문 경전에 관해 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양국 간 문인의 편지 왕래에서 외교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은유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 양국 문인의 편지 왕래에 외교적인 제한 때문에 홍대용과 중국 문인들이 자신의 편지 내용을 검열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유교 경전을 근거로 교묘하게 그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편지를 나누게 된 배경과 양쪽의 의사소통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려면 손유의가 보낸 편지와 그 맥락에 놓인 다른 편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홍대용의 편지 내용만을 바탕으로 그가 양쪽에게 모두 잘 받아들여진 이데올로기나 유가 경전을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개하였다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다. 또한, 손용주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문학 비평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면 홍대용은 자신이 소통(蕭統)의 「문선」에 채록한 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기술이 발견된다. 이는 과거 한·중 문인의 문학 공부의 관습이 같다는 데서 양쪽의 연대감이 형성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된 「문선」은 2장에서 동양 문예 이론의 기반으로 소개하였는데, 이와 연관 지어 홍대용은 척독을 썼을 때 동양 문예 이론에 대한 상당히 깊은 이해가 갖추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는 척독 중 예시 텍스트를 제시함으로써 홍대용이 중국 문인에게 보낸 편지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홍대용 척독의 구조적 특징은 대체 ‘첫머리에 부르기 - 문안 - 용건(상대에게 전하려는 구체적인 내용) - (작별 인사)’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한문학 장르인 척독의 일반적인 구조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편지문의 언어적 표현에서 홍대용은 동양 문예 이론을 이해한 상태에서 높은 한문 수준을 바탕으로 동양 문예문의 대표 장르인

로 이런 것이라 마음으로 감복했습니다. 벼슬은 어느 해에 나가시는지요? 편지를 부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벼슬에 나아갔다면 외국 사람들과 교제한다는 혐의를 받게 될 것이니 이 역시 마땅히 알려 주시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힘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하 생략]

한문 편지글의 구사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대방과의 소통 과정에서 홍대용은 다양한 표현과 수법을 사용하여 깊은 대화를 끌어내며 정서적 교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교류 양상도 보였다.

4. 결론

본고는 필답이라는 의사소통 상황에 주목하여 〈건정동필답〉을 야콥슨의 언어 기능 이론으로 분석하고, 동양 전통 문론 범위에 ‘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전척독’을 동양 전통 수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역사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왔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해 왔다. 18세기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홍대용을 비롯한 조선 문인이 중국 문인과 한문이라는 코드를 통해 필답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당시 북경에서 양쪽 직접 나눈 필답 텍스트는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모델에서 설정한 전제와 여섯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각각 요소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드러나는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쪽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언어 표현이 주목되었다. 이는 정보 전달이라는 필답의 일반 목적을 넘어 깊은 교감까지 이루게 하는 「건정동필답」 텍스트의 특징을 드러내게 해 준다. 자제관관으로 연행에 다녀온 후에 홍대용이 중국 문인들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교류를 이어나갔는데, 한문학 글쓰기에 해당하는 그의 편지글에 발견되는 언어 표현은 동양 전통 수사의 특징을 드러낸 것으로 알 수 있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배경과 동양 수사 전통을 조사하였다. 먼저 서양 문론을 개괄하는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 형식주의 발생부터 로만 야콥슨의 연구 업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밝혔으며, 야콥슨은 언어학의 입장에서 출발해 텍스트의 문학과 문학 연구까지 탐구한 성과인 커뮤니케이션의 일반 구조를 소개했다. 이어서 동양 전통 수사학의 탄생 배경과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논저를 소개했다. 2장에서 소개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구체적인 텍스트를 발췌하여 텍

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홍대용의 「건정동필담」은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보편 이론의 상황에 부합하며 각 텍스트에 주목했을 때 맥락을 드러내는 지시적 기능, 메시지 그 자체의 문예 특징에 두는 시적 기능,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활발한 접촉을 통해 드러난) 친교적 기능, (수신자 반응을 능동적으로 유발하는) 행동 촉구적 기능, (정보나 메시지 설명에 드러난) 메타 언어적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대용은 중국 문인들과 필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쪽 모두 공유하고 있는 유교 경전이나 동양 문예론을 활용하며 솔직한 감정이 담긴 언어 표현을 구사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는 양쪽 문인의 대화를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고 정서적 교감에 이르러 깊은 우정을 나누게 하는 중요한 언어 기능적 특징이라고 해석되었다. 또한, 홍대용은 유학자로서 중국 향저우 문인들과 동양 전통 경전이나 시문 비평에 대한 견해를 둘러싼 대화 내용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두 자료를 통해 발견한 결과뿐만 아니라 홍대용이 조선 시대의 유학자로서 그 학문적 배경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것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발견인 것으로 판단된다.⁶⁵⁾

본고는 이처럼 18세기 홍대용이 중국 문인과 나누는 필담과 편지를 수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당시 양쪽 문인들은 유교 경전에 관한 논쟁을 나누어 각자의 견해를 드러냈는데, 여기서부터 상대방을 인정하고 ‘천애지기’의 우정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강조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각각의 요소에 집중할 때 보이는 기능적 역할들이 「건정동필담」에 드러나고 있다는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동서양의 수사 논의를 종합하여 홍대용의 한

65) 崔信浩, 「담헌(澹軒)의 유학사상(儒學思想)과 문학관(文學觀)」, 『한국문학연구』 제13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0, 이 연구에서는 『담헌서 외집 권 3』의 내용을 인용하여 담헌이 중국 학풍을 보고 느낀 바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홍대용의 유학 사상과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강명관, 「한문학 연구자의 평전 쓰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담헌(澹軒) 홍대용(洪大容)의 경우를 예로 삼아 -」, 『한국한문학연구』 제67권, 2017, p.54. 이 연구에서 제시한 홍대용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홍대용은 「논어문의(論語問疑)」 등 학문론을 펼치면서 정주(程朱)보다 더욱 근본주의적인 정주학자(程朱學者)의 면모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문 텍스트를 해석했다는 시도는 앞으로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홍대용이 「항전척독」에 수록한 편지 중에 드러난 수사적 특징을 일상적 언어와 구별되는 시적 언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문학성을 드러냈다는 점도 선행 연구와 맞물려 홍대용의 글쓰기 특징을 재조명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중 인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지닌 것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이 중국 문인들과 나눈 필담 텍스트와 그들 사이에 오간 편지의 수사학 특징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이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시대 다른 문인 글쓰기와의 체계화된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옥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3.
 김태옥, 『담화·텍스트·언어시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13.
 유협, 김민나, 옴김, 『문심조룡(동양 문예학의 집대성)』, 살림, 2005.
 장경남,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편] 『湛軒外書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21.
 정민,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 공화국 : 하버드 엔칭도서관에서 만난 후지쓰카 컬렉션』, 문학동네, 2014.
 홍대용, 김태준 편, 『燕行錄 : 을병 연행록』, 서울: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홍대용, 박상수, 옴김, 『항전척독』,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8.
 홍인숙, 『한국 근대 척독서 연구 : 한문 서간, 그 지적 욕망의 문화사』, 태학사, 2020.
 染谷智幸 編, 「朝鮮通信使と燕行使の文学」, 『はじめに交流ありき : 東アジアの文学と異文化交流』, 東京: 文学通信, 2021.
 후마 스스무, 『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신로사 외 역, 『조선연행사와 조선통신사』, 서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9.
 朱志榮, 『西方文論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洪大容 著, 『乾淨衙筆談』, 鄭健行 點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蕭統 編；李善 注, 『文選』, 서울: 文選研究會, 1983.
袁行霈 等, 『中国文学史(第3版)·1』,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4.
韩卫星, 『洪대용文学与中国之关联研究』,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
로만 야콥슨, 권재일 옮김, 『일반언어학이론』, 민음사, 1989.
Roman Jakobson·Morris Halle, 『언어의 토대』, 박여성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9.

2. 논문

- 강명관, 「한문학 연구자의 평전 쓰기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의 경우를 예로 삼아-」, 『한국한문학연구』 제67권, 한국한문학회, 2017, pp.39-67.
권두환, 「송강의 訓民歌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42권, 진단학회, 1976, pp.151-166.
김동욱, 「고전문학 : 18세기 한(韓)·중(中) 지식소통에 관한 연구(研究) - 홍대용(洪大容)의 「항전척육(杭傳尺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26권, 반교어문학회, 2009, pp.232-276.
김풍기, 「필담의 문화사」, 『비평문학』 제4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pp.151-176.
박영원, 「시각적 이미지의 재미에 관한 연구 - 로만 야콥슨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론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제43권, 한국기호학회, 2015, pp.119-149.
신은경, 「尹善道 集句詩 연구 - 로트만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론을 토대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pp.25-49.
심경호, 「한국 한문산문의 서술문제 및 수사논리와 역사·문화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87호, 한국한문학회, 2023, pp.9-54.
윤승준, 「홍대용의 중국 체험과 창조 문인과의 교류 - 『을병연행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제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pp.247-284.
이종묵, 「한시의 보편적 가치와 조선후기 중국 문인과의 시문 교류」, 『한국시가연구』 제30권, 한국시가학회, 2011, pp.35-64.
이철희, 「특집 2 18세기 연행록의 다면성 : 18세기 한중 지식인 교류와 천애지기(天涯知己)의 조건 - 홍대용(洪大容)의 『건정동필담(乾淨洞筆談)』과 엄성(嚴誠)의 『일하제금집(日下題襟集)』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5권, 2014, pp.289-320.
장경남, 「홍대용의 척육집 「杭傳尺牘(항전척육)」 연구」, 『동방학지』 제202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3, pp.175-203.
정혜중, 「필담과 통역을 통해 본 조선과 중국의 지적교류」, 『동양사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제29회, 東洋史學會 冬季研究討論會, 2010, pp.25-40.
崔信浩, 「담헌(湛軒)의 유학사상(儒學思想)과 문학관(文學觀)」, 『한국문학연구』, 13권,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0, pp.1-19.
侯友兰, 「中国传统修辞学的继承」, 『绍兴文理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第25卷 第4期,

2005, pp.71-75.

- 吳承學·沙紅兵, 「中国古代文体学学科论纲」, 『文学遺產』 第1期, 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 2005, pp.22-35.
- 夫馬進, 「朝鮮奇書－關於洪大容《乾淨衛會友錄》, 《乾淨筆譚》之若干問題」, 『中國文哲研究通訊』 第23卷 第1期, 2013, pp.117-126.
- 夫馬進·張雯, 「朝鮮洪大容《乾淨會友錄》與清代文人」, 『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5期, 2012, pp.94-98.
- 張伯偉, 「東亞文人筆談研究的回顧與展望」, 『人文中國學報』 第22期, 2016, pp.305-333.
- 李育民, 「晚清‘人臣无外交’的异变及其趋向」, 『史學月刊』 第7期, 2019, pp.60-71.
- 田星, 「论雅各布森的语言艺术功能观」, 『外语与外语教学』 第6期 2007, pp.13-16.
- 邓文彬, 「中国古代修辞学的产生与早期的修辞学著作」, 『西南民族大学学报(人文社科版)』 第12期 2005, pp.367-370.
- Wong, TS, Li, SC, 「汉文笔谈—一个以纸笔做緘默交谈的近古传意模式」, 『辭書研究 (Lexicographical studies)』 第1期, 2021, pp.81-89, pp.136-137.

3. 인터넷 자료

- 洪大容, 『湛軒書』 (한국고전번역원 DB)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dataId=ITKC_MO_0560A_070_010_0010&viewSync=TR
 (중국으로 가는 옛길) 연경 유리창(琉璃廠)에서 맺은 인문유대(人文紐帶)
<https://sinology.org/archives/18838>
 禮記註疏 鄭玄(漢)註;孔穎達(唐)疏, 汲古閣, 崇禎12年(1639)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C04653_00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n analysis of the "Gunjeong-dong Pildam(乾淨衡筆談)" and the "Hangeon Cheokdok(杭傳尺牘)" from the perspective of rhetoric

Wang, xiaoyu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Gunjeong-dong Pildam(乾淨衡筆談)” and “Hangeon Cheokdok(杭傳尺牘)” which are compiled into Hong Daeyong’s Books of Relaxed House(湛軒書) in the 18th century from a rhetorical point of view. Hong Daeyong (1731–1783) was a scholar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study began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Hong Daeyong met three Qing Dynasty scholars at Beijing, Gunjeong-dong(乾淨衡) and communicated with them through Sinitic Brushtalk(筆談, Pildam). Hong Daeyong kept exchanging letters with these scholars after finishing his tour in Beijing and entering Joseon in 1766. Considering Hong Daeyong’s writing style as expressed in these two materials, this paper introduces a possible method and methodology for analysis in Chapter 2, which uses Roman Jakobson’s communication theory and traditional Eastern literary theory as rhetorical theories for analyzing texts. The linguistic features and methods of the original text were examined from a rhetorical perspective in Chapter 3. Based on the results, it is judged that it was the main reason for them to communicate smoothly through the code ‘Chinese characters’ and have the common sense of acknowledging Confucian scriptures and traditional Eastern literature in a situation where they did not use the same oral language. Finally, this paper re-examined the significance of approaching these two materials from a rhetorical point of view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language expressions of “Gunjeong-dong Pildam” and “Hangeon Cheokdok”. From a rhetorical perspectiv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hed light on Hong Daeyong’s writing style in the 18th century.

Keyword

Hong Daeyong, Sinitic Brushtalk(漢文筆談), *Books of Relaxed House*(담헌서, 湛軒書), Jakobson's model of linguistic communication(Jakobson's theory of communication), Rhetoric, 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the literary scholars of the Joseon and Qing Dynasty

『西浦漫筆』上5를 통해서 본 金萬重의 范增論 고찰

— 蘇軾 <范增論>에 대한 반론 시각을 중심으로 —

김연지* · 김원중**

국문요약

본고는 『西浦漫筆』上5에서 金萬重의 ‘范增’에 대한 해석을 검토함에 있어 蘇軾의 <范增論>에 대한 반론 시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필자는 김만중이 소식의 <범증론>을 논박함에 있어 『史記』<項羽本紀>에서 범증의 ‘好奇計’ 기사를 논거로 제시하며 楚漢爭霸期 역사를 형세적 관점에서 추론한 점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범증이 초나라 項羽의 흥망과 직결된 중요한 謀臣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소식과 김만중 사이에는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김만중은 범증이 항왕에게 유세한 까닭에 대해 범증이 당초부터 季氏가 아닌 項氏의 모신이었다는 점을 거론하여 <항우본기>의 기록을 통해 입증했다. 또한, 범증의 ‘떠남[去]’ 문제에 대한 소식 견해의 문제를 제기하고, 항우가 宋義를 죽이고 義帝를 시해한 일에는 범증이 모의의 주동자로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추단했다. 따라서 범증을 항우의 ‘謀首’로 단언하고, 당시 범증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김만중은 ‘天下之賢主’라는 의제의 평가 문제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과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논지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의제가 군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시각이었고, 이에 따른 함의는 형세가 항우에게 기울었다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다.

요컨대, 김만중은 역사 해석에 있어 기존의 명분론에 매몰되지 않고 고증을 바탕으로 한 형세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본고를 통해 필자는 확인하였다.

주제어 『西浦漫筆』上5, 金萬重, 范增, 蘇軾 <范增論>, ‘떠남[去]’, 司馬遷, <項羽本紀>, ‘好奇計’, 形勢, 朝鮮 後期

* 제1저자: 단국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목차〉

1. 서론
2. 김만중의 범증론 인식에 대한 예비적 고찰
 - 1) 조선 후기 蘇軾 〈范增論〉 비평 양상
 - 2) 蘇軾 〈范增論〉 반론으로서의 『史記』 〈項羽本紀〉의 ‘好奇計’ 논거 제시
3. 蘇軾 〈范增論〉 반론으로서의 형세론적 관점 분석
 - 1) ‘項氏謀臣’으로서의 范增 ‘유세[說]’ 서술 시각
 - 2) 范增의 ‘떠남[去]’에 대한 김만중과 蘇軾의 관점 비교
 - 3) 蘇軾의 “天下之賢主”句에 대한 김만중의 비판 시각
4. 결론

1. 서론

본고는 西浦 金萬重(1637~1692)의 『西浦漫筆』上5의 범증론을 검토하고자 하며, 蘇軾의 〈范增論〉¹⁾을 비판한 점²⁾에 착안하였다. 이에 필자는 『史記』〈項

- 1) 『東坡志林』과 『唐宋八大家文鈔』, 『東坡全集』卷105 등에 보인다. 『동과지립』은 만년에 집필한 史論 저작으로, 소식의 만년의 문장과 글쓰기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농후하다. 李貞慧(2010)는 “『志林』是蘇軾晚年所欲作的史論專著, 雖未完成, 然從中仍得以一窺蘇軾晚年學術文章之內容與書寫方面的特色.”이라고 지적하여, 소식의 만년 저작에 대해 탐구하는 일환으로 『동과지립』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면서 〈論武王〉의 특정 문장을 분석검토하였다. (“由『論武王』看蘇軾海外『志林』的詮釋問題”, 「由『論武王』看蘇軾海外『志林』的詮釋問題」, 『文學遺產』第三期.) 또한, 蘇轍이 “父兄之學, 皆以古今成敗得失爲議論之要”(『曆代論引』)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三蘇의 학술 중에 史學은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특히 후기의 문인들이 소식의 사론에 관해 비평한 양상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현상은 간과할 수 없으며,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다분하다.
- 2) 필자는 范增에 대한 조선 후기 史論 散文 양상의 특징 가운데 蘇軾의 〈范增論〉으로부터 제기된 범증의 거취 문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의에 주목했다. “사론 산문을 통해 주로 언급된 역대의 재상들로는 伊尹, 范增, 張良, 蕭何, 賈誼, 霍光, 汲黯, 諸葛亮 등을 들 수 있다.(…)범증에 대해서는 그가 항우를 떠난 시기의 적절할 여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되었다. 주로 조선후기에 창작되었는데 대부분은 蘇軾이 제기한 견해를 반박하는 논지를 전개하였다.”(백진우(2011), 『朝鮮後期 史論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羽本紀〉에서 범증을 ‘好奇計’로 기술한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며 楚漢爭霸期 역사를 형세적 시각에서 추론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포만필』상권은 전반적으로 중국사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1항부터 43항까지 중국 역사에 대한 평론을 다루고 있는데, 선진시대부터 唐宋代까지³⁾ 시기순으로 역사 사건 및 인물에 관한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

『서포만필』상5에서 김만중은 형세적 시각에 입각하여 蘇軾의 〈范增論〉을 논박하기 위해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것을 논하는데, 『史記』〈項羽本紀〉의 원의를 활용하여 축약하고 이를 근거로 반문투를 빈번하게 활용하면서 논거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범증이 항우의 ‘謀首’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항우본기〉에 수록된 범증의 네 가지 奇計를 포괄하여 범증의 ‘떠남[去]’ 문제를 논하는데, 후술하겠으나 이는 조선 후기 범증론 논의 시각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조선 중기 서인계 문인 윤근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선 후기 문인들은 소식의 〈범증론〉을 수용·확장하는데, 초한쟁패기의 집권에 대한 판국의 형세가 누구에게 혹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에 쟁점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서포만필』상5에서는 범증이라는 역사 인물을 비평함에 있어 『사기』를 논거로 활용하는데, 소식의 〈범증론〉을 비평 소재로 두었다는 점과, 항우와 유방의 모신과 관련한 군주의 인재 등용 및 국가 흥망과 관련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어⁴⁾ 조선

p.149.)

- 3) 말하자면 1~43항까지 중국 역사를 중심으로 諸家の 설의 시비 및 사적의 오류를 평론하는데 대부분이 송나라 유학자의 설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볼 때, 김만중 나름의 의도적 항목 배치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 4) 사재동은 김만중의 사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개인사와 가족사 내지 씨족사에도 관심을 두지만, 국가사·민족사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그의 사학에서 국가의 흥망사는 단순한 연대기적 증명·기술을 넘어서 그 흥망사의 성격·실상·역학·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탐색·파악하여, 그 인과와 교훈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원리와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영역을 개척하였으니, 국가론·제왕학·군주론·군신론·정치학·목민론이 나오고, 경제학·재정학과 외교학·전쟁론에까지 미치며, 지리학·천문학·기상학·성리학·점복학 등을 아우르게 되는 것이다.”(사재동(2006), 『西浦 金萬重의 文化史의 位相』, 『韓國思想과 文化』 제3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후기 범증 사론 산문 양상 속 지위를 획득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김만중이 형세적 시각에 입각하여 역사서를 치밀하게 읽고 사건의 추이를 통해 논지를 전개한 양상과 소식의 〈범증론〉을 논박함에 있어 〈항우본기〉속 ‘好奇計’ 기사를 근거로 활용한 측면에서 범증에 관한 역사 인물 논평 시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범증론에 관한 선행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고려 李齊賢의 〈범증론〉에 대해 사론의 문체 분류 측면에서 형식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 최초이고,⁵⁾ 조선 문인의 범증에 대한 사론 산문 양상 검토 측면에서 소식의 〈범증론〉을 비판하는 특징을 분석한 논문이 있으며,⁶⁾ 조선 후기 문인의 사론의 주제 의식을 검토하는데 범증과 관련하여 초한쟁패기 국가의 흥망론을 통해 군주의 用人 문제에 대해 살핀 논문⁷⁾도 있다. 중국 논문으로는 고려와 조선시대 문단의 소식 〈범증론〉 수용관을 살핀 연구⁸⁾가 있으며, 범증의 ‘奇計’를 중심으로 정치 사상과 책략 등과 관련하여 다루는 연구⁹⁾ 방향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검토 결과, 『서포만필』상5에 나타난 범증 관련 사론을

- 5) 김중철(2000), 「익재 산문 "사론" 갈래의 문체비평」, 『東方漢文學』 제19집, 동방한문학회. 소식 〈범증론〉에 대한 비판 양상은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이미 고려말 이제현의 〈범증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pp.11-14에 자세히 다룬다.
- 6) 백진우(2011, 2008), 「朝鮮後期 史論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天輔의 史論體 散文에 대하여」, 『민족문화』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정하정(2015), 「조선(朝鮮) 사론 산문(史論 散文)의 한 단면 - 소식(蘇軾)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7) 김영은(2020), 17~18世紀 中國 君主 題材 史論 散文 研究 - 政論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손혜리(2012), 「靑城 成大中の 史論 散文 研究 - 『靑城雜記』 「拙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8) 付春明(2012), 「解析蘇軾『范增論』及其在古代朝鮮的受容」,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6기.
- 9) 張晗光(2014), 「從范增其人看巢湖文化中的文化品格」, 『巢湖學院學報』第16卷第2期; 陳鳳(2018), 「亞父文化與范增的政治品格」, 『淮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9卷第1期; 吳大康·張維慎(2006), 「秦末謀士范增勸項梁立楚後之評議」, 『唐都學刊』第22卷第2期; 薛從軍(2015), 「論曆陽侯范增」, 『渭南師範學院學報』第30卷第3期; 薛從軍·祝兆源(2021), 「論范增政治策略」, 『渭南師範學院學報』第36卷第1期; 姚軍(2006), 「精於計謀疏於政治范增論」, 『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7卷第6期.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김만중의 역사 인식을 고찰하는 일환으로 蘇軾의 〈范增論〉에 대한 시각과 비평 방식 등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 史論 산문 양상 속 김만중의 역사 인식의 위치 및 문학적 특징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김만중의 범증론 인식에 대한 예비적 고찰

1) 조선 후기 蘇軾 〈范增論〉의 비평 양상

전범으로서의 소식 산문은 고려조에 수용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의 산문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구체적이고 활발한 비평이 이루어졌다.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는 비교적 소식 산문에 대한 비판적 양상이 두드러졌다면,¹⁰⁾ 17세기 이후로는¹¹⁾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각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평이 성행하였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 김만중은 “동파는 마치 가을에 큰 못에 물이 불어나 온갖 냇물이 거꾸로 흐르고,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 만가지 구멍이 성내며 부르짖는 것과 같다. 또 마치 회음후가 하루 아침에 조나라 20만 대군을 물리친 것과 같다.[東坡, 如秋潮生而百川倒流, 厲風作而萬竅怒號. 又如淮陰侯, 不崇朝而破趙二十萬衆.]”(『서포만필』하96)라고 하였듯이, 소식의 산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범증이라는 역사 인물은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를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일종의 ‘事君’과 관련한 처세 문제를 꼽을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소

10) 송혁기(2006), 「17-18세기 조선 문인의 蘇軾 산문 批評」, 『한자한문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p.75.

11) 한편, 조선 후기 이전에는 대체로 송나라의 성리학적 사상을 계승하여 사론을 의리적으로 해석하는 문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范祖禹의 『唐鑑』이나 朱子和 그의 제자가 편찬한 『資治通鑑綱目』과 胡寅의 『讀史管見』 등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인호(2013), 「입재 강제항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pp.120-124에 자세하다.) 우리나라 문인들은 이를 전반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역사서의 새로운 해석 및 기존의 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비평 의식이 활발해졌다.

12) 정하정(2015), 앞의 논문, pp.329-330, 참조.

식의 〈범증론〉 비평 양상이 활발하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조선 후기 문인들은 소식의 견해를 부정하며, 항우를 보필한 범증에 대해 비판적인 양상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소식은 〈범증론〉에서 “增之去, 善矣”라고 하여 범증의 ‘떠남[去]’ 문제를 두고 화두를 제시하였는데, 항우가 宋義를 죽였을 때 떠나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그를 高祖가 경외한 존재이자, ‘人傑’로 평가하였고, 항우가 의제를 시해한 일에 대해서는 범증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또한, 義帝를 두고 “天下之賢主”라고 하며, 범증을 의제의 모신으로서 긍정하는 시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말미에 “增不去, 項羽不亡”이라고 하였듯 항우가 멸망한 것에 대해 범증의 거취 문제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서포만필』상5에 나타난 범증론 논의 시각과 맥을 같이 하는 조선 후기 범증에 관한 산문류 작품 목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³⁾

〈표 1〉 조선 후기 문인의 범증 관련 산문류 작품 목록¹⁴⁾

연번	작가	제목
1	尹根壽(1537~1616)	〈范增論〉 ¹⁵⁾ 『月汀先生集』 卷4
2	崔有淵(1587~?)	〈范增論〉 ¹⁶⁾ 『玄巖遺稿』 卷4
3	申靖夏(1680~1715)	〈增不去項羽不亡論〉 ¹⁷⁾ 『恕菴集』 卷12
4	李瀾(1681~1763)	〈范增論〉 ¹⁸⁾ 『星湖先生全集』 卷47
5	李天輔(1698~1761)	〈范增論〉 ¹⁹⁾ 『晉菴集』 卷7
6	李獻慶(1719~1791)	〈范增論〉 ²⁰⁾ 『良翁先生文集』 卷22
7	洪良浩(1724~1802)	〈范增論辨〉 ²¹⁾ 『耳溪集』 卷17
8	李元培(1745~1802)	〈讀書管窺〉 ²²⁾ 『龜巖集』 卷11
9	徐榮輔(1759~1816)	〈范增論〉 ²³⁾ 『竹石館遺集』 冊3
10	成海應(1760~1839)	〈范增〉 ²⁴⁾ 『研經齋全集續集』 冊10/史論

※ 『서포만필』상5는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13) 본고의 조선 후기 범증론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정하정(2015), 백진우(2011), 김영은(2020)을 참고하였으며, 필자가 추가로 찾은 작품은 『한국문집총간』에 의거하여 李元培의 〈讀書管窺〉(『龜巖集』 卷11)와 成海應의 〈范增〉(『研經齋全集續集』 冊10)임을 밝힌다.

14) 원전의 해당 주요 대목을 〈표 1〉의 제시한 작품 제목에서 각주로 소개하였음을 밝힌다.

15) “而東坡之論, 至以爲增不去, 項羽不亡, 增亦人傑, 增果人傑耶?”

16) “蘇子瞻范增論云, 增高帝之所畏也. 增不去, 項羽不亡, 嗚呼, 增亦人傑也. 人以此知子瞻非爲純正君子, 何以知其然耶?”

17) “昔蘇氏之論范增曰, 增不去, 項羽不亡, 嗚呼. 是奚足以論人也哉?”

18) “說者曰羽之殺宋義, 殺義帝之兆, 而既弒則疑增之本也. 此大不然.”

조선 후기 문인은 소식의 〈범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범증의 ‘떠남[去]’ 문제를 바탕에 두고, 형세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 맥락과 같이 위 10명의 문인의 작품 중에 공통 특징은 소식의 〈범증론〉을 비판하거나 범증의 거취 문제를 논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변별 특징은 형세적 시각의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선 후기 문인들은 소식의 〈범증론〉을 수용·확장함에 있어, 그 논의의 쟁점은 초한쟁패기 집권에 대한 판국의 형세에 있다. 예컨대 尹根壽는 “범증은 천하의 형세가 한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지 못하고 항우를 위해 계책을 내어 속임과 힘으로써 한 시대를 평정하고자 했다[增則不知天下之勢歸於漢，而爲羽畫計，欲以詐力定一時]”라고 하여 당시 형세가 한나라로 돌아간다는 점을 전제하여 범증이 항우에게 계책을 낸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李瀾은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존속하려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없애버리면 번역이 되어 뒷수습 할 계책이 없었다. 한나라는 이로써 힘입어 천하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然名分既定，存則害己，去之爲逆，善後無策，而漢之所資以有天下者也]”라고 하여 한나라가 천하를 소유하게 될 명분을 취하였음을 밝혔다. 申靖夏의

-
- 19) “蘇氏以爲羽之殺宋義，是弑義帝之兆也。其弑義帝，則疑增之本也。方羽之殺宋義也，增力能誅羽則誅之，不能則去之。嗚呼，蘇氏之言，何其謬也。”
- 20) “宋蘓氏以爲增必力爭而不聽，又曰增之去，當於羽殺卿子冠軍時也。何其識之陋而論之謬也。”
- 21) “蘇子論范增曰，增之去恨不早，當去於殺卿子冠軍時也，洪子曰，不然，蘇子不識增，何足議其去就也。”
- 22) “東坡范增論，以增之不去於羽殺卿子冠軍時，爲增之罪過，而且曰，增年已七十矣。合則留，不合則去，又曰，增不去，項羽不亡，此等議論，恐於本原上不無病痛。”
- 23) “爲增計者，不如因曹無傷之說而遂實之，項伯樊噲雖三尺其喙，羽必不之信矣。以增之黠而不知出此，殆天也歟，殆天也歟?” 서영보는 소식을 거론하거나 소식의 〈범증론〉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사기』 속 내용을 바탕으로 범증의 거취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도표에 수록하였다.
- 24) “人之懷智自售者，要之得其所托，太公能成鷹揚之烈者，遇周文王故也。增苟能知項羽之不可輔，而何爲遷延不去乎。陳平之計，誠迂矣。焉有與人通謀，乃示其使者以意乎。平早已間增，使羽疑之而後，始因使者而發之也。增不知其幾者，已老耄矣。增之言曰，吾使人望其氣，乃天子氣也。知其當爲天子，而乃圖之耶?” 성해응은 소식의 〈범증론〉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범증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였다는 점에 도표에 수록하였다.

경우 “초나라가 망한 형세는 이미 범증이 떠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항우가 여태껏 죽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楚之亡形, 已成於增未去之前, 而特羽未死耳]”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好奇計’를 언급하거나 논거로 활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김만중의 범증론과 비교해 볼 때, 당시 문인들이 범증에 관한 사론을 집필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항우본기> 속 범증의 奇計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들은 단순 인용하여 논거로 활용한 측면이 대체적인 양상이다.

17세기 후반²⁶⁾에 활동한 김만중은 자주적²⁷⁾ 비평 시각을 선보이며, 명분보다 형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사론을 비평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서포만필』상5의 첫머리에 소식과 胡寅의 <범증론>과 董公論²⁸⁾을 병렬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입론하였고, 전반적으로 諫臣을 연상시키는 ‘유세[說]’, ‘모의[謀]’, ‘계책[策]’ 및 ‘當時’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의문문

25) 즉, 당시 초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범증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해 범증이 떠나서라고 한 소식의 견해를 비판한 것이다. 단, 지면 관계상 조선 후기 범증론에 대한 김만중과 여타 문인의 비교 검토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6) “이 시기에 여러 진보적 지식인들은 주자학의 독존적 지위에 대하여 회의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심경호(2005), 「조선후기 지성사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하여」 제28집, 한국고전번역원, p.328.)

27) ‘자주적’이란 의미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즉 『서포만필』에는 문사철에 대한 김만중의 해박한 식견이 드러나 있는데, 중국 문학에 대한 관점은 물론이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소통의 문화적 맥락을 이었다. 특히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관련하여 통합적 시각을 확보하거나 불교의 설을 많이 취한 점, 유가의 정도를 찾기 위해 맹자, 한유, 주희 등을 과감히 비판하거나, 신유학의 정도를 찾기 위해 불가의 설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찬양하는 듯한 내용을 통해 김만중의 자주적 감식안의 사상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김원중(2002), 「中國文學에 대한 西浦 金萬重의 鑑識眼」, 『中國學論叢』 제14집, 한국중국문화학회, pp.68-68, 참조.)

28) 범증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동공은 조선 후기 사론 산문의 비평 소재로 활용된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손혜리(2012)에서 成大中の <楚漢成敗>와 <董公>을 분석했으며, 백진우(2011)의 부록에서는 吳長의 <漢高祖不賞三老董公論>, 李彥英의 <漢高祖不賞三老董公論>, 李南珪의 <董公論> 등과 같은 자료를 소개했다.

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²⁹⁾ 또한, 소식의 〈범증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제 하여 본론 곳곳에 『사기』를 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장 말미에 “范增之策，適足爲羽之病而已也”라고 하여 항우의 패인이 범증의 계책에 있다고 보아³⁰⁾ 초한쟁패기 역사 인식에 대한 형세적 시각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김만중이 조선 후기 문인들의 소식 〈범증론〉 비판 양상에 맥을 같이하면서도 ‘好奇計’를 논거로 제시하여 소식 〈범증론〉을 반론한 시각은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전개해 가는 특징적 면모에 착안하여, 그 서술 기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김만중의 소식 〈범증론〉에 대한 논의 시각을 파악하기 위해 『사기』 〈항우본기〉의 ‘好奇計’를 논거로 제시한 몇 가지 관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9) ‘說’은 6회, ‘謀’는 7회, ‘策’은 2회, ‘言’ 3회, ‘論’ 3회 등장한다. 형세적 서술 시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當時’는 4회 출현한다. 또한, 전체 823자의 짧은 편폭에 의문문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즉, 김만중이 설정한 ‘혹자의 물음[或謂]’까지 포함해서 “詎必是楚後?”, “於帝何有哉?”, “其肯以此去乎哉?”, “豈帝自運哉?”, “羽安得晏然?”, “何也?”, “況隣國乎?”, “豈有一分感激奮發之義乎?”, “意者以此乎?”, “何其迂哉?”, “而蕭張之所不及者乎?”, “其心豈能一出於弔民討罪乎?”, “何必~示民以詐乎?”, “安~而能使遠近風動者乎?”, “人孰不知其非有也?”와 같은 15번의 의문문이 쓰임으로써 문장의 기세와 어조가 격양된 느낌을 담고 있다. 이처럼 김만중이 중국사를 비평함에 있어 특히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역사 기록을 토대로 관련 일화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물음일 것이요, 둘째는 대답을 촉구하는 장치로서의 물음일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사기』 〈백이열전〉에서 총 788자 중에 13개의 의문문 문장을 사용한 구성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반어 의문문을 주로 사용하는 〈백이열전〉의 서술 방식의 과격적인 면모는 車天輅의 〈伯夷死名說〉에서 총 905자 중에 16개의 의문문 문장을 사용한 서술 방식과도 상통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연자·김원중·심은경(2020), 「五山 車天輅의 〈伯夷死名說〉의 重層的 構造와 寓意的 敘述方式」, 『대동한문학』 63, 대동한문학회, 에 자세하다.

30) 김만중 이후 18세기 문인 李瀛과 李天輔의 〈범증론〉 말미에 국가의 흥망의 원인을 범증의 계책과 결부하는 유사 형태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익은 “余故曰亡秦者勢也，未必增之謀與有力也”라고 하여 진나라가 망한 원인은 범증의 계책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천보는 “余故曰，增之失計，其始之勸立懷王也”라고 하였듯 범증의 실책이 항량에게 유세한 기계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다.

2) 蘇軾 〈范增論〉 반론으로서의 『史記』 〈項羽本紀〉의 ‘好奇計’ 논거 제시

펼치는 『서포만필』상5에서 소식의 〈범증론〉을 비판하기 위해, 김만중이 논거로 활용한 『사기』 〈항우본기〉 속 범증의 ‘好奇計’ 관련 원전의 원의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사기』 〈항우본기〉 속 범증 기사는 기원전 208년부터 204년까지, 진승이 패배한 이후 항량에게 유세를 펼친 기점으로 巨鹿大戰을 거쳐 鴻門宴의 대치와 마침내 滎陽 전투에 이르기까지 秦漢交替期の 국가 흥망과 관련하여 군주의 用人과 신하의 계책에 관한 주제들을 포괄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일화들을 통해 기본적으로 범증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신으로서의 역할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범증의 ‘好奇計’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항우본기〉 속 네 가지 奇計를 통한 『서포만필』상5의 논거 활용 방식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항우본기〉 속 범증의 ‘好奇計’와 『서포만필』상5의 논거 활용 방식

『사기』 〈항우본기〉 ‘好奇計’			
[A] 立楚之後	[B] 急擊勿失	[C] 距塞漢王	[D] 今釋弗取
기원전208, 항량에게 楚後를 즉위시키도록 유세하였다.	기원전206, 홍문연에 앞서 항우에게 패공 살해 계락을 펼쳤다.	기원전206, 홍문연 이후 회왕을 의제로 높이 제 후들을 분봉하였고, 항우와 범증은 모의하여 패공을 한왕으로 세워 세력을 막았다.	기원전204, 형양전투 때 한왕을 포위하였는데, 범증은 한나라를 취하도록 권했으나, 이에 한왕은 진평의 반간계를 썼다.
“居鄴人范增，年七十，素居家，好奇計，往說項梁曰：～為能復立楚之後也。”	“范增說項羽曰：沛公居山東時，～急擊勿失。”	“項王范增疑沛公之有天下，業已講解，又惡負約，恐諸侯叛之，乃陰謀曰：～王秦降將以距塞漢王。”	“歷陽侯范增曰：漢易與耳，今釋弗取，後必悔之。”
『서포만필』상5			
[A] 增之說項梁，～史稱 增素好奇計，意自分明。”	[B]~[C] “如約之對，亦當如是矣”		
[A]~[B] “安陽之朝” “觀其以宋義為上將，遣沛公入關，則可知之矣”		[C]~[D] “江中之擊” “苟令帝在柵，～”	

위 도표에서 필자는 〈향우본기〉에 나타난 범증의 ‘好奇計’를 [A], [B], [C], [D]로 구분하였다. [A]를 보면, 『서포만필』상5의 서두에서 김만중은 〈향우본기〉의 “居鄴人范增, 年七十, 素居家, 好奇計”에 대해 “史稱增素好奇計”라고 축약하여 사마천의 범증에 대한 인물 인식인 ‘好奇計’ 기사를 근거로 수용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따라서 [A]의 ‘好奇計’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였고, [A]와 [B]사이와, [B]와 [C]사이, [C]와 [D]사이의 역사적 정황을 포괄하여 간결한 문장을 통해 논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서포만필』상5에서 〈향우본기〉의 원의를 전제하거나 논거로 활용하고, 가정하며 추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사마천의 형세적 시각³¹⁾을 수용하면서 축약하여 변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다음 도표를 통해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자.

〈표 3〉 ‘好奇計’ 관련 『서포만필』상5과 『사기』의 원전 비교

‘好奇計’	『서포만필』상5	『사기』
[A]	“增之說項梁”	“范增, ~往說項梁曰”〈향우본기〉
	“民間牧羊兒”	“乃求楚懷王孫心民間, 為人牧羊”〈향우본기〉
	“史稱增素好奇計, 意自分明”	“居鄴人范增, 年七十, 素居家, 好奇計”〈향우본기〉
[A]~[B]	“安陽之朝”	“行至安陽, ~項羽晨朝上將軍宋義, 即其帳中斬宋義頭”〈향우본기〉
[C]~[D]	“江中之擊”	“乃陰令衡山臨江王擊殺之江中”〈향우본기〉
[A]~[B]	“觀其以宋義為上將, 遣沛公入關, 則可知之矣.”	“懷王乃以宋義為上將軍, ~令沛公西略地入關”〈고조본기〉
[B]~[C]	“如約之對, 亦當如是矣”	“項王使人致命懷王, 懷王曰: 如約.”〈향우본기〉
		“項羽使人還報懷王, 懷王曰: 如約.”〈고조본기〉
[C]~[D]	“苟令帝在櫛”	“乃使使徙義帝長沙櫛縣”〈향우본기〉(밑줄강조: 필자)

31) 사마천은 제왕들의 전기인 『史記本紀』에 향우의 일생을 편입하였으니, 그 이유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공적을 유방에 비해 향우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간적으로 秦나라와 楚나라 간에 향우가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데 기인한다.(김원중 역(2019), 『사기본기』, 민음사, p.281, 참조.) 이는 근본적으로 형세적 시각에 입각한 서술 방식을 보여준다. 사마천이 향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우를 부정 평가한 면모는 역사가로서 객관적 자세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도표와 같이 김만중은 〈항우본기〉 속 범증의 ‘好奇計’의 내용을 반영하여 원의를 함축하고 역사 사건의 추이를 통해 전개해 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도표에서 김만중 작품과 〈항우본기〉에서의 해당 원전을 비교하여 볼 때, 〈항우본기〉의 범증의 ‘好奇計’에 관한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한데, 김만중은 이를 축약 형태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항우본기〉 속 ‘好奇計’의 대목이라 할 수 있는 [A]에서 범증의 기사를 소개하고 항량에게 나아가 유세하는 내용을 사마천은 “居鄴人范增, 年七十, 素居家, 好奇計, 往說項梁曰”(밑줄강조: 필자)과 같이 19자로 풀이했다면, 김만중은 “增之說項梁”라고 하여 원전의 핵심어를 준용하여 조사 ‘之’를 포함해 5자로 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왕이 즉위 전에 민간에서 양을 치던 아이에 불과했다는 지점을 서술함에 있어서 사마천이 “於是項梁然其言, 乃求楚懷王孫心民間, 為人牧羊, 立以為楚懷王”(밑줄강조: 필자)이라고 한 내용을 김만중은 “民間牧羊兒”라고 하여 그 원전의 어휘를 직접적으로 인용해오면서 축약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김만중의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은 [A] 뿐만 아니라 범증의 奇計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A]~[D]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보이는 특징 중의 하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는 『서포만필』상5의 김만중의 범증론 논의 시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소식 〈범증론〉에 관한 반론 시각과 비평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蘇軾 〈范增論〉 반론으로서의 형세론적 관점 분석

1) ‘項氏謀臣’으로서의 范增 ‘유세[說]’ 서술 시각

김만중은 〈항우본기〉 속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대목을 전제하여 荖氏의 謀臣으로 본 소식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한다.

〈항우본기〉에 따르면 사마천은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일화에서, 초나라 회왕의 손자 응심을 응립시킨 표면적인 원인은 민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기록하

고³²⁾ 있다. 여기서 사마천은 범증의 유세에는 백성들을 위해 ‘초나라 후손[楚後]’을 계승해야 한다는 명목 위에 항씨 세력을 높이려고 한 실질적 의도³³⁾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포만필』상⁵³⁴⁾의 첫 번째 단락을 분석해 보자.

④ 소동파와 호치당이 범증과 동공을 논한 것은 모두 당시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④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것은 芋氏에게 진심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항씨의 기세를 넓히고 크게 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또한 진승과 오광이 부소 항연이라고 일컫은 것과 같다. ⑥ 민간에서 양을 치던 아이가 어찌 반드시 초나라의 후손이라고 여겼겠는가? ③ 바로 범증이 우씨를 맞이하여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이미 그를 제사에 쓰이는 추구로 본 것이다. ④ 『사기』에 일컫기를, ‘범증이 평소에 기이한 계책을 좋아했다고 했으니, 그 뜻[意]이 절로 분명하다. ④ 만약 범증의 경우라면 항씨의 모신이었으니 의제에 대해 무슨 뜻이 있었겠는가? ④ 東坡致堂之論范增董公, 皆不得當時事情. ④ 增之說項梁, 非眞忠於芋氏者, 實欲張大項氏氣勢, 亦猶陳吳之稱扶蘇項燕. ⑥ 民間牧羊兒, 詎必是楚後? ③ 方其迎立之時, 已視爲未祭之芻狗矣. ④ 史稱增素好奇計, 意自分明. ③ 若增者, 自是項氏謀臣, 於帝何有哉?’(『서포만필』상⁵)(밑줄기호: 필자)

위 인용문 ④와 같이 입론³⁵⁾ 부분을 보면, 김만중은 소식의 〈범증론〉에 대해

- 32) “於是項梁然其言，乃求楚懷王孫心民間，為人牧羊，立以爲楚懷王，從民所望也。”(〈항우본기〉)
- 33) 秦나라 말기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개국을 위해 세력을 다룰 때 범증의 정치적 책략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책략의 기초는 ‘從民望’에 있었다. 범증은 ‘楚雖三戶亡秦必楚’과 ‘立懷王孫心’라는 정략을 통해 진나라의 멸망을 촉진했다. (薛從軍·祝兆源(2021), 앞의 논문, p.38, 참조.)
- 34) 본고에서 『西浦漫筆』의 판본은 通文館 影印을 기준으로 삼았다. 번역은 심경호 역(2018), 『서포만필』, 문학동네; 홍인표 역(1990), 『서포만필』, 일지사.에 힘입었으나 필자의 번역 원칙에 따라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 35) “東坡致堂之論范增董公”에서 알 수 있듯이, 소식의 〈범증론〉과 호인의 동공론을 병치하였으니, 범증을 논평함에 있어 항우와 유방의 모신론에 주목한 김만중의 서술 의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병렬식 입론의 서술 방식은 김만중이 『사기』의 〈항우본기〉와 〈고조본기〉를 숙지한 후에 나름의 역사 인식을 갖고 논평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마천은 〈항우본기〉에서 초나라의 패배를 두고 항우의 비극적 죽음의 과정을 묘사함에 있어 항우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보이는 동시에 항우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분명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고조본기〉에서 유방에 대해서는 한나

“不得當時事情”이라고 하여 형세적 시각에 입각하여 소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대전제³⁶⁾로 삼았다. 이어서 범증이 향량에게 유세 이유에 대한 서술인 ㉑를 시작으로, ㉒~㉔는 사마천의 서술 시각을 반영하여 논거로 삼으며, ㉕에서 자신의 주장을 추론형으로 설파한다. 이는 소식의 〈범증론〉에 대한 논의를 반론하는 양상으로서 점층적으로 치밀하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엄밀히 살펴보면, ㉑부분은 소식의 논의를 활용한 것이다. ㉒는 〈항우본기〉에서 범증이 처음 등장하는 ‘好奇計’ 기사 속 범증이 향량에게 유세한 일화에서 김만중은 사마천의 시각을 수용하여 자신의 시각으로 표출한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㉕에서 김만중은 사마천보다 더 나아가는 논조로, 범증이 우씨를 초 회왕으로 세우려 했을 ‘시점[時]’에 주목하여 정황을 추론하는데, 당시 범증은 우씨를 ‘芻狗’ 정도로 여겼다는 점을 서술했다. 그리하여 ㉑에서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으니, 〈항우본기〉에서 범증이 향량에게 유세할 때의 기사인 ㉑대목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으로, 범증의 ‘好奇計’한 특징을 근거로 삼아 논지를 피력하기 위한 논증 기법이다. ㉕는 ‘범증-항씨-의제’의 인물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의제는 범증에게 있어서 군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둔 것이 아니라는 논조로써 범증은 당초에 ‘項氏謀臣’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윗글의 ㉑와 관련한 소식 〈범증론〉의 해당 내용과 김만중의 시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㉑진심이 민심을 얻은 것은 항연과 부소를 내세웠기 때문이고, ㉒항씨가 흥성한 것은 초나라 회왕의 손자 心을 세웠기 때문이며, ㉕제후들이 그(항씨)를 배반한

라를 개국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의 다채로운 실질적 면모를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 36) 입론에서 동공을 다룬 것은 현전하는 자료상 김만중이 유일하다. 한편, 崔有淵은 “不隨義帝之槲，而主張凶逆之謀，其時三老董公，未知何許人，而其扶綱常明大義，言論凜烈，日月爭光，則漢王縞素之舉，未知增之賴其無泄乎”라고 하여 의제 시해 이후에 동공이 항우에게 흰 상복을 입도록 권한 일화를 들어 범증이 이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李瀾은 항우와 회왕이 양립할 수 없는 형세를 이룬 것은 범증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범증은 항우의 주모자로서 작은 지혜를 지닌 자로 폄하하는데, “殊不知有董公者一策縞素，驅之大逆，而圍套無以掩也”라고 하였으니, 동공을 비평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것은 의제를 시해했기 때문이었다.(…)범증이 비로소 항량에게 권하여 의제를 세우게 했다. 제후들이 이 때문에 복종하였다. ㉔陳涉之得民也, 以項燕扶蘇, ㉕項氏之興也, 以立楚懷王孫心, 而㉖諸侯叛之也, 以弑義帝也.(…)增始勸項梁, 立義帝, 諸侯以此服從.(蘇軾, 〈范增論〉)

ii)㉔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것은 芋氏에게 진심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었다. ㉕사실은 항씨의 기세를 넓히고 크게 하려고 한 것이니, ㉖[이는] 또한 진승과 오광이 부소·항연이라고 일컬은 것과 같다.㉗增之說項梁, 非眞忠於芋氏者, ㉘實欲張大項氏氣勢, ㉙亦猶陳吳之稱扶蘇項燕.(『서포만필』상5)(기호:필자)

윗글의 i)의 ㉔를 보면, 소식은 진승이 오광과 부소와 항연으로 자처하여 민심이 기반하여 세력을 얻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ii)의 ㉖에서 김만중은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까닭에 대한 부연으로 이 진승과 오광의 일화를 비유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범증의 유세를 芋氏를 위한 것으로 본 점에 예시한 “陳涉之得民也, 以項燕扶蘇”라는 구절을 김만중은 오히려 이를 반론하여 범증을 항씨의 모신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陳吳之稱扶蘇項燕”이라는 구절을 재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i)의 ㉕에서 소식은 항씨 세력이 점점 강해진 이유에 대해 초나라의 후손 즉 회왕의 손자 심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ii)의 ㉕에서는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실질적 의미로 보았다. 또한, i)의 ㉖에서 의제를 옹립시킨 범증과 그러한 의제를 시해한 항우에 대해 논하는데, 항우가 의제를 시해했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신의를 잃게 된 것이라고 보았고, 범증이 의제를 옹립시켰기 때문에 제후들이 복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김만중은 ii)의 ㉗와 같이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근본적 원인을 우씨에 대한 충성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논조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만중은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한 것[增之說項梁]”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소식은 〈범증론〉 서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范增이 떠나간 것은 잘한 일이었다[增之去善矣]”라고 한 주장의 논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 역사적 사건들을 추정해 나간다. 김만중은 소식의 〈범증론〉에서 사용한 논거를 재차 활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好奇計’ 기사

를 수용하여 사마천의 권위에 기대 설득력을 높이며 역사적 정황에 초점을 두어 형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소식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특징적 면모라 하겠다. 소식의 근본적 시각은 범증이 세운 의제를 시해한 항우에게 부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범증과 의제의 군신 관계를 부각하고 있다. 이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논조가 따르는데, 범증이 당초부터 우씨가 아닌 항씨의 모신이었다는 점을 피력한 김만중의 시각과 대별되는 지점이다. 조선 후기 문인들은 대부분 소식 〈범증론〉의 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입론하여 논거를 제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김만중은 의리적 해석 관점에 대한 회의적인 역사 인식을 지니고 『사기』를 근거로 소식의 〈범증론〉을 비평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范增의 ‘떠남[去]’에 대한 김만중과 蘇軾의 관점 비교

그렇다면, 범증의 ‘떠남[去]’ 문제에 대한 김만중의 시각은 어떠한가? 이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 방식으로서 소식의 〈범증론〉의 취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蘇子は 논한다. “㉠a범증이 떠난 것은 잘한 일이다. a’떠나지 않았으면 항우가 반드시 범증을 죽였을 것이니, 다만 일찍 떠나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무슨 일로 떠나야 하는가? 범증이 항우에게 沛公을 죽일 것을 권하였으나 항우가 듣지 않았고 끝내 이 때문에 천하를 잃었으니, 마땅히 이때 떠나야 했는가? 아니다. 범증이 패공을 죽이려고 한 것은 신하의 직분이요, 항우가 패공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래도 군주의 도량이 있는 것이니, 범증이 어찌 이 때문에 떠날 수 있겠는가? ㉢『周易』에 이르기를, ‘기미를 아는 것이 아마도 神과 같구나!’라고 하였고, 『詩經』에 이르기를, ‘저 함박눈이 내리는 것으로 보아 먼저 싸락눈이 모인다.’라고 하였다. ㉣범증은 마땅히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였을 때 떠나야 했다.” ㉤蘇子曰 增之去, 善矣. ㉥a’不去羽必殺增, 獨恨其不蚤耳. ㉦然則當以何事去. 增勸羽殺沛公, 羽不聽, 終以此失天下, 當於是去耶. 曰 否. 增之欲殺沛公, 人臣之分也, 羽之不殺, 猶有人君之度也, 增曷爲以此去哉. ㉧易曰 知幾其神乎. 詩曰 相彼雨雪. 先集維霰. ㉨增之去, 當於羽殺卿子冠軍時也.(소식, 〈범증론〉)(밑줄기호: 필자)

위 인용문에서 ‘A[주장]-B[문제제기]-C[논증:비유]-D[결론]’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A를 보면 a의 “增之去, 善矣”라는 입론을 내세운 뒤에, a’에서 입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a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술 기법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떠남[去]’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여 정당성을 논하고 있다. 이에 B에서는 범증의 ‘떠남[去]’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장을 부연하는데, <항우본기>에 의거해 보면, 홍문연 이전에 범증이 항우에게 패공을 죽이도록 유세했던 역사 사건을 제시하여 이 당시 항우와 범증이 군신의 도의를 지킨 것을 소식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C에서 『주역』과 『시경』을 인용하여 논증하는데, 이 두 문헌의 내용의 공통점은 항우가 범증을 의심할 조짐[兆]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소식이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인 것은 바로 의제를 시해할 조짐이요,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을 의심하는 근본이다[羽之殺卿子冠軍也, 是弑義帝之兆也, 其弑義帝, 則疑增之本也]”라고 말한 것과 연관된다.

D를 보면, 소식은 범증이 떠나야 하는 때는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라고 단언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소식은 범증이 항우를 떠난 것은 잘한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 떠났어야 명분상 옳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식은 이 논조를 일관하여 범증의 ‘떠남[去]’ 문제의 나름의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자는 계속해서 D를 염두에 두고 소식의 논조를 김만중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i) a)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인 것은 바로 의제를 시해할 조짐이요, b)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을 의심하는 근본이니, 어찌 반드시 진평의 인간질을 기다리겠는가? (...) a) 항우가 이미 [의제의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경자관군을 죽였으니, 의제는 반드시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b)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지 않으면 의제가 항우를 죽이려는 것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다. (...) b) 도중에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의 본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 a)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였을 때 범증은 항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제를 섬겨 군신간의 신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내가 범증을 위하여 헤아려보자면 힘이 능히 항우를 처형할 만하면 처형하고, 그러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 어찌 의연한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a) 羽之殺卿子冠軍也, 是弑

義帝之兆也, ⑥其弑義帝, 則疑增之本也, 豈必待陳平哉.(…)①羽既矯殺卿子冠軍, 義帝必不能堪, ⑥非羽弑帝, 則帝殺羽, 不待智者而後知也.(…)⑥中道而弑之, 非增之意也.(…)①方羽殺卿子冠軍, 增與羽, 比肩而事義帝, 君臣之分, 未定也, 爲增計者, 力能誅羽則誅之, 不能則去之, 豈不毅然大丈夫也哉.(소식, <범증론>)

ii) ①안양에서 조회한 것과 ⑥장강에서 진격한 것은 ③범증이 반드시 모의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그가 어찌 이 일을 가지고 떠나려 했겠는가? ①安陽之朝, ⑥江中之擊, ③增必爲謀首, 其肯以此去乎哉? (『서포만필』상5)

iii) 또 ③義帝가 즉위할 적에 范增이 謀主가 되었으니, 義帝의 존망이 어찌 다만 楚나라의 성쇠가 될 뿐이겠는가? 또한 范增이 화복을 함께하는 바였으니, 義帝가 죽고 范增이 홀로 오래 보존될 수는 없는 것이다. 且③義帝之立, 增爲謀主矣, 義帝之存亡, 豈獨爲楚之盛衰, 亦增之所與同禍福也, 未有義帝亡而增獨能久存者也.(소식, <범증론>)(밑줄기호: 필자)

i)와 iii)는 소식 글 ii)는 김만중의 글인데, 위 두 인용문에서 ①와 ⑥는 같은 역사적 사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즉, ①는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의 일화이고, ⑥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했을 때의 사건을 가리킨다. 이때의 일화에 대한 소식과 김만중의 논의 시각이 대별되는데, ii)의 논점을 기준으로 보면, 김만중은 ①와 ⑥의 역사 사건을 두고, 당시에는 범증이 ‘謀首’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때 범증이 떠나야 할 정당성이 부족함을 앞서 살핀 소식의 ①“범증은 마땅히 항우가 경자관군을 죽였을 때 떠나야 했다[增之去, 當於羽殺卿子冠軍時也]”라고 한 견해를 반문투로 반박하고 있다.

i)의 내용을 보면, <범증론> 전문에서 크게 세 번에 걸쳐 서술하고 있는 양상을 ①⑥, ①'⑥', ⑥'①'를 통해 소식은 범증이 송의를 죽였을 때 떠나야 했다는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i)의 ①에서 소식은 항우가 송의를 죽인 것은 의제를 시해할 조짐이었고, 이어서 ⑥와 같이 의제를 시해한 것은 범증을 의심한 근본이라고 하면서 “豈必待陳平哉”라고 의문시한 부분까지 종합해서 볼 때, 소식은 범증이 항우에게 의심받게 된 원인을 진평의 반간계가 아닌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를 기점으로 역사를 해석한 것이다.³⁷⁾ 이러한 해석 시각은 <항우본기>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37) 뿐만 아니라 소식은 “어찌 다만 본의가 아닐 뿐이겠는가? 아마도 반드시 항우에게 힘써

아울러 i)의 ㉠'와 ㉡'를 보면, ㉠'의 논의를 부연하고 있는데, ㉠'는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의 의제의 입장을 대변하고, ㉡'에서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의제가 먼저 항우를 죽였을 것이라는 논조다. 또한, ㉡'㉠'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ii)의 김만중의 견해와 대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항우가 송의를 죽이고, 의제를 시해했을 때의 당시 범증에 대해 소식의 견해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즉, ㉡'를 보면, 소식은 항우가 의제를 시해했을 때 범증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 ㉠'는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는 항우와 범증의 신분이 동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에 비해 ii)에서 김만중은 ㉠'㉡' 상황 모두 범증이 항우의 '謀首'로서 범증이 항우가 송의를 죽였을 때 떠났어야 했다는 소식의 견해를 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ii)와 iii)의 ㉢'를 대조해 보면, 소식은 김만중과 달리 범증의 '謀主'는 회왕이 의제로 즉위할 때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식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범증이 의제의 모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이 점이 김만중과 근본적 시각차를 달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김만중이 언급한 ii)의 ㉠'安陽之朝'는 앞장에서 소개한 <항우분기> 속 범증의 奇計 가운데, ㉠'과 ㉡'의 시기에 해당하며 ㉢'江中之擊'은 ㉣'과 ㉤'의 시기에 해당한다. 간결한 논지와 함축성을 띤 형태³⁸⁾이면서 “增必爲謀首”라고 하여 분명한 어조로 범증의 奇計들에 대한 정황을 추론한다. 이처럼 김만중은 당시 범증의 신분이 의제에 대한 '謀臣'이었다는 소식의 주장에 대해 항우의 '謀首'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謀臣'을 '謀首'라는 어휘로 대체함으로써 “若增者，自是項氏謀臣” 주장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간쟁하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항우가 범증의 말을 따르지 않고 범증이 세운 의제를 시해하였으니, 항우가 범증을 의심함은 반드시 이로부터 비롯한 것이다.[夫豈獨非其意，將必力爭而不聽也。不用其言，殺其所立，羽之疑增，必自是始矣]”라고 한 가운데, 특히 “殺其所立”라는 지점에 주목해 보더라도, 소식과 김만중의 근본적 시각은 달리함을 거듭 알 수 있다.

38) 사재동은 『서포만필』상4의 중국 고대 봉건설에 대한 사론을 대표적으로 소개하였는데, 중국사에 투영된 특징을 지닌 김만중의 사학이 조선후기 사학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사에 대한 논평 방식이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간명한 논지와 함축성을 띤 표현에 주목된다고 보았다.(사재동(2006), 앞의 논문, pp.36-37.)

김만중의 주장에 대한 논거 확보 처리 방법을 눈여겨볼 만한데, 위 인용문에서 마지막 부분의 “其肯以此去乎哉?”가 그렇다. 즉, 범중의 ‘떠남[去]’ 문제 대한 소식 견해의 문제 제기인데, 항우가 송의를 죽이고 의제를 시해한 일에는 범중이 모의의 주동자로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단하고 있다. 김만중은 범중의 신분에 대해 안양과 장강에서 반드시 모의의 우두머리, 즉 ‘謀首’였다고 단언한다.³⁹⁾ 이에 따라 항우가 회왕을 의제로 세우는 데 있어, 항우 곁에서 조력한 주동자가 범중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범중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항우본기〉에서 사마천은 범중의 직책만 밝히고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나 신원을 기록하지 않았다. 홍문언에서는 ‘亞父’로 기록하였고, 이후 ‘歷陽侯’라고 거론된 지점을 눈여겨보면,⁴⁰⁾ 당시 범중이 ‘謀首’라는 정황이 명확해진다. 엄밀히 구분하면, 범중이 항량에게 유세한 첫 번째奇遇 이후, 본격적으로 항우를 보좌했을 때를 말한다.⁴¹⁾

사마천의 이러한 서술 시각은 범중을 모략가에 중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모수로서의 공로와 치적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범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우의 모신이었고, 유방은 이를 경계했다. 따라서 범중은 의제의 모신

39) ‘謀首’라는 표현은 김만중에게서만 보이며, 崔有淵의 경우 범중이 항우의 무도한 행동의 모략에 ‘主張’한 점을 강조하면서도 홍망의 의론에 ‘首倡’한 인물임을 설파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洪良浩의 경우 “夫增之倡立義帝，爲項氏，畫剪秦之策耳，非爲復芋氏之祀也”라고 하여 의제가 옹립할 당시 범중의 ‘주창[倡]’한 점을 강조했다. 조선 후기 문인들은 전반적으로 소식의 ‘謀主’라고 품평한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논지를 펼치는데, 尹根壽, 李瀼, 李天輔, 李獻慶의 〈범중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항우본기〉에 분봉 이후 “項王自立爲西楚霸王，王九郡，都彭城”라고 하였으니, 이전에는 범중, 아부라고 기록했고, 역양후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우는 자신을 서초의 폐왕으로 세웠으나 범중에게 분봉하는 것을 잊었다가 나중에 발견하여 ‘역양후로 봉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중이 진나라와 초나라를 멸망시킨 결정적 패인이 뒤따른다. (薛從軍(2015), 앞의 논문, p.67.)

41) “义帝之立，是范增的首谋，诸侯以此服从，刘邦亦听从义帝的号令，“挟天子以令诸侯”的功绩本来就显露了山水。只是项羽怨义帝没有派他西入咸阳，让刘邦拔了头筹，遂弑之。致使上上之谋付之东水，范增亦功业未成，身先志殒，又怎能不常使英雄泪满襟呢。”(張晡光(2015), 앞의 논문, p.11.) 김만중 역시 “安陽之朝，江中之擊，增必爲謀首”라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는데, 이는 사마천과 김만중의 공통된 시각이자, 소식과는 차별화된 시각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김만중이 사마천의 ‘好奇計’ 기사를 바탕으로 추론하여 비판한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3) 蘇軾의 “天下之賢主”句에 대한 김만중의 비판 시각

이어서 항우와 의제에 대한 당시 형세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김만중의 글을 통해 ‘天下之賢主’에 대한 시각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의제가 항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마 여러 대신들과 함께 모의한 것이지만, 의제는 어리석고 치밀하지 못하여 항우에게 이미 당한 것이다. 이것은 곽광이 창읍왕을 세우는데, 창읍왕의 여러 신하들이 모의하여 곽광을 해치려고 했으나 패하여 죽음에 이르러 말하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여 도리어 그 혼란을 받았다”고 한 것과 자못 비슷하다. 義之欲殺羽, 蓋與諸大臣謀者, 而義愚不密, 爲羽所先. 此頗似霍光之立昌邑王, 昌邑群臣謀欲害光, 及敗臨死曰: 當斷不斷, 反受其亂者也.(『서포만필』상5)

윗글의 첫 문장을 보면, ‘義之欲殺羽’에 대해 ‘蓋’를 써서 추론하는데, 이어지는 문장까지 함께 볼 때, 의제가 항우에게 당한 것은 ‘義愚不密’이라는 이유를 논거로 들고 있다. 이러한 추론식 논지는 한나라 무제의 명신 곽광이 창읍왕을 옹립시킨 일화의 비유를 통해 논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만중은 이 일화에서 곽광이 모의에 실패하고 죽음에 이를 때의 창읍왕의 말을 인용해서 생동감 있는 의론을 펼친다. 즉, ‘昌邑群臣謀欲害光’과 같이 창읍왕 주변의 여러 신하들이 곽광을 해치려고 모의했으나, 실패하였으니, 이와 같은 비유의 일화에서 당시 세력이 의제가 아닌 항우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비평 수단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정황에서 논평한 김만중의 형세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은 김만중이 “蘇子乃謂天下之賢主, 過矣”라고 하며, 소식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는 대목과 소식의 글을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 ㉠내 일찍이 논하자면, 의제는 천하의 어진 군주였다. ㉡홀로 패공을 보내어 關門으로 들어가게 하고 항우를 보내지 않았으며, ㉢경자관군을 여러 사람 가운데 알아보고 발탁하여 上將으로 삼았으니, 어질지 않고서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 吾嘗論義帝，天下之賢主也， ㉡獨遣沛公入關，而不遣項羽， ㉢識卿子冠軍於柵人之中，而擢以爲上將，不賢而能如是乎.(소식, <범중론>)

ii) 무릇 의제가 어리숙한데도 항우가 매우 꺼려했던 것은 초나라의 구가 세신 중에서 의제의 좌우 측근으로서 항씨의 강함을 미워하여 [항씨와] 의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살펴보자면, ㉠송의를 상장으로 삼고, ㉡패공을 관중에 들어가도록 보낸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여러 신하가 벌인 일이니 어찌 의제 스스로 행한 것이겠는가? [의제가] “약속대로 하라”고 대답한 것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았을 것이다.(…)만일 의제가 [항우에 의해] 침 땅에 있게 됐을 때 반드시 제후를 모아 초나라를 [취하려고] 모의했다면, 항우가 어찌 편안할 수 있었겠는가? ㉠항우는 진실로 사나웠으니, 여러 대신들이 의제를 위해 [항우를 멸하려고] 도모한 것은 마침 화를 재촉하기에 충분했는데도 ㉠소자(소식)는 [의제를] ‘천하의 현명한 군주’라고 일컬었으니, 잘못이다. 夫以義帝之沖弱，而深見忌於羽者，以楚之舊家世臣，多有爲帝左右，惡項氏之強，憚間於帝者耳。觀其以㉠宋義爲上將， ㉡遣沛公入關，則可知之矣。然此皆諸臣事，豈帝自運哉？如約之對，亦當如是矣。(…)苟令帝在柵，則其必合諸侯，以謀楚，羽安得晏然？ ㉠羽則固悍矣，諸大臣之爲帝謀者，適足以促禍，而㉠蘇子乃謂天下之賢主，過矣。(『서포만필』상5)(밀줄기호:필자)

위 인용문과 같이 김만중이 소식의 논점을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했는지 i)와 ii)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김만중이 반론의 근거로 한 소식의 글을 확인해 보기 위해 i)의 소식 글을 기준으로 ii)의 김만중의 글을 분석해 보자. 즉 i)에서 소식은 ㉠와 같이 “義帝，天下之賢主也”라는 논지를 내세우고, 이에 대한 논지의 근거로 ㉡와 ㉢의 역사적 일화를 제시했다. 거룩 전쟁 이후 항량이 패배하고, 의제(당시 회왕)는 송의를 上將軍, 항우를 次將軍, 범중을 末將軍으로 삼아서 이들에게는 조나라를 구원하게 했으며, 패공에게는 관문으로 먼저 들어가게 했다. 따라서 i)의 ㉡와 ㉢는 역사 사건의 시간적으로 볼 때 ㉡와 ㉢의 순서가 타당한 것인데, ii)의 김만중의 글을 경우를 보면 이를 반영하듯 역사 사건의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김만중은 ii)의 ㉠에서 당시 실질적인 세력은 의제가 아닌 항우에게 있었다

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羽則固悍矣”라는 점을 내세워 당시 정황상 의제가 “天下之賢主”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i)의 ㉔㉕를 보면 여기서도 소식과 김만중의 시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김만중은 소식의 i)의 ㉔㉕ 논조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김만중은 ㉔㉕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부연한 이유는 당시 향씨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점을 김만중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즉, 당시에 의제는 실질적으로 권세를 부리지 못했다는 것이며, 의제의 측근 신하들이 단지 군주로서의 명분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집권한 향씨 세력을 견제했다. 그리하여 의제가 항우와 범증보다 송의를 상장으로 세워서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게 했고, 그 틈에 패공을 관문에 먼저 들여보내도록 한 것이다. 소식은 의제를 군주로서 ‘현명함[賢]’을 강조했고, 반면에 형세적 시각에 입각한 김만중은 ‘어리숙함[沖弱]’이라는 표현으로 의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었다.

김만중은 의제의 ‘沖弱’한 점을 들어 당시 정황상 의제가 독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항우가 의제를 기피한 이유는 초나라의 의제의 측근 신하들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또한 형세적 시각에 중점을 둔 김만중의 서술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ii)에서 ‘如約之對’라고 한 부분은 전술한 〈항우분기〉 속 범증의 네 가지 奇計 가운데 ㉔~㉕의 시기에 해당하는 일화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후, 항우는 천하를 통일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회왕에게 일의 경과를 보고하자, 회왕은 “약속대로 하라[如約]”고 했다. 이는 곧 유방을 관중 땅의 왕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도록 항우가 종용한 것이다. 이는 범증이 항량에게 유세하여 초나라 국권을 회복하려 한 것과 맥락이 통한다는 점에서 범증의 계획일 수 있다. 범증은 홍문연 이후에 유방이 천하를 얻은 틈을 타서 전날의 약속을 어긴 죄목으로써 제후들이 배신할 것을 두려워하여 항우에게 “巴蜀亦關中地也”라는 구실로 유방을 한왕으로 봉할 것을 모의한다. 이때 항우는 이미 의제가 패공을 관문에 먼저 들이게 하고, 항우에게는 조나라를 구원하러 가게 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따라서 의제가 ‘如約’으로 답한 것에 대해 김만중은 그 역사적 추이에 따라 정황을 추론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김만중이 범증과 향량 및 향우, 의제에 대한 군신관계의 문제를 다각도로 다루어 “天下之賢主”라는 의제의 평가 문제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과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논지를 피력한 비평 방식을 고찰해 보았다. 김만중은 소식의 기존 史實과 논의들을 빌려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추론해가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4. 결론

본고를 통해 필자는 김만중의 ‘범증’에 대한 해석 시각을 검토함에 있어 범증론이 조선후기 사론 산문의 주요한 논제거리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마천과 소식의 시각을 비교하여 김만중의 근본적인 해석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았다.

『西浦漫筆』上5를 통해서 본 김만중의 蘇軾 〈范增論〉에 대한 반론 시각의 비평 양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만중은 형세적 시각에 입각하여 역사서를 치밀하게 읽고 사건의 추이를 통해 논지를 전개하였다. 나아가 소식의 〈범증론〉을 논박함에 있어 ‘好奇計’ 기사를 수용하여 그것을 근거로 소식의 견해를 반론하는 데 활용했다.

둘째, 김만중은 범증이 향량에게 유세한 요지를 설파하는데 범증이 당초부터 우씨가 아닌 향씨의 모신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사기』 기록을 통해 입증했다.

셋째, 김만중은 범증의 ‘떠남[去]’ 문제 대한 소식 견해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소식이 범증을 의제의 ‘謀主’였다고 설파한 데에 반박하여 범증이 향우의 ‘謀首’였다고 단언함으로써 당시 범증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김만중은 ‘天下之賢主’라는 의제에 대한 평가 문제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과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여 논지를 피력하였다. 이에 의제가 군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시각이었고, 이에 따른 함의는 형세가 향우에게 기울었다는 의미를 도출하였는데, 여기서도 형세적 시각에 중점을 둔 역사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서포만필』상5를 통해서 조선 시대 문인들의 범중 소재 사문 산문들과의 차별성을 변별한 특징 가운데 소식의 논리와 설득 방법을 차용하는 서술 방식의 활용으로 집약됨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러한 고찰은 김만중의 역사 인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서포만필』 속 여타 항목에 나타난 역사 인물 논평들과의 비교 검토는 차후 과제로 삼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1. 자료

金萬重, 『西浦集·西浦漫筆』, 서울: 通文館 影印, 1971.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2002.
蘇軾, 『東坡全集』, 上海: 商務印書館, 1990.

2. 단행본

김원중 역, 『사기본기』, 민음사, 2019(2판9쇄).
_____, 『사기란 무엇인가』, 민음사, 2021.
심경호 역, 『서포만필 상』, 문학동네, 2018.
홍인표 역, 『서포만필』, 일지사, 1990.

3. 논문

陳鳳, 「亞父文化與范增的政治品格」, 『淮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39卷第1期, 2018, pp.51-56.
吳大康·張維慎, 「秦末謀士范增勸項梁立楚後之評議」, 『唐都學刊』第22卷第2期, 2006, pp.108-111.
張晗光, 「從范增其人看巢湖文化中的文化品格」, 『巢湖學院學報』第16卷第2期 2014, pp.9-14.
薛從軍, 「論曆陽侯范增」, 『渭南師範學院學報』第30卷第3期, 2015, pp.65-71.
薛從軍·祝兆源, 「論范增政治策略」, 『渭南師範學院學報』第36卷第1期, 2021, pp.38-44.
王懷讓, 「范增形象淺論」, 『棗莊師專學報』第1卷第2期, 1987, pp.43-46.
姚軍, 「精於計謀疏於政治范增論」, 『西藏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7卷第6期,

- 2006, pp.77-79.
- 付春明, 「解析蘇軾『范增論』及其在古代朝鮮的受容」,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6期, 2012, pp.58-61.
- 李貞慧, 「由『論武王』看蘇軾海外『志林』的詮釋問題」, 『文學遺產』第三期, 2010, pp.67-74.
- 김연자·김원중·심은경, 「五山 車天輅의 〈伯夷死名說〉의 重層的 構造와 寓意的 敘述方式」, 『대동한문학』 제63집, 대동한문학회, 2020.
- 김영은, 「17~18世紀 中國 君主 題材 史論 散文 研究 - 政論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김원중, 「中國文學에 대한 西浦 金萬重의 鑑識眼」, 『中國學論叢』 제14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02, pp.65-80.
- 김종철, 「익재 산문 " 사론 " 갈래의 문체비평」, 『東方漢文學』 제19집, 동방한문학회, 2000, pp.5-21.
- 박인호, 「입재 강재항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pp.115-170.
- 백진우, 「朝鮮後期 史論 散文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_____, 「李天輔의 史論體 散文에 대하여」, 『민족문화』 제31집, 한국고전번역원, 2008, pp.213-241.
- 사재동, 「西浦 金萬重의 文化史的 位相」, 『韓國思想과 文化』 제34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pp.7-74.
- 송혁기, 「17-18세기 조선 문인의 蘇軾 산문 批評」, 『한자한문연구』 제2집,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06, pp.73-97.
- 손혜리, 「青城 成大中の 史論 散文 研究 - 『青城雜記』 「揣言」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2, pp.367-399.
- 심경호, 「서포 김만중의 산문 세계」, 『韓民族語文學』 제4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2, pp.181-215.
- _____, 「조선후기 지성사에서 상대주의적 관점의 대두에 대하여」, 『民族文化』 제28집, 한국고전번역원, 2005, pp.327-377.
- 정하정, 「조선(朝鮮) 사론 산문(史論 散文)의 한 단면 - 소식(蘇軾)의 사론 산문에 대한 비판 양상 -」,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pp.325-355.
- 조종업, 「서포의 비평 세계」, 『김만중연구』, 새문사, 1983, pp.IV97-IV108.
- 홍인표, 「서포만필의 내용과 체제」, 『동아문화』 제23집,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85, pp.61-91.

4. 인터넷 자료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6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the ‘Fan Zeng Theory(范增論)’ of Kim Man-joong through
 the Subsection 5. to Volume 1. of 『Seopomanpil(西浦漫筆)』
 -Focusing on the Critical View of SuShi(蘇軾)'s 〈FanZengLun(范增論)〉-

Kim, Yunji · Kim, Wonjoong

In examining Kim Man-joong's interpretation of FanZeng in the Subsection 5. to Volume 1, of 『Seopomanpil(西浦漫筆)』, this paper noted that the theory of ‘Fan Zeng Theory(范增論)’ was a major topic of historical essay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fore, we compared the perspectives of SimaQian and SuShi to examine where Kim Man-joong's fundamental interpretation was, I confirmed that Kim Man-joong accepted SimaQian's narrative perspective centered on FanZeng's ‘haoqiji好奇計’ in ‘XiangYubenji(項羽本紀)’ and conducted a ‘Fan Zeng Theory(范增論)’ with his own perspective on the perception of the history of the a period of contention for supremacy in the Subsection 5. to Volume 1, of 『Seopomanpil(西浦漫筆)』.

When it comes to the fact that FanZeng is in an important position of Mohsin,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rise and fall of XiangYu, SimaQian, SuShi, and Kim Man-joong identifi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as a subtle difference between them as to whether FanZeng should have left XiangYu or should not have left and stood by XiangYu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Cho Dynasty.

Considering the four ‘qiji奇計’ in ‘XiangYubenji(項羽本紀)’ that can grasp FanZeng's ‘haoqiji好奇計’ aspect, Kim Man-joong can confirm the developing aspect through the trend of historical events, and extracted SimaQian's narrat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circumstantial perspective and used it to accept and transform SuShi's 〈FanZengLun(范增論)〉.

Kim Man-joong revealed that FanZeng was the god of Xiang(項), not Yu(芋), from the beginning, and used the opinion of the news, but proved it through the record of ‘XiangYubenji(項羽本紀)’ as FanZeng campaigned for Xiangliang.

In addition, he addressed the issue of military relations between FanZeng and

Xiangliang, Xiang Yu, and Yidi from various angles, maintaining a critical view and skepticism over Yidi's evaluation of 'tianxiazhixianzhu天下之賢主'.

Keyword 『Seopomanpil(西浦漫筆)』, Kim Man-joong(金萬重), FanZeng(范增), SuShi(蘇軾), FanZengLun(范增論), 'leave(去)', SimaQian(司馬遷), XiangYubenji(項羽本紀), 'haoqiji(好奇計)', Circumstance, The Late Joseon Period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생명의 아이러니와 환대의 윤리학

김근호*

국문요약

박완서 노년소설 중에는 노년과 유년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이 일부 있는데, 그 작품들은 박완서 노년소설을 생명의 윤리 차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유년(유아기)', '조예', '비오스'의 개념과 논리, 정체성에 관한 개념적 구도, 그리고 환대의 개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노년의 인물은 유년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기 안의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 특히 그들은 유아처럼 말을 못 하거나 웅얼거리는 상태에 놓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어 이전의 조예적 상황에 놓인 노년의 생명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 노년이 자연적 생명의 경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버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생명인 비오스와 자연적 생명인 조예의 경계 '사이'에 놓이며 아이러니적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서사 구조로 드러난다. 즉 서사의 앞부분에서는 노년 인물이 과거 또는 현재에 누려온 사회적 지위나 체면 그리고 품격 등을 보여주다가, 중반부에 가서는 노인으로서 각종 현실적 곤란이나 고충을 다른 노인들과 함께 겪게 된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조예적 경계를 넘어서며 생명의 맨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 지점에서 노년의 비오스적 조예의 진실은 현현하게 되고, 동시에 생명의 아이러니는 극대화된다. 이때 노년은 그러한 상황을 극렬히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로 기꺼이 맞아들인다. 그리하여 노년의 정체성은 새롭게 재구성되고 정체성의 경계가 능동적으로 확장된다. 여기에는 환대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그 환대는 크게 타자로서의 노년에 대한 환대와 노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환대로 나누어진다. 우선 타자로서의 노년을 환대하는 경우는 또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인이 아닌 서술자나 인물이 노인을 바라보고 환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끼리 상호 환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서는 노년의 자기 환대이다. 유년은 노년이 그러한 환대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 요컨대, 노년의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을 촉진하는 유년은 노년과 함께 박완서 노년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단초가 되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며, 사회·정치적 질서 이전에 놓인 생명의 윤리를 주목하게 한다.

주제어 박완서, 노년소설, 생명, 조예, 비오스, 노년, 유년, 타자, 아이러니, 정체성, 환대, 윤리

〈목차〉

1. 머리말
2. 유년을 통한 노년 안의 타자 발견
3. 비오스적 조예의 현현과 아이러니
4. 정체성의 탈경계화와 주제적 환대
5. 맺음말

1. 머리말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박완서 소설 세계의 완숙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노년소설의 분량도 많은 편이지만 그 웅숭깊은 질적 수준에 의해 박완서의 문학은 한층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다. 1970년 40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등단한 박완서가 작가로서 큰 굴곡이나 역량의 하락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왕성하게 그리고 꾸준히 발표된 그녀의 노년소설 때문이기도 하다. 박완서가 노년소설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또 박완서다운 노년소설의 유형을 이루어간 시기는 1979년부터라고 판단된다. 박완서가 사망한 2011년까지 박완서는 노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소설을 꾸준히 발표해왔다. 물론 박완서는 작가 활동 초창기부터 노년의 인물을 등장시키는 「부처님 근처」(1973), 「포말의 집」(1976) 등을 보여주기는 했다. 하지만 단순한 배역이 아니라 노년이기에 볼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세계를 서사의 중심에 놓은 것은 1979년 발표된 「황혼」 이후이다. 크게 보아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자전적 성격이 강한 노년소설과 자전적 성격이 약한 노년소설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작가 스스로 노후에 이르러 쓴 소설들 중에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나 「그 남

자네 집」 같은 몇몇 회고 형식의 작품들을 들 수 있고, 후자로는 작가 자신이 노년 이전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적 상상력을 다채롭게 발휘한 노년소설들을 들 수 있다.

일찍이 1970년대부터 노년소설의 개념적 정의에 관해 여러 접근이 있어 왔지만,¹⁾ 최근에 와서는 대체로 김병익의 규정을 수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김병익은 박완서의 소설집 『친절한 복희씨』(2007)의 해설에서 “노년문학은 그냥 작가가 노년이라는 것, 혹은 단순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노인이라는 것 이상의 것으로, 노인이기에 가능한 원숙한 세계 인식, 삶에 대한 중후한 감수성, 이것들에 따르는 지혜와 관용과 이해의 정서가 품어져 있는 작품 세계를 드러낼 경우²⁾”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숙함이나 지혜와 관용 등을 노년문학의 핵심 특성으로 규정할 경우, 박완서의 어떤 작품이 노년소설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한 성격 규정에는 못 미치지만 노년문학 완성의 거멸못 역할을 한 노년문학적 작품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서사의 주역(주인공)으로 나오거나 노인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며 삶의 문제를 관찰하고 사유하는 등, 노인이 서사 형성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작품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한편 서사의 분량과 깊이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장편소설은 노년 인물로만 이야기가 한정되어 쓰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노년소설은 주로 단편소설에 집중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상의 판단에 따라 노년의 인물 혹은 노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서술하며 노년의 주제를 서사화한 박완서의 단편소설들을 발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황혼」(1979), 「천변풍경(泉邊風景)」(1981), 「쥬디

1) 한국의 노년소설에 대해 1970년대부터 김병익, 천이두 등이 한국의 문체적 소설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이제선이 도시소설의 한 유형으로 소설사에 기술하였으며, 또 김윤식이 ‘노인성 문학’이란 용어로 노년소설을 소설사의 한 유형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류종렬이 검토한 노년소설 연구사를 참고할 수 있다.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2) 김병익, 「험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해설), 박완서,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2007, p.285.

할머니」(1981), 「소묘」(1983), 「저녁의 해후」(1984),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 건만」(1984), 「해산바가지」(1985), 「애 보기가 쉽다고?」(1985), 「저물녘의 황홀」(1985), 「꽃을 찾아서」(1986), 「저문 날의 삽화(挿話)4」(1987), 「저문 날의 삽화(挿話)5」(1988), 「우황청심환」(1990),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 「오동(梧桐)의 숨은 소리여」(1992), 「마른 꽃」(1995), 「환각의 나비」(1995),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1997), 「나의 웬수덩어리」(1997), 「너무도 쓸쓸한 당신」(1997), 「꽃잎 속의 가시」(1998), 「그리움을 위하여」(2001), 「그 남자네 집」(2002), 「후남아, 밥 먹어라」(2003), 「춧불 밝힌 식탁」(2005), 「대범한 밥상」(2006), 「친절한 복희씨」(2006), 「그래도 해피엔드」(2006),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 등, 모두 총 29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편소설이 아니라 오직 단편소설들 중에서만 노년소설이라는 주제에 속하거나 근접한 작품들로만 정리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상의 박완서 노년소설들 중에는 노년의 인물이 유년의 유아나 어린이를 통해 본래의 천진함을 회복하거나 주체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서사화된 작품이 더러 있다.³⁾ 그것은 노년에 대한 박완서의 인식 하나를 밝혀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한 서사들은 통념적으로 서로 모순 또는 상반된 위치에 놓인 노년과 유년을 은유적 관계로 짝을 지어주거나 노년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데 작용하는 핵심 타자로 유년을 관계지음으로써 의미의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과 유년의 관계에 관한 분석과 논의는 지금까지 없었던바, 노년과 유년의 관계를 아이러니 차원에서 읽어내는 작업은 유의미한 결과를 낳으리라 예상된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

3) 이 글에서 쓰는 ‘유년(childhood)’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흔히들 아기, 유아, 어린이, 심대 등으로 세분화해 쓰기도 한다. 크게 보아 영어에서 유년기의 어린이라고 번역하는 ‘child’는 0~18세 사이의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는 숫자로 표기되는 나이보다는 아직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지 못한 나이 어린 사람 모두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헤더 몽고메리, 정연우 역, 『유년기 인류학: 인류학자가 본 어린이의 삶』, 연암서가, 2015, pp.102-103.

4)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화와 관련하여 신수정은 박완서에게 “인간이란 언제나 짐작 불가능한 아이러니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박완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는 인간이란 바로 이 ‘다면적 얼굴을 한 인간이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구는 앞서 정리한 작품들 중에서 노년의 인물을 유년과 연관짓는 서사들에 주목하고자 하는바, 「천변풍경(泉邊風景)」, 「쥬디 할머니」, 「해산바가지」, 「애 보기가 쉽다고?」,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대범한 밥상」 등 총 6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박완서 소설 세계를 가로지르는 인간의 생애 단계를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위계에 따라 바라보려는 통념적 인식을 전복하려 든다. 박완서 노년소설 중에서 이 작품들은 특히 무겁고 진지한 상황을 다소 유쾌하거나 특유의 반전으로 서사를 중층화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성찰적 독서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 작품들은 박완서 특유의 비판적이고 실리적인 지성에 바탕하여 노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유년을 유용한 타자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보아 한국의 노년소설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는 논의에서 박완서를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와 박완서 노년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한국 현대소설사를 통시적으로 볼 때 확인되는 여러 작가의 노년소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완서 노년소설의 담론 특성 또는 죽음, 성, 질병 등과 같은 주제 유형을 부분적으로 검토한 논의들이 다수 있었다.⁵⁾ 그리고 박완서 노년소설만을 다룰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차원, 주제적 유형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된다. 또 박완서 자신이 40세에 등단한 이후 사망한 2010년까지 매우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한 작가이자 대표적인 노년의 작가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녀의 노년소설에 나타난 주제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논의가 있었다.⁶⁾ 문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박완서론」,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pp.152-153.

- 5) 전홍남,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집문당, 2011; 최명숙, 『(21세기에 만난) 한국 노년 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최일남, 박완서, 이청준, 홍상화, 김원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64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김원일, 박완서, 한승원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8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김원일, 최일남,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9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최선호,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19.
- 6)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외식 연구: 양원식의 노년소설과 대비하여」, 『국제

학의 사회학적 대응의 차원에서 당대 노인문제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양상을 분석한 논의들,⁷⁾ 박완서 노년소설을 주체 모색의 정치성 차원으로 검토한 논의들,⁸⁾ 노년에 이른 주체의 양가적 경제성과 말년성의 태도 및 가부장 인식의 양가성 등을 분석한 논의들,⁹⁾ 노년에 대한 기존 지배 담론과 젠더 해체를 통한 윤리적 가능성 등을 밝혀낸 연구를 들 수 있다.¹⁰⁾ 아울러 늙어감이라는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다소 치우쳐온 사회학적 질문과 대답보다는 그 현상에 대한 존재론적 직시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성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의도 있었다.¹¹⁾ 작품의 주요 소재 또는 주제의 서사적 기능과 관련하여 노년의 치매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논의도 있었다.¹²⁾

한인문학연구』 제5집, 국제한인문학회, 2008; 김혜경, 『노년을 읽다: 박완서 소설로 읽는 노년의 삶』,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양윤의·차미령, 「박완서 단편소설과 말년의 양식에 대한 시론적 검토」, 『픽션과논픽션』 제4집, 픽션과 논픽션학회, 2022.

- 7) 김명택·신현순,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어문연구』 제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박완서의 「마른 꽃」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제15집,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3;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 8)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김윤정, 「노년 신체의 잠재성과 가능성: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7집, 우리문학회, 2020.
- 9) 우현주, 「상생과 불협화음의 경계에 선 말년성(lateness): 박완서의 「빨갱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연구』 제49집, 이화어문학회, 2019; 김보민, 「노년소설 연구: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 10) 양보경,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윤리 양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4; 정연희,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이현용, 「육망의 상승과 「효」 해체 지점의 표상연구: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 11)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노년의 사유: 인문학적 노년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겨레어문학』 제69집, 겨레어문학회, 2022; 손유경, 「노년의 시간과 「견담」의 감각: 박완서와 오정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8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22.
- 12)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

이 연구의 문제의식과 가까운 주제를 다룬 경우로 최근에는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노년이 갖는 의미를 폴 리콰르의 서사적 정체성 논리로 풀어낸 논의가 있었다.¹³⁾ 이 논의는 「저물녘의 황홀」과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 나타난 주인공의 과거 회상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남은 인생에 대한 직시의 정체성으로 모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시간성의 차원에서 노년의 정체성을 논의한 경우이다. 그런데 정체성은 시간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의 타자를 통해 드러나거나 형성되기도 한다.¹⁴⁾ 이 점을 고려하며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등장하는 유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년을 유년에 빗대거나 깊이 관련시키는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클리셰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년이 중요한 타자가 되어 노년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주체를 당당히 모색하게 되는 서사는 박완서 노년소설만의 특장(特長)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생명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인 ‘유년(유아기)’, ‘조예’, ‘비오스’ 등을 참고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박완서 문학이 다루는 노년은 한낱 생물학적 시기를 넘어 사회학적 주체로서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노년이 사회적 동심원의 바깥으로 점점 내몰리며 겪는 무력감, 고독, 소외, 질병 및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은 아감벤의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을 연상시킨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오히려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해가는 현대사회의 노년을 가지 있는 주체로 우뚝 세우기 위한 박완서의 소설적 작업에는 아감벤의 생명 철학의 개념과 논리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

회, 2015;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치매’를 다룬 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집, 대중서사학회, 2018.

- 13) 엄미옥,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 리콰르의 이야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황단인문학』 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 14) 나탈리 하이니히(Nathalie Heinich)는 정체성이란 그것이 문제가 될 때 드러난다고 하면서 특히 “언어와 타인과의 관계, 타인에게 보내어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자기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 인식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한다. 나탈리 하이니히, 임지영 역, 『정체성이 아닌 것』, 산지니, 2021, p.131.

년이라는 타자를 통해 일어나는 노년의 정체성 재구성과 주체적 확장이라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정체성 이론과 환대의 개념 등도 활용하게 될 것이다.

2. 유년을 통한 노년 안의 타자 발견

박완서의 사망 직후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상경은 문학사 서술의 입장에서 볼 때 박완서의 문학이 1970년대보다는 1990년대에 속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⁵⁾ 이상경이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된 것에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박완서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이 되는 작품이 바로 1979년 발표된 「황혼」이다. 그 작품에서 시어머니가 된 노년의 주인공은 신식 풍속에 물든 며느리의 낮은 삶의 태도와 불화를 겪는다. 이 작품은 주로 사회의 급격한 발달과 풍속의 변화 속에서 노년이 사회적으로 점차 천대받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년의 우울을 그려낸다. 바로 이 기조가 바로 박완서 노년소설의 효시를 이룬다. 이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고 보다 심화되면서 노년의 스토리가 앞의 「황혼」에 비해 부쩍 증가한 「천변풍경(泉邊風景)」(1981)으로 발전된다. 이 작품에는 197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쳐 노인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한 1980년대 현실을 다음처럼 생활세계의 구체화된 감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급속하게 신장되어 노인들의 수요가 부쩍 늘고 그 노인들은 배불리 먹고 뜨뜻이 입는 거 외에 건강관리라는 게 따로 있다는 데 각성을 해서 너도 나도 아침 산책을 하고 체조를 하고 약수를 마셨다. 약수로 냉수마찰을 하는 극성스러운 노인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샵터 주변으로 모이는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포교와 영리를 한꺼번에 노리는 암자가 늘어났다.¹⁶⁾

15)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여성문학회, 2011, p.13.

16) 박완서, 「천변풍경(泉邊風景)」,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단편소설전집(3))』(3판), 문학동네, 2013, p.162. 앞으로 작품을 인용할 경우 동일한 작품의 두 번째 인용부터는 작품명

당대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작가의 민감한 현실 감각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천변풍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노년의 시간적 계기를 많은 경험과 기억의 축적, 그리고 그에 따른 지혜와 원숙미의 소유 단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년 그 자체의 생명적 절대성 및 주체성 탐구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그러한 가치가 말하지 못하는 노인 또는 말하기에 곤란을 겪는 언어적 장애에 도달하는 것, 일종의 유아적 언어 상황과 등치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들끼리의 대화도 의미심장하다. “원 별말씀을, 제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앵니까?” “늙으면 애 된다고들 안 합니까? 어제 저희 들끼리 쳐져서 한 뒷공론질도 꼭 아이들 입씨름 같았다니깐요.”¹⁷⁾ 노여사가 고향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녀의 낡은 의치(義齒)를 닦아주려고 선뜻 나서는 가족이 없다. 그리하여 의치가 없는 그녀는 얼굴이 훌쩍해지고 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때 병문안을 간 배우성 씨는 노여사의 의치를 죽은 아내의 살아생전 의치를 닦아줄 때처럼 닦아준다. 그것은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게 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 대목은 언어 이전의 상태에 놓인 한 노인의 유년성을 통해 노년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라 해석할 수 있다.

「천변풍경」과 같은 1981년에 발표된 「쥬디 할머니」를 통해 노년 문제는 박완서 문학 세계의 본격적 관심사로 자리 잡아간다. 이 작품은 미국에 있는 쥬디라는 손녀를 매일 아침마다 입맞춤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미 성장을 끝마친 자식들보다는 유년기의 아이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녀에게 활력을 준다. 집에서 그 노인은 3살 남짓한 모습의 쥬디 사진을 내내 끼고 산다. “쥬디 사진만은 딴 사진들처럼 한자리에 울타리가 되어 버티고 있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옮겨다녔다. 밤엔 물론 할머니의 침대머리에 놓였고, 낮에는 장식장에 놓였다가 전화대에 놓였다가 탁자에 놓였다가 부엌 식탁에 놓였

과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17) 「천변풍경(泉邊風景)」, p.150.

다가 했다.”¹⁸⁾ 그리하여 “할머니가 혼자서, 아니 주디와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으로 느지막한 아침식사를 하는”¹⁹⁾ 방식으로 노년의 외로움을 달랜다.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웃 중년 여성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통해 주디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의 소실(小室)이었다는 식으로 묘사되지만, 그 대목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진리가(眞理價)가 불확실한 소문에 불과하기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문의 사실 여부보다는 유아기 손자의 사진을 끼며 살아가는 고독한 독거노인의 불행이다. 그러한 독거노인이 주변인들과 진실된 소통의 창구를 점차 잃어가며 이웃의 애정어린 관심보다는 비난과 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쓸쓸한 기록이 이 작품이 갖는 박완서 노년소설로서의 묘미이다. 이는 「황혼」과 비슷한 기조인데, 이 작품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그러한 노년의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으로 유년의 손자에 대한 애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 애착에 힘입어 삶의 천진함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후 1980년대의 「해산바가지」(1985), 「애 보기가 쉽다고?」(1985) 등에서 작중 주인공 또는 핵심 인물로서 노인이 등장하는데, 우선 그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비쳐지거나 혹은 어린아이라는 타자로 인해 사회 질서의 바깥으로 내몰린다. 그리하여 그는 낯선 타자로서의 노년의 유년성 혹은 타자로서의 유년적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우선 「해산바가지」를 보면,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대목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²⁰⁾ 다음으로 「애 보기가 쉽다고?」를 보면, 유신시대 국회의원 출신인 주인공 맹범씨가 손자를 업고 어느 낙

18) 박완서, 「주디 할머니」,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단편소설전집(3))』(3판), 문학동네, 2013, p.180.

19) 「주디 할머니」, p.181.

20) 박완서, 「해산바가지」, 『저녁의 해후(단편소설전집(4))』(3판), 문학동네, 2016, p.247.

후된 재개발 택지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의 광활한 흙을 보고서는 곧장 유아기 때 흙을 밟거나 만지고 놀 때의 환희를 느끼는 장면이 나온다. “부드러운 흙을 보자 맹범씨는 느닷없이 예전에 돌아간 어머니 생각이 났다.”²¹⁾ 그 시절 흥역 같은 병을 앓을 경우 흙을 밟라 치유했던 기억도 소환된다. 그래서 “맹범씨는 흙을 보자 그 옛날의 어머니처럼 손자와 함께 흙장난을 하고 싶어졌다.” “진짜 흙을 묻혀주고 싶었다. 아이에게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의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맹범씨는 개의치 않고 같이 장난을 치면서 히히거렸다.”²²⁾ 이는 노년의 인물이 자기 안의 낯선 타자인 유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다.

작가 박완서가 1988년에 참척의 가족사를 겪은 이후, 1990년대로 넘어와 발표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은 작가로서의 회복력을 보여준 자전 소설이자 노년소설이다. 이 작품에서도 암 투병으로 인해 머리털이 다 빠진 남편의 모습을 갓난아기의 털 없는 머리에 빗대는 장면이 나온다. “대머리는 보통 피부보다 더 유들유들 윤이 나 한눈에 강인한 인상을 주지만 그의 머리 빠진 두상은 마치 머리칼이 귀하게 태어난 갓난아기의 두상처럼 피부가 희고 여려 보였다. 정말이지 크기만 좀 크다 뿐 머리 귀한 갓난아기 두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²³⁾ 2000년대 이후 발표한 「대범한 밥상」(2006)은 비행기 폭발 사고로 부모 잃은 유년기 손자들을 거두어 키우며 동거를 해야 했던 사돈지간의 남성과 여성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회적 통념을 과감히 허물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유년의 손자들은 양가의 조부와 조모에게 불가피한 타자로 작용하면서 통념을 전복하는 노년의 서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다.

박완서의 노년소설들 중에 이처럼 주로 노인을 유아와 비유 관계에 놓거나 노인의 행동거지를 유아에 맞추어 조정해나가는 장면들을 그려내는 작품은 일정

21) 박완서, 「에 보기가 쉽다고?」, 『저녁의 해후(단편소설전집(4))』(3판), 문학동네, 2016, p.285.

22) 「에 보기가 쉽다고?」, p.286.

23) 박완서,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단편소설전집(5))』(3판), 문학동네, 2013, p.288.

한 패턴을 보인다. 그것은 원숙과 지혜 등으로 가득하여 인생을 굽어보는 위치에 도달한 노인을 그리지 않고, 오히려 유년이라는 타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난처한 상황에 내몰려 궁극에는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 인식에 도달하는 서사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 미숙 혹은 언어 이전이라는 유년기적 특성이 종종 활용된다. 이러한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언어 및 유아기에 대한 조르조 아감벤의 관점이 도움이 된다. 우선 아감벤이 말한 유아기와 언어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는 “인간의 유아기라는 경험은 인간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 사이의 경계 바로 그것이다.”²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신비로운’ 한계라고 부른 것은 언어의 차안이나 피안에 자리해 있는, 이른바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안개로 둘러싸인 어떤 심리적 실체가 아니다. 그것은 언어의 초월적 근원, 간단히 말해 인간의 유아기이다. 실제로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다름 아닌 유아기이다.”²⁵⁾라고 부연한다. 그러니까 아감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말할 수 없음’ 혹은 ‘옹알이를 하는 상황’을 ‘유아기(infanzia)’와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보면,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노인이 주로 비유되거나 친밀성을 형성하게 되는 유년이라는 타자는 그러한 언어 이전 단계에 놓인 생명의 얼굴과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는 주요 매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비오스적 조예의 현현과 아이러니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언어 이전의 유아나 미숙한 어린이와 등치 관계에 놓인 노년의 형상은 사회·정치적 허물을 벗겨버린 생명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일텐데, 이에는 아감벤의 정치철학을 가로지르는 조예와 비오스의 개념이 도움이 된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 시절에 존재했던 ‘조예’와 ‘비오스’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조예(zōē)는 모든 생명체(동물, 인

24) 조르조 아감벤, 조효원 역, 『유아기와 역사: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새물결, 2010, p.98.

25) 조르조 아감벤, 조효원 역, 같은 책, p.99.

간 혹은 신)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가리켰다.”²⁶⁾ 반면 “비오스(bíos)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특유한 삶의 형태나 방식을 가리켰다.”²⁷⁾ 그런 점에서 비오스는 언어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의 정치적 삶을 의미한다. 좀 더 쉽게 말해 “국가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는 생명”은 비오스이고, “사회와 정치 바깥에 있는, 따라서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생명은 조에인 것이다.²⁸⁾ 그렇다면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노년은 사회·정치적 경계 이전의 생명인 조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노년이 자연적 생명 그 자체에 완전히 도달했거나 그 경계 안으로 완전히 진입해 들어가버렸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논의했듯이 노년은 유년을 통해 자기 안의 낮은 타자인 조에를 발견한 상태에 있다. 즉 그는 비오스와 조에의 경계 ‘사이(between)’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에의 비오스의 구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박완서 노년소설의 인물 및 구조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에와 비오스의 사이에 놓인 탈정치적 정치라는 모순을 고스란히 구현한 생명이 노년이다. 그것은 또다른 측면에서 유년과 다른 면모이다. 웅알거리며 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유아기의 아이는 정치적 삶의 경험이 전혀 없다. 말을 좀 할 줄 아는 어린이도 이는 거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노년은 그러한 비오스적 삶을 이전에 이미 경험했거나 그 한복판에 놓여 있기도 한다. 물론 노년은 오래전 유년기의 조에적 삶도 경험했지만, 그것은 언어가 없거나 언어 이전의 경계에 놓인 순수 경험에 속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유년기는 노년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면서 언어와 인간의 초월적 경계에 놓인다. 그래서 노년은 비오스와 조에의 존재 방식에 이중적으로 포박되어 있다. 노년은 살아 있는 생명 그 자체라는 조에의 얼굴과 육체를 마주하게 되었지만, 그 조에의 세계 속으로 미끄러지며 통념 및 기존 가

2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p.33.

27)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같은 책, p.33.

28) 서동욱, 『타자철학: 현대 사상과 함께 타자를 생각하기』, 반비, 2022, p.442.

29) 조르조 아감벤, 조효원 역, 같은 책, p.94.

치가 전도되는 과정에서 비오스적 삶의 경계를 포함하며 넘어서게 된다. 노년은 그런 점에서 비오스적 조예가 될 터인데, 이러한 노년의 아이러니한 면모를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면모는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서 응축적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사 구조 차원에서 볼 때, 이 글에서 검토하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대체로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노인이 과거 또는 현재에 누려온 사회적 지위나 체면 그리고 품격 등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서사의 중반부에 가서는 노인으로서 겪게 되는 각종 현실적 곤란이나 고충 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노인들과의 온갖 낮설고 신선한 경험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것은 노인이 노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게 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며 새로운 노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구조화한 결과이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는 조예적 경계로 접어드는 한낱 살아 있을 뿐인 생명 그 자체로서의 노인의 맨얼굴이나 육체 등을 마주치는 서사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노인의 인물 설정에 담긴 주제의식 및 작품의 플롯 구조는 서로 깊이 연관된다. 「천변풍경」에서는 이미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지향하는 노인들의 낡은 의식이 아래처럼 묘사된바 있다.

“배교수님까지 열네 명이 되는군요. 왕년의 사회적인 지위를 봐서라도 어중이떠중이 함부로 어울릴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의원은 그 열네 명을 일일이 열거하기 시작했다.

황사장, 김박사, 강판사, 안교장, 조차관, 박회장, 유국장, 김사장, 이이사, 이원장, 오청장, 노여사 등등.

이름은 생략되고, 성(姓)은 희석되고 사회적 지위만이 끈끈하게 농축되어 배우성씨의 귀에 더께가 되어 늘어붙었다.³⁰⁾

배우성씨는 대학에서 해직당한 전직 교수인데, 샐터에서 과거 사회적으로 잘 나던 인물들을 만나며 친분을 쌓게 된다. 배우성씨는 60세라는 노년의 초입에 들어선 인물로서 동네의 노인들과 친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지만 약간은

30) 「천변풍경(泉邊風景)」, p.155.

비자발적으로 그들만의 유타리인 ‘백수회’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그 모임을 운영하는 기존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성(姓) 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 또는 선망 대상의 직업을 덧붙이는 방식을 고집한다. 호칭은 언어를 통해 주체와 타자가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그러한 방식의 호칭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는 그 모임에 포함되느냐 배제되느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따라서 백수회를 둘러싼 노인들끼리의 호칭 언어는 사회·정치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 위력이 전혀 없는 언어놀이에 불과하기도 하다.

그 모임의 신입인 배우성씨와 함께 노년의 재혼으로 인연이 맺어질 뻔한 고여사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유명 사범대학 출신임을 항상 내세운다. 그녀는 노인들이 모인 샵터에서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행동으로 운동을 하는 도중에도 일본식 영어 말하기를 줄곧 하는 노인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다. “왓또 아바우 또 썸 슈가? 투테이블 스푼홀스? 노우 레스 덴. 완 엔드 아 할후 티스푼홀스 푸리스. 뎃또 이스 이나우 후오 미.”³¹⁾ 고여사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특별한 사회적 지위의 비오스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영어를 쓰지만, 곧바로 운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녀의 늙은 육체로 인해 고여사의 조예적 본질은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그 여자는 영어 공부에만 열심히 게 아니라 운동에도 극성스러워 쉬지 않고 깡충깡충 뛰었다. 젓가슴은 미밋했지만 아랫배는 풍만해서 뛰는대로 물주머니처럼 출렁이더니 마침내 트레이닝을 불두덩까지 밀어내리고 빨간 내복을 드러냈다.”³²⁾ 이 대목은 사회적 지위에 여전히 집착하는 노인들을 연민을 바탕으로 회화화하는 박완서의 작가 정신이 빛나는 대목인데, 노년이 갖는 비오스적 조예로서의 아이러니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년소설을 쓰던 초창기부터 이미 박완서는 비오스적 조예로서의 노년과 그 아이러니를 주목했던 셈인데, 이러한 박완서의 인식과 태도는 1985년에 발표된 「애 보기가 쉽다고?」에서 좀 더 정교한 아이러니 서사로 발전하게 된다. 백수회

31) 「천변풍경(泉邊風景)」, p.164.

32) 「천변풍경(泉邊風景)」, pp.164-165.

의 모임에 거리낌을 갖는 「천변풍경」의 배우성씨와는 달리 「에 보기가 쉽다고?」의 맹범씨는 이미 과거 1970년대 유신시절 유정희 국회의원이었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전락한 자신에게서 그러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현재에도 위력을 발휘하리라 믿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다고 그는 자신의 빛나던 과거의 권력으로 타인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주변 이웃들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루 다정다감한 태도를 보인다. 어느날 그는 딸네와 부인의 동시 외출로 인해 유아기의 손자를 얼떨결에 떠맡게 된다. 그는 짧은 하루나마 처음으로 손자의 육아를 경험하게 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골격이다. 그는 손자를 업고 떠돌다가 우연히 찾아가게 된 도시 외곽 재개발 지역의 가난한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그들에게 은혜를 갚고 또 자신의 실제 신분을 알려주는 상상을 다음처럼 하면서 잠시의 즐거움에 도취된다.

맹범씨는 갖은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노인이 밟지 않았다.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 진 신세를 훗날 후하게 갚고 싶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 고작 안전한 일자리 아니면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아닐까? 맹범씨는 야담에 나오는, 미행을 나가서 만난 착하고 끈공한 선비의 소원을 들어주는 임금님 생각을 했다. 이 노인에게라면 그런 임금님이 꽤줄 수도 있었다. 그는 노인을 위해 수위나 농장 관리인 자리를 생각하고 비어있는 별장과 비울 수도 있는 농막을 생각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건 자신의 변신을 노인에게 보여주는 일이었다. 노인은 얼마나 놀라고 황공해 할까?³³⁾

하지만 맹범씨의 현실은 어린아이를 업은 한낱 노인에 불과하다. 이랬던 맹범씨는 온갖 고생과 함께 일반인들이 가게에서 술안주로 삼는 제육을 얻어먹고 평범한 서민의 먹고 사는 즐거움을 잠시나마 체험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급기야 지하철 역내에서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맹범씨는 자는 아이를 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쳐 보며

33) 「에 보기가 쉽다고?」, pp.293-294.

“저 늙은이가 누굴까. 저 늙고 초라하고 더럽고 비굴한 늙은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 늙은이가 그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봐온 품위 있고 건강하고 자신 있게 늙어가는 자신이란 말인가.”³⁴⁾라며 낯선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결국 그는 어린 손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고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돈을 구걸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조예적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애 보기가 쉽다고?」는 비오스적 조예로서의 노년을 뛰어넘게 포착하면서도 동시에 노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균등하게 섞어 아이러니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덧붙여 기존의 사회적 통념에 따른 노년에 대한 인식을 뒤집는 박완서 노년소설의 면모는 작중 노인을 호칭할 때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앞서 보았듯이, 「천변풍경」과 「애 보기가 쉽다고?」에는 모두 노년 주인공에 대한 호칭을 할 때 ‘배우성씨’, ‘맹범씨’ 등으로 쓰고 있다. 판사, 박사, 교수, 사장, 차관 등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오직 이름 뒤에 ‘씨’를 붙이는 호칭 방식은, 이 글에서 검토하지는 않는 작품이지만, 「꽃을 찾아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정명환씨’(교장으로 퇴임한 인물) 같은 호칭이 그것이다. 인물에 대한 이러한 호칭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노년 주인공에 대한 주관적 정서나 인식적 무게감을 가볍게 하고 그들을 특정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의 비오스가 아니라 타인과 구별되는 이름을 가진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객관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노년은 비오스적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지향성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한낱 조예적 생명일 뿐이라는 아이러니적 폭로의 플롯은 박완서 노년소설의 사상적 거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대범한 밥상」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비행기 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년의 손자 손녀를 노년에 홀로 살아가던 양가의 사돈 영감과 사돈 부인이 동거하며 함께 키워낸다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런데 이 서사는 겹층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돈 부인의 친구가 그간의 사정을 듣고 사회적 통념에 따라 그들의 동거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직접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되는 바

34) 「애 보기가 쉽다고?」, p.300.

끝의 서사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두 사돈시간이 동거하며 보낸 세월에 대한 내부의 서사가 있다. 이 작품은 바로 그 두 서사의 겹침과 상호 대조를 통해 세속적 통념이 생명의 윤리 앞에 붕괴되고 성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오스적 조예의 아이러니 차원에서 이 작품이 갖는 묘미는 작품의 후반부에 나온다. 관찰자 역할을 하는 친구는 부모 잃은 손자를 키우기 위해 사돈 영감과 동거한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다. 죽은 사돈 영감의 소유였던 농토와 집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친구에게 소유권을 들먹이며 유언이나 유서 같은 것을 사돈 영감이 안 남겼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친구는 그 질문에 대해 “그따위 건 저승에 가셔도 이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닌가?”³⁵⁾라며 오히려 반문한다. 이 대목은 박완서 노년소설의 핵심 사상을 보여준다. 즉 인간 사회가 구축한 사회 및 정치의 법적 질서는 언어로 지탱되는바, 그 비오스적 질서의 너머 혹은 그 이전의 조예적 생명 윤리를 무엇보다 앞세우는 것이다. 바로 그 서사의 촉매제가 유년의 손자들이다.

4. 정체성의 탈경계화와 주체적 확대

비오스적 조예의 생명 가치를 내재화하는 박완서 노년소설에는 노인으로 등장하는 작중 인물들이 노년에 이른 자신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노년의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능동적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그 핵심 촉매 역할을 하는 타자가 바로 유년이다. 이러한 노년의 적극적인 정체성 재구성과 경계 이행의 특징은 환대(hospitality)의 논리로 풀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자로서의 노인을 환대하는 문제를 공동체적 시민성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제출된 바 있었다.³⁶⁾ 하지만 아직까지 박완서 노년소설에 관한 논의에서 환대의 문제는

35) 박완서, 「대범한 밥상」, 『그리움을 위하여(단편소설전집(7))』(1판), 문학동네, 2013, p.221.

36) 우현주, 「유비적 환대의 미학: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삼화(種話)」를 중심으로」, 『개념과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환대는 이방인과 같이 낯선 타자와 함께 그에 맞선 주인을 전제한 개념이다. 김현경의 말처럼 “환대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이러한 인정은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몸짓과 말을 통해 표현된다.”³⁷⁾ 따라서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환대는 노년에 이른 인물을 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함께 그 노년의 인물이 불가피하게 도래한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한다. 즉 유년을 통해 발견한 타자로서의 노년과 노년에 이른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환대하는 이중 과업을 검토함으로써 박완서 노년소설 고유의 윤리적 함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보아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 환대는 크게 타자로서의 노년에 대한 환대와 노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환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타자로서의 노년을 환대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노인이 아닌 서술자나 인물이 노인을 바라보고 서술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끼리 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인이 아닌 시선에서 노인을 무조건적 환대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이다.³⁸⁾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작품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들면, 노인이 된 시부모 또는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해산바가지」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품의 서사적 구조가 중층적이면서 서로 대립적인 세계를 맞세워 도덕적으로 우월한 한쪽이 상대쪽의 서사를 반성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이 경우는 아직 노년이 아닌 주체가 노인인 시부모의 노년 정체성을 유년의 형상으로 새롭게 파악하며 인식의 전환을 보여 준다. 특히 이 경우는 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서술하고 있기에 독자가 생명으로서의 노년 정체성을 승인하고 인정하며 자신의 타성적 인식을 성찰하도록 작품 읽기를 유도하는 특징을 보인다.³⁹⁾ 따라서 이러한 작품은 계몽적인 성격이

소통』 제29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2.

37)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p.208.

38) ‘무조건적인 환대’란 ‘절대적 환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체의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낯선 타자의 도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p.186.

상대적으로 강하다.

다음으로 노년들끼리의 상호 환대는 주로 부부관계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지닌 노년의 서사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천변풍경」,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대범한 밥상」이 그런 유형에 속한다. 우선 「천변풍경」에는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노여사를 병문안 가서 그녀의 의치를 적극적으로 씻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그 의치를 통해 그는 “그걸 끼셔야 말씀하시기도, 뭘 잡숫기도 수월할 게 아닙니까?”⁴⁰⁾라고 부드럽게 달래며 말할 수 없는 노여사가 자존심과 수치심을 내려놓게 한다. 들은 한때 혼담이 오갔던 사이지만 배우성씨에게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이미 죽은 아내처럼 보살펴야 하는 하나의 생명으로 노여사가 비쳐 보였던 것이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는 암 투병으로 보낸 남편과의 1년이라는 시간을 인식하는 대목이 나온다. “세월의 흐름 빠른 몰살처럼 느껴지고 자주자주 시간이 빛났다. 아까운 시간의 빛남은 행복하고는 달랐다. 여덟 개의 모자에는 그 빛나는 시간의 추억이 있다. 나만이 아는.”⁴¹⁾ 이 구절은 중병을 앓는 남편의 노년을 고통으로 시간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계기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 또한 타자로서의 노년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의 한 국면이다. 「대범한 밥상」 역시 손자들의 손에 이끌려 양육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같은 집에서 동거를 했던 사돈 노인들의 무조건적인 상호 환대가 형상화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환대의 경우이다. 박완서 노년소설에는 노년인 주인공이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제법 많이 보인다.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우선 자기 환대의 개념적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과연

39) 참고로 유년과의 관련성 차원에서 노년의 정체성과 환대의 문제를 검토하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작품은 아니지만, 「너무도 쓸쓸한 당신」이나 「그리움을 위하여」 같은 작품은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 「환각의 나비」는 후자에 속하며,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전자와 후자에 모두 속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들 역시 같은 패턴으로 노년에 대한 환대의 태도를 보여준다.

40) 「천변풍경(泉邊風景)」, p.176.

41)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p.281.

자기를 환대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기를 타자화하고 그러한 타자화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수용하고 돌보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자기 환대라는 개념이 성립 가능할 것이다. 자기 환대는 ‘자기애(自己愛)’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기애가 자기중심적이며 고립된 방식의 나르시스트적인 자기 사랑이라면, 자기 환대는 자기를 타자화하고 그리하여 낯설게 타자화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승인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몸짓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환대에는 자기 대상화가 반드시 개입된다. 노년 인물이 아이나 어린이를 통해 혹은 그러한 면모를 가진 자기 안의 유년을 발견함으로써 천진난만함과 순수한 생명적 조예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타자화된 자기를 기꺼이 맞이하는 자기 환대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면모는 박완서 노년소설이 가치의 특정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며 노년에 관한 서사를 생명적 균형감각으로 마름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상의 자기 환대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다루는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जू디 할머니」, 「애 보기가 쉽다고?」 등을 자기 환대에 속하는 작품으로 묶을 수 있다. 우선 박완서의 초창기 노년소설인 「जू디 할머니」의 주인공 공인 जू디 할머니가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대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는 주인공 जू디 할머니의 마지막 대사는 온갖 소문으로 할머니의 인생과 현실을 폄평하고 진단하는 이웃의 중년 여성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낸다. 그들은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जू디 할머니를 염려하듯 대해주지만, 뒤에서는 매우 적대적 공격성으로 소문을 생산하고 유포한다.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जू디 할머니는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는다. “혼자 살아도 큰 게 낫겠어. 이웃을 봐야 하나니까. 상종 안 해도 이웃은 이웃 아냐. 이웃에 정떨어지니까 한시가 급해.” “그래, 난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거야. 새로운 울타리를.”⁴²⁾ 여기서 ‘울타리를 칠 수 있을거야’라는 표현은 자기 환대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의

42) 「जू디 할머니」, p.198.

표명이다. 이는 성가신 타자들의 관습적 인식에 구애받지 않기 위한 자기 정립과 노인의 주체성 모색을 잘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김현경의 표현처럼, 환대란 그에 합당한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주려는 인정과 승인의 몸짓인 것이다.⁴³⁾

다음으로 「애 보기가 쉽다고?」인데, 이 작품의 주인공 맹범씨는 유년의 손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낯선 공간으로 부지불식 흘러 들어가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곤란에 놓이게 된다. 그 상황에 놓인 그는 손자와 함께 집에 돌아가기 위해 결국 역내에서 통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게 되며, 그곳에서 그는 낯선 노년의 자기 얼굴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아래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다.

문득 그의 모습이 역내의 대형 거울에 비쳤다. 저 늙은이가 누굴까. 저 늙고 초라하고 더럽고 비굴한 늙은이는 누구란 말인가. 그 늙은이가 그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봐온 품위 있고 건강하고 자신 있게 늙어가는 자신이란 말인가. 구내의 전자시계는 세시 사십오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맹범씨는 네 시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얼토당토 않다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방금 경험한 네 시간은 그가 여직껏 살아온 고르고 유연하게 흐르던 시간과는 전혀 단위가 다른 시간이었으므로, 그건 돈의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⁴⁴⁾

맹범씨의 초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이 대목을 보면, 맹범씨는 자신이 유년의 어린 손자로 인해 보낸 네 시간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 태어난 듯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승인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직시하고 나서 창구 앞에 줄선 사람들한테로 갔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을 모아 구슬픈 소리로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⁴⁵⁾ 그리하여 “그의 구걸은 그에게 썩 잘 어울렸다.”⁴⁶⁾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 장면은 맹범씨가 노년에 이른 자신을 대상화하여 조예로서의 한낱 생명

43) 김현경, 같은 책, p.208.

44) 「애 보기가 쉽다고?」, pp.300-301.

45) 「애 보기가 쉽다고?」, p.300.

46) 박완서, 「애 보기가 쉽다고?」, p.301.

그 자체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후 그 생명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인하는 것, 즉 무조건적 자기 환대의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년의 인물이 보여주는 여러 갈래의 환대는 기존의 넓은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체성의 경계를 의문시하고 새롭게 확장해 나가는 주체적 수행을 보여준다. 정체성의 개념에 대해 폴 리코르는 일찍이 ‘차이(ipse) 정체성’과 ‘유사(idem) 정체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⁴⁷⁾ 이런 논리를 박완서 노년소설에 적용해보면, 노년 인물이 타자로서의 유년을 통해 기존의 유사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리하여 새롭게 경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차이 정체성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차이 정체성은 주체성에 가장 가까운 형태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박완서 노년소설의 서사 구조로 나타난다. 이는 바흐친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주체적인 모습이라 할 터인데, 원칙적으로 본질적인 타자나 주체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주체는 타자의 자리로 경계를 넘어 이행하고 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잠재성일 뿐이다.⁴⁸⁾ 즉 탈경계적 이행과 대화적 잠재성에 따른 끊임없는 생성의 원리가 주체와 타자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년을 통해 비오스적 조예의 얼굴을 직면한 박완서의 노년은 자신의 생명적 경계를 직면한 자이고, 그 상황에서 경계에 놓인 자기 자신을 타자로 정립하고 새롭게 정체성을 생성시켜가는 환대의 주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7) 기존에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타자로서 자기 자신』의 국내 번역본(김웅권 역)에서 ‘자기(ipse) 정체성’과 ‘자체(idem) 정체성’이란 표현으로 번역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폴 리코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pp.160-163. 하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수치(numérique)’에 따른 ‘차이(ipse) 정체성’(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되게 하는 것)과 ‘자질(qualitatif)’에 따른 ‘유사(idem) 정체성’(어떤 특징을 가지게 하는 것)이란 번역 표현을 따르고자 한다. 나탈리 하이니히, 임지영 역, 『정체성이 아닌 것』, 산지니, 2021, pp.103-105.

48)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p.146.

5. 맺음말

이 연구는 박완서 노년소설 중에서 노년과 유년의 긴밀한 관계를 다루는 작품들을 추려 그 작품들에 나타난 노년의 생명적 아이러니와 노년의 정체성 재구성 및 탈경계화에 작용하는 환대의 논리를 탐구했다. 유년이라는 타자를 통해 노년의 인물이 자기 안의 낯선 타자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확장하는 박완서 노년소설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조르조 아감벤의 생명 정치철학의 주요 개념인 ‘언어’, ‘유년(유아기)’, ‘조에’, ‘비오스’ 등의 개념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폴 리쾨르와 나탈리 하이니히 등이 정립한 정체성 개념, 그리고 레비나스와 데리다 등에 의해 활성화된 환대의 개념 등을 참고하여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노년의 인물은 유년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기 안의 낯선 타자의 얼굴을 만나게 된다. 특히 그들은 유아처럼 말을 못 하거나 웅얼거리는 상태에 놓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언어 이전의 조에적 상황에 놓인 노년의 생명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그 노년이 자연적 생명의 경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버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정치적 정체성의 생명인 비오스와 자연적 생명인 조에의 경계 ‘사이’에 놓이며 아이러니적 양가성을 보이게 된다. 이는 서사 구조로 드러난다. 즉 서사의 앞부분에서는 노년 인물이 과거 또는 현재에 누려온 사회적 지위나 체면 그리고 품격 등을 보여주다가, 중반부에 가서는 노인으로서 각종 현실적 곤란이나 고충을 다른 노인들과 함께 겪게 된다. 그러다가 작품의 후반부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조에적 경계를 넘어서며 생명의 맨얼굴을 마주보게 된다. 그 지점에서 노년의 비오스적 조에의 진실은 현현하게 되고, 동시에 생명의 아이러니는 극대화된다. 이때 노년은 그러한 상황을 극렬히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로 기꺼이 맞아들인다. 그리하여 노년의 정체성은 새롭게 재구성되고 정체성의 경계가 능동적으로 해체 및 확장된다. 여기에는 환대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그 환대는 크게 타자로서의 노년에 대한 환대와 노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환대로 나누어진다. 우선 타자로서의 노년을 환대하는 경우는 또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인이 아닌 서술자나 인물이 노인을 바라보고 환대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들끼리 상호 환대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서는 노년의 자기 환대이다. 노년의 정체성 해체와 재구성을 촉진하는 유년은 노년과 함께 박완서 노년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해석의 단초가 되며, 사회정치적 질서 이전에 놓인 생명의 윤리를 주목하게 한다.

조로(老老)가 특징적이라 평가되어온 한국의 소설사에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분명히 박완서를 매우 높은 수준의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다. 40세라는 나이에 상대적으로 늦게 등단했지만 2011년 사망 무렵까지 왕성하게 소설을 써낸 박완서였고, 특히 그가 써낸 노년소설의 수준이 웅숭깊었기에 그러한 고평은 타당하다. 그것은 박완서가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해 매우 민첩한 감각의 소유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를 부양하거나 말년을 함께 보내는 경험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노년에 빨리 이르게 된 자기 체험적 현실이 깊이 관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완서 노년소설만의 주요 특장(特長) 중 하나는 유년을 서사 세계 안으로 불러들여 노년의 정체성과 생명 윤리를 확장시킨 것이다. 그러한 아이러니적 생명 인식은 박완서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균형있게 지닌 작가였음을 말해준다.

◆ 참고문헌

1. 자료

- 박완서, 『천변풍경(泉邊風景)』,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단편소설전집(3))』(3판), 문학동네, 2013.
- _____, 『쥬디 할머니』, 『그의 외롭고 쓸쓸한 밤(단편소설전집(3))』(3판), 문학동네, 2013.
- _____, 『해산바가지』, 『저녁의 해후(단편소설전집(4))』(3판), 문학동네, 2016.
- _____, 『애 보기가 쉽다고?』, 『저녁의 해후(단편소설전집(4))』(3판), 문학동네, 2016.
- _____,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단편소설전집(5))』(3판), 문학동네, 2013.
- _____, 『대범한 밥상』, 『그리움을 위하여(단편소설전집(7))』(1판), 문학동네, 2013.

2. 단행본

-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 김혜경, 『노년을 읽다: 박완서 소설로 읽는 노년의 삶』,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 서동욱, 『타자철학: 현대 사상과 함께 타자를 생각하기』, 반비, 2022.
- 전홍남,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집문당, 2011.
- 최명숙, 『(21세기에 만난) 한국 노년소설 연구』, 푸른사상, 2014.
- 최선호,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19.
-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 나탈리 하이니히, 임지영 역, 『정체성이 아닌 것』, 산지니, 2021.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_____, 조효원 역, 『유아기와 역사: 경험의 파괴와 역사의 근원』, 새물결, 2010.
- 폴 리콕르, 김응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 헤더 몽고메리, 정연우 역, 『유년기 인류학: 인류학자가 본 어린이의 삶』, 연암서가, 2015.

3. 논문

- 김미영, 「한국 노년기 작가들의 노년소설 연구」, 『어문론총』 제64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pp.215-245.
- 김병익, 「협한 세상, 그리움으로 돌아가기」, 『친절한 복희씨』, 문학과지성사, 2007.
- 김보민,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성: 김원일, 박완서, 한승원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8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p.1005-1020.
- _____, 「노년 소설 연구: 박완서의 노년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집, 인문사회21, 2022, pp.4793-4802.
- 김영미,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노년의 사유: 인문학적 노년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겨레어문학』 제69집, 겨레어문학회, 2022, pp.5-32.
- 김영택·신현순,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어문연구』 제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pp.401-425.
- 김윤정, 「노년 신체의 잠재성과 가능성: 박완서의 노년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제67집, 우리문학회, 2020, pp.151-186.
- 김은정,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70집, 한국문학회, 2015, pp.293-332.
-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회, 2008, pp.501-536.
- 박산향, 「박완서 소설의 치매 서사와 가족 갈등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9집, 부경

- 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pp.347-370.
- 박성혜,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과 서사」, 『한국문화기술』 제15집,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3, pp.87-108.
-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김원일, 최일남,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9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pp.593-603.
- 손유경, 「노년의 시간과 '견답'의 감각: 박완서와 오정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8집, 한국현대문학회, 2022, pp.185-209.
- 송명희, 「노년 담론의 소설적 형상화」,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pp.1-26.
-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박완서론」,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 양보경,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 윤리 양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3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4, pp.139-166.
- 양윤의·차미령, 「박완서 단편소설과 말년의 양식에 대한 시론적 검토」, 『픽션과논픽션』 제4집, 픽션과 논픽션학회, 2022, pp.81-104.
- 엄미옥, 「고령화사회의 문학」, 『대중서사연구』 제24집, 대중서사학회, 2018, pp.285-321.
- _____,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 리코르의 이야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횡단인문학』 제7집,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pp.1-27.
- 우현주, 「상생과 불협화음의 경계에 선 말년성(lateness)」, 『이화어문연구』 제49집, 이화어문학회, 2019, pp.159-185.
- _____, 「유비적 환대의 미학: 박완서의 「저문 날의 삽화(挿話)」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29집,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2, pp.129-160.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집, 한국여성문학회, 2011, pp.7-27.
- 이현용, 「육망의 상승과 '효' 해체 지점의 표상연구: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3집,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pp.1423-1434.
- 정미숙·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pp.273-300.
- 정연희, 「박완서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여성가족로맨스'와 돌봄의 영적 의미」, 『현대소설연구』 제8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pp.515-540.
- 최명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연구: 양원식의 노년소설과 대비하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5집, 국제한인문학회, 2008, pp.219-242.

논문 접수일	2024년 2월 9일
심사 완료일	2024년 2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The Irony of Life and The Ethics of Hospitality
in Park Wan-seo's Old-Age Novels

Kim, Keun-ho

Some of Park Wan-seo's old-age novels deal with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old-age and childhood, and they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Park Wan-seo's old-age novels on bioethics. To analyze this,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ncepts and logic of 'childhood', 'zōé', and 'bíos', the conceptual structure of identity, and the concept of hospitality. The old-age character in Park Wan-seo's old-age novels meets the face of a strange other in himself through the other called a child. In particular, they show the life reality of old age in a precocious situation before language by showing themselves unable to speak or in a state of babbling like infants. However, that old age has not completely entered the boundaries of natural life. Therefore, they are placed 'between' the boundary between 'bíos', the life of socio-political identity, and 'zōé', the life of natural life. This shows us an ironic ambivalence and turns out to be a narrative structure. In other words, at the beginning of the narrative, an old-age character shows the social status, face, and dignity that he has enjoyed in the past or present, and in the middle part, he experiences various practical difficulties and difficulties with other elderly people. Then, when he reaches the second half of the work, he eventually crosses the 'zōé's boundary and face the bare face of life. At that point, the truth of old age's zōé mixed with bíos generates an epiphany, thereby maximizing the irony of life, the vital irony of old age is maximized. At this time, old age character is willing to fit into his reality without vehemently rejecting or avoiding such a situation. Thus, the identity of old age is newly reconstructed and the boundaries of identity are actively expanded. The mechanism of hospitality activates that phenomenon. That hospitality is largely divided into hospitality for old age as the other and hospitality for oneself in old age subject. First of all, hospitality for old age as a other can be divided into two cases, one is when a narrator or character, not an elderly, looks at and shows hospitality to the elderly, and the other

is when the old age mutually shows hospitality each other. Finally, self-hospitality in old age character. Childhood, which promotes the dissolu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identity of old age, along with old age, become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Park Wan-seo's old-age novels, and makes us to pay attention to the ethics of life before the socio-political order.

Keyword Park Wan-seo, old age novel, life, *zōé*, *bíos*, old age, childhood, others, irony, identity, hospitality, ethics

말뭉치 기반 한국어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선정 및 교재 분석 연구*

진영하**

국문요약

본 연구는 말뭉치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을 선정하고, 마음 은유표현이 교재 말뭉치에서 제시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Laufer & Nation(2012)에서는 빈도, 유용성, 학습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교육용 어휘 선정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근거 삼아 t 점수를 빈도와 유용성 판정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 ‘마음 은유표현 공기어’ 등재 여부를 학습 가능성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39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어서 선정된 표현을 대상으로 geph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음’과 공기어의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하였으며, 기초 어휘 등급 구분을 근거하여 비교하였을 때 이들 공기어가 대부분 초급과 중급에서 배우는 기초 어휘임이 확인되었다. 교재 말뭉치에서의 마음 은유표현 제시 양상을 분석한 결과, 교재에서는 몇 개에 한정된 마음 은유표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제시된 표현들이 t 점수에 상응하는 빈도로 충분히 반복 제시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말뭉치, 은유표현, 마음, t 점수, 어휘 교육, 교재 분석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대상 및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23-R-049).

** 천진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

1. 서론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추상적인 개념 이해는 경험을 토대로 한 은유적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음’이라는 개념 이해도 은유적 확장을 통해 구체화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음은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의 개념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우리는 ‘마음에 들다’ 혹은 ‘마음을 놓다’에서처럼 마음을 공간이나 물건 등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에 비추어 이해한다. 일상 언어생활에서 감정이나 사고 활동을 표현할 경우가 많으므로 낱말 ‘마음’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고빈도¹⁾로 사용되고 낱말 ‘마음’으로 이루어진 마음 은유표현 역시 높은 빈도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마음 은유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어 화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은유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러나 은유표현은 의미의 불투명성과 관련되므로 목표어 국가의 사회 문화적 배경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목표어 노출 시간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는 각각의 의미의 합으로서 이해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무엇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한다는 뜻을 나타낼 경우, 한국어는 ‘마음을 먹다’라고 하여 ‘먹다’를 사용하여 마음을 음식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반면 영어는 ‘set one's mind on sth’라고 하여 대상인 마음을 구체화 할 때 사물로써 표현하여 어딘가에 놓거나 두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함축되어 있는 마음 은유표현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습득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마음 은유표현의 명시적 제시가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마음 은유표현을 교육하려면 교육용 표현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를 분석하여 ‘마음’ 관련 교육용 은유표현 목록을 추출하고자 한다. 말뭉치를 활용하는 것은 말뭉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출현

1) 필자가 재구성한 약 1051만 어절 규모를 갖춘 말뭉치에서 ‘마음’은 ‘말’, ‘때’, ‘사람’, ‘생각’ 등에 이어 열아홉 번째로 많이 출현한 명사이다.

빈도가 어떤 표현이 교육용 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뭉치를 통해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고찰할 수 있다는 것도 말뭉치 활용의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말뭉치에 출현하는 마음 관련 은유표현의 수는 아주 많을 것이며, 모든 은유표현을 한국어교육용 어휘 데이터베이스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용 은유표현 선정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Laufer & Nation(2012)²⁾에서 ‘빈도’, ‘유용성’, ‘학습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진영하(2022)³⁾에 따르면 t 점수가 빈도와 유용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t 점수를 빈도와 유용성 판정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⁴⁾에서의 ‘은유표현의 공기어’ 등재 여부를 학습 가능성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여 교육용 은유표현을 도출하고자 한다.⁵⁾ 아울러, 교재는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한국어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있어서 주요 언어 입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Laufer, B., & Nation, I. S. P., “Vocabulary” In S. M. Gass & A. Mack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Routledge, pp.163–175, 2012.

3) 진영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은유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4) 강현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 국립국어원, 2012. 강현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2013. 강현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3단계)』, 국립국어원, 2014.

5) 본 연구와 진영하(2022)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연구 대상이 다르다. 진영하(2022)에서는 교육용 시간 은유표현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선정 방법이 다소 다르다. 은유표현의 학습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본 연구와 달리 진영하(2022)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학습 가능성이 낮은 표현을 선정하게 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판정 방법은 다소 주관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의 ‘은유표현의 공기어’ 등재 여부를 학습 가능성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외에, 말뭉치 형태소 분석기의 채택에 있어 진영하(2022)에서는 ‘udpipe’ 형태소분석기 패키지를 이용하였는데 이 패키지는 분석된 형태소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는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KoNLPy 형태소 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진영하, 앞의 논문.)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 말뭉치에서의 마음 은유표현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을 선정하고, 교재 말뭉치에서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언어 연구는 언어 자료에 대한 연구이며 이 언어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연구자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직관적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한 실제적 자료, 즉 말뭉치이다.⁶⁾ 그러므로 언어 자료를 연구하는 언어 연구에는 연구자의 어감에 의한 내성적 방법론과 말뭉치 기반 방법론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⁷⁾ 마음 은유표현 연구는 대체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왔다.

마음 은유표현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자 직관에 의지하여 은유표현을 식별하는 내성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다. 내성적 방법론이란 주어진 은유가 어떤 현저한 예에 기초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은유 연구자가 직관으로 이해하는 하향식 방식을 말한다.⁸⁾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지인영(2005)⁹⁾, 웨이핑웨이(2012)¹⁰⁾ 등

6) 김용진, 『사회언어학적 코퍼스 분석의 실제』, 울린 책상, 2007, p.49.

7) 내성적 방법론과 말뭉치 기반 방법론의 채택은 근본적으로 문법을 결정적 문법(deterministic grammar)으로 보느냐 확률적 문법(probabilistic grammar)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결정적 문법관에서 언어를 정적인 규칙으로 보므로 언어 연구는 내성적 방법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확률적 문법관에서 언어를 규칙이 아닌 확률적 경향으로 보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는 데 통계적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McEnery, A. M., Xiao, R. Z., & Tono, Y.,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an advanced resource book*, New York: Routledge, 2006.)

8) B. 댄시거, 김동환·이승주 역, 『인지언어학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감엔퍼엠, 2019, p.731.

9) 지인영, 「마음 은유」,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5, pp.93-102.

10) 웨이핑웨이, 「공간 은유의 구조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어휘소 마음(心)을 중심으로」,

은 그 예이다. 내성적 방법은 은유표현의 의미 구성 원리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목록이 언어생활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¹⁾ 예컨대, 쉐이핑웨이(2012)¹²⁾에서 제시한 ‘마음이 깨지다, 마음이 높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에 붙다’ 등의 표현은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1051만 어절 말뭉치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실제 언어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은 표현이다.

언어 사용은 개인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화공동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자료인 말뭉치에 기반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말뭉치 기반 방법은 다시 용례 색인 방법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분석 방법으로 세분화된다. 용례 색인 방법은 통계적 기법 없이 말뭉치에서 주목할 만한 용례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이종열(2006)¹³⁾에서는 사전에 제시된 예문과 인터넷에서 검색된 게시판 자료 및 뉴스 보도 자료의 용례들을 분석하여 ‘마음’ 관련 은유표현 57개를 도출하였다. 송유나(2019)¹⁴⁾에서는 소설 텍스트, 한국어 교재, 사전, 선행연구에 제시된 용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마음’ 관련 은유표현 166개를 추출하였다. 용례 색인 방법은 말뭉치에서 주목할 만한 용례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여전히 연구자의 직관에 의지하고 그 결과가 재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대규모 말뭉치 분석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한국어 의미학』 37, 2012, pp.293-310.

- 11) Janda(2019)에서 인지언어학적 연구에서 계량적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성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떤 과학 연구에서든 내성적 방법과 관찰 방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즉, 내성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한다. 결과가 언어 이론과 언어 사실에 함의하는 바를 분석할 때 다시 내성의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Janda, Laura A., “Quantitative perspectives in Cognitive Linguistics”, *Special issue of Review of Cognitive Linguistics* 17(1), 2019, pp.7-28.)
- 12) 쉐이핑웨이, 앞의 논문.
- 13) 이종열,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20, 2006, pp.205-230.
- 14) 송유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마음’과 ‘가슴’의 의미 관계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데 관련 연구는 찾아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마음 은유표현 중에서 교육용 표현을 선별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t 점수라는 통계적 기법에 기반한 말뭉치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을 추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어 교재 말뭉치에서의 제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명사 ‘마음’이 들어간 은유표현을 특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예시(1)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 단체여행을 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나. 세상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다. 이 옷은 보기에 마음에 쏙 든다.

경험적으로 파악한 추상적 개념 영역을 구체적 개념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전략을 개념적 은유라고 한다. 개념적 은유의 하나로서 마음 은유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영역을 감각 가능하고 구체적인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하는 인지 기제이다. 그러나 은유 기제는 ‘마음’이라는 낱말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패턴에 따라 개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예문 (1가)에서처럼 마음 개념 영역에 대한 은유적 이해가 없는 ‘마음대로’와 같은 패턴에서는 은유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문 (1나) ‘마음을 먹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먹다’의 중심 의미가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로 제시되어 이는 마음을 음식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마음은 음식이다] 은유에 포함시키게 된다. 또한, (1다) ‘마음에 들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들다’의 중

심 의미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로 제시되어 이는 마음을 공간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마음은 공간이다] 은유에 포함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은유표현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2) 연구 방법 및 선정 기준

(1) 말뭉치 기반 접근법

어떤 은유표현이 교육용 은유표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일상 의사소통에서 빈번한 사용 여부이다. 말뭉치는 빈도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교육용 은유표현 목록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러한 필요성 외에 말뭉치는 여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다. 우선, 말뭉치의 실제 사용례의 분석을 통해 마음 은유표현 실제 사용의 파악이 가능해져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통해서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미처 파악할 수 없는 은유표현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공개된 ‘모두의 말뭉치¹⁵⁾’를 활용하여 구어와 문어 영역의 자료로 구성된 약 1051만 어절의 규모를 지닌 원시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그중에서 구어 말뭉치는 일상 대화 자료로 구성된 약 578만 어절의 자료이며 문어 말뭉치는 책-상상 장르¹⁶⁾로 구성된 약 472만 어절의 자료이다.

〈표 1〉 분석 대상인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

구분		어절 수	총 어절 수
구어	일상 대화	5,784,831	10,505,736
문어	책-상상	4,720,905	

15)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두의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2020년 8월 25일에 공개한 버전이다. 이 말뭉치는 ‘<https://corpus.korean.go.kr/#down>’를 통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16) 2020년 8월 25일에 공개된 ‘모두의 말뭉치’의 문어 말뭉치는 책-상상, 책-정보, 잡지, 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책-상상 장르 말뭉치에는 감정 활동 묘사가 비교적 많은 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어 마음 은유 분포가 비교적으로 많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책-상상 장르 말뭉치를 활용하여 문어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2)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은유표현 선정에는 t 점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t 점수의 통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언어의 특성상 중심어(‘마음’)와 공기어(예컨대 ‘떡다’)가 자주 공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텍스트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인 ‘떡다’가 ‘마음’과의 공기성과 관계없이 ‘마음’ 근처에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심어 근처에 나타나는 공기어의 빈도가 중요하지만 그 공기 빈도만으로는 공기 관계 강도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며, 그것이 기대보다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는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공기 강도를 확인하려면 중심어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단어들이 어떤 분포를 보일 것인가, 즉 기대 빈도를 예상한 뒤 절대적 빈도와 비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작위 분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중심어 A(‘마음’)와 공기어 B의 기대 빈도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B)는 전체 말뭉치에서의 연결어 B의 발생 빈도를, N은 전체 말뭉치의 어절 수를, N_A는 중심어 A 주변 일정 범위 내 어절 수를 말한다. 홍종선 외(2001)¹⁸⁾에서는 공기 관계를 어떤 단어의 좌우에 인접하는 두 개 어절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마음’ 좌우에 인접하는 두 개의 어절로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E = \frac{f(B)}{N} \times N_A$$

공기 빈도와 기대 빈도를 도출한 후에,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 빈도 분포가 유의미한 분포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해주는 척도가 필요한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바로 t 점수이다.

t 점수는 가설 검정 기법의 하나로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이 귀무가설이 공기 관계 구성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t 점수에서 설정되는 귀무가설은 마음 은유표현이 우연히 결합된 것으로 가정한다. 아

17)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p.115.

18) 홍종선·강범모·최호철, 『한국어 언어 관계 연구』, 월인, 2001.

래의 통계식에서 보이듯이 t 점수는 공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살피고 분산을 계산하여 귀무가설이 유지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공기 빈도가 기대 빈도보다 많이 나오면 공기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t 점수가 클수록 공기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t 분포표(student t-test)에 의하면 99%신뢰도($\alpha=0.005$)이고 무한의 자유도일 때의 확률값은 2.576이다. 이 신뢰도와 자유도에 따르면 t 점수가 2.576 이상인 단어들은 중심어와의 공기가 우연이라고 가정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그 공기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¹⁹⁾²⁰⁾

$$t = \frac{O - E}{\sqrt{O}}$$

이렇듯 t 점수는 공기 강도를 판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으로서 t 점수를 통해서 유의미한 공기관계에 있는 마음 은유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

Laufer & Nation(2012)²¹⁾에서는 교육용 어휘 선정의 기준으로 빈도, 유용성, 학습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기준인 빈도는 본고의 경우 ‘마음’과 공기어 간의 공기 빈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유용성이다. 유용성이 높은 표현은 공기 빈도가 높은 표현과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으나 빈도가 낮은 단어의 경우에도 유용한 단어가 될 수 있다.²²⁾ 저빈도 표현은 학습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³⁾ 본고에서의 경우, ‘마음’과 공기하는 절대적 빈도는 낮지만 다른 단어보다도 유독 ‘마음’과만 상대적으로 자주 공기하는 은유표현이 바로 유용성이 높은 은유표현라

19) 신효필, 「언어 자료의 통계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들」, 『Language Research』 41(3), 2005, p.665.

권혁승·정채관·김재훈, 『코퍼스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18, p.139.

20) t 점수는 공기 빈도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통계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병선, 『한국어 계량적 연구 방법론』, 역락, 2005, p.5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 빈도가 5회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공기 관계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1) Laufer, B., & Nation, I. S. P., 앞의 책.

22) 남신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용 어휘 선정의 새로운 방법」, 『제35차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21, p.136.

23) 남신혜, 앞의 논문, p.136.

하겠다. 예컨대 ‘마음을 가라앉히다’에서의 ‘가라앉히다’는 ‘마음’과 공기하는 빈도가 34로 공기 빈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라앉히다’는 천만 어절 넘는 말뭉치에서 928번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가라앉히다’는 ‘마음’과 공기하는 경향이 유독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을 가라앉히다’와 같이 공기 빈도가 낮지만 유독 ‘마음’과 자주 공기하는 경향을 보이는 은유표현이 바로 유용성이 높은 은유표현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에 의하면 ‘마음을 가라앉히다’는 5.83이라는 t 점수로 공기 강도가 높은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영하(2022)²⁴)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빈도와 유용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t 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t 점수의 합리성은 첫째, t 점수는 공기 빈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Durrant & Schmitt(2009)²⁵)에서는 t 점수와 공기 빈도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t 점수 순위가 공기 빈도에 기초한 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 점수는 유용성이 높은 표현에 중요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t 점수 계산 공식에서 보듯이 ‘마음’과 주로 공기하는 저빈도 공기어와 관련된 기대빈도도 아주 작기 때문에, t 점수는 이렇게 원래 빈도가 낮지만 ‘마음’과는 자주 공기하는 은유표현의 공기 강도를 높게 부여한다.

Laufer & Nation(2012)²⁶)에서 제안한 세 번째 기준인 학습 가능성은 난이도와 직결된다. 난이도가 높은 표현은 학습 가능성이 낮으므로 교육용 어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는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초·중·고급 한국어 교육 어휘 목록이 수록되었다. 만약에 t 점수를 통해서 얻은 공기어가 되는 낱말이 이 어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들 공기어가 고급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 은유표현 공기어 등재 여부를 학습 가능성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여 등재되지 않은 공기어로 이루어진 은유표현을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24) 진영하, 앞의 논문.

25) Durrant, P. & Schmitt, N., “To what extent do native and non-native writers make use of collocations”, *Applied Linguistics Language Teaching* 47, 2009, p.167.

26) Laufer, B., & Nation, I. S. P., 앞의 책.

(3) 선정 절차

본 연구에서는 우선 1051만 어절 규모를 지닌 원시 말뭉치를 재구성하였다. 말뭉치를 재구성한 후에 분석 단계에 들어간다. 분석 대상 말뭉치는 ‘JSON’ 파일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JSON 파일을 읽은 후에 ‘form’ 부분²⁷⁾을 추출하였다. KoNLPy 형태소 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여 JSON 파일의 ‘form’ 부분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t 점수 계산 함수를 만들어서 ‘마음이 좌측 네 어절, 우측 네 어절의 어간과의 공기강도를 구하였으며 t 점수 결과를 csv파일로 송출하였다.

t 점수가 2,576 이상일 때를 유의미한 공기 관계로 파악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공기어는 총 185개가 있다. 이들 공기어 중에서 ‘그런 마음, 제 마음’과 같이 ‘마음’과 높은 공기강도를 보이지만 은유표현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적 수단에 의해 도출된 공기어와 ‘마음’과의 결합이 다시 의미에 근거하여 은유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말지 판단해야 한다. 이 작업은 앞서 언급한 마음 은유표현의 판정 기준, 즉 다른 영역을 통해서 마음 영역을 이해하는 은유표현이라면 은유표현에 해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직접 판별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별된 마음 은유표현 중에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 근거하여 난이도가 높아 학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은유표현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목록을 선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선정 절차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선정 절차

절차	목적	세부 절차 및 활용 도구	
		1	빈도 및 유용성 판정
2	은유표현 여부 판별	도출된 공기어 중에서 은유표현인 것을 판별	연구자 수작업

27) ‘form’ 부분은 원문에서 공백이나 특수 기호 등을 제거하여 전처리한 형태이다.

3	학습 가능성 관정	난이도가 높아 학습 가능성이 낮은 은유표현을 제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	--------------	-----------------------------	----------------------

4. 연구 결과

1)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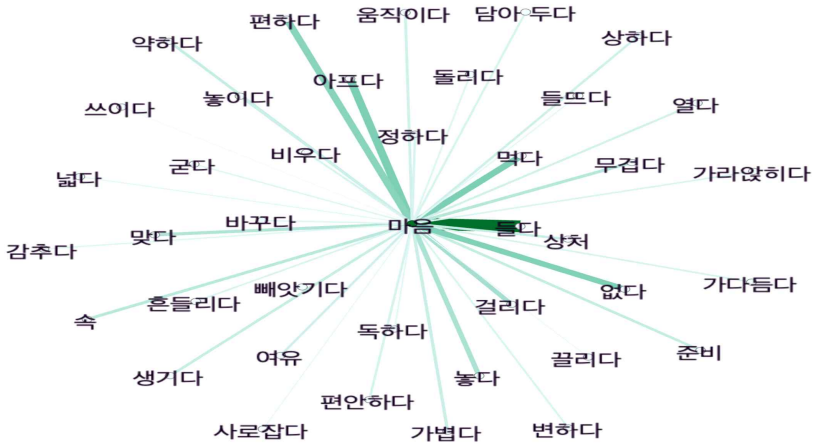
공기 강도가 2.576 이상인 공기어, 즉 유의미한 공기어는 총 185개가 나타났다. 이들 공기어 중에서 은유표현이 아닌 것을 제외한 후에 총 47개 은유표현을 추출하였다. 그중에서 ‘마음이 측은하다’, ‘마음이 울적하다’, ‘마음이 착잡하다’, ‘마음을 추스르다’, ‘마음을 헤아리다’, ‘마음의 한구석’, ‘마음을 다잡다’, ‘마음이 굴뚝같다’ 등 여덟 개의 표현에 쓰인 공기어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 수록되지 않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들 공기어로 이루어진 은유표현 여덟 개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은유표현을 교육용 은유표현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t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마음’ 관련 교육용 은유표현 선정 결과 및 t 점수

순위	표현	공기어	공기 빈도	전체 빈도	기대빈도	t 점수
1	마음에 들다	들/VV	1036	991464	0.75	32.16
2	마음이 아프다	아프/VA	243	39000	0.03	15.59
3	마음을 먹다	먹/VV	240	334040	0.25	15.48
4	마음이 없다	없/VV	230	520936	0.40	15.14
5	마음이 편하다	편하/VA	204	20728	0.02	14.28
6	마음에 걸리다	걸리/VV	126	31672	0.02	11.22
7	마음을 놓다	놓/VV	113	88880	0.07	10.62
8	마음에 맞다	맞/VV	99	181288	0.14	9.94
9	마음이 무겁다	무겁/VA	87	7864	0.01	9.33
10	마음 속	속/NNG	81	69232	0.05	8.99
11	마음의 준비	준비/NNG	63	22032	0.02	7.94
12	마음이 약하다	약하/VV	60	8976	0.01	7.75
13	마음의 상처	상처/NNG	60	12896	0.01	7.74
14	마음이 생기다	생기/VV	59	45152	0.03	7.68
15	마음이 가볍다	가볍/VA	54	13184	0.01	7.35
16	마음이 놓이다	놓이/VV	50	8328	0.01	7.07

17	마음이 상하다	상하/VV	47	5088	0.00	6.86
18	마음의 여유	여유/NNG	46	10960	0.01	6.78
19	마음을 열다	열/VV	45	59216	0.05	6.70
20	마음을 움직이다	움직이/VV	45	35872	0.03	6.70
21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함/VA	38	1808	0.00	6.16
22	마음을 가다듬다	가다듬/VV	37	1632	0.00	6.08
23	마음을 비우다	비우/VV	36	4096	0.00	6.00
24	마음을 정하다	정하/VV	36	12856	0.01	6.00
25	마음을 흔들리다	흔들리/VV	35	5568	0.00	5.92
26	마음에 담아두다	담아두/VV	35	15440	0.01	5.91
27	마음을 가라앉히다	가라앉히/VV	34	928	0.00	5.83
28	마음이 변하다	변하/VV	32	16024	0.01	5.65
29	마음이 굳다	굳/VV	29	9296	0.01	5.38
30	마음을 바꾸다	바꾸/VV	29	21560	0.02	5.38
31	마음을 감추다	감추/VV	28	5512	0.00	5.29
32	마음을 돌리다	돌리/VV	28	29128	0.02	5.29
33	마음이 독하다	독하/VA	24	1776	0.00	4.90
34	마음이 넓다	넓/VV	23	11984	0.01	4.79
35	마음을 들뜨다	들뜨/VV	22	1504	0.00	4.69
36	마음을 사로잡다	사로잡/VV	18	744	0.00	4.24
37	마음을 끌리다	끌리/VV	16	5064	0.00	4.00
38	마음이 쓰이다	쓰이/VV	15	5008	0.00	3.87
39	마음을 빼앗기다	빼앗기/VV	10	1664	0.00	3.16

‘마음’과 공기어들 간의 공기 관계 분석 결과를 시각 도구 Gephi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여기의 네트워크 구성은 공기 강도를 분석한 t 점수의 결과 값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에서 연결선의 길이와 굵기는 공기 강도를 반영하는데, 그 강도가 높을수록 연결선이 더 짧아지고 굵어진다. 예컨대, ‘들다, 먹다’ 등이 ‘빼앗기다, 감추다’보다 중심어인 ‘마음’의 가까이에 위치하고 그 연결선이 더 굵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음 은유표현의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공기 관계에 있는 마음 은유표현의 유형과 학습 중요도(빈도와 유용성)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므로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네트워크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 빈도와 t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4〉에서 보이듯이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 빈도와 공기 강도 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952, p=.000$). 앞서 언급한 t 점수가 공기 빈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 결과이다.

〈표 4〉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 빈도와 공기 강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화 편차	N	상관계수	유의확률
공기 빈도	90.08	165.24	39	.952	.000
t 점수	8.05	5.02	39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 수록된 기초 어휘 등급 구분에 따라 이들 공기어의 등급을 판정하였다. 공기어의 등급에 따라 마음 은유표현을 아래 〈표 5〉와 같이 등급화 하였다. 초급에 해당하는 표현은 스물세 개이고, 중급 어휘는 열세 개이며, 고급 어휘는 세 개가 있다. 즉, 마음 은유표현에 쓰인 공기어는 대부분 초·중급 단계에서 습득되는 기초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좀 더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어휘정보를 ‘마음에 걸리다’나 ‘마음을 먹다’ 등의 덩어리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표 5〉 기초 어휘 등급 구분에 따른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어 어휘 등급

등급	공기어	개수
초급	들/VV, 아프/VA, 먹/VV, 편하/VA, 걸리/VV, 놓/VV, 무겁/VA, 속/NNG, 준비/NNG, 약하/VV, 상처/NNG, 생기/VV, 가볍/VA, 움직이/VV,., 넓/VA, 편안한/VA, 정하/VV, 바꾸/VV, 돌리/VV, 맞/VV, 변하/VV, 없/VV, 열/VV	23
중급	놓이/VV, 상하/VV, 어유/NNG, 비우/VV, 흔들리/VV, 담아두/VV, 굳/VA, 감추/VV, 독하/VA, 사로잡/VV, 끌리/VV, 쓰이/VV, 빼앗기/VV	13
고급	가다듬/VV, 가라앉히/VV, 들뜨/VV	3

(2) 교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교재 말뭉치에서의 마음 은유표현 제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재 말뭉치는 진영하(2021)²⁸⁾에서 구축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네 가지를 선정한 다음에 각 교재의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시문, 학습 목표 등을 제외한 부분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총 325,039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였다.²⁹⁾ 교재 명칭 및 각 교재의 어절 수 정보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8) 진영하,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통한 한국어 시간 은유표현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3, 2021, pp.245-268.

29) 교재 분석 시에 선정되는 교재는 비교적 널리 사용된 교재이어야 하고 신뢰성이 높은 교재이어야 하며, 또한 선정 교재는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체계성을 가진 시리즈 교재이어야 한다(진영하·탕이잉,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24, 2020, pp.218-219).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재미있는 한국어』를 선정하게 되었다.

〈표 6〉 분석 대상 교재 및 교재 말뭉치 어절 수

교재명	『연세 한국어』1-1~6-2	『이화 한국어』1-1~6	『서울대 한국어』1A~6B	『재미있는 한국어』1~6
출판 연도	2013	2010-2012	2013-2015	2008-2010
기관명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어절 수	77,068	64,330	100,125	83,516
총 어절 수	325,039			

교재 말뭉치에서 제시된 ‘마음’ 관련 은유표현의 유형, 빈도 및 비중, 그리고 앞서 살펴본 모어 화자 말뭉치에 제시된 해당 마음 은유표현의 t 점수는 아래 〈표 7〉에 제시한다. 표에서 보이듯이 교재 말뭉치에서 총 72가지 210개의 마음 은유표현이 검색되었다. 유형 수가 많아 보이지만 빈도 1의 은유표현만이 52가지에 달하였다. 32만 어절 정도의 교재 말뭉치에서 한 번만 출현한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

〈표 7〉 교재 말뭉치에 제시된 마음 은유표현 및 빈도 정보

순위	표현	빈도	비중	t 점수
1	마음에 들다	87	41.43%	32.16
2	마음을 먹다	14	6.67%	15.48
3	마음이 따뜻하다	6	2.86%	--
4	마음이 편하다	6	2.86%	14.28
5	마음에 맞다	5	2.38%	9.94
6	마음을 놓다	4	1.90%	10.62
7	마음을 바꾸다	4	1.90%	5.38
8	마음이 없다	4	1.90%	15.14
9	마음을 가지다	3	1.43%	--
10	마음이 넓다	3	1.43%	4.79
11	마음에 두다	3	1.43%	5.91
12	마음을 열다	3	1.43%	6.70
13	마음을 끌리다	2	0.95%	4.00
14	마음이 변하다	2	0.95%	5.65
15	마음이 사라지다	2	0.95%	--
16	마음이 생기다	2	0.95%	7.68
17	마음을 쓰다	2	0.95%	3.87
18	마음이 약하다	2	0.95%	7.75

19	마음의 여유	2	0.95%	6.78
20	마음을 주다	2	0.95%	--
21	기타(52가지가 한 번 출현)	52	24.76%	--
합계		210	100.00%	

그리고 빈도 정보를 보면 ‘마음에 들다’라는 표현 하나가 87번으로 출현하여 교재 전체 학습 내용에서 제시된 마음 은유표현의 41.43%를 차지한다. ‘마음에 들다’와 그 뒤를 이은 ‘마음을 먹다(6.67%)’, ‘마음이 따뜻하다(2.86%)’, ‘마음이 편하다(2.86%)’로 구성된 상위 4위 표현의 누적 비율이 이미 50%를 넘었는데 이를 통해서 교재에서 몇 개의 마음 은유표현에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t 점수는 빈도와 유용성을 반영하므로 마음 은유표현에 학습 중요성³⁰⁾을 부여한다. ‘마음’ 관련 은유표현이 중요한 만큼 교재를 개발할 때 t 점수에 의한 목록의 선별이 중요하다. 교재 말뭉치에 제시된 마음 은유표현의 빈도가 t 점수를 반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마음 은유표현의 출현 빈도와 모어 화자 말뭉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각 은유표현의 t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교재 말뭉치에서의 마음 은유표현 출현 빈도와 t 점수의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화 편차	N	상관계수	유의확률
빈도	7.9	18.34	20 ³¹⁾	0.443	0.232
t 점수	7.06	10.04	20		

앞서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에서 마음 은유표현의 공기 빈도와 t 점수 간에는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r=.952$,

30) 마음 은유표현의 학습 중요성이 높은 표현은 교수학습 가치가 높은 표현이다. t 점수는 빈도를 반영하는 동시에 유용성도 반영하므로 마음 은유표현의 학습 중요성과 연결된다.

31) 본 연구에서는 교재 말뭉치에서 두 번 이상으로 출현한 은유표현 20개에 대해서만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p=.000$), 그러나 교재 말뭉치에서 각 마음 은유표현의 출현 빈도와 t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443$, $p=.232$). 즉, 교재에서 각 마음 은유표현이 제시되는 빈도는 그 t 점수에 대해 낮은 예측력을 지니며, 이는 한국어 마음 은유표현에 학습자들이 노출된 횟수로 마음 은유표현의 학습 중요성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t 점수와 빈도 수준 간의 불일치로 인해 높은 t 점수를 지닌 마음 은유표현들이 이에 상응하는 빈도로 충분히 반복 제시되지 못해 마음 은유표현에 대한 학습 효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재에서 마음 은유표현을 t 점수에 상응하는 빈도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말뭉치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을 선정하고, 마음 은유표현이 교재에서 제시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ufer & Nation(2012)³²⁾에서 제시된 교육용 어휘 선정의 기준을 근거로 삼아 t 점수를 빈도와 유용성 판정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 ‘마음 은유표현 공기어’ 등재 여부를 학습 가능성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교육용 마음 은유표현 39개를 선정하게 되었다. 선정된 표현을 대상으로 ‘마음’과 공기어의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하였으며, 기초 어휘 등급 구분을 근거하여 비교하였을 때 이들 공기어가 대부분 초급과 중급에서 배우는 기초 어휘임이 확인되었다. 교재에서의 마음 은유표현 제시 양상을 분석한 결과, 교재에서는 몇 개에 한정된 마음 은유표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제시된 표현들이 t 점수에 상응하는 빈도로 충분히 반복 제시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은유표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문식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마음’ 관련 교육용 은

32) Laufer, B., & Nation, I. S. P., 앞의 책.

유표현 목록은 교재 개발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 아울러, 은유표현의 결합이 논리적이 아니라 문화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확보한 은유표현 목록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징에 주목하여 한국 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도출된 은유표현 목록에 나타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 간의 사상 관계를 분석하여 은유 의미 구성 원리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앞으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강현화 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1단계)』, 국립국어원, 2012.
 _____,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2013.
 _____,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 (3단계)』, 국립국어원, 2014.
 권혁승·정채관·김재훈, 『코퍼스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18.
 김용진, 『사회언어학적 코퍼스 분석의 실제』, 울린 책상, 2007.
 박병선, 『한국어 계량적 연구 방법론』, 역락, 2005.
 홍중선·강범모·최호철, 『한국어 연어 관계 연구』, 월인, 2001.
 B. 댄시거, 김동환·이승주 역, 『인지언어학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감엔피엠, 2019.
 Laufer, B., & Nation, I. S. P., Vocabulary In S. M. Gass & A. Mack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utledge, 2012.
 McEney, A. M. , Xiao, R. Z., & Tono, Y.,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 an advanced resource book*, New York: Routledge, 2006.

2. 논문

- 남신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용 어휘 선정의 새로운 방법」, 『제35차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21, pp.129-137.
 송유나,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마음’과 ‘가슴’의 의미 관계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신호필, 「언어 자료의 통계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들」, 『Language Research』

- 4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5, pp.655-682.
- 이종열,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205-230.
- 지인영, 「마음 은유」,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05, pp.93-102.
- 진영하, 「학습자 말뭉치 분석을 통한 한국어 시간 은유표현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3,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1, pp.245-268.
- _____,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 은유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_____. 탕이잉, 「중국의 한국어 듣기 교재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24, 한국국어교육학회, 2020, pp.213-255.
- 웨이평웨이, 「공간 은유의 구조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어휘소 마음(心)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7, 한국어의미학회, 2012, pp.293-310.
- Durrant, P. & Schmitt, N., “To what extent do native and non-native writers make use of collocations”, *Applied Linguistics Language Teaching* 47, 2009, pp.157-177.
- Janda, Laura A., “Quantitative perspectives in Cognitive Linguistics”, *Special issue of Review of Cognitive Linguistics* 17(1), 2019, pp.7-28.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7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3월 2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corpus based study on the selection of metaphorical expression about mind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nalysis of Textbooks

Chen, Yongxia

This study aimed to select educational mind metaphorical expressions using a corpus approach and to examine the presentation in the textbook. Laufer and Nation (2012) proposed three criteria for selecting educational vocabulary: frequency, usefulness, and learnability. 39 educational mind metaphorical expressions were selected by using the t-score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frequency and usefulness, and whether or not the air words of metaphor expression were registered in 『Korean Education Vocabulary Content Development』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learnability. Subsequently, the network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Co-occurrence words was visualized using a gephi program for the selected expressions, and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Co-occurrence words are basic vocabulary learned in beginner and intermediate levels based on the basic vocabulary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sentation of mind metaphorical expression in the textbook, it was confirmed that several mind metaphorical expressions were presented intensively in the textbook, and the presented expressions were not sufficiently repeated with a frequency corresponding to the t score.

Keyword Corpus, Metaphorical collocation, Mind, T-score, Vocabulary education, Textbook-analysis

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해석의 개념과 목적을 중심으로-

정정순**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개념 및 해석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해석 교육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문학 영역에서의 해석 활동 관련 성취기준을 먼저 살펴본 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성취기준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검토 및 교과서 분석 결과 현재 해석 교육의 내용은 해석의 방법 및 해석의 타당성 조건 등 해석의 수행과 관련한 메타적이고 방법적인 지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문학 경험으로 귀결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개념 및 목적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문학교육에서 해석은 그 대상이 문학 텍스트라는 점에서 해석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닌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을, 문학적 관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목적으로서의 온전한 이해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전유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에서 해석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지식으로서의 문학 이론이 개념적 지식 자체로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 활동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석의 도달점으로서의 '이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

주제어 문학교육, 해석, 문학 해석 교육, 해석 교육 내용, 해석의 개념, 해석의 목적

* 이 연구는 202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목차〉

1. 문제 제기
2. 문학 교육과정에서의 해석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
3.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개념과 목적
4. 결론

1. 문제 제기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해석’은 수행의 층위에서 문학교육의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문학 읽기 활동의 핵심적인 과정인 해석은 문학교육학의 학문적 정립 단계에서부터 줄곧 문학교육담론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문학 이론을 해석의 방법론으로 적용하면서 문학 해석 교육의 내용을 제안한 연구들¹⁾에서부터 해석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모색한 논의²⁾를 포함하여, 해석의 정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³⁾,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을 둘러싼 메타담론을 고찰한 논의⁴⁾도 있었다. 해석 텍스트⁵⁾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학습

-
- 1) 김창원(1994)과 최미숙(1993)의 논의를 대표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김창원, 「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부재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 2)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5호, 국어국문학회, 2003.
 - 3) 정재찬, 「시교육과 시해석-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이명찬, 「한국 근대시 정전과 문학교육-정전인가 해석의 정전성인가」,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8.
정원술·김상희, 「시 해석에서 문학연구와 문학교육의 결합-고등학교 1학년의 이육사 「절정」 ‘강철로 된 무지개’ 해석 실험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3, 2014.
 - 4) 최미숙,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고정희, 「텍스트 중심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읽기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자 중심의 해석 교육의 내용을 제안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학문적 축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 장면에서의 해석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즉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⁶⁾ 일반적으로 문학교육을 논의할 때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별도의 연구 주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문학 읽기 교육에서 해석 또한 그 개념이나 성격 자체가 핵심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석 활동’을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정의⁷⁾한 논의가 있으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용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귀납적으로 해당 개념을 정리한 것이어서 해석 교육과 관련된 문학교육적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과 관련한 본격적인 탐색은 해석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해석의 원리를 제안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 경우 해석은 이해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이해의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 혹은 방법으로 이해의 기술(art of understanding)⁸⁾로 정의된다. 이 정의는 해석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동시에 해석이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술이라는 점도 같이 강조하고

5) 양정실(2006)에서 해석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에 대하여 중층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해석의 관점과 논리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정의되어 있다. 참고로 해석 텍스트가 비평적 에세이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도 있는 데다 ‘비평’ 활동 또한 문학교육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문학교육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p.13-14.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6) 김정우(2002)에서도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15, 국어교육학회, 2002.

7) 김정우, 위의 논문, p.10.

8) 김정우,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20.

있다. 시 해석 교육 내용으로 ‘텍스트 의미 실현 전략’과 ‘수용가능성 획득 전략’이 제안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도달점으로서의 ‘이해’와, 방법으로서의 ‘기술’에 초점이 놓인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해석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문학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해석의 모델 혹은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여전히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해석 관련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취기준 설정 이유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⁹⁾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기능주의적 함의를 내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제 교실 장면에서는 문학 작품이 아닌 해석 활동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초점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학 경험으로 수렴되지 않는 해석 활동은 읽기 영역에서의 기능 수업이 읽기 지문을 수단화하듯이 문학 제재 자체를 수단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문학 수업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 문학교육 내용으로 해석하기 활동이 다루어지는 문학 수업의 경우 해석의 방법으로 작가 중심의 읽기, 생산 맥락 중심의 읽기, 작품 중심의 읽기, 독자 중심의 읽기가 방법론적 지식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해석 대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보다 해석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해석 방법이 주된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화되는 것으로, 문학교육의 출발점이라 할 문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현재 문학교육에서 해석하기라는 수행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분석적으로 살펴본 후, 해석의 개념과 목적 차원에서 해석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모색해 보고자 한다.

9)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22, p.55.

2. 문학 교육과정에서의 해석 관련 성취기준과 교과서 내용

먼저 해석하기 활동 자체를 문학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성취기준 및 교과서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석하기 활동이 성취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성취기준의 수와 진술 방식은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중학교 문학 영역에서의 해석하기 관련 성취기준들을 교육과정별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제7차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2007 개정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다. ○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에 유의하여 비평문을 읽는다.
2011 개정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2015 개정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2022 개정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해석 관련 성취기준 수가 늘기는 하였으나, 실제 3개의 성취기준에서 다루지는 내용이 다른 교육과정기의 성취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내용 성취기준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였지만, 이 성취기준들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다양한 시각(관점)과 방법으로 작품 해석하기’, ‘근거에 유의하여 다양한 해석 비교하기’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문학 영역에서 다뤄진 해석 교육의 내용은 ‘해석의 다양성’과 ‘해석의 근거’에 강조점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 독자의 능동적 해석 활동을 장려하되, 해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해석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라 할 ‘해석의 다양성’ 문제와 ‘해석에 대한 근거’ 제시라는 내용 요소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으로 반영되어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성취기준이 반영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 교과서는 중등 국어교육 현장에서 채택률이 높은 4종의 교과서로, 해당 성취기준은 중학교 3학년에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별로 선택 제재, 해석의 다양성 관련 내용, 해석의 근거 관련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천재 교과서 (노미숙 외)	천재 교과서 (박영목 외)	미래엔	비상
선택 제재	- 이육사, 청포도 - 이상희, 비가 오면 - 토끼전(선택학습)	- 이육사, 청포도 - 윤동주, 새로운 길	- 신동엽, 봄은	- 이성부, 봄 - 알퐁스 도테,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해석 의 다 양 성 관 련 내용	- ‘청포도’에 대한 해석 텍스트 제시(객 관론, 생산론, 수용 론)하고 해석 비교하 기	‘- 청포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반영론, 생산론, 객관론에 근 거한 학생 해석) 비 교하고, 근거 파악하 기	- 학생의 서로 다른 두 해석 제시 후 근 거를 들어 자신이 해 석해 보기 - 작가, 현실, 독자, 작품 중심의 해석 방 법 안내 후 비평문 (김홍규, 현실 중심 해석) 제시	- ‘봄’의 함축적 의 미(다양한 의미) - 학생 비평문 제시: 해석의 4가지 방법 (생산, 반영, 객관, 수용) - 4가지 방법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소설 해석해 보기
해 석 의 근 거 관 련 내용	- ‘청포도’에 대한 앞의 해석 참고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나의 해석 적어 보기 - ‘비가 오면’을 주 체적 관점에서 적절 한 근거를 들어 해석 해 보기	- ‘새로운 길’에서 ‘길’의 의미를 적절 한 근거 들어 해석해 보기	- 근거를 들어 자신 의 관점으로 해석한 후 근거가 타당한지 친구들과 비교해 보 기	- ‘봄’에 대하여 다 양한 의미로 해석한 근거

일반적으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을 세심하게 반영하여 내용을 집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성취기준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성취기준의 경우 해설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작품에 대한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같은 작품에 대한 여러 해석을 비교하고, 해석의 전제와 근거의 타당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이나 학습자의 해석 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고 평가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한다.¹⁰⁾

위의 진술에서 추출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해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 ②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 ③ 해석의 적절성은 해석의 전제와 근거의 타당성을 통해 파악한다.


①, ②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해석 방법’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해석과 평가’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해석 방법의 측면을 먼저 살펴보자. 여기서 해석의 방법은 기존 문학교육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제안된 해석의 절차적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의 관점 4가지를 가리킨다. 작가 중심의 해석 방법, 현실 중심의 해석 방법, 작품 중심의 해석 방법,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이 그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4종의 교과서 내용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해석 방법’ 층위에서의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이 ‘독자의 인식 수준,

10) 교육부 고시 제2015-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p.55.

관심,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진술과 중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¹¹⁾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난다. 문학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독자의 인식 수준, 독자의 경험, 독자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문학 작품 해석의 다양한 방법으로 작가, 현실, 독자, 작품 등에 주목하여 해석하기가 제시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교과서 내용에 따르면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상은 변별되지 않는 내용을 두 층위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해석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변인이 독자에게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결과이겠지만, 해석 방법의 층위에서 독자 중심의 읽기가 4가지 해석 방법 중의 하나로 다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자 변인에 대한 강조가 일반적으로 해석의 층위보다 감상이나 반응의 층위와 더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 열기 활동¹²⁾이기는 하지만,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 성취기준을 다루는 단원에서 해석이라는 용어 대신 '반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¹³⁾

 같은 노래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 서로 다른 까닭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1) 신유식 외, 『국어 3-1』, 미래엔, 2020, p.52.
- 12) 김진수 외, 『국어 3-1』, 비상, 2020, p.11.
- 13) 부수적으로는 이때 반응의 내용으로 제시된 세 학생들의 노래에 대한 수용 양상이 해석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작품 속의 내용적·형식적 근거나 작품 밖의 맥락적 근거 등을 토대로 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중첩의 문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①, ②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검토할 부분인 ‘해석과 평가’라는 용어의 문제는 이 성취기준에서 다루는 교육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실제 교과서 활동에서도 해석과 평가라는 활동이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해석은 시에, 평가는 소설 등 서사에 주로 적용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알폰스 도데의 <코로나유 영감의 비밀>이라는 소설을 제재로, 주인공 코로나유 영감의 행동을 ‘평가’해 보자거나 코로나유 영감이 마을 사람들을 속인 행동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평가해 보자는 활동¹⁵⁾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영화를 보고 난 뒤 친구와 ‘평가’가 달랐던 경험을 떠올리게¹⁶⁾ 하거나, 선택학습에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 <토끼전> 속 인물 평가하기¹⁷⁾를 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시에서는 함축적 시어 중심으로 해석의 다양성을 구현한다면, 소설에서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 전체에 대한 주제 해석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해석과 평가라는 술어의 혼용은 해당 성취기준의 교육 내용이 ‘비평가’라는 수행 활동과 중복되어 있다는 점¹⁸⁾을 알 수 있게 하지만, 한편으로 문학교육에서의 ‘해석하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취기준 진술에서는 해석과 감상이 함께 제시되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해석과 평가가

14)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앞의 책, p.55.

참고로 해석 과정에서 조회되는 맥락적 근거는 생산론적 맥락, 반영론적 맥락이다. 최미숙 외, 『문학교육론』, 사회평론, 2023, 4장 참조.

15) 김진수 외, 앞의 책, p.26.

16) 노미숙 외, 『국어 3-2』, 천재교육, 2020, p.14.

17) 노미숙 외, 위의 책, pp.60-67.

18) 참고로 이는 최미숙 외, 『문학교육론』의 5장 비평가기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해당 성취기준이 의도하는 교육 내용이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석’이라는 개념어 아래 서로 다른 문학 독서 수행의 과정들이 구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석, 반응, 감상, 평가라는 용어가 해석하기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성취기준 및 교과서 활동에서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③과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해석의 타당성과 해석의 근거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는 방식이다. 타당성은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근거에 대한 요구를 전제한다. 해석의 다양성은 해석학적 상대주의를 지향하지만, 해석의 타당성은 해석학적 보편주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해석이 교실에서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상대주의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해석에 대한 근거 제시가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의 근거와 관련된 활동은 앞서 언급했던 해석의 방법 층위에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의 표현을 중심으로’¹⁹⁾ 적절한 근거를 들어보게 한다든지, 작품 속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해석 방법’ 차원에서 이미 포괄하여 다뤄진 교육 내용이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다루어지는 타당성 조건으로서의 근거로 초점화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성취기준 차원에서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품을 반복적으로 읽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깊이 사고하여 자신의 사유 과정을 조정²⁰⁾해가게 하는 해석 과정이자 그 결과로서의 문학 경험이다.

해석에 대한 근거의 타당성을 학습하게 하는 과정에서 ‘비교하기’ 활동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²¹⁾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작품에 대한 해석 활동 수행 후, 자신

19) 노미숙 외, 앞의 책, p.21.

20) 김현수, 「현대시 정전의 교육내용에 관한 고찰:〈님의 침묵〉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p.183.

의 해석을 다른 해석과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평가’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자신의 해석에 대한 평가이므로 이는 메타인지적 성격을 지닌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의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이란 다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해석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²²⁾한다는 지적과, 문학 읽기 교육에서 비교하기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문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²³⁾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해석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나아가갈 필요가 있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해석하기라는 문학교육 내용과 관련된 성취기준 및 교과서 내용들을 분석, 검토하였을 때 감상이나 비평과는 구별되는 ‘해석하기’에 초점화된 교육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해석의 방법에 대한 이해나 해석 결과의 비교 등으로 수렴되는 교육 내용이 지닌 메타적 성격의 지식이 실제 문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개념 및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독자의 능동성과 주체성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실현되는 해석 행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러한 해석 행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3.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개념과 목적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문학교육에서 해석 활동 자체가 아닌 문학이 목적이라는

21)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앞의 책, p.54.

22) 이인화, 「서사 텍스트 해석의 소통 교육 연구 : 이문열의 「선택」에 대한 문학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국어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2012, 21면

23) 이인화, 「문학교육에서 수용 계열 개념어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76, 2022, pp.309-310. 비교라는 용어를 수용계열 교육과정 용어들 중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 합의도도 높게 나타났다.

전제에 동의할 때 해석의 개념을 문학 텍스트라는 해석 대상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해석의 도달점으로서의 ‘이해’의 성격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시간적이고 비역사적이며 정태적인 파악으로서의 이해가 아닌, 역동적인 경험으로서의 이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형태로 해석 교육이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문학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수용’과 관련된 개념어들로 이해, 감상, 해석, 비평 등의 용어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때 해석은 ‘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는 활동’으로 탐구, 추론, 분석 등의 개념어와 연계되어 있다.²⁴⁾ 이는 해석이, 정의적 영역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감상이나 내면화 등과는 다른, 인지적 영역의 사고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문학교육에서 인지적 영역 중심의 활동으로 해석 활동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해당 성취기준에서 더 명료해졌다. 문학 성취기준으로 진술된 해석 관련 내용은 문학 이론 및 해석의 타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교실에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수업이 개념적 지식 중심의 분석주의적 접근으로 귀결될 가능성, 작품 자체가 아닌 해석 활동 자체에 대한 메타적 지식 차원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해석 활동이 인지적 영역 중심의 수용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주어진 문학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귀결되는 깊이 있는 읽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 교육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해석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석이라는 과정적 활동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문학 텍스트의 ‘의미’라는 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의 도달점 즉 해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24) 이인화, 위의 논문, p.323.

1) 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개념의 재설정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해석의 대상이 문학 텍스트라는 점이다.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우선적으로 문학교육론 일반에서 참조하는 해석학자들의 논의가 해석의 대상을 문학 텍스트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해 둘 필요가 있어서이다.²⁵⁾ 동시에 문학교육 관련 연구에서도 해석의 개념을 문학에 대한 해석으로 초점화하기보다, ‘해석’이라는 인지적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인 보편적인 층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경향도 있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 해석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확인은 실제 해석 교육 제재로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

실제 해석학에서 텍스트라는 개념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텍스트로 보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자체도 텍스트로 간주한다. 리코르가 서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역사와 행위 전반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간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해석학자들의 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 및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직결되어 있다.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하기라는 행위에 접근할 때 해석학자들의 논의가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리코르는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25) 주지하다시피 18세기까지 해석학은 텍스트 해석의 기예론으로 존재하였으며, 신학이나 법학, 문헌학 등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학문들의 규범적 보조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 19세기 이후 딜타이의 해석학은 인문·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 탐색되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하이데거, 가다머, 리코르 등을 통해 세계 경험의 방식으로서의 보편적 해석 행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해석학자들 중 문자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해석의 문제에 집중한 해석학자는 딜타이, 리코르이다. 딜타이는 문자적으로 표명된 ‘삶’의 표현을 둘러싼 해석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리코르와 다르며,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해석학자는 리코르이다.

물음 앞에서 구조주의와 기호론의 도움을 받는다. 구조주의적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을 경유하여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⁶⁾ 여기서 구조주의적 분석을 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텍스트가 텍스트 자체의 문법을 지니고 있는 언어 텍스트, 즉 문학 텍스트이다. 개별적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문법은 문학적 관습이나 약호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석이 진행될 수 있다. 즉 해석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인 약호 체계(장르 문법)²⁷⁾를 지닌 언어 구조물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학 텍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즉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자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족적인 의미 구축의 질서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학은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더 정확하게 혹은 더 풍부하게 말하는 의도적인 빈틈 혹은 여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양상으로도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는 독자의 독서 행위에 의해 그 의미가 구축되고 실행되는 잠재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문학교육에서 해석하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 관습에 의해 약호화된 언어 구조물로서, 독자의 해석 행위를 통해 의미 축적이 이루어지는 의미 객관화의 한 형식²⁸⁾이다. 따라서 문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해석 활동은 이러한 문학 텍스트의 특성 및 읽기 과정에서의 의미 축적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은 문학적 관습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능동적으

26) 리코르는 특히 그레마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해석학의 새로운 시대는 구조주의적 분석을 통해 열린다. 이제 설명은 이해로 가는 의무의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Ricoeur, 박병수·남기영 공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1986, p.110) 참고로 리코르 이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학자 중 한 명인 가다머는 구조주의적 해석들을 거의 참조하지 않았다.

27) 이는 시학(poetics)과 맞닿아 있다. 문학적 의미 또는 효과가 어떻게 해서 구현되고 실현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학이라면, 문학이 우리 삶의 조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해석학이라 할 수 있다. 시학은 따라서 문학적 관습(literary conventions)에 주목한다. 이는 신비평 및 형식구조론적 접근과 관련되어 있다.

28) Grondin, J., 최성환 역, 『현대해석학의 지평』, 동녘, 2019, p.148.

로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을 온전히 이해²⁹⁾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환기해야 할 사실은 문학 텍스트가 ‘인식’과 ‘파악’의 대상이 아닌, 해석이라는 행위를 통해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이해’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하나는 해석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지식으로서의 문학 이론은 문학 이론 자체로 다루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 활동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해석의 도달점으로서의 ‘이해’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문학교육에서 해석 활동은 문학적인 약호 체계에 해당하는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학교육에서는 문학적 약호 체계에 해당하는 문학 이론을 해석하기 활동과 분리하여 성취기준으로 다룬다. 예컨대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³⁰⁾나 “운율, 비유, 상징의 특성과 효과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³¹⁾라는 성취기준은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문학교육 내용이 아니다. 이들 성취기준은 예컨대 비유의 경우 비유의 특성과 효과 자체가 주된 교육 내용이 되는 것으로, 문학작품 자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문학 수업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 이론적 개념이나 지식을 문학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는 방식³²⁾과 관련하여서는 문학 중심주의에 갇히지 않도록 하

29) 이때 문학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작품 해석을 통해 다시 만들어진 현실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의 목적을 논하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0) 교육부 고시 제2015-33호, 앞의 책, p.53.

31)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앞의 책, p. 54.

32) 이러한 속성 중심의 문학교육적 접근이 문학의 범주에 대한 포괄적이고 융통성 있는 관점을 취한다고 볼 때 문학 능력의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적지 않다. 문학교육의 내용적 위계가 ‘활동→속성→실체’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속성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유의미하고도 심도 있는 문학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문학의 속성 중심의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문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되, 이론적 지식의 이해와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학 경험에 귀결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을 고려하는 등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하겠지만, 해석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비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전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 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석 교육을 위한 대상으로서의 문학 텍스트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이해의 경험이 보편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이어야 할 것이다. 가령 문학 수업에서 해석하기를 다룬다고 할 때 우리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낮은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해석 교육의 대상이 되는 문학 텍스트는 과정으로서의 해석을 위한 연습용 제재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문학 읽기 교육에서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온 문학 텍스트들은 대체적으로 문학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실체 중심의 문학관에 바탕을 둔 정전 텍스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³³⁾ 해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닌, 해석의 결과로서 도착하게 되는 지점이 유의미한 교육 경험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해석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선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전제이다.

해석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제재는 여러 문학사가들 및 문학연구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정교화된 해석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의미의 확장성과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정전의 해체에 맞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전을 옹호한 해럴드 블룸(H. Bloom)이, 문학을 읽고 가르칠 때 오직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한 점은 이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적인 반짝임, 지적인 힘, 그리고 지혜가 그것으로써 이는 읽어야 할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미적 기준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³⁴⁾ 문학교육에서의 해석교육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위상은, 미적 가치를 지닌 언어의 전범으로서의 정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 앞서 밝힌 선행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해석의 대상이 된 작품들은 시로는 이육사의 「절정」, 「청포도」, 「광야」와 정지용의 「향수」 등이, 소설로는 채만식의 「소망」, 이상의 「날개」 등이 있었다.

34) Harold Bloom, *The Western Can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94 참조.

2) 문학교육에서의 해석의 목적으로서의 이해

문학 읽기의 핵심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을 경우 해석의 목적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 언급한 바 있다.³⁵⁾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최종적인 도달점으로서의 온전한 이해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전유이다. 텍스트를 독자 중심으로 끌어당겨 자기화하는 전유가 아니라, 텍스트의 지배적인 요구에 따라 스스로 전유되는 것이 온전한 이해이다. 해석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가 해석자를 사로잡는 것이다.³⁶⁾

해석 교육이라는 문학교육적 기획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의미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정향된 형이상학적 방향 설정을 내포한다. 즉 언어로 기호화된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의해 공유 가능한 특정 의미들 혹은 경우에 따라서 최종적 의미³⁷⁾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이는 리콰르가 그의 해석학에서 추구한 ‘의미 회수’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보편적인 해석학적 견해라 할 수 있다.

해석학에 있어서 해석의 방법론적 접근과 존재론적 접근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리콰르가 그 이론적 전락 차원에서 프레게(Frege)의 지시체와 의미의 구별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미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들의 진리 조건으로 지시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리콰르의 해석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프레임에서 의미를 바라보는 문학교

35) 참고로 스테커(Stecker)는 해석의 목적에 따라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컨대 작가의 의도를 포함한 작품의 역사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 감상의 증진이 주목적인 해석, 특정 감상자들에게 적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석, 작품을 재창조하기 위한 목적의 해석 등이 그것이다. 해석의 목적을 문학교육적 관점에서 재구조화하여 이해하자면, 문학 해석을 통하여 해당 작품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 해당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작품을 재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고 본다. R. Stecker, *ART WORKS : Definition, Meaning, Value*, The Pennsylvania Univ., 1997, p.115.

36) Palmer, R.,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357.

37) 이때의 최종적 의미가 해석 일원론적인 고정적이고 확정된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육적 관점에서든 중요한 이론적 입각점이 될 수 있다. 리코르에게 있어서 지시체는 텍스트가 언어로 열여 보인 세계이다.³⁸⁾ 텍스트는 내재적인 의미 차원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지시체의 차원을 지닌다. 그것은 저자가 의미를 실제화하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 사건이나 심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시공간에 있는 다른 독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재확인할 수 있는 이념적인 대상³⁹⁾이다.

일반적으로 전유를 독자라는 주체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리코르가 제시한 전유 개념은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가 온전히, 제대로 독자에 의해 장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다. 즉 전유는 해석자의 주관에 의해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해석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배제한, 텍스트에 의해 구현된 의미의 온전한 실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코르가 지시체의 예로 드는 후설적인 ‘삶의 세계’나 하이데거적인 ‘세계 내 존재’는,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를 경유하여서만 독자에게 열리는 것이며, 리코르가 강조한 자기 이해 또한 이러한 텍스트의 의미에 의해 독자가 전유될 때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의미는 텍스트에 근거하여 독자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현실로서, 다른 시공간에 놓인 독자들이 동일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시체이다. 독자는 해석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텍스트의 의미를 실제화하며 전유한다. 그러므로 해석은 작품에 충실한 깊이 읽기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의 ‘의미’를 언명하고자 하는 진술이다.

해석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의미는 텍스트 뒤에 감추어져 있다고 여겨지는 작가의 의도 혹은 작가와 작품 생산 당시의 독자들에게 공통적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이나 맥락이 아니다. 당대 독자들에게 불러일으켜진 감정이나 감동, 혹은 그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 자체의 의미, 즉

38) P. Ricoeur,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tiation”, in Edited and Translated by J.B. Thompso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Cambridge U.P., 1981(Cambridge Philosophy Classics Edition 2016), p.103.

39) Ricoeur, P., 김윤성·조현범 공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6, p.150.

언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현실로, 리코르에 의하면 이는 '다른 현실의 장'이다.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문학 작품에서 언어로 구현된 세계는 독자의 해석을 통해 탈은폐되는데, 탈은폐된 세계가 곧 새롭게 열어 밝혀진 의미의 집합체로서의 세계이다.

해석 행위를 둘러싼 문학교육 현장에서의 방향성은 무엇보다 학습 독자의 해석이 의미집합체로서의 다시 만들어진 현실 경험으로 구체화되고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 행위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경유하여 도달하게 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경험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해석이라는 행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품을 읽는 목적이 확고하지 않을 때 학습 독자들이 작가의 존재를 상당히 의식하였으며, 결국에는 자신만의 감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⁴⁰⁾는 점은 문학교육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을 명료하게 설정하여 교육 내용으로 다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감상 또한 이러한 해석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4. 결론

문학교육에서의 문학 텍스트 수용에 대한 접근은 기술론적이고 결정론적이며 다소 기예와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석 교육의 경우 해석의 방법이나 해석의 타당성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초점화되면서 문학 경험 자체가 교육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 내용으로서의 해석 관련 성취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 활동은 문학 텍스트라는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형태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해석 능력 신장이라는 목표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문학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경유할 때 자연스럽게 달성될

40) 김민재,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p.210-211.

수 있다고 본다.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수업의 목적은 문학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과정과 경험이 해석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는 문학의 본질, 그리고 문학 경험의 본질이 문학 읽기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읽기 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다시 모색해 봄으로써 기존의 문학 수업 내용 및 수업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편으로 이 연구는 현재 문학교육에서의 해석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석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석 독자의 능동성이라는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교육 내용과 연계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래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을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 의도대로, 어떻게 현재처럼 전문 독자의 비평글을 참조하고 비교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학습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 행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해설서』, 1997.
 _____, 『2007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과)』, 2007.
 교육부 고시 제2015-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022.
 김진수 외, 『국어 3-1』, 비상, 2020.
 노미숙 외, 『국어 3-2』, 천재교육, 2020.
 박영목 외, 『국어 3-1』, 천재교육, 2020.
 신유식 외, 『국어 3-1』, 미래엔, 2020.

2. 단행본

- 최미숙 외, 『문학교육론』, 사회평론, 2023.
- Grondin, J., 최성환 역, 『현대해석학의 지평』, 동녘, 2019.
- Ricoeur, P., 박병수·남기영 공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1986.
- _____, P. 김윤성·조현범 공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6.
- _____, P.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ciation”, in Edited and Translated by J.B. Thompso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Cambridge U.P., 1981(Cambridge Philosophy Classics edition 2016)
- Palmer, R.,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 Stecker, R., *ART WORKS : Definition, Meaning, Value*, The Pennsylvania Univ., 1997.

3. 논문

- 고정희, 「텍스트 중심 문학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읽기방법」,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2013, pp.57-88.
-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2003, pp.461-486.
- 김민재, 「시 인식 중심의 심미적 문식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정우, 「국어교육에서의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2, pp.201-234.
- _____,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창원, 「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현수, 「현대시 정전의 교육내용에 관한 고찰:〈님의 침묵〉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pp.153-188.
- 양정실, 「해석 텍스트 쓰기의 서사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우신영, 「현대소설 해석교육 연구: 독자군별 해석텍스트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명찬, 「한국 근대시 정전과 문학교육-정전인가 해석의 정전성인가」, 『한국근대문학연구』, 한국근대문학회, 2008, pp.43-66.
- 이인화, 「문학교육에서 수용 계열 개념어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76, 2022, pp.283-330.
- _____, 「서사 텍스트 해석의 소통 교육 연구: 이문열의 「선택」에 대한 문학 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국어교육학회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2012, pp.19-41.
- 정원술·김상희, 「시 해석에서 문학연구와 문학교육의 결합-고등학교 1학년의 이육사 「

절정」 ‘강철로 된 무지개’ 해석 실험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3, 2014, pp.353-384.

정재찬, 「시교육과 시해석-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3,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pp.153-173.

최미숙,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125-154.

_____,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부재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7일

Abstract

Reconsideration of educational content of literature interpretation

Jung, Ju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interpretation education content in literature education and, based on this review, discuss the concept of interpretation and the purpose of interpretation in literature education. As a result of review of standards and analysis of textbooks, the content of current interpretation education focuses on meta-methodological knowledge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interpretation. Thi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hat it does not result in literary experience.

Through this critical review, this study deemed it necessary to clarify the concept and purpose of interpretation in literature education. In literature education, since the object of interpretation is a literary text, the goal should not be the interpretation activity itself, but rather the comprehension of the literary text itself.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defined interpretation in literary education as a process of fully understanding literary works through the process of actively constructing the meaning of literary texts based on knowledge of literary conventions. And it was discussed that a complete understanding as the purpose of interpretation of a literary text is an appropriation of the meaning of the literary text.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emphasized that literary theory, as the basic knowledge that enables interpretation in literary education, should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ctivities that end up 'understanding' literature. Considering this, it was also emphasized that the literary text in education must be a work of high literary perfection.

Keyword Literature education, Interpretation, Educational content of interpretation, Concept of interpretation, Purpose of interpretation

韩汉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赵娜* · 赵新建**

국문요약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청자 지향 높임법은 상호주관성의 전형적인 예이다. 본 논문은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청자 지향 높임법의 상호주관성을 나타내는 기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청자 지향 높임법의 상호주관성 정도(강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는 청자 지향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로 청자 지향 높임법 유형이 세밀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청자 지향 높임법의 통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특정 문법 표지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의 청자 지향 높임법은 영어와 중국어 등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상호주관성 의미를 더욱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어는 상호주관성이 발달한 언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중국어, 청자 지향, 높임법, 상호주관성

〈目録〉

1. 绪论
2. 韩国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3. 汉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4. 结论

* 第一作者 上海外国语大学贤达经济人文学院朝鲜语系教师

** 第二作者 上海外国语大学朝鲜语系教授

1. 绪论

交互主观性(intersubjectivity) (Traugott2003) ¹⁾是指发话人用明确的语言形式表达对听话人自我的关注, 吴福祥 (2019) ²⁾、张兴 (2019) ³⁾、丁健 (2019) ⁴⁾等都对其观点进行了总结, 即这种关注可以体现在认识意义上: 关注听话人对命题内容的态度, 但更多的是体现在社会意义上: 关注听话人的“面子”或“形象需要”。本文认为, 韩汉语听话人导向尊敬表达法是交互主观性的典型语例, 交互主观性是其产生或存在的根本原因。

与韩国语相比, 汉语敬语法研究起步较晚, 研究范围较窄, 主要以词汇为中心, 韩汉语敬语法研究虽然都经历了从词汇层面到社会语言学层面的转变, 但汉语的研究还未涵盖人际关系、性别差异和社会权力地位等方面。通过文献梳理我们发现, 韩汉语学界缺少跨语言视角的汉韩敬语法对比研究, 对敬语法的交互主观性问题关注不够。鉴于以上思考, 本文拟从交互主观性视角切入, 重点考察韩汉语敬语法中哪些类型的尊敬法体现了交互主观性意义或特征, 其背后的语用机制是什么, 并试图探讨韩汉语交互主观性在敬语法表达法方面的强弱程度对比等问题。

2. 韩国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我们认为, 韩国语敬语法的交互主观性主要是通过语法性和词汇性手段来彰显的, 以语法手段为主。具体体现在: 主体尊敬先语末词尾“-(으)시-”的听话人导向用法、听者尊敬终结词尾、助词、句末补助词(如“-요”、“-나”、

1) Traugott E C. *Motives for Language Change: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 吴福祥, 「语义演变与主观化」, 『民族语文』第5期, 2019, pp.5.

3) 张兴, 「(交互) 主观性、(交互) 主观化及其在日语中的研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期, 2019, pp.102.

4) 丁健, 「语言的“交互主观性”-内涵、类型与假说-」, 『当代语言学』第3期, 2019, pp.334.

“-그러”等)、词缀、称谓语、第一二人称指示语(的反先用用法)、阶称补位型⁵⁾表达等几个方面。限于篇幅,本文仅对主体尊敬词尾“-(-으)시-”的交互主观性特征进行较为细致的刻画,描写其背后隐含的深层动因或语用机制等。

主体尊敬词尾“-(-으)시-”除了表示对句子主语尊敬的基本用法或普遍用法外,受语用因素制约,还呈现出听话人导向性,体现了不同程度的交互主观性。如“-(-으)시-”的压尊法和加尊法、现场言语行为主体(听话人)间接尊敬法、转成听话人尊敬法、尊敬混搭法等用法,下面我们将对其交互主观性进行逐一阐述。

1) 压尊法和加尊法

- (1)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 (2)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너의 아버지 돌아오셨니?⁶⁾

虽然发话人在语言编码时通常以自我为中心,但在特定情况下,他们会为了实现某种交际目标或语用效果,将焦点转移到听话人或其他人身上,例(1-2)便是以听话人为中心进行语言编码的“压尊法”⁷⁾和“加尊法”用例。例(1)中主体“爸爸”身份高于发话人,是需要尊敬的对象,应使用主体尊敬词

5) 赵新建(2021)指出,敬语法还具有“阶称补位”的特点,阶称补位主要体现在命令句、共动句、感叹句三种句子类型中,即在现有阶称类型无法满足当下交际场景时,需借助其他阶称类型或间接言语行为满足当下的阶称要求,并给出了命令表达的一些借用/补位类型。本文认为,这些借用/补位类型的使用维护了听话人的形象和面子需求,彰显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

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I』(개정판), 서울: 답출판사, 1998, pp.330.

7) 고영근·구본관(2008: 459)等都曾表示,近年来,“压尊法”用法有渐趋衰退、消失的倾向,如上面例句也可以转化为:“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和“아버지 들어 왔니?”,两者均为标准语表达。但还需要注意的是,压尊法的使用还需要考虑使用的场合,遵循“外严家松”的原则。如在(1)中加不加“-(-으)시-”都可,但如果换做是在公司,向社长汇报科长外出时必须加“-(-으)시-”,如“사장님, 김 과장님은 외출하셨습니다。”。

尾“-(-으)시-”，但发话人考虑到听话人“爷爷”的身份高于“爸爸”，从听话人“爷爷”的角度进行语言编码，没加“-(-으)시-”。而例(2)正好相反，发话人“爷爷”的身份高于句子主体“爸爸”，但却从听话人的立场出发，对不需要尊敬的主体使用了“-(-으)시-”。

类似于(1-2)这样的用例，过去的研究主要是描述性的，对这一现象背后的动机解释不足，特别是缺乏交互主观性视角的讨论。因此，本文拟从交互主观性理论出发，深入探讨这一现象背后的动机，并阐述其语用功能。(1-2)中发话人以听话人为中心进行语言编码，实现了从以自我为中心的“主观性”范畴向以听话人为中心的“交互主观性”范畴的延伸。我们认为，其中，移情心理认知机制、交际视点转换、身份地位表征、语用距离调试等起了重要作用，这都是交互主观性的具体体现。具体表现在：发话人首先对听话人进行社会定位（在社会结构或社会关系中定位），(1-2)分别凸显了听话人参与的爷爷与爸爸、孙子与爸爸的社会关系。然后根据听话人与主体的身份差异进行语言编码，通过移情策略（发话人移情于听话人）将自己融入到听话人的立场，标示自己与听话人（站在同一立场）的同盟关系，以此缩短与听话人的心理距离，反映了言者主体对另一交际主体情感、态度、立场等的关注，发话人的这种关照听话人的语言策略选择，彰显了明显的交互主观性特征。

2) 现场言语主体(听话人)间接尊敬法

当言语行为主体听话人作为事件内主体或客体实现时，主体尊敬和客体尊敬可以看做是经历了一个听话人导向的交互主观化的过程。⁸⁾近年来，韩国语中主体尊敬词尾“-(-으)시-”的听者尊敬功能用法逐渐增多，说明它也在经历一个交互主观化的过程或具有交互主观化发展潜势。

交互主观性的程度与其对语境的依赖度成反比，交互主观性程度越低，越需要借助交互主观性语境的激发得以凸显，如主体尊敬词尾“-(-으)시-”只有

8) Traugott E C. *Motives for Language Change: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在服务业特殊语境下才表达交互主观性意义。可能有人主张下面例(3)和例(4)为错误、不合语法的表达,但是本文认为该现象的出现不是偶然的,而是发话人交际策略的体现。在争论其是否合乎语法之前,我们有必要先了解其产生或存在的原因。下面我们将重点讨论其交互主观性。

(3) 고객님, 이 옷은 사이즈가 없으세요.⁹⁾

(4)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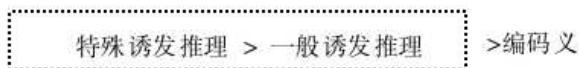
首先,从共时来观照,交互主观性语境构成了交互主观化的发生场,交互主观性呈显著的伴生效应,体现出不同程度的对交互主观性语境的依赖。交互主观性的解读离不开特定交互主观性语境的烘托。无交互主观性的表达形式在高交互主观性语境下可能获得交互主观性解读,此种交互主观性可视为一种特殊的会话含义,仅由特定语境引发,这通常构成交互主观性的第一步,并可进一步朝向更交互主观性的方向发展。典型的语例“-(으)시-”一般是放在主体尊敬法中进行讨论的,但其被用作受话人尊敬的情况(交互主观性用法)越来越多,尤其是服务行业,如上面的例(3)和例(4)。由于这种扩张用法在服务业经常出现,因此“-(으)시-”逐渐发展出了受话人导向的交互主观性用法,但这一语用意义还没有随着时间的推移渗入到语法形态的语义中,语义尚未得规约化,其交互主观化程度较低,还没有演变为交互主观性标记,尚不具有交互主观化标记的地位。

这表现为,其交互主观性在语义上是不自足的,表现出对语境的依赖性。因为“-(으)시-”的交互主观性只有在特定语境下才能得到凸显,因此我们认为,其属性可以表示为:交互主观性(化)潜势。即只能体现为一种意义潜势,常规情况下,交互主观性意义远非其意义的主导特征。而是具有较强的语境敏感度,其交互主观性本身仅仅表现为一种潜势,只能借助具体的语境才能凸显,由此发展出的交互主观性意义还是相当微弱的,存在明显的意义与语境相互作用的问题。

9) 本文未进行标注的韩文例句均来自naver网页。

另一方面, 从历时角度来观照, 交互主观化的发生同样离不开相宜语境的支撑, 往往由交互主观性语境引发, 体现出交互主观性语境对非交互主观性表达或结构的渗透作用, 这在语义交互主观化中具有相当的普遍性。交互主观化的语境效应与共时层面上的不同交互主观性标记的语境依赖性存在内在的一致性。交互主观化过程可视为“群集效应”¹⁰⁾前四条的依次渐变, 即从非交互主观性成分在特定语境中沾染上交互主观性色彩, 到在稳定交互主观性语境中获得交互主观性用法, 再到对交互主观性语境具有强烈选择性的不可取消的交互主观性含义阶段, 最终到独立于语境的语法化的交互主观性成分。这四个阶段可以分别视为特殊会话含义阶段、一般会话含义阶段、规约含义阶段、规约化显义阶段, 整体来看呈现出一个由语用意义不断趋近于语义意义的过程。“-(으)시-”的交互主观化始于一个足够凸显对听话人社会身份地位、面子或形象需求等关照的语境, 如例(3)和例(4)。此外, 在历时层面上, 交互主观性的语境选择作用可导致结构的构式化, 进而赋予整个构式交互主观性解读。

综上所述, 词尾“-(으)시-”的交互主观化过程既是一个语义弱化的过程, 又是一个语用强化的过程。其中, 弱化是指旧有的编码义渐趋弱化; 强化是指新的语义经由会话含义逐渐进入语言表达式, 但未发展成新的编码义。“-(으)시-”越来越用来编码基于听话人的意义, 但尚处于“诱发推理模式”的前两个阶段之间, 还未进入第三个阶段, 交互主观化程度低, 尚处于交互主观性的初级阶段。可标示为:



3) 转成听话人尊敬法

根据国立国语院官网的回应, 新的语言形式“-실게요”¹¹⁾大约是在2009年

10) 黄蓓, 「走出狭义语言主观性」,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15, pp.330.

11) 서민정 (2017: 403) 指出, “-실게요”是第一人称表达自己意志时所使用的“-(-으)르계”与第2,3人称的尊称形式“-(-으)시”结合形成的形态, 但从语法角度而言, 这种形态其实

开始被使用。起初,仅用于医院、诊所、按摩店等服务行业,后来开始应用于公益广播局和公共广播机构等,说明“-실게요”该用法的使用范围逐渐扩展,渐趋普及,用法也更加固定,有持续扩张的趋势。¹²⁾

안주호 (2017)对“-실게요”的形成过程进行了介绍,根据安文的观点,“-(-으)실게요”来源于“-(-으)실 것이예요”,表示“预测性告知”,即对将来进行预测并将预测的行为告知受话人,且比直接的命令型终结词尾更委婉。¹³⁾我们基本认同该观点,并在此基础上对该用法的交互主观性特征进行分析。

(5) 정향곰탕이라고 적힌 옷을 입고 관리 받으러 가실게요.

(6) 영수증 받으실게요.

本文认为这一新型受话人导向表达形式“-실게요”是交互主观化的产物。如例(5)中“-실게요”表示预测性告知,即对将来进行预测并将预测的行为告知受话人,向受话人说明一会或现在将需要受话人执行的行动,从而达到委婉指示的目的,比表直接命令的“-세요”更委婉,维护了受话人的消极面子需求,是社会意义层面交互主观性的体现,彰显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

4) 尊敬混搭法

日常话语中经常出现尊敬与非尊敬混合出现的情况。例如下面的对话

是不正确的。“-실게요”究竟是什么时候开始使用的,很难找到明确的答案。国立国语院官网回应,大约是在2009年“-실게요”开始被公众普遍使用。

12) 有学者(如허철구 2016等)认为“-르게요”是表示约定、意志的,“-실게요”并不能表示命令的功能,而且用“-(-으)세요”更给人亲切的感觉。也有学者(김영자, 2013)对“-실게요”的解读是“내가 당신을 올라오게 하신다는 말로 해석된다. 화자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결과로 비문이다”,否定了“-실게요”的受话人导向性用法。本文对此持反对意见,正如안주호(2017)所言,语言就像市场一样,某种表达方式因为被需要而产生,如果有持续使用的必要性,就会被人们接受并普及。因此,在从语法规范、语义等角度追究对错之前,有必要讨论为什么使用这种表述,为什么会产生这种表述。

13) 안주호, 「종결어미 {-(-으)실게요}의 기능과 형성과정」, 『담화와 인지』第24辑, 2017, pp.47-67.

(7) 里是大部分不用, 偶尔用的情况, 例 (8) 则为大部分用, 偶尔不用的情况。以下对话出自韩国最近很火的素人恋综艺节目《换乘恋爱》, 出演者年纪相仿, 但是在节目初期, 即相互不是特别熟悉, 关系不够亲近、随意的时候展开的对话。

- (7) 지연: 그 와중에 베이셨습니까?
 태이: 괜찮아요.
 지연: 많이 베였어요? 피 나는데? 아니 이거 밴드 붙여요.
 태이: 괜찮아요.
 지연: 진짜 괜찮아요?
 태이: 진짜 괜찮아요.
- (8) 동진: 조개구이 먹을래요?
 혜원: 조개구이 해물 칼국수밖에 없는데?
 동진: 네. 가봐요.
 혜원: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세요?
 동진: 조개구이는 좀 먹어요.
 혜원: 조개구이 싫어하시죠?

我们的初步观点是, 在尊敬阶和准敬阶的交替用法中存在“生高熟低”原则。如例 (7) 中发话人与受话人不是特别亲昵的同龄关系, 对话的开始为了维护对方的积极面子需求, 使用了表示尊敬的词尾“-(으)시-”, 但随着对话的进行, 发话人为了表示对受话人亲昵的情感, 拉进双方的心理距离, 使用了更加随意的准敬阶“해요체”, 具有语用距离调试功能。“-(으)시-”增减的“尊敬混搭法”体现了语言的变动性, 也体现了关注受话人的交互主观性特征, 加“-(으)시-”后维护对方面子需求的礼貌功能和删去“-(으)시-”后试图拉进交际双方心理距离的语用距离调试功能都是交互主观性的具体表现。

3. 汉语敬语表达法的交互主观性

本文认为, 汉语敬语法的交互主观性主要是通过语法性和词汇性手段来

彰显的,以词汇手段为主。具体体现在:具有敬语功能的“请”和具有半谦语功能的“谨”、句末语气助词、称谓语、第一二人称指示语(的反先用用法)、敬辞和谦辞、重复等几个方面。限于篇幅,这里我们仅以前两者为例,对其交互主观性具体表现进行较为细致的刻画描写。

1) 敬语功能词“请”的交互主观性

从句法层面来说,汉语敬语法有两个交互主观性句法位置,一个是具有敬语功能的“请”,另一个是具有半谦语功能的“谨”。限于篇幅,这里我们仅对敬语功能词“请”的交互主观化与交互主观性用法进行分析,重点考察动词“请”是如何从动词转化为敬语功能词(礼貌标记)的,在句法、语义、语用层面各有什么样的特点。

汉语“请”的使用在恰当语境中便是礼貌的标示¹⁴⁾,它不仅能降低原句对消极面子的威胁,还能表明交际双方的社会等差关系。“请”的礼貌程度高,已成为一种礼貌标记,即本文的交互主观化标记,但并非完全强制性的,而韩国语听者尊敬终结词尾是强制的。

首先我们来看下《汉语大辞典》中对“请”的标注如下:

- 【1】 谒见、会见：“造请诸公，不避寒暑”。
- 【2】 延聘、邀、约人来：请客。请柬。邀请。
- 【3】 求：请求。请示。请假。请命。请战。请教(jiào)。请愿。请君入瓮。请纓(喻请战杀敌)。

14) 朴锦海(2007: 46)也提到,“请”的施动者往往是受动者的下级或晚辈,有时也可以在平辈之间使用,但无论是哪种关系,含有“请”字的句子始终是施动者向受动者表示尊敬(反讽的句子除外)。如:

- (9) 请坐、请喝茶
- (10) 请包涵、请原谅、请别介意
- (11) 请允许我讲几句
- (12) 能否请你……
- (13) 请你……好吗
- (14) 请大家想想办法吧。

[4] 敬辞, 用于希望对方做某事: 请进。请坐。请安。请便。

前三个义项为动词性用法, 在最后一个义项中, “请”为敬语功能词, 具有礼貌功能, 本文将其看做交互主观性标记¹⁵⁾, 是一个交互主观性位置。敬语功能词“请”的“身份地位表征功能”、“语用距离调控”、“语用模糊”等语用功能都是交互主观性的具体表现。

第一, 身份地位表征功能与交互主观性。身份表征功能能帮助建构具体交际片段中的当下语用身份, 以表明交际者的观点和态度, 满足交际的需要。¹⁶⁾敬语功能词“请”表现为发话人基于对敬语表达法的选择来表征和构建语用身份, 通过其身份表征功能平衡语用力量¹⁷⁾, 以达到预期的交际目的。对敬语表达形式的选择表现为发话人的一种语言策略, 可以带来不同的交际效果。

(15) 请您一定将龙神带出苍梧! ¹⁸⁾

(16) 请您 2011年12月5日8点在第二考务中心集合, 参加科目二考试。

(17) 请您一定作我们的客人吧。

(18) 请您一定指点啊…谢谢老师

(19) (对姥姥) 请您一定好起来!

(20) (对毛主席说) 请您下午七点到中南海, 谈新疆的工作问题。

上面例 (15-18) 分别凸显了发话人主体作为手下、工作人员、主人、学生, 以及受话人主体作为少主、参试者、客人、老师的角色身份 (发话人主体

15) 根据李琳 (2004) 的统计, 在1000个例句中, 75%的“请”是作为动词使用的, 剩下的25%是尊敬表达用法。这说明, “请”的交互主观化程度还相对较低, 尚处于交互主观化的初级阶段。

16) 时常琿, 「语用平衡视角下元话语的身份表征功能研究—基于美国总统特朗普在电视访谈中的话语分析—」, 『鲁东大学学报』第4期, 2019, pp.46.

17) 根据陈新仁 (2004) 的语用平衡理论, 交际中的语用效果可以根据交际需要 (N) 和语用力量 (F) 是否达成平衡 (N=F) 来进行鉴定。

18) 文中未进行标注的汉语例句均来自“BCC语料库”。

对自己或听话人主体在社会结构或社会关系、社会地位里的定位)。如在例

(15) 中发话人为了凸显对方“少主”的身份地位,使用礼貌标记“请(您)”表达了对对方权威性的认可和尊敬,使利益偏向听话人,增加对方的接受度。再如(16),听话人中可能存在比发话人年龄小的参试者,但发话人出于交际双方“工作人员-参试者”的身份关系以及需要对陌生人表示尊敬的考虑,作出了听话人是需要尊敬对象的判断或定位后,使用“请”或“请您”对与自己不是特别亲密关系的“参试者”表达尊敬或礼貌,是对交互主观性礼貌原则的遵守。

(17-19)用“请(您)”凸显对方“客人”、“老师”、“姥姥(长辈)”的社会关系和身份定位,显得庄重而礼貌,具有较明显的听话人导向性(交互主观性)。

以上均为“请”与“您”共现的情况,加上“您”后尊敬程度加深,是发话人实现语用身份建构的一种元语用策略,属于双重交互主观性位置。但“您”也有省略或被“你”替换的情况,如下所示:

(21) 请你别误会,我只是想弄清楚一些事情。

像上面例(21)中,“请+你”的选择是因为,发话人考虑到了交际双方的社会关系深浅和交往生疏程度,即与听话人还不够亲近,因此选择礼貌标记“请”标示对听话人的尊敬。同时,发话人出于年龄(听话人比自己年纪小)或社会身份地位(听话人比自己社会地位低)等因素的考察,没有使用第二人称敬称形式,而是直接使用第二人称代词“你”来指称对方。

第二,语用距离调控与交互主观性。语用距离就是指交际双方在特定的交际环境中所感知和确认的彼此之间的关系密切程度(语用亲密度),交际语用距离具有动态性,发话人可以通过一定的语言手段来调整现有的语用距离,即所谓的语用距离调整或调控。¹⁹⁾使用社会关系准则时,“请”的使用频率较高,是一种语用距离标志语,可以调适发话人与听话人之间的心理语用距离。如:

19) 王建华,「话语礼貌与语用距离」,『外国语』第5期,2001, pp.31.

(22)请您2011年12月5日8点在第二考务中心集合, 参加科目二考试。

如上面例句的情况, 属于缩小(语用移情)语用距离的典型语例。受话人中可能存在比发话人年龄小的参试者, 但发话人认为交际双方为初次见面或不够亲密, 亦或是发话人作出对方比自己身份地位高的社会关系或社会地位定位后, 使用了礼貌标记“请”和“您”双重敬语位置表示对受话人的极高礼貌或尊敬, 更有利于拉近与受话人的心理语用距离, 增加受话人的话语接受度。发话人提前预设受话人对话语内容可能产生的态度, 考虑到不加“请”可能会使对方产生抵触心理, 为了增加受话人对话语内容的接受度采取了使用“请”的语言编码策略。发话人关注受话人对话语内容的态度, 具有较明显的交互主观性。

但这里也需要说明的是, 在中国文化中, 亲近原则被视为首要原则。如果过度使用“请”这个字眼, 可能会让对方感到不自在, 就像是在对待一个陌生人一样, 反而会给说话对象一种见外的感觉, 这便是扩大(语用离情)语用距离的用法。如果双方在社会关系坐标上差距比较大, 为了表示礼貌, 可以选用称谓语、语气词表达受话人导向的交互主观性意义, 如下面用例(24)代替例(23)的用例较为常见。

(23) (孙女对姥姥)请您一定好起来!

(24) 姥姥一定好起来哦~

第三, 语用模糊与交互主观性。发话人有时会把原本可以清楚表达的意思用不明确的语言表达出来, 这种指示信息的不精确现象反映的就是语用模糊。²⁰⁾

(25) 请别这样!

20) 杜世洪, 「关于模糊指示语We的顺应分析」, 『重庆文理学院学报』第46期, 2006, pp.51.

如前所述, 如果过度使用“请”这个字眼, 可能会让对方感到不自在, 最常用于陌生人之间。上面例(25)中, 发话人用“陌生人”来指称受话人“你”, 将受话人置于更客观的位置, 采用模糊话语策略, 通过模糊指称对象来掩盖制止性、批评性、反对性、针对性等对立立场, 从而模糊立场差异, 缓和语力, 某种程度上维护了受话人的积极面子需求, 体现了发话人对受话人态度、情感的关照。

我们认为, “请”交互主观化带来的句法后果可以归纳为以下几条:

第一, 交互主观性标记“请”通常位于句首。在交流中, 我们经常会在句子开始的地方使用“请”这个词, 以此来表达我们对对方的尊重, 并礼貌地请求对方完成某项任务。如:

(26) 请亲们注意喽, 关注有礼!

(27) 请你们走吧? 可不可以?

第二, 交互主观性标记“请”具有飘移性, 可以在其对象前后移动。与前置(例29)时相比, 后置(28)时礼貌程度更高。如下:

(28) 您请上车。

(29) 请您上车。

第三, 交互主观性标记“请”主语必须为第二人称, 不是可以是第一、第三人称。因此, 交互主观性标记具有受话人指向性, 如例(30)的主语是第二人称“你”与受话人重合, 而(31-32)中的“请”均指向主语“他们”和“我”, 不具有受话人指向性。如下:

(30) 请你想一想, 为了能在画布上涂上几笔, 天知道你下了多少年的苦功夫.....

(31) 请他们上来。

(32) 请我上来。

第四, 交互主观性标记“请”只可以用于把字句, 不可用于被字句, 因为把字句句式的语义与“请”是和谐的²¹⁾, 两者可以共现, 如例 (33); 反之, 被字句则不然, 如例 (34)。

(33) 请把 link发给我, 价钱合适姐也去搞一个来玩~

(34) *我被请告诉青春也在走远。

第五, 句法管辖范畴的宽化。交互主观化也是一个句法位置边缘化的过程, 从宾语成分扩展到小句。交互主观性标记“请”不再是句子的谓语中心语, 可以省略, 且省略后并不会影响整个语义的表达, 不对命题真值产生影响。因此, 我们认为可以将其看做是一个受话人指向的语用标记或礼貌标记, 但并非完全强制性的。如下所示:

(35) *狠心半年的工资买了下来, 好说歹说把干拍MTV工作的兄弟雷卫国(请)了过来。

(36) (请)你想一想, 为了能在画布上涂上几笔, 天知道你下了多少年的苦功夫,.....

以上是敬语功能词“请”交互主观化带来的句法后果, 也是动词“请”与交互主观性标记“请”在句法上的具体差别, 我们也可以将其看做是交互主观性标记“请”的判别标准。本文的观点是, “请”从表示动作义的实义动词虚化为表示敬语功能词的作用机制是交互主观化。

21) 李琳(2004)曾指出, “把”字结构的语义核心是表达与目的意义紧密相关的语义内容, “把”字结构语用上的基本规律是它总是出现于某种原因而需要执行某种特定的动作行为, 以达到一定的目的这样的语境之中, 这正与敬辞“请”所表示的要求某人做某事的语义一致。而“被”字句有被动、被处置、遭受等消极意味(当然这并不是说所有“被”字句都表示“被动”、“遭受”的含义), 与敬辞“请”的语义相排斥。再者, 敬辞“请”在实际的语用环境中一般适用于说话者对听话者发出某种请求, 而“被”字句一般是客观地叙述一种事实, 二者在表述方面的角度也是不相符的。

2) 句末语气助词的交互主观性

与韩国语不同的是,汉语作为孤立语,几乎不会通过词尾来表达交互主观性意义,主要是通过一系列句末语气助词“啊、呢、吧、哒”等来达到类似的语用效果。²²⁾限于篇幅,我们仅以功能语气词“啊”²³⁾为例,对其表达的交互主观性意义进行考察。²⁴⁾

(37) 领班:你小子到底笑什么?!保安:我没笑什么啊……

上面例(37)陈述句句末“啊”的作用在于,一方面向听话人申明一个事实或理由,在发话人发现交际双方正在构建的共识中有信息差异时,提请听话人调整共识的信号,对听话人忽略的事实特意加以申辩,是提醒听话人注意的焦点信息。另一方面,具有缓和语气,委婉表达的作用。上面例句中“啊”的有无存在语气差异问题。通过“最小差异对比法”²⁵⁾,我们可以发现两者之间存在明显的语气差异,加上“啊”语气温和一些,去掉语气率直、干脆。在一定程度上维护了听话人的积极面子需求,体现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是交互主观性社会层面意义的体现。其交互主观性特征主要体现在:

第一,缓和语气。一定程度上调整语义色彩,如弱化强硬色彩,说话人提前预先设想了听话人对话语内容可能产生的否定或消极态度,通过“啊”可以弱化听话人抵制情绪,增强话语的可接受度。第二,维护听话人的面子,以缓和语气为手段,较好地维护了听话人的积极面子需求。第三,语用距离标示

22) 除了功能语气词外,还可以通过“语气(陈述语气,疑问语气,祈使语气还有感叹语气)”等来表达。发话人可以通过转换语气用委婉的方式维护听话人的面子需求,彰显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

23) 根据赵新建(2021)的统计,汉语语气词“啊”在韩国语中基本是以终结词尾的形式体现,具体表现类型主要有非正式语体的最近终结词尾、非正式语体的类似终结词尾、正式语体的终结词尾、省略句式等几种类型。

24) 该部分的例句均来自莫言的小说《蛙》。

25) 储诚志,「语气词语气意义的分析问题—以“啊”为例—」,『语言教学与研究』第4期,1994, pp.43.

和身份地位表征功能：领班和保安双方有明显的地位差异，标示为初始语用距离大，强调领班权威的社会身份地位，从而传达出保安对领班的礼貌态度，达到一种缓和语气的效果。

(38) 包大人，不能摘啊。

(39) 陈眉：(在孩子的哭声中)包大人哪，民女有千古奇冤，您要秉公审理啊！

(40) 包陈眉：(扑跪到大堂前)包大人，包青天，您要为民女做主啊！

如(38-40)所示，汉语语气词“啊”在祈使句中是一个礼貌标记，也可以看做是一个交互主观化标记，具有缓和标记功能。在肯定祈使句中，表示“命令+提醒=敦促(缓和)”，在否定祈使句，表示“禁止+提醒=劝止(缓和语气)”。同样利用最小差异对比法，我们可以发现去掉“啊”和附加“啊”后存在明显的语气差异，前者语气类似于命令，后者的语气温和一些，相当于嘱咐。此时，“啊”的语义素为【+缓和语气】，维护了受话人的面子和形象需求，彰显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发话人不仅关注受话人对话语内容的态度，还关注受话人的形象或面子需求，具有明显的态度型交互主观性特征。

4. 结论

本文从交互主观性视角切入，重点考察了韩汉语敬语法中哪些类型的尊敬法体现了交互主观性意义或特征，其背后的语用机制是什么，并探讨了韩汉语交互主观性在敬语表达法方面的强弱程度对比等问题。

(1) 韩国语敬语法的交互主观性主要是通过语法性和词汇性手段来彰显的，以语法手段为主。具体体现在：主体尊敬词尾“-(으)시-”的受话人导向性用法、听者尊敬终结词尾、助词、句末补助词、词缀、称谓语与第一二人称指示语(的反先用用法)、阶称补位型表达等几个方面。限于篇幅，我们仅以主体尊敬词尾“-(으)시-”的交互主观性特征进行了较为细致的刻画，描写了其背后隐含的深层动因或语用机制等。通过分析我们发现，“-(으)시-”除了表示对

句子主语尊敬的基本用法或普遍用法外, 受语用因素制约, 还呈现出受话人导向性, 体现了不同程度的交互主观性。如“-(으)시-”的压尊法和加尊法、现场言语行为主体(受话人)间接尊敬法、转成受话人尊敬法、尊敬混搭法等用法, 我们对其交互主观性进行了逐一阐述。

(2) 汉语敬语法的交互主观性主要是通过词汇性和语法性手段来彰显的, 以词汇手段为主。具体体现在: 具有敬语功能的“请”和具有半谦语功能的“谨”、句末语气助词、称谓语、第一二人称指示语(的反先用用法)、敬辞和谦辞、重复等几个方面。限于篇幅, 本文仅以前两者为例, 对其交互主观性具体表现进行了较为细致的刻画描写。通过分析我们发现, 敬语功能词“请”是一个交互主观性位置, 其“身份地位表征功能”、“语用距离调控”、“语用模糊”等语用功能都是交互主观性的具体表现。“请”的礼貌程度高, 已成为一种礼貌标记, 即本文的交互主观化标记。但并非完全强制性的, 而韩国语的受话人尊敬终结词尾是强制的, 这也进一步说明韩国语受话人敬语法的交互主观性更强。

另外, 与韩国语不同的是, 汉语作为孤立语, 几乎不会通过词尾来表达交互主观性意义, 主要是通过一系列功能语气词比如“啊、呢、吧、哒”等来达到类似的语用效果。限于篇幅, 我们仅以功能语气词“啊”为例, 对其表达的交互主观性意义进行了考察。通过最小差异对比法分析, 我们发现“啊”和无“啊”存在明显的语气差异, 加上“啊”语气温和一些, 去掉语气率直、干脆。在一定程度上维护了受话人面子需求, 体现了交互主观性的礼貌功能, 是交互主观性社会层面意义的体现。

(3) 本文认为, 韩汉语受话人导向尊敬法表达是态度型交互主观性的典型语例, 交互主观性是其产生或存在的根本原因。이정복(2011)曾对韩国语敬语法所具有的本质功能进行了讨论, 根据李文的观点, 敬语法的基本功能表现在: 第一, 将对话参与者的地位关系通过语言的形式显露出来; 第二, 表示恭逊的态度; 第三, 调整与谈话对象的心理关系。²⁶⁾但我们认为李文提到的

26) 이정복, 「제3자 경어법 사용에 나타난 참여자 효과 연구」, 『국어연구』第24辑, 1992, pp.353-384.

上述三种基本功能只是交互主观性的具体体现而已,并非本质功能。此外,除了上述三点外,韩汉语受话人敬语法所具有的“身份地位表征”、“(反)同盟关系构建”、“语用距离调控”、“立场标记功能”、“语用模糊”、“间接语用投射”等语用功能也都是交互主观性的具体体现。

(4) 如前所述,发话人用明确的语言形式表达对受话人自我的关注,这种关注可以体现在认识意义上,即关注受话人对命题内容的态度,但更多的是体现在社会意义上,即关注受话人的面子或形象需要。韩国语是敬语体系发达的语言之一,与英语、汉语等其他语言相比,韩国语有专门表示受话人社会地位和身份的语法标记,更能凸显交互主观性的社会意义和礼貌功能。赵新建(2021)归纳了韩汉敬语法差异,主要表现在:第一,语用句法化强弱上,韩国语强于汉语(睦正洙,2020);第二,句法位置的数量上,韩国语多于汉语;第三,受话人敬语法数量上,韩国语多于汉语;第四,下位切割细致性上,韩国语强于汉语;第五,敬谦词汇丰富度上,汉语(语法信息词缀化)强于韩国语。²⁷⁾参考这一结论,我们认为,与汉语相比,在敬语法方面,韩国语交互主观性程度更强。也就是说,韩国语在态度型交互主观性上有更明显的表现,是交互主观性较为发达的语言之一。

◆ 参考文献

1. 单行本

莫言,『蛙』,上海:上海文艺出版社,2009.

남기심·고영근,『표준국어문법론 I』(개정판),탑출판사,1998.

고영근·구본관,『우리말 문법론 I』,집문당,2008.

Traugott E C, *Motives for Language Change: From subjectification to intersubjectif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7) 赵新建,「大学生慕课平台“朝汉语言对比(进阶篇)”课程」,2021.

2. 论文

- 陈新仁, 「论语用平衡」, 『外语学刊』第6期, 2004, pp.42-47.
- 储诚志, 「语气词语气意义的分析问题-以“啊”为例-」,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1994, pp.39-51.
- 丁健, 「语言的“交互主观性”-内涵、类型与假说-」, 『当代语言学』 第3期, 2019, pp.333-349.
- 杜世洪, 「关于模糊指示语We的顺应分析」, 『重庆文理学院学报』 第46期, 2006, pp.49-52.
- 黄蓓, 「走出狭义语言主观性」,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15.
- 李琳, 「“请”字两种用法的辨析」, 『柳州职业技术学院学报』第2期, 2004, pp.41-45.
- 时常琚, 「语用平衡视角下元话语的身份表征功能研究-基于美国总统特朗普在电视访谈中的话语分析-」, 『鲁东大学学报』第4期, 2019, pp.44-49.
- 王建华, 「话语礼貌与语用距离」, 『外国语』第5期, 2001, pp.25-31.
- 吴福祥, 「语义演变与主观化」, 『民族语文』第5期, 2019, pp.3-13.
- 完权, 「汉语(交互)主观性表达的句法位置」, 『汉语学习』第3期, 2017, pp.3-12.
- 张兴, 「(交互)主观性、(交互)主观化及其在日语中的研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3期, 2019, pp.101-108.
- 赵新建, 「大学生慕课平台“朝汉语言对比(进阶篇)”课程」, 2021.
- 서민정, 「-실게요 사용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오류 표현에 대한 언어생태학적 해석을 위하여」, 『코기토』第81辑, 2017, pp.397-420.
- 이정복, 「제3자 경어법 사용에 나타난 참여자 효과 연구」, 『국어연구』第24辑, 1992, pp.353-384.
- 안주호, 「중결어미 {-(-)실게요}의 기능과 형성과정」, 『담화와 인지』第24辑, 2017, pp.47-67.
- 이정복, 「누리꾼들의 상황 주체 높임 ‘-시-’ 사용 연구」, 『방언학』第35辑, 2004, pp.107-144.

3. 网络资源

- 허철규, 「[우리말 톨아보기] 하실게요」, 『한국일보』, 2016. 7. 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7141533366709>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3월 1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7일

Abstract

The intersubjectivity of honorific expression in Korean and Chinese

Zhao, Na · Zhao, Xinjian

The addressee-oriented honorific expression in Korean and Chinese is a typical example of attitudinal intersubjectivity. This study cuts i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subjectivity, focusing on which types of honorifics in Korean and Chinese reflect intersubjectivity, what is the pragmatic mechanism behind them, and discusses the comparison of the strength of intersubjectivity in Korean and Chinese honorific expressions. This study found that Korean is one of the languages with a well-developed honorific system. Compared with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and Chinese, it has specific syntactic positions, and grammatical markers that specifically indicate the social status and identity of the addressee. The division of hyponyms of honorific expression in Korean is also more refined, which can better highlight the social significance and the function of politeness of intersubjectivity. Therefore, we believe that Korean is one of the languages with more developed intersubjectivity, which has more obvious manifestations in attitudinal intersubjectivity.

Keyword Korean, Chinese, addressee-oriented, honorific expression, intersubjectivity

从‘懦夫’到‘战士’

—〈梦天〉一民的伦理身份解读—

林雪琪*

국문요약

20세기 초, 조선이 일제에 의해 점령당한 후 애국 문학가 신채호는 중국으로 망명 후 그의 역사적 환상 소설 〈꿈하늘〉에서 어려운 민족 부흥의 길을 찾는 청년 ‘한놈’을 그려냈다. ‘한놈’은 꿈속에서 한국 역사를 유랑하며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겪으며, 생명을 탐하는 ‘집쟁이’에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성장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중국 문학의 윤리학 비평 이론에서 “윤리적 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재해석이며, 신채호를 포함한 일제시대의 애국 혁명가들의 망명 심리를 반영하며, 일제의 그늘 아래 어렵게 살아가는 수백만 한민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신채호는 ‘한놈’의 성장 과정을 통해 민족정신과 윤리적 교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한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두터운 기대를 담고 있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한다.

주제어 신채호, 〈꿈하늘〉, 문학 윤리학 비평, 윤리적 정체성, 윤리적 교훈

〈目録〉

1. 序言
2. 一民的成长环境与轨迹
3. 独立战士的伦理身份转化
4. 韩民族精神与伦理教诲
5. 结语

*韩国外国语大学比较文学博士，主要研究方向为韩中近现代比较文学和文学伦理学批评。

1. 序言

19世纪末20世纪初，韩半岛遭受日帝侵扰，许多爱国人士为寻求夏国之道，不得已流亡中国，申采浩便是其中的代表。作为著名独立运动家和文学家，申采浩因激进的民族主义思想有着“拥抱朝鲜心脏”¹⁾之称，他通过小说塑造了许多不惧艰险的英雄形象，宣扬民族精神和救国图存理念，号召民众团结一致、驱逐日帝、恢复国权。其中，最能反映申采浩创作理念的就是中篇幻想历史小说〈梦天〉。该作品“具有诗的神话特性，参照了『古记』『三国史记』『三国遗事』『高丽史』『广史』『绎史』等史书，”²⁾是一篇通过梦游记的幻想形式书写主人公成长经历，借助真实的历史事件与人物反映韩半岛殖民地惨烈现实，饱含血与泪的名作。

2004年，中国学者聂珍钊在西方伦理批评和中国道德批评的基础上建构了文学伦理学批评理论，认为文学起源于伦理表达之需要，审视了文学的伦理本质和教诲功能，20年来在中国及海外产生了较为广泛的影响。然而，该理论在韩国仍处于初步阶段，相关论文还较少。³⁾2022年，『文学伦理学批评导论』翻译成韩文正式出版，国际会议中韩国学者的身影也日益增多。其中，‘伦理身份’是该理论的重要术语，而〈梦天〉的故事内核正是主人公一民(한놈)经历重重考验，克服各种诱惑，最终从‘儒夫’成长为‘战士’的‘伦理身

1) 洪命熹在『文学新闻』1966年的文章『追忆青年时期——访问洪命熹先生』中对申采浩做出了如下评价：“丹斋令人惊叹地彻底拥抱了整个朝鲜的心脏”。

2)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갈:연변대학출판사, 1994, p.18. 中文翻译部分为笔者拙译(下同)。

3) 文学伦理学批评在韩国的研究学者有尹锡珉、이진영、林大根、朴宰雨、金顺珍、申寅燮、吴娟、吴笑廷等。这些论文主要集中在对理论本身进行介绍、翻译和检讨研究，少量结合韩国文学作品进行分析和阐释，如金顺珍『朝鲜现代“新女性”的伦理选择』和吴娟的『从小说〈素食主义者〉来看女性的身份认同转换和伦理困境』等。其中，笔者与朴宰雨教授发表的“‘克隆’视角下〈雍固执传〉的文学伦理学批评解读”(『世界文学研究论坛』第5期, 2022, pp.808-818.)可以算韩国较早用文学伦理学批评理论分析古代小说的论文。但综合来看，对韩国文学文本的研究分析屈指可数，尤其对近代文学研究的成果更为缺乏。

份’变化过程。由此，本文通过文学伦理学批评解读〈梦天〉，分析一民伦理身份转变的伦理环境和伦理选择因素，探究〈梦天〉给近代韩半岛的爱国革命者、深受日帝迫害的韩民众，以及当今身处和平年代的人们带来的伦理价值启示。以期在丰富韩国学术界文学伦理学批评相关研究成果的同时，也为韩中近代比较文学研究提供新的理论方法参考。

2. 一民的成长环境与轨迹

人物的伦理身份是在一次次的伦理选择中蜕变形成的，追溯一民的成长环境和轨迹，需要以事件发生的伦理现场为立足点，对小说所处的伦理环境以及人物的伦理选择进行梳理辨析，而这两者是顺应故事线发展的，因此，首先需要明晰小说的文学文本结构。文学伦理学批评认为，叙事性文学文本往往是由伦理线和伦理结构成的，伦理线可以看作文学文本的纵向伦理结构，是作品的骨骼，伦理结可以看作文学文本的横向伦理结构，是作品的血肉⁴⁾，二者紧密相连、不可分割。一民独立战士的身份变化，正是在伦理线和伦理结中进行多次伦理选择后形成的。

1) 一民‘梦游韩国史’的伦理主线

小说叙述了一民梦游韩国历史，这是贯穿小说的伦理主线。在这条伦理线上，一民睡梦中进入一个新的世界，依次去往了‘战乱地国’、‘欲望之路’、‘东边战场’、‘残酷地狱’，这四个地点即文学伦理学批评中提到的伦理环境。立足于这一背景，可以发现一民在进行伦理选择时内心的矛盾冲突。聂珍钊在『文学伦理学批评导论』中通过‘斯芬克斯因子’，说明人的身上同时存在着自然意志（兽性因子）、自由意志（兽性因子）和理性意志（人性因子），它们此消彼长，相互对立又不可分割。不同环境中，一民面临不同的本能反应或欲望操控，体内的兽性因子疯狂生长，而他的成长就是不断学会用人性因子压

4) 聂珍钊，『文学伦理学批评：基本理论与术语』，『外国文学研究』第1期，2010，p.20.

制兽性因子的过程。由此，在纵向的伦理线上，一民经历的四次艰难抉择便是四个伦理结。（见表1）

〈表1〉〈梦天〉的伦理环境

伦理环境	伦理结	伦理选择
战乱地国	逃 vs 战	克服战争恐惧，前往欲望之路
欲望之路	享乐 vs 克服	克服贪婪欲望，加入东边战场
东边战场	沉迷色欲 vs 杀死敌人	败于色欲，坠入地狱
残酷地狱	困于地狱 vs 去往天国	幡然醒悟，去往天国，成为战士

第一，在战乱地国这一伦理背景下，一民接受了第一次爱国意识洗礼，选择途经欲望之路，去往东边战场，加入战争。故事开篇，享受着平和生活的，平庸而胆怯的青年一民，一日在梦中来到地国，看到两支军队对峙，血腥厮杀的场面。面对战争残酷，一民本能地感到惊慌失措，想要逃避的自由意志占了上风。但是，象征韩民族魂的天官、乙支文德和木槿花三个声音一齐驱使着一民直面现实，亲历战争之苦、亡国之痛和流民之难，呼唤他的爱国热情和抗争决心。接受精神洗礼的一民重新审视自身处境，思考家国意义，萌生出应该加入战场，守卫国家的想法，这样的理性意志驱使他选择前往东边战场，为国家和自由而战。

第二，在去往东边战场的欲望之路上，一民克服一切贪欲杂念，成功抵达战场。出发前，一民召唤出六个同伴一起前行，他们徒步行过崎岖长路，翻越充满贪念的金山，趟过嫉妒的河水。这是一个充满着欲望诱惑的伦理环境，在这样一个挑战人性的道路上，其余六位同伴或疲惫，或贪婪，或嫉妒，有的放弃前行，有的选择逃跑，有的相互残杀，只剩一民一个人克服杂念，守卫家国的强烈信念促使其理性意志战胜了个人欲望，成功坚持到了战场。

第三，东边战场上，一民被色欲的兽性因子控制，坠入地狱。一民与日本军官丰臣秀吉缠斗，不料丰臣秀吉在快被斩杀的瞬间化身成了美女。面对漂亮的美女，一民被色欲占据了大脑，一时没经受住诱惑，丢失了武器。佛家

云,“色害尤深,令人狂醉,生死根本良由此也。”⁵⁾没了武器的一民被恶犬追咬,落荒而逃。“欲望的不自制比愤怒的不自制更为可憎……在某种意义上就是邪恶。”⁶⁾这一次纵容兽性因子的代价是极其惨重的,一民因一念之差的伦理选择惨遭败北,坠入地狱。

最后,残酷地狱里,一民重拾民族信念,奔赴天堂。猩红刺目的火焰、固若磐石的钢链、无法动弹的身体、火针火刀的折磨、巡狱使者的审问,塑造了一个极其恐怖的地狱。在这个可怕的环境中,一民接受了高丽将领姜邯赞化身而成的巡狱使者的一番教导,才陡然醒悟,明白自己若是想完全成长为独立战士,就不能对爱国怀有二心,要学会控制自己的理性意志,避免被欲望支配造成恶果。由此,他彻底摒弃了欲望与杂念,一心保家卫国。在他意识觉醒的瞬间,身上的枷锁消失了,一民也最终逃离地狱,去往天国,成为真正的战士,和历史上的将领们一起参加天空清扫运动。

上述四个伦理结中出现的恐惧、贪欲、色欲等实际上都是文学伦理学批评中提到的‘兽性因子’在作祟,而一民的固守本心和坚持斗争都是其自身‘人性因子’选择的结果。从这四次伦理选择可以看出,一民虽然曾为‘懦夫’,有着趋利避害的本能,但在一站站旅途中见识了战争的血腥与人性的脆弱,一次次更坚定了自己的爱国之心和斗争意志,即使遭受挫折,也能及时止损,最终幡然醒悟,加入天国战士的队伍。

2) 伦理选择下的不同人生走向

伦理结是文学作品结构中矛盾与冲突的集中体现。文学伦理学批评的任务就是通过对文学文本的解读,发现伦理线上伦理结的形成过程,或者是对已经形成的伦理结进行解构。《梦天》中除了贯穿于伦理线上的各个伦理结,在第二个伦理背景——‘欲望之路’中还存在四个小伦理结,即,一民和六名同

5) 『摩诃止观(卷四下)』,台州:浙江天台山国清寺,1987,p.43.

6) 聂珍钊,『文学伦理学批评导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4,p.111.原文引用自亚里士多德,『亚里士多德全集(第8卷)』,苗力田译,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4,pp.66+114.

伴(分身)面对贪念和欲望的不同伦理选择。(见表2)

〈表2〉一民与同伴的伦理选择

伦理结	一民	同伴
路途艰辛	坚持	一人放弃, 五人前行
黄金山的诱惑	无视	一人受蛊惑, 四人前行
嫉妒之溪	通过	一人受蛊惑, 杀死同伴后被杀
无武器战斗	留下	两人逃跑

一民需要同行伙伴, 召唤了六个分身一起前行。欲望之路异常艰险, 他们经历了寒潮、热雨、荆棘、黄金山中玉童子的金钱诱惑、嫉妒之溪的蛊惑, 同伴们或屈从于欲望, 选择逃跑或放弃, 甚至不惜残杀同伴, 害人害己, 只有一民独自走到了最后。实际上, 这六个同伴也是一民的不同分身, 象征着他身上不同人性的代表, 他们有着人性中常见的贪图享乐等弱点。一民在前行道路上与他们告别的过程, 其实也是不断压制自身兽性因子的过程。他之所以能坚持下去, 是内外因共同作用的结果。一方面, 深知战争苦的一民自身有着坚定的信念, 同伴们都离开后, “一民对此进退两难, 长叹: ‘世界本就是如此吗?’ 一民注定没有同伴, 虽然约定一起前行, 但伙伴们都因不堪劳苦或贪恋钱财而逃走了。即使日落西山, 一民也紧握双拳咬牙坚持走下去。此时, 暮色降临, 狼和狮子拦住了去路。明明道路就在眼前, 却寸步难行, 一民只好先后退几步, 鼓足勇气大喊, ‘我不能收刀!’ 一路挥刀向前。”⁷⁾可见, 一民坚定而勇敢的理性意识是他前进的最大动力, 也是其成长过程的内因驱使; 另一方面, 一民到达东边战场后曾产生放弃的念头, 这时乙支文德将军出现了, 他安慰失去队友、十分沮丧的一民, 鼓励他继续前行。“来了? 不要悲伤, 经历多重苦痛后, 真正的同伴才会来到你身边。”将军给了一民一把刀, 说: ‘这把刀是三千九百二十五年义兵大将郑起龙用过的三寅剑, 请拿着这把剑杀敌吧!’⁸⁾无疑, 乙支文德将军的鼓励是外因, 他给了一民偌大的慰藉和希望, 正是

7)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4, p.51.

在这样的内外因驱动下，一民坚守住了参战的本心。

综上，〈梦天〉通过六个同伴与一民面对相同诱惑，却进行不同伦理选择的描写，讽刺同伴意志薄弱、贪生怕死、难成大事，称颂一民坚韧勇敢，敢于斗争，不惧牺牲。一民的每一步伦理选择都是在接受爱国意识和民族精神洗礼，他通过脚踏实地的努力，慢慢脱变为真正能够保家卫国的勇士。

3. 独立战士的伦理身份转化

文学伦理学批评注重对人物伦理身份的分析，认为文学作品中伦理问题的产生往往与伦理身份相关。〈梦天〉采用大量浪漫主义手法塑造了一个充满幻想的世界。一民在这个世界接受了苦难磨练与爱国洗礼，成长为坚强勇敢的战士。前文的四个伦理环境就是他成长过程的四个重要阶段。刚到地国的时候，他非常胆怯和懦弱，甚至无法直视尸横遍野的战场，“刀刃交锋，弓弦互击，两军激烈对抗，仆人们互相追逐。肢体残断，仍不屈服，即便失去胳膊，仍用腿继续战斗，直至全身肌肉耗尽，仅剩骨骸。短时间内，尸横遍野，腥气冲天，血流成河。一民无法忍受眼前景象，闭上双眼，心中感叹：‘宇宙竟如此残酷’。”⁹⁾可见，面对战乱的事实，一民一开始本能地想要逃避，即使鼓起勇气踏上了欲望之路，他也召唤了六个分身一起同行。但一路上，他见识了同伴之间人性的脆弱，克服了一人独自面对兽群的无助与害怕，又在与丰臣秀吉的对战中尝过被色欲支配的恶果，在他迷茫与想要放弃时，象征着韩民族精神的天官、木槿花、乙支文德、姜邯赞一直用语言和行动激励、教育着他。一民就是在这份民族信念的支撑下，逐渐克服了自身的恐惧，产生了保家卫国、不怕牺牲的勇气，实现了自我意识觉醒。最后，他来到天国，守门将领导告诉他，只有流下“爱国爱同胞，对敌人的义愤之泪”¹⁰⁾，才能真正进入天国之

8) 上文, p.51.

9) 上文, p.21.

10) 上文, p.66.

门。一民环顾四周，看到了所有生命中曾出现的亲人朋友，由此留下了对国土与同胞的眷恋之泪，完成了爱国独立战士的身份转换。

实际上，一民的旅途既是充满了幻想色彩的梦境叙述，也是真实韩国历史战争的荒诞性刻画。文学伦理学批评要求溯回小说和历史中的伦理现场，站在该伦理立场上解读文学作品，强调“运用辩证的历史唯物主义的方法研究文学中的道德现场，倾向于在历史的客观环境中去分析、理解和阐释文学中的各种道德现象”¹¹⁾，从中获取作品所传达的道德教诲、警示和现实意义。若要探究申采浩通过刻画‘一民伦理身份转化’传达的真正用意，就必须返回到一民做出相应选择的伦理现场，在客观的历史语境中，站在他的立场上审视动机与目的，对其行为做出公正合理的判断。

《梦天》的故事背景设定在檀君纪元4240年（公元1907年）。一民梦游巡礼韩国史，邂逅了高句丽著名将领乙支文德（公元550—629年）以及高丽将领姜邯赞（公元948—1031年）。小说中的英雄人物均为历史上真实存在的人物，因此，这部作品可视为一部以韩半岛历史英雄为背景的幻想小说。而文本的伦理环境又是受现实伦理环境影响的，通常作家会根据各自时代的现实环境或道德观念处理作品中的伦理问题，反映当下社会事实。《梦天》写于1916年，正好是处于日据时期和申采浩流亡中国时期创作的作品。因此，前文四个伦理背景也象征着韩民族所处环境的悲惨境况，即惨遭外国势力侵入掠夺，昔日故乡在战争蹂躏下变成火海废墟，去往天国就成了申采浩对国家未来寄予的美好希冀，他希望韩民众都能将复兴民族视为己任，参加韩民族独立运动，拿起武器开展民族解放斗争，驱除日帝，重建家园。《梦天》的‘一民’是申采浩根据自己的想象塑造出的有着‘新国民’¹²⁾形象的夏国战士，这些新国民应该有完成民族独立、国权恢复之夙愿，如申采浩在『大韩新民会趣旨书』中所提倡：“凡我韩民，莫论内外，应当统一联合，决定通往独立自由的前进道路……简言之，唤醒新的精神，组织新的团体，建设新的国家。”¹³⁾由此，小说

11) 聂珍钊，「文学伦理学批评：基本理论与术语」，《外国文学研究》第1期，2010，p.16.

12) ‘新国民’是申采浩在「20世纪新国民」一文中提出的概念，他认为“韩国若要开拓富强之基础，展现国民之威严气”，必须要“国民同胞成为20世纪之新国民”。

应现实革命任务而作，一民的独立战士成长之路即是申采浩所希望的韩国民众斗争之路，一民看见的一系列天马行空的战争场景，反映了韩半岛战火下被殖民的社会现实，体现了申采浩国破家亡、忧心国民的苦痛心境，构建了难以实现却渴望实现的独立与复兴之梦。

基于此，再审视一民的伦理身份变化，可以看到申采浩创作背后的深层象征意义。在天国，一民看到许多历史名将在用大扫帚清扫被灰尘遮蔽的天空。同样加入天国，成为真正韩民族战士的他，也产生了捍卫国土、守护同胞的伦理约束，于是，“一民醒悟，说：‘应当从我开始尽责，请给我扫帚’，他聚精会神地清扫了二十一日天空，直到手掌开裂、胳膊胀痛，像多日饥苦的人一样双眼凹陷，再也无法集中精神。然而，天空仍未完全清扫干净，于是一民心想：‘我再也使不上劲了，但是我的后辈们可以前赴后继，总有一天，天空会被完全清扫干净’。”¹⁴⁾这里的‘扫帚’象征着爱国革命战士手里的武器，‘清扫天空’象征着申采浩驱赶日帝，光复祖国河山的美好夙愿。这一情节实际上是一民对自己‘独立战士’伦理身份的一种确认，主人公‘一民’，指的既是申采浩自己，也是每一位韩半岛的同胞。正如申采浩在序中所言，“我希望在某处，有如一民一样傻乎乎的人，他拥抱太白山，饮着东海水，在半万年的岁月中细数祖国的大好山河，看尽花开花落，默默流泪。”¹⁵⁾可见，申采浩通过一民的身份认同，呼唤现实中的‘一民’出现，一起参与爱国革命运动，为祖国独立和民族光复进行至死不休的斗争。

4. 韩民族精神与伦理教诲

“文学是特定历史阶段伦理观念和道德生活的独特表达形式，文学在本质上是伦理的艺术。”¹⁶⁾文学伦理学批评的立场和最终目的是发现文学的伦理价

13) 申采浩, 『丹斋申采浩全集(别集)』, 首尔: 莹雪出版社, 1995, p.86.

14) 김병민 편, 『신체호문학유고선집』,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4, p.63.

15) 上文, p.19.

16) 聂珍钊, 「文学伦理学批评: 基本理论与术语」, 『外国文学研究』第1期, 2010, p.14.

值，即文学的教诲价值和警示价值，并以此进行教导。〈梦天〉中一民的每一步成长，实际上都得益于良师益友的敦敦教诲。这些人中，正面的教导包括拟人的民族意象——木槿花，和历史人物——乙支文德和姜邯赞；反面的教导主要指六位同伴和日本军官丰臣秀吉。申采浩通过塑造民族传统文化的意象和人物，引发国民的精神共鸣，强化‘民族共同体’和‘民族精神统一体’。民族学者安东尼·史密斯提出了‘民族认同’的概念，其核心功能在于构建一个坚实的历史与命运的‘民族共同体’，凝聚个体力量，强化集体信仰。他指出，‘民族认同’能够将同胞之爱的理念提升至核心地位，通过弘扬传统文化和纪念历史事件等方式强化公民对文化和政治的民族认同，将年幼者和年长者，生者与逝者紧密联系在‘共同体’的大家庭中。¹⁷⁾因此，共同的文化意象与历史人物在同胞心中具有独特的民族寓意，可以借此弘扬韩民族的传统精神与价值，驱使韩国民众成长为真正的抗日战士，不惧牺牲、前赴后继地为国战斗。申采浩这里传达的韩民族精神和伦理价值主要有三种。

其一，‘我’战胜‘非我’。申采浩在『朝鲜上古史』序文中阐明了‘我的’历史性，指出“历史为‘我’与‘非我’斗争的记录，”¹⁸⁾小说中的‘一民’即‘我’，既象征了申采浩本人，也象征了面临国家危机的韩民族；一民旅途所遭遇的一系列诱惑与困难即‘非我’，象征了韩民族发展中遭受的一切艰难险阻，而近代韩半岛遭受的最大的危机，便是日帝的殖民侵略。因此，〈梦天〉的寓意便在于作为‘我’的韩民族，只有不断克服历史和现实中所有的‘非我’因素，才能实现民族的发展和进步。‘我’战胜‘非我’，韩民族战胜日本帝国主义，是小说最大的伦理价值。这既是申采浩的民族史观的反映，也是其民族精神的体现，他认为亡国是从丢失民族精神开始的，只有民族主体精神才能激发民众的斗志，夺回国家权力。他意图强化民族共同体，唤醒韩半岛国民的爱国之心和民族精神，敦促国民认清正在面临的民族危机，共同寻找韩民族生存与发展的解决方案。

其二，宗教性武士魂。从伦理学上看，“人与人共处，维持社会共同体秩

17) Smith, Anthony D,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 Polity Press, 1995, pp.159-160.

18) 申采浩, 『丹斋申采浩全集(上集)』, 首尔: 莹雪出版社, 1995, p.31.

序，理应履行相应的道德约束，这是为人应有的原则，也被看作是一种善。”¹⁹⁾文中为了约束一民的道德，借助高句丽将领乙支文德之口，谴责现实生活中的诸多弊害，讲述朝鲜历史缘起，宣扬‘三神五帝’²⁰⁾、‘三京五部’²¹⁾、‘三部五戒’²²⁾、‘三郎五加’²³⁾四大民族精神。檀君时代为‘三神五帝’设立了‘三京五部’，以‘三部五戒’立法来守护‘三京五部’，并设立‘三郎五加’教授百姓们‘三部五戒’，以此作为国家宗教性的武士魂。其中，‘三部五戒’尤为重要，要求事君以忠、事亲以孝、交友以信、临战无退、杀生有择。犯了五戒就是犯了大罪，要被扔进地狱受罚，这正是韩民族宗教性武士魂的精髓。文章通过阐述韩国传统伦理道德宗教性武士魂，强调了韩民族团结的重要性，增加集体认同感，构建韩国民族精神共同体。

其三，‘7大国敌’和‘12大亡国奴’应下地狱。申采浩认为，韩国同胞的公心是药，很多国民只知道有个人，不知道有社会，只知道有家人，不知道有国家。身为公民，要忠于集体，把同胞视为手足，把国家视为家人，强调民族与同胞的一体性。小说借高丽名将姜邯赞之口，先指出‘7大国敌’应下地狱：叛国罪、卖民罪、政治罪、迷权罪、模仿他国罪、离间罪、勾结他国罪。又指出‘12大亡国奴’应下地狱，即：无视宗教只想去天堂的败类、国内分帮结派斗殴者、只学习他人者、利用外交手段削弱国民思想者、污染环境者、享乐主义者、伪君子、模仿主义者、机会主义者、自暴自弃者、利用别人者、英雄崇洋

19) 백중현, 『윤리 개념의 형성 :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서울 : 철학과현실사, 2003, pp.25-29.

20) ‘三神五帝’是根据‘三皇五帝’命名的神，삼신(三神)包括 환인(桓因)、환웅(桓雄)、환검(桓检)。오제(五帝)包括 소호(少昊)、진옥(顛頊)、제곡(帝喾)、요(尧)、순(舜)。

21) 大檀君王俭以‘三神五帝’的神话阐释了宇宙的组织，并据此制定了人间制度。‘三京五部’是檀君为‘三神五帝’而建的地区，将首都分为三京：신한, 말한, 불한。三京再分为五部：东、南、西、北、中。

22) ‘三部’指高句丽、新罗、百济。‘五戒指事君以忠、事亲以孝、交友以信、临战无退、杀生有择。

23) 檀君时代时，‘三郎’是职称，‘五加’是指地方长官，分别是牛加、马加、狗加、猪加、鸡加。

媚外者。‘7大国敌’和‘12大亡国奴’实际上就是自私自利，抛弃国家，破坏民族团结的典型。通过批判这些人，申采浩不仅强烈谴责了只为我，不为大我的国民现状，讽刺了投靠日帝的卖国贼和亡国奴，也警示国民不要为一己私欲而出卖国家。

伦理选择是通过教诲实现的，人的素质、能力与知识都是教诲的结果，文学主要是通过范例给人树立榜样。如上所述，木槿花、乙支文德和姜邯赞三位是一民的正面榜样，他们对一民进行伦理教化，启蒙爱国思想，帮助他克服软弱、色欲等兽性因子，坚定抗日救亡决心，成长为真正的抗日救亡战士。在这条伦理线上，一民接受伦理选择指引，达到道德的成熟和完善。这也是榜样人物“为人类的物质生活和精神生活提供道德指引，为人类的自我完善提供道德经验”²⁴⁾的作用体现，这样的榜样放置当下社会也是十分有进步性意义的。

需要注意的是，申采浩〈梦天〉的伦理观也存在一定的时代局限性。文学伦理学批评认为，把历史的文学放在今天的伦理环境中阅读，就可能在评价文学时出现伦理悖论，即“合乎历史道德的文学不符合今天的道德，历史上肯定的文学恰好是今天需要否定的文学。”²⁵⁾一方面，申采浩的作品大多是为日据时期的‘救国’而服务的，包含了强烈的个人情感和作家意识，因此，在历史叙述方面难免忽视事件的真实性。另一方面，〈梦天〉中宣扬的民族主义价值观是强烈而激进的，其中，‘只学习他人者’、‘享乐主义者’、‘自暴自弃者’等应下地狱等观念，虽然在当时看来是许多被殖民地革命者的最强心声，但放眼至‘敌国’这一概念边缘化的当今全球化社会中，难免会产生一些争议。

5. 结语

本文从文学伦理学批评的视角出发，重新审视申采浩幻想历史代表作〈梦天〉，小说以虚构的文本伦理环境和真实的韩国历史背景为立足点，以主人公一民梦游韩史，在重重苦难中坚守本心，最终完成爱国独立战士的身份转换

24) 聂珍钊，「文学伦理学批评：基本理论与术语」，《外国文学研究》第1期，2010，p.17.

25) 聂珍钊，《文学伦理学批评导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4，p.18.

这一故事为伦理线，结合纵向与横向的伦理结，剖析一民在面对一系列诱惑时笃定的家国意识和伦理选择，并借用代表民族精神的意象或人物——木槿花、乙支文德和姜邯赞进行教诲的方式，强调‘民族认同’与‘民族共同体’，提出民族精神与伦理价值：‘我’战胜‘非我’、宗教性武士魂、‘7大国敌’和‘12大亡国奴’应下地狱。这三大伦理价值不仅影射了近代韩半岛日帝殖民阴云笼罩下残酷的现实环境，讽刺“韩国同胞缺乏毅勇”“韩国上下为图私利”，导致“今日民衰国败”等现状，也警醒大众：现实并非梦游，也不是幻想，而是真实存在的，作为韩民族的民众们都应该直面日帝殖民下的残酷现实，共同寻找民族发展的出路。小说还寄托了申采浩深厚的民族夙愿：万千‘一民’站起来，成为抗日独立战士，一致对外，为韩民族而抗争。由此，〈梦天〉以强烈的家国意识和幻想浪漫的文风被评为韩国新文学初期意义重大的历史小说之一。

◆ 参考文献

1. 资料

-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선집』,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94.
 _____, 『朝鮮—韓國文學의 近代轉型與比較文學』,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05.
 申采浩, 『丹齋申采浩全集(上/別集)』, 首尔: 莹雪出版社, 1995.

2. 单行本

- 聂珍钊, 『文学伦理学批评导论』,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4.
 聂珍钊·苏晖 总主编, 『文学伦理学批评理论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20.
 백종현, 『우리 개념의 형성: 현대 한국사회의 철학적 문제』, 철학과현실사, 2003.
 Smith, Anthony D,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1995.

3. 论文

- 김병민, 「流亡与建构: 申采浩的中国体验与近代想象」, 『东疆学刊』第4期, 2017, pp.1-7 + 111-112.
 聂珍钊, 「文学伦理学批评: 基本理论与术语」, 『外国文学研究』第1期, 2010, pp.

12-22.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From ‘Coward’ to ‘Warrior’

-An Ethical Identity Interpretation of Hannom in *Dream in Heaven*-

Lin, Xueqi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Korean patriot and writer Shin Chae-ho, exiled in China due to the annexation of his homeland, crafted his historical fantasy novel *Dream in Heaven*. This work molds the character of Hannom, a young man arduously seeking the path to national rejuvenation, much like Shin himself. Hannom, wandering through Korean history in his dreams, encounters numerous temptations and predicaments, evolving from a life-fearing ‘coward’ to a ‘warrior’ in the anti-imperial struggle. This transformation exemplifies the concept of ‘ethical identity’ in the critique theory of Chinese literary ethics. It reflects the exilic mindset of patriots and revolutionaries like Shin Chae-h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s well as the real-life struggles of millions of Korea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Hannom's growth, Shin Chae-ho not only conveys national spirit and ethical teachings but also expresses his profound hope for the Korean people: to take up arms in the fight against Japanese rule and restore national sovereignty.

KeywordShin Chae-ho, *Dream in Heaven*, Literary Ethical Criticism, Ethical Identity, Ethical Teaching

可歌：宋元赋体建构的正统反向

黄卓颖*

국문요약

중국 문학계에서 부(賦)문체의 대해 일찍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 예를 들어 刘向과 班固는 '노래하지 않고 낭송하는 것을 '부(賦)'라고 여겼는데, '부(賦)'라는 문체는 낭송을 사용하며, '노래하지 않음'이라는 예술적인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부(賦)' 창작의 시각적, 회화적 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부(賦)' 읽기의 수식적, 표현적 특성을 강조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위진(魏晉)으로부터 당(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賦) 작가와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됨으로써 중국 중고 시기 가장 권위 있는 정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송대와 원대 부(賦) 작가들은 부(賦) 문체의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념은 당시의 '한부(汉赋)'와 '초소(楚骚)' 사이의 패러다임 경쟁 그리고 운율 문학의 '노래화(歌化)'라는 두 현상에 근거한 것이다.

한대 이후 '노래하지 않는' 전통에 대한 의식적인 반성을 통해 사부(辞赋)는 '웅장한 아름다움을 지닌 가시적' 문체에서 '부드럽고 완곡하며 사유 가능한' 문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한부(汉赋)'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걸치장'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시체(诗体)' 그리고 관조적 인 심미적 가치로 재창조되었다.

이 과정은 '한부(汉赋)' 역사의 전환과 변화를 촉발했을 뿐만 아니라 송원(宋元) 문화의 '의고(疑古)'와 '변고(变古)'의 경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송원(宋元), 사부(辞赋), 가가(可歌), 조소종한(祖骚宗汉), 시체(诗体)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中国古代文学, 副教授

〈目录〉

1. 问题的提出
2. 从“不歌”到“可歌”：赋学经典的定向与反向
3. 宋元赋学“可歌”转向的文化条件
4. “可歌”的古赋新式
5. 赋史新图：内向审美的建立与“赋为诗体”的确认
6. 结语

1. 问题的提出

关于赋学历史的言说，前人关注的焦点，大体不出三方面：或按时间先后顺序对历史时期赋体创作及其优劣进行评述；或从正体、尊体的角度对古赋、俳赋、律赋、文赋等不同赋类的演进过程及体制优劣进行辨析；或高标首领与典范，对赋学经典进行正统化、谱系化的尊祖定宗的排序。这些知识，对于建立宏观的赋学框架甚有裨益。但当我们深入赋体，想要透彻了解某种艺术范式断续过程、赋学新体出现的原因、内涵及效应时，这些相对“粗放”的“外在”框架，有时反不如以赋学品格或某种内在的艺术精神为线索联结生成的学术史那么深究根本与富有启发。然而这后一种赋学的历史，不管是在古人的辞赋理论中，还是今人的学术研究中，都被有意无意地忽略了。一个重要且典型的例子即由“可歌”关联起来的两汉至宋元一段赋学史。

2. 从“不歌”到“可歌”：赋学经典的定向与反向

在汉代的赋学语境中，“颂”因为经常用来指代赋而逐渐成为“赋之通称”，¹⁾刘向等人遂在“升高能赋”、“颂其所见”的经典后发下，将其并入赋域，从而生成“不歌而颂谓之赋”的判断。²⁾作为首次站在自觉立场上对何为赋体作出的明确界定，

1) 李善等，《六臣注文选》，北京，中华书局，1987年，325页下栏。

2) 《汉书·艺文志》引作“不歌而诵”。实质上，汉魏晋南北朝时期，颂、诵假借，往往混同不

它意味着汉人观念中赋学构体的重要特征，在于通过否定和排斥《诗经》以来“声诗”系统的“歌”艺，取而代之，以“颂”法作为核心。因此，要洞悉汉人“不歌”的赋学要旨与汉赋构体的具体情况，有关“颂”的正确理解便成了最关键的一环。但一直以来，由于“颂”义的多元、变迁及以今衡古的思维定势，导致当今学界对“颂”的理解存在着很大偏差：一种观点认为“颂”与“诵”互相假借，“不歌而颂（诵）”意味着赋在阅读和演绎上关联着古老的吟诵调艺术；³⁾另一种看法则以为汉赋书写因为常有颂美之用，所以“不歌而颂”彰显的乃是赋体与颂体之间“交越互用”的现象。⁴⁾这是现代两种最主流的解释，虽不能说错误，但恐怕也仅停留在浅层与偏至的理解。因为回归历史，首先，“颂”、“诵”假借，在汉代主要不作“吟诵”解；其次，汉人作赋，虽然强调“宣上德以尽忠孝”的颂美之用，但同时亦有“抒下情以通讽喻”的功能（且从赋家主观意图来看，后者更为普遍与重要），“颂”不得长期单边指称赋体可知。因此，“不歌而颂”的真正内涵是什么，尚有待深度发掘。

考汉人对于“颂”的解释，《说文解字》说：“颂，兑也。”又解“兑”曰：“兑，颂仪也。”清人段玉裁引申其说：“颂者，今之容字，必言仪者，谓颂之仪度可兑象也。凡容言其内，兑言其外。引伸之，凡得其状曰兑。”⁵⁾至汉末刘熙《释名》，也说“颂，容也。叙说其成功之形容也”。⁶⁾而郑玄注经典，一再强调“颂之言容”，⁷⁾“颂之言诵也、容也”。⁸⁾可见，不管是字书训释，还是经典言说，汉人

分。所以郑玄注《周礼·春官·大师》，就说“颂之言诵也”，后来皇甫谧《三都赋序》、刘勰《文心雕龙·诠赋》等复述这一话语，均作“不歌而颂”。

3) 刘昆庸《“歌”与“诵”、“造篇”与“诵古”——秦汉赋诗形态的演化》（《学术探索》2007年2期），王长华、郗文倩《汉代赋、颂二体辨析》（《文学遗产》2008年1期），万光治《从民歌的赋体因素看诵、赋关系的构建——再析“不歌而诵谓之赋”》（《中国诗学研究》2017年2期）。

4) 王德华《东汉前期赋颂二体的互参与散体大赋的走向》（《文学遗产》2004年4期），易闻晓《论汉代赋颂文体的交越互用》（《文学评论》2012年1期）。

5) 段玉裁，《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年，分别见416页上栏、406页上栏。

6) 王先谦，《释名疏证补》，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4年，175页。

7) 阮元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年，581页中栏。

8) 同上，796页上栏。

多将“颂”与“诵”、“容”互训假借，强调其“可兑象”、“得其状”的语义内涵，这正构成汉人“颂”义诠释与使用的强力语境。当我们透过这一语境再来理解“不歌而颂”，其意义已不言而喻，无疑在强调赋体重形容、“可兑象”的视觉审美特征。落实到具体文本，又可在两方面得到验证：

(一) 赋文书写重可视性与图绘效果。尽管汉人在主观上不断加强“宣上德”、“通讽喻”的赋义表达的正当与必要。但正如扬雄所说，“靡丽之赋”，“曲终奏雅”，“劝百讽一”。⁹⁾当“云构”的“腴词”被置于文本前景，形成对“雅义”的全面覆盖时，就决定了汉赋的阅读，在客观上只能导向一种“写物图貌，蔚似雕画”的视觉体验。¹⁰⁾而三种书写策略的加入更是极大强化了这一效果：首先是题材的集成性，此即“繁类以成艳”，指的是赋家通过类聚不同内容、性质、色彩的主题与画面造成文本的视觉奇观。典型如枚乘《七发》，即以吴客与楚太子的问答，连续贯穿音乐、饮食、车服、游宴、田猎、观涛、论道等七个场景，即在“穷瑰奇之服饌，极蛊媚之声色”的集体绘写中给读者呈贡了一幅“伟丽”的视觉宏图。¹¹⁾其次是文法的编织性，所谓“合纂组以成文，列锦绣而为质”，¹²⁾通过纵向叙事与横向铺衍作为技术配合，将不同场景、画面、对象进行经纬编织，造出一篇篇“朱紫”、“玄黄”的“锦绣”之文。以扬雄《长杨赋》为例，全篇列叙高祖奋武、文帝守成、武帝拓边、成帝法先的事迹，首先在时间链条上形成纵向叙事；中间穿插以“顺斗极，运天关”、“躬服节俭，绋衣不敝”、“云合电发，森腾波流”、“登南山，瞰乌弋”等段落，分别为诸帝极意形容，则从横向进行生发，二者交织融辉，最终生成一幅幅“驰骋夸诩”的“奇丽”景观。¹³⁾最后是体物的形容性，汉赋的本色在体物，而体物的一个重要原则即“拟诸形容”、“象其物宜”，故或如“盘纤茝郁，隆崇崔

9) 司马迁，《史记》，北京，中华书局，2003年，3073页。

10) 如汉宣帝称辞赋“辩丽可喜”（《汉书·严朱吾丘主父徐严终王贾传下》），扬雄言辞赋有“丽则”、“丽淫”之分（《法言·吾子》），班固评司马相如赋为“弘丽温雅”（《汉书·扬雄传》），王充则称司马相如、扬雄辞赋为“弘丽之文”（《论衡·定贤》）。均以“丽”为归宿而道出汉赋重视视觉审美的本真。

11) 杨明照，《增订文心雕龙校注》，北京，中华书局，2000年，181页。

12) 葛洪，《西京杂记》，西安，三秦出版社，2006年，93页。

13) 费振刚、仇仲谦、刘南平，《全汉赋校注》，广州，广东教育出版社，2005年，284页。

岑；岑峯参差，日月蔽亏”（《子虚赋》）形容状貌；或如“拖苍猊，跋犀犛，蹶浮麋。斫巨狴，搏玄猿，腾空虚，距连卷”（《羽猎赋》）、“皓齿粲烂，宜笑的皪；长眉连娟，微睇绵藐，色授魂与，心愉于侧”（《上林赋》）形容动作、神态；或如“震郁怫以凭怒兮，眈矜骇以奋肆。气喷勃以布覆兮，乍踣跣以狼戾。雷叩锻之岌岌兮，正浏栗以风冽”（《长笛赋》）、“丹青赭垩，雌黄白垩，锡碧金银，众色炫耀，照烂龙鳞”（《子虚赋》）形容声色。¹⁴⁾总之，均通过一系列“极声貌以穷文”的夸张与繁饰，造成文本“夸丽风骇”、“回易耳目”的视觉冲击。¹⁵⁾

（二）汉赋阅读重形容与表演。既然赋文书写重可视与图绘，故要充分传达其可视的微妙与精髓，在阅读与演绎上也就不能不借助于视觉的形容与表演。这从汉人关于辞赋的“诵读”规定可以见出端倪。史称汉元帝好王褒《甘泉赋》、《洞箫赋》，乃“令后宫贵人左右皆诵读之”；¹⁶⁾班固作《两都赋》，也借西都宾“诵之”；而汉末刘琰养侍婢数十，使其习声乐，“悉教诵读《鲁灵光殿赋》”。¹⁷⁾可见“诵读”乃是汉代辞赋阅读的主要方式。作为一种专门之学，它实质包括了两个不同的程序：“读”在于“抽绎其意蕴至于无穷”，所以偏于讲释文义；¹⁸⁾而“诵”则重在“得其文辞”，意义不仅仅止于“以声节之”的吟诵。考虑到汉人“颂之言诵也、容也”，以诵、颂、容三者为一的说法，则“诵”除了“背文”吟诵之外，还必须能将赋文作视觉的形容，此即刘熙载“诵凭目”之意。¹⁹⁾“凭目”不指以目视文朗读（因为“诵”须“背文”），而是强调辞赋的阅读与演绎，须出于视觉，形于视觉，且最终归之于视觉。所以它带有极强的形容性与表演性。扬雄称“赋者似俳优淳于髡、优孟之徒”，²⁰⁾清代汪琬也说“汉之君臣乃以俳优嬰戏视辞赋”，²¹⁾都道出了汉代辞赋

14)至如后人依据“体物”方式及效果的不同，将其详分为“实体”、“虚体”、“象体”、“比体”、“量体”、“连体”、“影体”等不同类目（陈绎曾《文筌·汉赋谱》），亦正凸显了汉赋“极意模写”、“形容事意”的文本特征。

15)何焯，《义门读书记》，北京，中华书局，2006年，947页。

16)王先谦，《汉书补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4488页。

17)陈寿，《三国志》，北京，中华书局，2005年，1001页。

18)段玉裁，《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年，91页上栏。

19)刘熙载，《艺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102页。

20)王先谦，《汉书补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5394页。

的阅读与演绎，与俳优谐戏相类而重视视觉形容与表演的特征。²²⁾

据此可知，汉人所谓“不歌而颂”，实质上就是要以“可视”否定“可歌”，通过视觉图景的营构排斥内省反思的抒情，²³⁾由此建立一种外向、发皇，讲究“闾衍巨丽”之观的赋学范式。根本既已深造，此后经皇甫谧《三都赋序》、刘勰《文心雕龙·诠赋》等重要赋学文献的引用与标榜，及唐代《初学记》、《艺文类聚》、《白氏六帖》诸大型类书（作为阅读与写作的知识资源）的强调与复述，“不歌”及其关联的“闾衍巨丽”范式很快成为赋学传统的经典定向。但是，当历史发展至宋元时期，赋体的“不歌”却突然出现了反转，范仲淹首先提出赋须“可歌可谣，以条以贯”的要求；²⁴⁾郑起潜起而应之，亦强调赋的重要价值在“取其可歌”；²⁵⁾而吴莱教人作赋，首先强调“倡和鬪辟”的“音法”（与“清浊谐协”的“韵法”不同）；²⁶⁾至祝尧《古赋辩体》辨赋体优劣，则干脆将“不诵而歌”看成是理想的“诗人所赋”的典范品格。²⁷⁾这中最为有意思的是秦观，他竟然将作赋视为一种“填歌曲”的行为：“夫作曲，虽文章卓越而不协于律，其声不和，作赋何用？”²⁸⁾以为赋如果不能协律和声，加以歌唱，则在根本上丧失了其存在的价值。如上种种言论的出现都表明：“可歌”作为宋元赋学言说的新潮流，已经取代并遮蔽了“不歌”的传统。这不能不让人产生两个疑问：第一，为什么此时赋学风向会突然转向“可歌”？第二，这种反转是否影响了当时及后世的赋学发展？

21)汪琬，《尧峰文钞》，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15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272页下栏。

22)也正因为这一缘故，李光地得将汉赋视为“汉之俗文”（《榕村语录》卷三十《诗文二》）。

23)刘熙载《艺概·赋概》说“大抵歌凭心，诵凭目。方凭目之际，欲歌焉，庸有暇乎”，强调的是赋体视觉审美对歌咏抒情的遮蔽和排斥。

24)范仲淹，《范仲淹全集》，成都，四川大学出版社，2007年，508页。

25)郑起潜，《声律关键》，见《续修四库全书》第1717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564页下栏。

26)宋濂，《浦阳人物记》，见《丛书集成新编》第101册，台北，新文丰出版社，2008年，416页下栏。

27)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78页上栏。

28)李廌，《师友谈记》，北京，中华书局，1985年，6页。

3. 宋元赋学“可歌”转向的文化条件

“不歌”的传统断裂，与“可歌”的突然崛起，如果单从赋学内部的衍变看，似乎有些突兀。但考虑到宋元变化了的学术磁场与文化语境，一切又显得理所当然，因为文化全体的内部重组和学术面相的局部新构为赋体的“可歌”提供了两个重要条件：

首先是音乐的繁盛及其与韵语文学的结合导致楚骚“可歌”。无论从何种角度看，宋元特别是宋代都称得上是中国古典音乐发展的鼎盛时期。言朝廷与官方制作，以北宋为例，就有太祖建隆元年至徽宗崇宁五年的六次重大乐制改革；²⁹⁾论士人阶层的修习，由于性理之学流行，士子们秉承“致乐以治心”的经典训诫，³⁰⁾每以音乐济助心性修养，所以乐学亦成为士人阶层通习的科目；³¹⁾至于闾里民间的日常娱乐，更有各种滑稽戏、傀儡戏、影戏、三教、讶鼓等音乐剧与戏曲在市井乐坊流连演出。³²⁾此外，从当时音乐知识与音乐文献的创制、管理与保存来看，既有沈括《乐论》、范镇《新定乐法》、阮逸《皇祐新乐图记》等众多阐述具体音乐理论与技法的专门著作，同时更出现了像陈旸《乐书》（二百卷）、《历代乐仪》（三十卷）、周宝伊《大周正乐》（八十八卷）、徐景安《新纂乐书》（三十卷）等卷帙浩繁、体系庞大的集成性文献，³³⁾这些来自制度建设、实践演出与知识管理层面的重乐行为都充分反映了宋元时期音乐的高度繁荣。而音乐的繁荣，作为整个时代的文化底色与强力语境，又以各种方式辐射、影响了其他文化部门的发展。就文学而言，带来一个重要效果，即促进了音乐与韵语文学

29) 脱脱等，《宋史》，北京，中华书局，1977年，2937页—2938页。

30) 孙希旦，《礼记集解》，北京，中华书局，1989年，1029页。

31) 如周敦颐说：“乐声淡而不伤，和而不淫。淡则欲心平，和则躁心释。”（《周元公集》卷一《通书·顺化》）朱熹说：“乐有节奏，学他底急也不得，慢也不得，久之，都换了他一副当情性。”（《朱子语类》卷八十六《礼三·周礼》）刘因说：“乐者能动荡人之血气，使人有些小不善之意都着不得，便纯是天理，此谓成于乐。”（《四书集义精要》卷十六《论语》）皆是此意。

32) 谢维扬、房鑫亮主编，《王国维全集》第3卷，杭州，浙江教育出版社，2009年，36页—55页。

33) 脱脱等，《宋史》，北京，中华书局，1977年，5054页—5056页。

的结合。这又分为两条线索：一是改进和完善了唐五代以来新兴、通俗的音乐文学，使其作为成熟的个体逐渐独立于文学之林，如作为宋、元“代胜之文”的词、曲及为后世戏曲、传奇成熟与多样化发展打下重要基础的转踏、曲破、大曲、法曲、诸宫调、赚词等便是其优秀成果。第二条线索则转向传统、古老的“声诗”系统。首先是《诗经》，这部被称为“歌诗三百”、“弦诗三百”的文学经典，虽然曾经被被之管弦，加以歌唱，但由于种种原因，在后世较长时间内不再歌唱或极少歌唱，至宋元，在时代潮流的鼓动下，众多好古之士开始凭藉音乐提供的契机，将《诗经》重新配乐演唱，试图复原其“可歌”的艺术旧制。如《宋史》在叙及宋朝“湖学之兴”时，就曾作了如下一段描述：“老师宿儒痛正音之寂寥，尝择取《二南》、《小雅》数十篇，寓之埙籥，使学者朝夕咏歌。”³⁴⁾作为其中的杰出代表，朱熹后来研摩《诗经》，亦取《小雅》之《鹿鸣》、《四牡》、《皇皇者华》、《鱼丽》、《南有嘉鱼》、《南山有台》六篇，歌以黄钟清宫（俗呼为正宫调）；二南《关雎》、《葛覃》、《卷耳》、《鹊巢》、《采芣》、《采芣》等六篇，歌以无射清商调（俗呼为越调），然后“述为诗篇，汇于学礼”，“使后之学者学焉”。³⁵⁾正是得力于这些“老师宿儒”的造作，“声诗之学”逐渐“为儒者稍知所尚”，从此，歌《诗》便成为流行的风气。³⁶⁾影响所及，作为“《风》、《雅》之变”而有“楚风”之称的《楚辞》，在“古诗新唱”的氛围中，也成了“可歌”化改造的对象：一方面，严羽称楚骚须“歌之抑扬，涕泪满襟”，朱熹说《楚辞》须“沉潜反复，嗟叹咏歌”以体悟其真味，³⁷⁾祝尧称《楚辞》体制“取于乐歌之音节”，³⁸⁾均从理论上阐明《楚辞》文体的“可歌”与阅读的须“歌”。另一方面，又有陈康士制《楚调五章》一卷、《离骚谱》一卷，吾衍作《九歌谱》若干卷对《楚辞》进行实际

34)同上，3339页。

35)同上。3339页—3340页。

36)又俞琰有《弦歌毛诗谱》一卷，见《二十五史补编》第6册，北京，中华书局，1995年，8397页中栏，亦为《诗经》歌唱乐谱。

37)分别见郭绍虞，《沧浪诗话校释》，北京，人民文学出版社，1983年，184页；朱熹，《楚辞集注》，北京，人民文学出版社影印本，1953年，3页。

38)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78页下栏。

歌唱。³⁹⁾二者互相生发、呼应，最终又造成宋元人“喜歌楚词”的潮流。⁴⁰⁾以上构成赋体“可歌”的第一个条件。

第二个条件即“祖骚宗汉”的经典排序导致《楚辞》被树立为古赋正宗、标准与理想。宋元人在梳理赋统、排列经典的过程中，逐渐形成了一个重要命题：“祖骚宗汉”。如宋祁说“屈、宋《离骚》为辞赋之祖”，“后人为之，如至方不能加矩，至圆不能过规”；⁴¹⁾项安世说“自屈、宋以后为赋，而二汉特盛，遂不可加”；⁴²⁾刘克庄也说“《离骚》为词赋祖宗”；⁴³⁾陈桛则称“《离骚》，赋之祖，降是舍汉何适”；⁴⁴⁾至祝尧最后出而总结诸说：“古今言赋，自骚之外咸以两汉为古，已非魏晋以还所及。心乎古赋者，诚当祖骚而宗汉。”⁴⁵⁾精英阶层的群体言说使“祖骚宗汉”成了宋元时期赋学观念中一个重要的常识与共识。但是，明代及其以后的学者却一直误解着这个命题，他们站在“一代有一代文学之胜”的观念预设中，将“祖骚”与“宗汉”视为并列范畴，以为宋元人提出这一命题，乃是要兼取楚骚“优柔清深”与汉赋“闳衍巨丽”两种不同范式。但当我们回归宋元的赋学语境，却发现事实并非如此：“祖骚宗汉”的话语结构所内含的乃是一种条件关系。也即是说，“祖骚”处于一种绝对的先行优势中，它规范与制约着后者，这决定了宋元人所谓“宗汉”只能是合骚之汉。其说可从三方面予以证明：

其一，宋元赋家多明确反对与否定代表汉赋正体的“闳衍巨丽”之制，而对符

39) 脱脱等，《宋史》，北京，中华书局，1977年，5055页；钱大昕，《补元史艺文志》，见《二十五史补编》第6册，北京，中华书局，1995年，8399页中栏。

40) 陈旅，《安雅堂集》，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213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155页上栏。

41) 宋祁，《宋景文公笔记》，见《全宋笔记》第一编第5册，郑州，大象出版社，2003年，55页。

42) 项安世，《项氏家说》，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70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543页上栏。

43) 辛更儒，《刘克庄集笺校》第12册，北京，中华书局，2011年，5294页。

44) 陈桛，《定宇集》，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205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164页上栏。

45)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47页下栏。

合骚体范式的“优柔”小赋则盛加褒赞。如晁补之说“《子虚》、《上林》、《甘泉》、《羽猎》之作，赋之闳衍于是乎极。然皆不若其《大人》、《反离骚》之高妙”；⁴⁶⁾祝尧称“古人之赋，固未可以铺张侈大之辞为佳”，又说司马相如、班固、扬雄宏衍巨丽之赋“去骚颇近，然但得骚人赋中一体”，“若论骚人所赋全体，固当以优柔婉曲者为有味，岂专为闳衍巨丽之一体哉”；⁴⁷⁾李继本将汉赋与楚骚相较，也认为“司马相如、扬雄、班固《上林》、《子虚》、《甘泉》、《羽猎》、《东》、《西都》之制作，虽皆流声无穷，至律以骚之规律，瞠乎若后尘矣”。⁴⁸⁾而朱熹“白（屈）原之后”“独贾太傅以卓然命世英杰之材，俯就骚律”，“皆非一时诸人所及”的说法，⁴⁹⁾及袁桷“屈原《橘赋》、贾生《鹏赋》为正体”的论断，⁵⁰⁾均在骚体律式中将“屈原—贾谊”看成是古赋的最高经典，在在彰明了“祖骚宗汉”的骚体归宿。

其二，宋元人整理骚赋文献，均以骚体及骚化之赋为正统，而拒斥或轻视“闳衍巨丽”之赋的加入。如晁补之编《续楚辞》二十卷、《变离骚》二十卷，朱熹撰《楚辞集注》八卷、《楚辞辩证》一卷，编《楚辞后语》六卷，所取均为“出于幽忧穷蹙、怨慕凄凉之意”的骚作，至于“宏衍巨丽之观，欢愉快适之语”，则“不得而与”。⁵¹⁾而祝尧编纂《古赋辩体》，秉承晁、朱二人意旨，采择自屈原至宋代历朝优秀古赋之作，虽兼取司马相如《子虚赋》、《上林赋》，扬雄《河东赋》、《长杨赋》、《羽猎赋》、《甘泉赋》与班固《两都赋》，但用意仅止于备体，至于全书大旨与宗尚，则依然在“贵乎合骚之音”。⁵²⁾

46) 晁补之，《鸡肋集》，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118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687页上栏。

47)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804页下栏—805页上栏。

48) 李继本，《一山文集》，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217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91页下栏。

49) 朱熹，《楚辞辩证》，见朱杰人、严佐之、刘永翔主编《朱子全书》第19册，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215页。

50) 杨亮，《袁桷集校注》第5册，北京，中华书局，2012年，1888页。

51) 朱熹，《楚辞后语》，见朱杰人、严佐之、刘永翔主编《朱子全书》第19册，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221页。

其三，楚骚成为衡量古赋与时人之赋优劣的最重要标准。如晁补之称赞《自悼赋》“甚古”，原因即由于其“侵寻于楚人”。朱熹盛推《长门赋》“古妙”，也以其“最近《楚辞》”；又于《服胡麻赋》下评论欧阳修、曾巩、苏轼，以为三人虽“杰然自为一代之文”，然“于楚人之赋有未数数然”，故不能不引为遗憾。⁵³⁾他如袁桷称赞噩上人《骠骑山赋》、《叠秀赋》、《冽清赋》等“言道也师《远游》；托兴也邻《九辩》”，故推其“诚骏骏乎古作”；⁵⁴⁾祝尧发现“韩、柳诸古赋一以骚为宗”，亦断言“唐赋之古，莫古于此”。⁵⁵⁾显然，无论古今，赋家、赋作的价值都被置于楚骚律式中进行称量和裁决。而反观汉赋，则从未取得过此种地位。不仅如此，它自身尚需“律以骚之规律”进行“则之与淫”的验证。可见宋元人的“宗汉”并非漫然泛指，更非特指“闾衍巨丽”之体。所谓“祖骚宗汉”，其最终要义乃在独尊楚骚为古赋理想与标准。

既然“祖骚宗汉”确立了楚骚在古赋领域的理想与标准地位，而楚骚在宋元时期又有理论上体制可“歌”、阅读须“歌”与实践中被被之管弦、加以歌唱的双重“可歌”证明。因此，古赋（赋体）要优化自我而走向理想，必然以“可歌”作为其典范品格。这就是宋元人“《诗》变而骚，骚变而为辞，皆可歌”的逻辑进程，⁵⁶⁾也是他们为什么突然抛弃“不歌”的传统而转向“可歌”的重要原因。

4. “可歌”的古赋新式

当宋元人以“可歌”颠覆“不歌”的传统时，他们已在事实上抛弃了与之相应的“闾衍巨丽”赋体。由此，也带来了一个亟需解决的问题：与“可歌”对应的赋学新式

52) 孙福轩、韩泉欣编，《历代赋论汇编》上册，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6年，26页。

53) 朱熹，《楚辞后语》，见朱杰人、严佐之、刘永翔主编《朱子全书》第19册，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246页、243页、305页。

54) 杨亮，《袁桷集校注》第6册，北京，中华书局，2012年，2232页。

55)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802页。

56) 祝尧，《古赋辩体》卷九引陈知柔（休斋）语，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846页上栏。

该如何建构？

从宋元人标榜的“可歌”赋学来看，主要涉及两种情况：一是以乐谱配合赋文，对赋作进行事实上的歌唱。一个典型且流行的例子即陶渊明《归去来兮辞》。早在北宋中期，苏轼就已取其文，微加增损，“作《般涉调 哨遍》”，“以就声律”，令人歌之了。⁵⁷⁾至南渡初，遂演化成“今人歌之”的普遍现象。⁵⁸⁾宋元之际，时代迁延既久，乐学变更亦多，《归去来兮辞》“旧谱宫不宫，羽不羽”，已不再适合演唱。于是，“雅好鼓琴”，又以词赋见称的俞琰改编旧曲，代“以中吕羽调作谱”，终于使其“声依永”而重新便于歌唱。⁵⁹⁾除此之外，宋元人自作赋篇也不乏歌唱的例子，如苏轼《赤壁赋》就曾被世人弦歌，⁶⁰⁾而杨维桢《杖赋》，亦为门人魏鞞“歌之”，⁶¹⁾都是昭明的例证。此为宋元辞赋“可歌”的第一重内涵，但其对于赋学新体建构的影响较小。有意义的是第二种情况，即“可歌性”。这类赋作也许并未配乐演唱，但由于它们善于抒写人情，常常在“情灵摇荡”中鼓动读者的心灵世界，使其兴发感动之余，常有一种嗟叹咏歌的冲动和妙趣。所谓“歌凭心”，⁶²⁾说得正是此种以心灵世界作为抒写起点，最终又回归心灵世界的“可歌性”。它一般关联着以下元素：

就体制而言，多为骚体或骚化之赋。正如范梈所说，骚体“断如复断，乱如复乱，而词义反复屈折行乎其间”，让人读后，徘徊循咀、沉吟歔歔，往往“一唱三叹而有遗音”，⁶³⁾所以，它天然就具有一种“赋之乐”的内在“可歌性”。⁶⁴⁾而骚化

57) 张志烈、马德富、周裕锴主编，《苏轼全集校注》，石家庄，河北人民出版社，2010年，第18册6482页、第4册2583页。

58) 陈知柔，《休斋诗话》，见吴文治主编《宋诗话全编》第4册，南京，凤凰出版社，2006年，4363页。

59) 北京大学、北京师范大学中文系编，《陶渊明资料汇编》下册，北京，中华书局，2012年，330页。

60) 魏了翁著、方回续《古今考》，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853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555页下栏。

61) 杨维桢，《丽则遗音》，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222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174页下栏。

62) 刘熙载，《艺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102页。

63) 王琦，《李太白全集》下册，北京，中华书局，1999年，1553页。

之赋则拟仿这种“可歌”：或者通过掺杂大量骚句与虚字作腰的长句（所谓“题歌句法”，如柳衡《鹦鹉赋》“嗟禄命之衰薄，奚遭时之险巇？岂言语以阶乱，将不密以致危？痛母子之永隔，哀伉俪之生离。匪余年之足惜，愍众维之无知”，王旭《鸣鹤赋》“纷青松之坠露，霏素月之流阴。有九皋之灵鸟，乃于焉而抗音”，杨维桢《孔子履》“繁尼山之降圣，实礼服之攸师。冠天圆而肖象，履地方而取仪。曰大圣之所履，岂远异夫文綦”等）造成文本“优柔委婉之致”与连绵唱叹的效果；或者受楚骚“乱辞”的启发，在古赋写作中加入“歌体”：“铺叙”段“间以短歌”；“承过”段杂以“歌咏”；“结尾”段“或为乱辞，或为歌诗”。⁶⁵⁾总之，要以“歌体”“变换一篇之节奏，舒宕其辞气”，以此形成赋文“神味倏然”、“江上峰青”的兴发效果与歌咏余韵。故无论骚体抑或骚化之赋，它们在呈现文本的“可歌性”上都有一种天然的优势。也正因为如此，宋元人特别是元朝赋家，往往以骚体或骚化小赋作为古赋写作的第一选择。以现存元赋总集《元赋青云梯》为例，此书共收元代102人72题111篇古赋，除孟泌《凌烟阁赋》、彭士奇《秦阶六符赋》、李懋《茧馆赋》、邹选《金马门赋》、庄文昭《蒲轮车赋》、林温《浙江赋》、吕诚《角端赋》、陈正宗《江汉朝宗赋》、林似祖《天爵赋》、谢一鲁《荆山璞赋》、凌云翰《彤弓赋》、陈宪《禹门赋》、刘岳申《纸田赋》、黄溪东《春台赋》等14篇外，其余均为骚体或骚化之赋。又元赋大家杨维桢有场屋应试古赋集《丽则遗音》四卷，共收古赋32篇，除了《镐京》、《秦时》、《正考父鼎》、《斩蛇剑》4篇外，其余亦出入骚体。此外，该编后所附元乙亥科湖广乡试《荆山璞赋》一册五篇，除谢一鲁所作外，其他亦用骚体。这些都充分说明了骚体或骚化之赋在“可歌性”写作中的体制优势。

以抒写内容而言，“可歌”的古赋新式排斥传统的铺陈体物，而重视人情的抒发。祝尧说“辞人所赋，赋其辞尔，故不歌而诵；诗人所赋，赋其情尔，故不诵而歌”，⁶⁶⁾明确地在“诗人所赋”的理想中将“可歌”与“赋情”进行对接。不过，在此必

64) 刘熙载，《艺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93页。

65) 陈泽曾，《文章欧冶》，见王水照编《历代文话》第2册，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7年，1275页、1288页、1286页。

66)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

须指出，漫然的“赋情”不一定造成必然的“可歌”，要想实现二者的等效，所赋之情必须满足两个条件：

(一)“赋情”应尽可能指向悲伤、哀怨、忧愁等内向式情绪，避免欢喜、愤怒、震惊等外向、直指之情。究其原因，即在于前者具有连绵、优柔的性质，更适合表现低徊缠绵、反复屈曲的情意姿态，也更容易造成“沉吟歔歔”、“一唱三叹”的歌咏效果，祝尧所谓“哀怨之文，易以动人”的说法，⁶⁷⁾反映的正是此种审美偏爱。落实到具体批评，那些抒写哀情的赋作往往就能得宋元人的欣赏，如贾谊《弔屈原赋》借弔屈原以弔己，司马相如《长门赋》、班婕妤《白悼赋》哀叹君恩冷落的身世凄凉，陆机《叹逝赋》悲感亲旧的凋零，均因抒写“哀思之音”，具缠绵悱恻之态，而被祝尧誉与“咏歌嗟叹等义”。

(二)在抒情方式上，强调借助曲折多变的结构对“赋情”进行“反复致意”的表达。赋体“可歌性”的一个重要特征即文本形态须有优柔婉曲的连绵起伏感，所以前述“赋情”须内向、低徊，与之相应，“赋情”的表达亦须屈曲、反复。以宋元人盛推的《长门赋》为例：文章一开始将镜头对准被冷落之后枯槁独居的“佳人”，在“得尚君之玉音”、“期城南之离宫”的希望落空之后，移步登上兰台，遥望远方，然而所见却是孔雀相存、鸾凤并翔的场景，这是第一层；由飞鸟禽兽皆成伴侣，联想到自己孤独无依，于是不乐而下兰台，这构成第二转；下兰台后周览深宫，又见“错石之瓠鬢”、“璚瑁之文章”、“罗绮之幔帷”、“楚组之连纲”，虽然无不美好，但终因相思之人的缺席，所以触目皆成悲伤，为第三转；于是只好弹奏音乐以散忧愁，直至夜深人静，方才“颓思而就床”，为第四转；然寢息之后，终因思君而不能成眠，于是又只好起视中庭，望月色如水，在漫漫长夜中悲叹自己年华的老去，这构成最后一转。尽管这五转在时间的链条上形成了纵向的推进，但每个场景都在反复呼应和聚结同一种情绪：被冷落、遗弃的凄凉与悲伤。也即是说，该文本在结构上同时内含了递进的转折与反复的同一两个不同的面相。反复造成呼应、连贯与适当起伏，而递进则形成意义场域的明暗、深浅、变化，二者

2008年，778页上栏。

67)同上，783页上栏。

结合，即共同生成了赋文连绵、波荡的形态与节奏，所以《长门赋》在整体美学上也就给人一种“咏歌之遗音”的强烈印象。

此外，在书写策略方面，“可歌性”写作往往强调“不尽辞”，要求在文字之外，给人“感动兴起省悟处”。所谓“情至而辞不至，则嗟叹而不自胜；辞尽而情不尽，则舞蹈而不自觉”。⁶⁸⁾如果像“闷衍巨丽”之体，一味铺陈外向，发写无余，则不是“非婉而多风之怀”，便是“无一唱三叹之致”。⁶⁹⁾这就要求“可歌”的新赋体，必须抛弃传统的铺陈外向而走向内敛含蓄。然而如何走向内敛含蓄？宋元赋家在探索的过程中达成了一个共识：“赋兼比兴”。这不仅因为“比”、“兴”在文学史上具有经典发源及正统地位，同时也缘于前者“托物而不正言”，后者“舒展而不刺促”，形于语言，均“有永歌嗟叹舞蹈之趣”，⁷⁰⁾完全满足“可歌”赋体含蓄、不尽、唱叹的要求。因此，早在朱熹以赋、比、兴三体解《楚辞》的诠释活动中，就已强烈暗示理想与标准之赋须兼用“比兴”的观念。⁷¹⁾至祝尧，接受朱氏的影响与启发，进一步从两个方面建立起“可歌”新赋体须兼用“比兴”的自觉意识：一是明确提出“赋兼比兴”的话语形式与书写要求。比如他分解《九辨》、《登楼赋》、《雪赋》、《别知赋》、《屈原庙赋》等篇文法，即指出它们的共同特征在于内具“赋兼比兴”的写法，而有“反复优柔”、“意味近古”的境界；又指出咏物赋正格在“借物以见我之情”，因此理想表达须“兼比兴之义”。⁷²⁾这些言说均在不同程度上对“赋兼比兴”的话语形式进行了凝定。二是在《古赋辩体》的批评实践中，以“比”、

68)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78页下栏。

69) 费经虞，《雅伦》，见《续修四库全书》第1697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63页下栏。

70)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836页上栏。

71) 朱子在《楚辞集注》中解释屈原辞赋，因为以“经”视《离骚》，所以章解句析，每每指实赋、比、兴的具体使用，而《九歌》、《九章》以下，作品理想程度高低不一，故时而揭示其比兴之义而已。这实质传达了一个重要信息：赋体理想程度越高，“赋兼比兴”的使用也即越普遍与密集。

72) 祝尧，《古赋辩体》，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366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2008年，784页上栏。

“兴”的有无作为价值标准对赋作进行优劣评判：纯用“赋”体者每施以贬抑，兼取“比”、“兴”者则多予褒扬。如荀子《礼》、《蚕》、《云》等五赋即因“纯用赋体，无别义”，“辞既不先本于情之所发，又不尽本于理之所存”，故被斥为“视风骚所赋，则有间矣”；⁷³⁾而司马相如《子虚赋》、《上林赋》，扬雄《甘泉赋》、《河东赋》、《长杨赋》、《羽猎赋》等多“以铺张为靡而专于辞”，虽比兴之义“未泯”，但“变甚矣”，不复有“诗骚之风”，因此又被贬为“赋之本义失之”。⁷⁴⁾与此相反，贾谊《甲屈原赋》因兼用“比”体，“于比义中发咏歌嗟叹之情”，故被赞为“反复抑扬，殊觉有味”；司马相如《长门赋》“以赋体而杂出于风比兴之义”，则被推为“感动人心”而在长卿诸赋中“最杰出”；班婕妤《自悼赋》“且兴且风”，又被誉为“其情虽出于幽怨”，而“和平中正，终不过于哀伤，其德性之美，学问之力，有过人者”；祢衡《鹦鹉赋》“比而赋也，其中兼含风兴之义”，乃得到“读之可为哀欷”而极“有高古气味”的好评。⁷⁵⁾这种将比兴具备与赋品优化进行文学等效的做法，使得“赋兼比兴”理所当然地定格为“可歌”赋学中的价值恒式。

骚体及骚化之赋的断续、屈折，赋情的内向、连绵，“赋兼比兴”的含蓄、不尽，三者综合在一起，又共同生成了“可歌”的另一要义：“优柔婉曲”的总体审美。实质上，从辞赋的经典发源来看，曾经“弦歌”的“风诗”（《诗经》）既以“优柔而不直致”为“本义”，⁷⁶⁾当今“嗟叹咏歌”的《楚辞》又以“优柔婉曲”为“全体”，⁷⁷⁾则以风骚之流自视而希求“可歌”的宋元古赋，如何能不以“优柔”为审美终极！所以祝尧最后总结说，赋如能“杂出于风比兴之义。反复优柔，沈着痛快”，便能“古”而“可歌”。⁷⁸⁾

73)同上，744页上栏。

74)同上，766页下栏。

75)同上，776页下栏。

76)同上，836页上栏。

77)同上，805页上栏。

78)同上，824页下栏。

5. 赋史新图：内向审美的建立与“赋为诗体”的确认

宋元赋家倡导和建构的“可歌”赋体，由于缺少现实创作的有力支持，故未能在辞赋史上确立起如汉赋一样典型范式的显著地位。但其中内含的若干观念和做法却对后世产生了无尽的启发。择其要者而言，有三点值得关注：

其一，尽管汉人标榜的“不歌而颂谓之赋”在后代依然流行，但自从宋元人以“可歌”对其进行隔阂和反拨之后，明清赋学的一支也开始重视“歌”的诉求及其在赋体建构中的参与。如袁黄就称赋为“歌谣之钟吕”，⁷⁹⁾毛奇龄说“赋颂本歌文”，李鸿也说赋“风咏似歌诗”，⁸⁰⁾均将“歌”视为赋体的重要品格与素质。而谢榛感叹《长门赋》“夫何一佳人兮，步逍遥以自虞。魂逾佚而不反兮，形枯槁而独居”，与《悼李夫人赋》“美连娟以修嫕兮，命櫜绝而不长。饰新官以延贮兮，泯不归乎故乡”，“情词悲壮，韵调铿锵，与歌诗何异”；⁸¹⁾费经虞说《上林赋》“散文诵而不歌，如后世院本之道白也，其有音韵，乃以瑟箏之弦歌，如后世之白毕唱词也”，⁸²⁾更将前代辞赋做了“可歌”的具体指实与戏曲化联想。这都反映了明清赋家接续宋元传统，利用其“可歌”资源，继续探索赋学多元发展的意向与兴趣。

其二，宋元赋学的重情观念与“赋兼比兴”的书写策略，有意在汉赋“体物”与“铺采摘文”的正统范式外另立典型，以兴发感动的“优柔婉曲”取代视觉形容的“巨丽”之观，直接启发了后人对强调心觉的内向式赋学审美的偏爱，如王世贞就说“赋家不患无意，患在无蓄”，⁸³⁾刘熙载也说“赋兼比兴，则以言内之实事，写言外之重旨”，又说赋之“正格”“当以色相寄精神，以铺排藏议论”，⁸⁴⁾所谓“蓄”、“寄”、“藏”，强调的正是此种重敛藏、内向的赋学审美。而张元谕说“汉赋称《两

79) 孙福轩、韩泉欣编，《历代赋论汇编》下册，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6年，839页。

80) 李鸿，《赋苑》凡例，见《四库全书存目丛书》第384册，济南，齐鲁书社，1997年，4页下栏。

81) 谢榛，《四溟诗话》，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5年，11页。

82) 费经虞，《雅论》，见《续修四库全书》第1697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63页。

83) 罗仲鼎，《芝苑卮言校注》，济南，齐鲁书社，1992年，31页。

84) 刘熙载，《艺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97页、103页。

都》、《二京》、《子虚》、《上林》、《长杨》、《甘泉》、《洞箫》、《长笛》尚矣，而雕琢浮夸，文繁趣口，反不如《鹏鸟》之悲伤感慨，《长门》、《自悼》之写其中情，词有尽而意无穷也”，⁸⁵⁾李光地说“铺张赋原不好，就是《上林》、《子虚》、《长杨》、《两京》、《三都》，皆赋之祖，已不为佳，何论其余”，⁸⁶⁾又都通过汉赋经典作品的臧否，在对“铺张赋”的强烈否定中，寓托了对“词有尽而意无穷”之内向小赋的肯定与揄扬。再探进一步的话，此种论调乃至揭示了经典树立过程中，“优柔清深”的风骚新传统与作为“雅颂之亚”的“闾衍巨丽”旧体之间的强烈对抗与角力。⁸⁷⁾

最后，宋元人首次以赋、比、兴三体解赋，不仅在当时生成“赋兼比兴”、“赋兼六义”的命题并使之深具影响，而且通过文本阐释与观念建构，更强烈地启发了后人：既然“可歌”的赋体“兼比兴”之法，寓“六义之体”；作为诗歌最高典范的《诗经》早被证明完具六义。所以，至少在理想的条件下，赋体与诗体是同构乃至合一的。以此作为触发，古老的赋为“诗之流”观念开始动摇，一种关于诗、赋关系的崭新界说逐渐浮现。明末清初的徐世溥、孙馥孙等尚只说“赋在诗中”、“赋之与诗合”，⁸⁸⁾“赋之自诗而文者，复约文而近于诗”。⁸⁹⁾至清中期以后，张惠言、刘熙载等始在前代观念层累的基础上，以高度的理论自觉重建诗、赋关系。张惠言说：“《诗》之义六，曰风、曰赋、曰比、曰兴、曰雅、曰颂。六者之体，主于一而用其五。故《风》有《雅》、《颂》焉，《七月》是也。《雅》有《颂》焉，有《风》焉，《烝民》、《崧高》是也。周泽衰，礼乐缺，《诗》终三百，文学之统熄。古圣人之美言、规矩之奥趣，郁而不发，则有赵人荀卿、楚人屈原，引词表旨，譬物连类，述三王之道，以讥切当世；振尘滓之泽，发芳香之鬯；不谋

85)张元谕，《篷底浮谈》，见《续修四库全书》第1126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2年，26页下栏。

86)李光地，《榕村语录榕村续语录》上册，北京，中华书局，1995年，529页。

87)王芑孙“同祖风骚”（《读赋卮言·导源》）、蔡绍襄“始祖风骚”的说法（《赋苑序》），正是这一新传统与新经典观念的总结。

88)徐世溥，《榆墩集》，见《四库全书存目丛书》第211册，济南，齐鲁书社，1997年，139页下栏。

89)孙福轩、韩泉欣编，《历代赋论汇编》下册，北京，人民文学出版社，2016年，579页。

同侪，并名为赋。故知赋者，诗之体也。”⁹⁰刘熙载则反复称：“六义不备，非诗即非赋”；“诗为赋心，赋为诗体”，“古诗人本合二义为一”。⁹¹尽管两人论说的方式和主要内容不同，但“赋为诗体”的结论毫无二致。这意味着，明清以后有关诗、赋关系的论述焦点，已由传统的赋为“诗之流”转向新型的赋为“诗之体”。这种观念的嬗递与变革，除了体现明清以来赋家进一步借诗尊赋、弘赋的主题外，更重要的一点，还在于表达一种立场：扬弃传统以视觉审美为核心的“闳衍巨丽”赋体，进一步确认与强调意主“讽谏”与“言志”（“赋情”），法兼“比兴”与“六义”，而体重“优柔清深”短章的赋学新式的经典合法性。

6. 结語

宋元赋家在董理辞赋文献、疏通正变源流的过程中，面对扩大了赋域与概念边界，他们通过“祖骚宗汉”的经典排序聚焦“骚体”的美学规范，并且联同韵语文学“歌化”的潮流，提出“可歌”的赋学理想。这一理想是对汉赋“闳衍巨丽”旧体的直接否定与排斥，其目的乃在消除汉代以来赋体因过于强调“形容”与“雕画”而导致的视觉偏颇与“物质”沉溺，试图以“赋情”及“兼比兴”对其进行心觉与“内转向”的优化。因此，由“可歌”所引发的赋学观念和写作技术的变革，不仅扭转与反制了辞赋发展的旧有进向，制导着后世赋学的另类、多元生发，同时，也强烈地突显了宋元时期“疑古”与“变古”的文化个性及取值范围。

◆ 参考文献

1. 单行本

（汉）司马迁，《史记》，北京：中华书局，2003。

（汉）班固，《汉书》，北京：中华书局，2002。

（汉）许慎撰，（清）段玉裁注，《说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

90)张惠言，《茗柯文编》，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4年，18页。

91)刘熙载，《艺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年，86页。

- (南朝梁) 萧统编, (唐) 李善等注, 『六臣注文选』, 北京: 中华书局, 1987.
- (南朝梁) 刘勰撰, 杨明照注, 『增订文心雕龙校注』, 北京: 中华书局, 2000.
- 费振刚、仇仲谦、刘南平, 『全汉赋校注』, 广州: 广东教育出版社, 2005.
- (唐) 李白撰, 王琦注, 『李太白全集』 下册, 北京: 中华书局, 1999.
- (宋) 范仲淹, 『范仲淹全集』, 成都: 四川大学出版社, 2007.
- (宋) 李廌, 『师友谈记』, 北京: 中华书局, 1985.
- (宋) 晁补之, 『鸡肋集』, 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 第1118册, 台北: 台湾商务印书馆, 2008.
- (宋) 严羽撰, 郭绍虞校释, 『沧浪诗话校释』,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83.
- 朱杰人、严佐之、刘永翔主编, 『朱子全书』 第19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张志烈、马德富、周裕锴主编, 『苏轼全集校注』,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10.
- (元) 祝尧, 『古赋辩体』, 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 第1366册, 台北: 台湾商务印书馆, 2008.
- (元) 脱脱等, 『宋史』, 北京: 中华书局, 1977.
- (元) 杨维桢, 『丽则遗音』, 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 第1222册, 台北: 台湾商务印书馆, 2008.
- (明) 宋濂, 『浦阳人物记』, 见『丛书集成新编』 第101册, 台北: 新文丰出版社, 2008.
- (明) 谢榛, 『四溟诗话』,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5.
- (明) 王世贞撰, 罗仲鼎校注, 『艺苑卮言校注』, 济南: 齐鲁书社, 1992.
- (明) 费经虞, 『雅伦』, 见『续修四库全书』 第1697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2.
- (清) 李光地, 『榕村语录 榕村续语录』 上册, 北京: 中华书局, 1995.
- (清) 何焯, 『义门读书记』, 北京: 中华书局, 2006.
- (清) 张惠言, 『茗柯文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 (清) 阮元校刻, 『十三经注疏』, 北京: 中华书局, 1980.
- (清) 刘熙载, 『艺概』,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 谢维扬、房鑫亮主编, 『王国维全集』, 第3卷,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2009.
- 孙福轩、韩泉欣编, 『历代赋论汇编』,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16.

2. 论文

- 王德华, 《东汉前期赋颂二体的互渗与散体大赋的走向》, 『文学遗产』, 第4期, 2004, pp4-13.
- 刘昆庸, 《“歌”与“诵”、“造篇”与“诵古”——秦汉赋诗形态的演化》, 『学术探索』, 第2期, 2007, pp125-130.
- 易闻晓, 《论汉代赋颂文体的交越互用》, 『文学评论』, 第1期, 2012, pp49-54.

논문 접수일	2024년 2월 1일
심사 완료일	2024년 2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Singable: The Resonation to Orthodox for Constructing Fu(賦) Style during Song and Yuan of China

Huang, Zhuoying

Regarding Fu(賦), Some scholars from the Han dynasty firstly gave a definition from their own view. For example, Liu Xiang(刘向) and Ban Gu(班固) thought that reciting without singing was Fu, which uses recitation and has the artistic connotation of "not singing".

It has been emphasized the visual and painterly effects of creating a Fu while emphasizing the descriptive and per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ading. It became the most authoritative definition of Fu in the Middle Ages of China after being repeatedly cited from the Wei Jin to the Tang Dynasty.

However, in the Song and Yuan dynasties, when people were discussing the way forward of Fu, they began to suggest a concept of 'singable'. This conception was based on the dual facts of the paradigm struggle between 'Han Fu(汉赋)' and 'Chu Sao(楚骚)' and 'becoming singable' of rhymed literature at that time.

By conscious reflection on the tradition of 'unsingable' since the Han Dynasty, 'Han Fu' was transformed from the style featuring the 'magnificent beauty' to the 'soft, euphemistic and singable' genre. Through conscious reconsideration about the nature of 'Han Fu', the visual and ornate literary style was reformed to 'poetic style' and contemplative aesthetical value.

This process not only triggered the turn and new change in the history of Fu, but also expanded the boundaries of 'Doubting the Tradition(疑古)' and "Changing the tradition(变古)' in Song and Yuan cultures.

Keyword Song and Yuan, Ci Fu(辞赋), singable, Zusao Zonghan(祖骚宗汉), poetic style(诗体)

‘意大利建国三杰传’在东亚地区的译本特点研究*

-以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为中心-

滕玉龙** · 高锡主***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이태리건국삼걸전의 양계초 역본과 신채호 역본을 대조·분석하였는데, 친근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두 판본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그 원인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두 역본 서론과 결론 부분의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A 유형). 그것은 두 나라의 상황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애국자’의 형상에 대한 사고, ‘이상향’에 대한 염원, ‘삼걸’에게 배워야 함을 부각시키는 방식, 그리고 ‘삼걸’을 양성함에 대한 태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신채호 역본이 양계초 역본과 달리 생략하거나 추가한 내용(B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는 양계초 역본에서 나타난 인물의 행적, 사건의 배경과 원인, 고유 명칭, 조약이나 원칙 또는 인용문 내용 등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 내용(감탄 표현 등)에 대한 생략, 그리고 신채호 자신의 주관적 논술에 대한 첨가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두 역본에서 내용이 비슷하나 표현상 차이가 나타나는 유형이 있다(C 유형). 한자어의 사용상의 차이와 내용상 실현순서의 차이, 수사기법의 차이들은 이 부류에 포함된다. 한자어의 사용에 있어서 신채호 역본에는 오류, 내용의 축소나 대체, 그리고 반복 강조 등 번역의 차이를 보인다. 내용의 실현순서와 수사기법의 차이에는 신채호 역본에서 어순의 변경과 복문의 단순화 등 면에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신채호 역본은 양계초 역본의 한문을 단순히 국한문체로 바꾼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서구 역사문화 정보의 효율적 대중화시킴과 애국 구국 사상의 전달에 초점을 둔 신채호의 세계관이 반영된 제2의 창작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번역의 특성, 이태리건국삼걸전, 양계초 역본, 신채호 역본, 유형화, 차이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3091469)

** 延世大学 国语国文系 国语学专业 博士研究生

*** 延世大学 国语国文系 教授, 近代韩国学研究所 所长

〈目録〉

1. 引語
2. 梁啟超譯本與申采浩譯本的比較
3. 各差異類型的分析
4. 結語

1. 引語

漢字和漢文在中國、日本和韓國的文學和文化發展過程中一直以來起著至關重要的紐帶作用。1840年鴉片戰爭爆發後，隨著西方帝國主義勢力的滲入蔓延，中國、日本和韓國的社會逐漸走向開放的同時也陷入了殖民或半殖民的危機。在此過程中，這些國家內的一些知識分子认识到了國家體制以及傳統思想和文化的不足之處。為了正確了解世界局勢，尋求思想和社會的民主獨立，知識分子們開始介紹西方文化和新觀念，引進和翻譯外國著作。這促進了國家內部的思想解放、以及政治改革。日本通過明治維新率先走上了資本主義發展之路。看到日本在政治思想改革上的成功，中國和韓國也開始效仿日本，摸索爭取國家獨立和思想解放的途徑。期間大量外文學籍被引入日本，後又經由日本再次被引入中國和韓國。然而外文學籍的引入並未只停留在原著的引進，而是在引進原著的同時結合各個國家地區的社會文化特點對原著進行了多語言的翻譯。在這些書籍中，‘意大利建國三傑傳’是極具代表性的一个著作。

英國歷史學家J.A.R Marriott以意大利統一的历史背景為基礎，於1889年發表著作『The Makers of Modern Italy』。此後‘三傑傳’的故事傳入亞洲，日本翻譯家平田久以『伊太利建國三傑』(1892)的名字翻譯並重新出版了該書。平田參考了英文本的內容和結構，翻譯了原著，但在記述過程中，編入了自己的敘述¹⁾

1) 平田久在『伊太利建國三傑』的‘例言’曾公開過為翻譯該作品而參考的原件的出處。如下：
“本書の編纂はマリオットの『伊太利建國者』(Makers of modern Italy)に負ふ所ろ然尤

中国戊戌变法失败後流亡日本的梁启超於1902年6月至12月在『新民丛报』上连载了〈意大利建国三杰传〉。²⁾ 他连载的内容不是以一个参照本而是在两个以上的参照本的情况下,按照自己的意图进行内容改译後进行的连载。连载的〈意大利建国三杰传〉是在内容不规则且一开始整体翻译未完成的状态下进行部分连载的“流动性的知识碎片”。³⁾ 最终梁启超整理了已经连载的内容,於1903年8月再次通过上海广志书局发行了该著作的单行本。

在韩国已经确定的关于‘三杰传’的故事的译本共有4个。其中有两个译本是以新闻连载的方式进行发行的。分别是1905年12月12日至21日在大韩每日新

も多し。「エンサイクロペデア、ブリタニカ」の最近版に收めたるシモンズの「伊太利再建史」、「マッヂニー傳」及び「カブル傳」は簡にして要を得たるものなり、これに頼りしことも亦少なからず。其他種々の引用書はくぐくぐしければ掲げず、書中明らかに其の名を掲げたるもの多し。”

(内容概要:本书的编纂在很大程度上要归功于Marriott的『Makers of modern Italy』,收录在最近出版的『不列颠百科全书』中西蒙兹的『意大利重建史』、『马志尼传』和『加富尔传』,这些著作简明扼要,在很大程度上也是以他们为依据的。以下是其他各种引文,其中许多在书中都有明确其名称。)

另外,他在『伊太利建国三杰』的〈革命前记〉中记述了18世纪末拿破崙袭击意大利的历史,并通过比喻性的表现与日本的历史联系起来,甚至讲述了自己的判断。

“彌隙匆匆、十八世紀の末年に至つてナポレオンの來襲は突如として死せるが如き伊太利を刺沖せり、彼は伊太利のペルリなり。坂路嶮嶮なるアルプス山は波濤渺茫たる彼れの太平洋なり、ポーの平原は彼れの浦賀なり、伊太利は彼の日本なり。ペルリ以前の日本は彼れ以前の伊太利なり、ペルリの軍艦によつて日本国民長夜の夢覚めたる如く、彼れの炮兵隊によつて伊太利の国民長夜の夢覚めたり、ペルリの來朝によつて日本國家なる觀念我が國民の胸裡に現出し初めたる如く、彼れの襲撃によつて伊太利國家なる觀念、遠山の霞の如く立ち初め伊太利革命の曙光ほのと現はれたり。”

(内容概要:十八世纪初,拿破崙对意大利发动了突然而致命的进攻,他成了意大利的佩鲁里。陡峭的阿尔卑斯山是浩瀚的太平洋,波城平原是他的乌拉加,伊泰里是他的日本。佩鲁里之前的日本就是佩鲁里之前的伊泰里,正如日本人被佩鲁里的战舰从梦中唤醒,伊泰里人也和他的大炮从梦中唤醒,正如佩鲁里抵达日本时,日本民族的观念开始出现在我们的脑海中,当佩鲁里进攻日本时,意大利民族的观念也开始出现在我们的脑海中,就像远山的薄雾。伊塔里革命的曙光初现。)

- 2) 梁启超的『意大利建国三杰传』从1902年6月开始到12月,於『新民丛报』的第9号,10号,14号,15号,16号,17号,19号,22号进行了8次连载。
- 3) 손성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양상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86.

闻连载的〈伊太利建国马志尼传〉和1906年12月18日至28日在皇城新闻连载的〈读意大利建国三杰传〉。其外的两个译本均为单行本。⁴⁾ 分别是於1907年10月由广学书铺发行的申采浩译的韩汉混用体译本⁵⁾和1908年6月由博文图书馆发行的周时经的韩文译本。⁶⁾ 其中, 报纸连载形式的译本以大幅缩译的形式或翻译者自由发挥的读後感的形式刊登。这四种版本的译本中, 除序论和结论外, 申采浩的译本最忠实且最完整地再现了梁启超的译本的内容。⁷⁾ 本文决定以内容相对完整的‘三杰传’的单行本译本为研究对象, 集中比较梁启超译本(1903年发行)和汉字内容占比最大的申采浩译本(1907年发行)。在过往的研究中, 申采浩译本已经被论证为参照梁启超译本进行的重译本。⁸⁾ 本文也赞同此观点, 并以此为前提将研究的重点放在分析两个译本的汉字表达方式以及表述内容的差异上。

對於『意大利建国三杰传』, 한무희(1977)關注於敘述方式和体系, 以梁

4) 우립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p.51-52.

5) 本文所说的韩汉混用体指的是韩语和汉字并用的文体。启蒙时期的韩汉混用文体根据汉字的使用程度, 在体系的分类和用语方面存在差异。不仅如此, 在实际资料中, 一个文本中夹杂着两个以上的文体的情况也不少。下面引文中的“慷慨의 淚를 難禁하려던”等部分与前面汉字上添加助词的内容不同, 不仅可以直接转换成“難禁慷慨淚”, 而且因其是和後面出现的“而况、身親當之者乎아”的复句, 所以将汉语句子以短语为单位, 重新排列词序, 并加上了韩语助词。

“哀哉라 無國之民이여 後世讀史者도 慷慨의 淚를 難禁하려던 而况、身親當之者乎아.”
(引自申采浩『伊太利建国三杰传』(1907)第一节第五页)

像这样, 基本上以汉语句法为基础的句中混合了多个文体, 这是难以轻易断定且系统地解释的问题。对文体的具体讨论不在於本文的研究目的, 所以本文只借用“韩汉混用”的统称来进行说明。

6) 1907年申采浩的单行本是『伊太利建国三杰传』, 1908年周时经的单行本是『이태리건국삼걸전』。

7) 在第二章中, 将通过〈表1~3〉具体说明以梁启超(1903)和申采浩(1907)为研究对象进行对比分析的原因。

8) 순성준(2007:88, 119-121)中详细分析了平田译本(日译本), 梁启超译本以及申采浩译本之间的关系。其认为梁启超译本参考了平田译本, 而申采浩译本则以梁启超译本为参照进行了再次翻译。此外김수자(2014), 郑宣景(2015)也持有与之相同的观点。

启超的『意大利国三杰传』和申采浩的『乙支文德』为中心进行了研究。他著重於西方思想和文学通过梁启超被韩国社会接受的一面，首次指出两部作品的叙述方式和体系上的共同点。이재선(1984)则以目录、序和结论部分为重点，试图比较分析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据他介绍，‘三杰传’虽然达不到‘文学艺术性’的标准，但具有反映申采浩“强烈的爱国启蒙思想”的意义。강영주(1991)将焦点放在标题和文体问题上，提出了将『意大利建国三杰传』改造成适合东方代表性传记文学的‘传’式的文学意义。성현자(1997)通过比较申采浩和梁启超的文本，试图在与梁启超『意大利建国三杰传』的关系中揭示申采浩翻译的多个历史传记中出现的情节构成方式、主题体现、人物形象化方法等问题。우림걸(2002)以『意大利建国三杰传』为例，研究了梁启超对历史传记的理解和引入。他分析了过往研究中没有被关注到的『读意大利建国三杰传』的新闻连载物、相关论论文、广告等方面的内容，为后续对梁启超的‘三杰传’译本的整体性理解和研究奠定了基础。정환규(2004)就历史传记的翻译情况，与『越南亡国史』一起分析了『意大利建国三杰传』。该研究引进了『意大利建国三杰传』的周时经韩文译本，从这一点来看，打破了以往研究只集中於作品性质和主题的束缚，进行了新的尝试。손성준(2007)以『意大利建国三杰传』的5种文本(英国、日本、中国各1种、韩国2种)为分析对象，以原本(或参照本)和译本的对比为中心，对文本内容，作者/翻译者，各文本所处的时空背景，相关的广告连载物的特性等方面进行了探讨。此外，最近的研究中，김수자(2014)探究了『意大利建国三杰传』中申采浩的翻译目的和其强调的英雄形象。郑宣景(2015)则以『意大利建国三杰传』为基础，探讨了在翻译过程中如何对英雄叙事进行重新语境话。袁鸿宇·秦方(2022)以『意大利建国三杰传』中提及的“三杰”形象为中心，探讨了“意大利建国三杰”的形象在中国的不同社会时期的不同特征，对国人文化心理的转移和价值的重构进行了深入阐释。

但是目前的先行研究几乎都是基於文学或史学研究的角度进行的，他们并没有从语言、文字表达以及内容差异角度去分析译本之间的异同。由此可见，本文侧重於分析版本间的汉字表达方式以及表述内容上的差异的研究，

對於扩充该书的译本根据传播对象国社会文化背景的不同而产生的的相异译介样相的整体研究具有一定的助推作用，同时作者认为从翻译评价的忠实性和可读性准则的角度对译本内容进行的对比分析，也对共处汉字文化圈内的东亚地区的文献翻译和对比研究具有一定的参考价值。⁹⁾

2. 梁启超译本与申采浩译本的比较

1902年发行的梁启超译本『意大利建国三杰传』和1907年发行的申采浩译本『伊太利建国三杰传』从题目到正文都体现出了差异。¹⁰⁾ 两个版本中不仅存在著由於发音相似性而导致的文字表达上的差异，在内容结构上也存在著明显的不同。

下〈表1〉和〈表2〉中引用的目录分别来自‘三杰传’的英文原著，日文译本，梁启超译本以及申采浩译本。¹¹⁾

-
- 9) 根据英美文学研究会的评价标准，作品的翻译可以从忠实性和可读性的层面来进行评价。忠实性是在是否依照原著内容进行翻译做的考量，可读性则是对翻译成的文本内容进行的评价。对翻译文本的评估应该从以三个层次进行考量，①原创文本的语言是否适合目标语言体系，是否适合与语言体系相关的适当性(翻译图的问题)。②译者对围绕原始文本的语言和语言以外的要素的知识是否正确(误译问题)。③翻译策略是否恰当(干预翻译行为的因素)需要考量的因素有文本的体裁和读者羣、出版社的出版政策、翻译者的目的和功能等。
- 10) 首先可以观察到的是，關於意大利，在书名的择定中使用了不同的汉字来表达。作为欧洲国家的名字，意大利这个名称用意大利语标记为“*Italia*”。英语中将其简称为“*Italy* (/ɪəˈtli/)”。该名称传入亚洲後，各国结合各自语言中与“/ɪəˈtli/”发音相似的词汇，来对其翻译并命名，致使该名词的文字表达变得多样化。日语中，参照意大利原语的发音，使用了“イタリア”来表达这个名称，并用日本汉字“伊太利”来标注。汉语中“Yì dà lì”的发音和之最相似，因此翻译成汉字的“义大利”，韩语则参考了发音的相似性，用韩文“이태리”来翻译该名称，并用汉字“伊太利”来对其进行了翻译。此外，“イタリア”这一名称在日本也被标记为“以太利”(参考1891年日本发行的地图『当地测量万国全图』)，在中国也有被标记为“义大利”(参考1901年中国发行的词典『字课图说』)的情况，但本文仅以适用于三杰传译本的名称为例进行说明，对该名称的发展和翻译不做更深入探究。
- 11) 这里的三杰传的日文译本指的是平田久的『伊太利建国三杰』(1892)，손성준(2007年)中曾明确表示，Marriott的『*The makers of modern Italy*』在东亚的流通途径和翻译关系是“日本-中国-韩国”，其对应的三个译本分别是日本平田久的『伊太利建国三杰』(1892)、中

〈表1〉英文原著目录和日文译本目录对照

英文原著	日文译本
CONTENTS	伊太利建国三杰目次
LECTURE I.-MAZZINI 1	绪 论
LECTURE II. -CAVOUR 26	革命前记
LECTURE III. -GARIBALDI 54	マツチニ
APPENDIX I. -AUTHORITIES 79	カブ ル
APPENDIX II. -CHRONOLOGICAL TABLE OF THE CHIEFEVENTS IN ITALIAN HISTORY, 1815-1870 81	ガリ ルヂ 伊太利建国史年表

〈表2〉梁启超译本目录和申采浩译本目录对照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意大利建国三杰传目次	
玛志尼	
加里波的	
加富尔	
发端	
第一节 三杰以前意大利之形势及三杰之幼年	第一节 三杰以前の伊太利形势
第二节 玛志尼创立(少年意大利)及上书撒的尼亚王 <中略>	第二节 少年伊太利의 乡立 <中略>
第十节 撒的尼亚新王之贤明及加富尔之入相	第十节 撒的尼亚王의 贤明
第十一节 加富尔改革内政	第十一节 加富尔의 内政改革
第十二节 加富尔外交政策第一段(格里米亚之役)	第十二节 加富尔의 外交政策 第一段
第十三节 加富尔外交政策第二段(巴黎会议)	第十三节 加富尔의 外交政策 第二段
第十四节 加富尔外交政策第三段(意法密约)	第十四节 加富尔의 外交政策 第三段
第十五节 意奥开战之准备(加富尔加里波的之会和)	第十五节 伊奥开战的 准备
第十六节 意奥战争及加富尔之辞职	第十六节 伊奥의 战争
第十七节 加里波的之辞职	第十七节 加里波的의 辞职
第十八节 加富尔之再相与北意大利之统一 <中略>	第十八节 加富尔의 再相 <中略>
第二三节 加富尔之长逝及其未竟之志	第二十三节 加富尔의 长逝
第二四节 加里波的之下狱及游英国	第二十四节 加里波的의 下狱斗 游英 ¹²⁾
第二五节 加里波的之再入罗马及其再败再被逮	第二十五节 加里波的의 再逮
	第二十六节 伊太利의 大一统이 成言 终篇 结论

国梁启超的『意大利建国三杰传』(1902), 韩国申采浩的『伊太利建国三杰传』(1907)和周时经的『이태리건국삼걸전』(1908)。此外, 张乃禹(2016)中对三杰传的中韩韩版的翻译关系的表述里也曾提及, 梁启超的译本是申采浩的国汉文译本的参照本。

第二六节 意大利定鼎罗马大一统成 结论	
------------------------	--

比较上述版本目录的结构和内容,我们可以将其中差异大致分为两种。一是日文译本的内容结构与英文原著一致,与〈表2〉中的其他两个译本在内容结构上整体不同;二是申采浩译本和梁启超译本的目录虽存在部分表述差异,但在内容结构框架上具有高度相似性。

从目录来看,梁启超译本的内容结构以“发端-26个小节-结论”的顺序展开,申采浩译本也以“绪论-26个小节-结论”的顺序展开,这一点体现了两个版本在结构上相似性。另外我们不难发现,基本上申采浩在其译本中原封不动地使用了梁启超译本中的人名和地名等外语标记汉字,不同点则体现在,出於语言特性上的差异,前者使用了韩文的“의”代替了汉文中连接词的“之”字,用韩文“와/과”代替了“及”字。并且申采浩译本中第1、2、10、12、13、14、15、16、18节的题目与梁启超译本相比,对部分内容进行了缩减。

另外,在正文内容的叙述中,我们发现日文译本忠实於英语原著,从目录体现的内容结构上看,其也与英语原件保持高度一致性。与此相比,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虽然结构与英文原著不同,但彼此之间保持着高度的一致性。

下表引用了英文原著中的部分内容,以及对比了其分别在日文译本、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中对应的表达。

〈表3〉译本节选内容对照

英文原著	Born at Genoa in 1805, Mazzini, like Cavour and Garibaldi, was a Sardinian subject. Even in childhood he was impressed with the misery and degradation of his country. In his early schooldays as throughout his life, it was his morbid fancy to wear nothing but black. 〈중략〉 While walking one Sunday with his mother and a friend in the streets of
------	--

12) 申采浩译本的原文目录中有“第二十四节 加里波의 下狱과 游英”的题目,这里的“加里波”实际上是对“加里波的”错编。

	<p>Genoa, they were addressed, he tells us in his most interesting autobiography, by a "tall black-bearded man with a severe and energetic countenance, and a fiery glance that I have never since forgotten. He held out a handkerchief towards us, merely saying, 'For the Refugees of Italy.'"¹³⁾</p>
<p>日文译本</p>	<p>マッヂニーは、カブール、ガリバルディーと同じくサーヂニヤの民なり、千八百五年六月二十二日ゼニア市に生る。〈중략〉澳地利の压抑愈々甚しきを加へ、国运益々非に赴きたりし時なりき。〈중략〉彼が其の一生の間黒き喪服にあらずんば着けましの奇癖は此の時よりして生まれり。〈중략〉時しも千八百二十七年の四月、日麗はしく輝やき錦なす花の色を一入鮮やかに染め、風微かに吹き会堂にて歌ふ贊美の歌を戸々にる日曜の朝、淑容の一老婦、年齿相似たる一朋友を携へてゼノア市街を逍遙する秀丽の一青年あり、途に一人の丈け高く髯黒く、容貌严肃邁の夫に会せり。彼の伟丈夫は何思ふ所かありけん、ツカ●●と未知の青年に近づき●●たる眼光一闪、其の面を見つめ手に持てる手巾を振り、突如として『伊太利流亡民の爲め』と云ひ捨て、走せ去りぬ。¹⁴⁾</p>
<p>梁启超译本</p>	<p>乃於一千八百五年六月二十二日。诞育一豪杰於意大利之治那阿市。名曰玛志尼。〈중략〉复於翌二年即一千八百七年七月二十二日。更诞育一豪杰於意大利之尼士府。名曰加里波的。犹以为未足。复於其翌三年即一千八百十年。更诞育一豪杰於意大利之撒尔维亚。名曰加富尔。自兹以往、而千年家中之意大利遂苏。玛志尼。一士人子也。年十三。入於市立大学。其时正去维也纳会议後三年。法国革命之反动力大作。奥大利之压抑愈甚。而国运日益非。每读前史。块然若有所失。自兹以往。惟著深墨丧制之服以终其身。〈중략〉日者侍母散步於治那阿之海岸。忽一巨人。面目深黛。须髯如戟。颧长七尺。风采棱棱。巍然来前。脱帽而施礼曰。『愿为意大利之亡命人所尽。』¹⁵⁾</p>
<p>申采浩译本</p>	<p>果然一千八百五年六月二十二日伊太利的治那阿市에서 一豪杰을 诞生히니 名曰马志尼오 犹以为未足하야 翌二年即一千八百七年七月二十二日伊太利的 尼士府에서 一豪杰을 诞生히니 名曰加里波的오 又以为未足하야 翌三年即一千八百十年에 伊太利的 撒尔维亚에서 一豪杰을 诞生히니 名曰加富尔라 此三杰의 出現히 以來로 千年家中의 伊太利가 活跃히더라 玛志尼는 一士人의 子也라 年十三에 市立大学에 入히니 其時는 維也納會議後三年이라 法国革命의 反動力이 大作히고 奧大利의 压抑이 愈甚하야 国运이 日非라 每讀前史하디가 块然若有所失하며 又深墨의 喪服을 常着히거늘 〈중략〉一日은 其母夫人과 海岸에 散步하디니 忽然面目은 慘黑히고 須髯은 戟立히 身長七尺의 一巨人이 前來施禮曰 『伊太利의 亡命客은 有所求하노라』 하거늘¹⁶⁾</p>

13) J.A.R Marriott(1889), The Makers of Modern Italy, London, Macmillan and Co, pp.11-12.

14) 平田久(1892), 『伊太利建国三杰』, 民友社, pp.21-22.

15) 梁启超(1902), 『意大利建国三杰传』, 广智书局, pp.3-4.

上表的内容取自是英文原著中对马志尼出身的介绍, 我们不难发现对照此内容在各译本中的表达, 日文译本虽然对时间和事件的展开趋势有一定的补充, 但是整体的叙事结构, 即以人物为中心的叙述结构与英文原著一致。但是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与他们不同, 这两个译本都是根据时间线的发展对主要人物的出身进行了整体介绍, 且在叙事结构上保持统一。

不难推测, 这些差异与原著的传播途径和各个版本的成书时间密切相关。进而我们也可以推测, 日文译本的成书受到了原著的直接影响, 梁启超译本的成书则建立在前两个版本的基础上, 且对后续申采浩译本的编纂产生了直接影响。特别需要注意的是‘三杰传’在汉字文化背景非常相似的东亚地区传播的过程中, 大量汉字被使用到了译本的编辑中。作者认为从此独特的表征出发, 还可以对上述日文译本、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之间的内容异同进行更深入的研究, 这也是一个有意义的课题。然而, 由於内容结构上的差异, 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的对照分析具有更高的可行性。因此, 本文以译本之间亲和力较高的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为研究对象, 分析它们的异同。¹⁷⁾ 通过比较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 可以将其中的差异划分为三大类, 如下表所示。

〈表4〉差异类型对照

类型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类 (两个译本在内容上完全不同的情况)	新民子 ¹⁸⁾ 曰。天下之盛德大业。孰有过於爱国者乎。真爱国者。国事以外。举无足以介其心。故舍国事无嗜好。舍国事无希望。舍国事无忧患。舍国事无忿擻。舍国事无争竞。舍国事无欢欣。	无涯生 ¹⁹⁾ 이曰 伟哉라 爱国者며 壮哉라 爱国者여 爱国자가 无한 国은 虽强이나 必弱하며 虽盛이나 必衰하며 虽兴이나 必亡하며 虽生이나 必死하고 爱国자가 有한 国은 虽弱이나 必强하며 虽衰나 必盛하며 虽亡이나 必兴하며 虽死나 必生호는니
	新史氏曰。吾济读史何为乎。察往以知	新史民曰 伊太利建国이 发初으로 始호야

16) 申采浩(1907), 『伊太利建国三杰传』, 广学书铺, pp.6-7.

17) 此外还有周时经的韩文译本 『이태리건국삼걸전』(1908), 但在使用汉字进行内容记述方面, 此译本与其他3种东亚译本有这本质上的区别。虽然系统地分析三杰传的4种东亚译本的特点和它们与英文原著的差异, 有助於研究该书在东亚的被接受和传播程度, 但本文不将其作研究的主要论题, 而是将其作为今後的研究计划。

	来。鉴彼以海我而已。吾读泰西列国近世史。观其事业及其人物。无不使吾气王而神往。而於意大利建国史。尤若养养然有所搔抓於余心。趑趄然有所刺激於余脑。使余笑。使余哂。使余醉。使余舞。余求其故而不得。	告成에 至하디 中间凡五十餘年인디 大波折者六次오 小波折者十餘次라 其危机가 往々一发에 至하야 其气一馁하면 难可复振이어늘 乃其败也가 一而再하며 再而三하야 以至於十數敗호디 其气는 未尝一馁故로 失於此로디
B 类 (所示内容 仅存在於 梁启超译 本或者申 采浩译本 中的情况)	当此之时。(天下者罗马之天下。於戏。何其盛也。)何图一旦为北狄所蹂躏。日削月蹙。(再輓於回族。)三輓於西巴尼亚。四輓於法兰西。五輓於日耳曼。	一朝에 ()北狄의 蹂躪을 经흔 以後로 日削月蹙하야 ()今日에는 西班牙、明日에 法兰西、又明日에는 日耳曼等國의...
	今之意大利。古之罗马也。()自般琶西莎儿以来。	今之伊太利는 古之罗马也니 (欧洲南部에 突出히 半岛国也라) 船琶西沙儿以来로...
C 类 (所示内容 相同但表 述不同的 情况)	今之意大利。古之罗马也。	今之伊太利는 古之罗马也니
	何图一旦为北狄所蹂躏。日削月蹙。	北狄의 蹂躪을 经흔 以後로 日削月蹙하야
	三輓於西巴尼亚。四輓於法兰西。五輓於日耳曼。	今日에는 西班牙、明日에 法兰西、又明日에는 日耳曼等國의
	自般琶西莎儿以来。以至阿卡士大帝之世。并吞欧罗巴亚细亚阿非利加之三大陆。而建一大帝国。为宇宙文明之宗主者。非罗马乎哉。	船琶西沙儿以来로 阿卡士大帝의 時에 至하기까지 欧罗巴亚细亚阿非利加之 三大陆을 并呑호고 大帝国을 建設하야 宇宙文明의 宗主가 되던 罗马고서
当此之时。	一朝에	

如〈表4〉所示，本文将‘两个译本在内容上完全不同的情况’归为A类。这类差异主要集中体现在两个版本的‘绪论’和‘结论’上。在A类的示例中，上面内容分别节选自两个版本“序论”的第一部分，下面内容分别节选自两个版本“结论”的第一部分。以“新民子曰”开始的梁启超译本的序论内容很难将其认定为与申采浩译本的序论一致的内容。另外结论部分，两个译本虽然都以“新史氏曰”为开始，但内容的重叠也仅限于这一小句，后续叙述的内容则大相径庭。另外，本文将‘所示内容仅存在於梁启超译本或者申采浩译本中的情况’归为B类。从上表B类的示例中用括号表示的部分可以看出，在描述相同内容时，两

18) 梁启超曾使用“民子”、“饮水室主人”、“饮水子”、“曼殊室主人”、“少年中国之少年”等作为笔名。

19) 申采浩曾使用“无涯生”、“锦颧山人”、“热血生”、“한놈”、“剑心(검심)”、“赤心(적심)”、“燕市梦人(연시몽인)”等作为笔名。

个译本各自都存在著部分内容的缺失。最後，本文将‘所示内容相同但表述不同的情况’归为C类。如上表中C类示例所示，在表达相同内容时，申采浩译本的内容中添加了体现韩文特性的语尾标记，内容上则或改变顺序，或在固有名词下划线强调或用不同的字进行表述。

下一章将通过具体的例子分析来说明各类型之间的差异，同时根据各类型内部存在的差异，划分出更详细的子类别。

3. 各差异类型的分析

1) A类：两个译本在内容上完全不同的情况

首先分析两个译本之间差异最大的序论和结论部分。与正文不同，这两个部分的差异不是汉字表达方式上的不同，而是从内容角度出发，在叙述的重点和意图上存在的差异。首先，让我们对比一下梁启超译本的“发端”和申采浩译本的“绪论”的内容。如下表所示。

〈表5〉梁启超译本的“发端”和申采浩译本的“绪论”的内容对照

<p>〈发端〉 新民子曰。天下之盛德大业。孰有过於爱国者乎。 〈中略〉真爱国者。其所以行其爱之术者不必同。或以舌。或以血。或以笔。或以剑。或以机。前唱于而後唱喁。一善射而百决拾。有时或相歧相矛盾相嫉敌。而其所向之鹄。卒至於相成相济而罔不相合。 〈中略〉虽其地位相万。其怀抱相万。其才畧相万。而万其言。而万其涂。而万其策。而万其业。其上焉者。亮无不可以为三杰之一。其次焉者。亦亮无不可以为三杰之一之体。人人勉为三杰之一。人人勉为三杰之一之体。则吾中国之杰出焉矣。则吾中国立焉矣。作意大利建国三杰传。</p>	<p>〈绪论〉 无涯生이曰 伟哉라 爱国者며 壮哉라 爱国者여 〈中略〉 呜呼라 爱国者여 其上帝之天使乎며 现世之活佛乎며 北陆之春信乎며 旱地之霹雳乎며 迷津의 筏乎며 长夜의 铎乎고져 不然이던 其愿力이 何以如此其无穷이며 其功德이 何以如此其宏大리오 〈中略〉 若此书의 因縁과 此书의 紹介로 大韩 中兴三杰传或三十杰三百杰传을 更作호면 此는 无涯生无涯의 血愿也로다 伊大利建国三杰 传을 述호노라</p>
---	--

梁启超译本中，“发端”的全部内容两个段落组成。第一段以“爱国者”为中心，围绕爱国者论和与爱国者的合作必要性为中心进行了讨论。第二段则

介绍了中国和意大利国情上的相似性，表达了对像“三杰”的中国英雄的登场的期待。从“发端”第一段中的用点线标注的部分可以看出，梁启超认为爱国者们即使方法不同，但目的相同，最终还是会齐心协力。如果不齐心协力，就不是爱国者。从第二段中“而求其建国前之情状。与吾中国今日如一辙者。莫如意大利。”的表述，我们了解到梁启超认识到了当时中国有着和意大利建国以前相似的社会环境。另外，梁启超还认识到了当时中国人所具有的多样性，强调了“学习三杰”必要性。

梁启超提出的学习‘三杰’模式的方式，可以总结为“肯定爱国者的多样性 ⇒ 三杰的模范多样性提示 ⇒ 肯定中国人的多样性以及多样性水平的否定 ⇒ 提出三杰是提升中国人多样性水平的模范”等。最终确认他的编撰此著作目的，即用意大利建国三杰蕴含的价值将当时分成几派的中国力量凝聚起来。

申采浩译本中的“绪论”则由四个段落构成。第一段和第二段描述爱国者的形象，第三段和第四段描述爱国者的出现前景。不难发现“绪论”虽然与“发端”在部分内容上有重叠，但并没有对“发端”整体内容进行直接地翻译。虽然二者在展开“爱国者论”，表明“为了树立爱国者”的目的上相同，但基本上“绪论”体现出的是申采浩自己的想法和叙事方法，其中明确存在著一些申采浩自己想要传达的信息。

总体来看，申采浩的“绪论”和梁启超的“发端”的差异可以整理为3种。²⁰⁾ 第一，申采浩认为的爱国者的形象与梁启超不同。虽然二者都认为在“国家事”面前，爱国者所有个人的想法和感情都微不足道的，但是梁启超的爱国者是根植於斗争和矛盾并存的现实的存在，申采浩的爱国者则拥有更多积极的形象，某种程度上可以说是一个国家的一切。正如“绪论”第一段的点睛之笔一样，爱国者是国家强盛的必然要素，是培养国土、百姓乃至自然的根本。另外，申采浩的爱国者是上帝的天使般的存在。第二，申采浩在期盼爱国者时，也对理想世界有所期待。他认为“세력은 날로 약해지고 살기(杀机)는 날로 참혹해지니 애국자 출현의 시대라 할 것(势力日益衰弱，生活日益残酷，可以

20) 손성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양상과 그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121-123.

说是出现爱国者的时代。)”。而梁启超的爱国者论更加现实，他主张在付出巨大努力之後，中国也有可能出现像三杰一样的人物。而申采浩的爱国者论则没有传达要努力的信息。而是充满了对爱国者出现的期待。梁启超设定了眼前的目标，但申采浩将目标设定在了爱国者充斥韩国的‘理想未来’。梁启超希望中国人能像意大利三位豪杰，哪怕只是其中之一，而申采浩则希望三杰一样的人物在韩国达到三十杰甚至三百杰。梁启超在结论中表示“则我有三十杰三百杰。而必可任彼三杰所任之事业”，虽然也做了一样的期盼，但是与之不同的是申采浩从“绪论”开始就已经提出了如此强有力的挑战。这也可以看出申采浩已经认识到当时韩国的危机不是三杰出现就能解决的事实。第三，申采浩在强调要向三杰学习的方式上，也表现出与梁启超的差异。从开头以爱国者论展开，最後以像‘三杰’一样的国人登场的愿景结尾上来看，申采浩的“绪论”和梁启超的“发端”虽然框架相似，但对爱国者多样性的提及却不同。

申采浩通过“绪论”介绍三杰的理由有两种，一是意大利的国难与韩国相似，且其时期很近。这说明比起三杰他更重视意大利这个国家。“三杰”一词只在申采浩的“绪论”的最後部分出现了3次也是源於这种认识。这与梁启超“发端”中共13次提及“三杰”的现象有著明显的差异。另外，与梁启超强调“三杰”是各自拥有多种优点的英雄的情况不同，申采浩使用该名称的情况与之相去甚远。

梁启超译本的“结论”内容比“发端”要多，其中分析了意大利和其他欧洲国家的时局，同时也比较了中国面临的外部条件，且结论後半部分详细整理了三杰故事中的‘五义’，如下表所示。

〈表6〉梁启超译本的“结论”节选

况夫知与行合一者也。吾既知国之可爱。而所以实行其爱者不力焉。苟非知之未灼。则必其自欺者也。故吾以毋自欺为学三杰之第一义。〈中略〉诗曰。其仪一兮。其仪一兮。心如结兮。故精一为学三杰之第二义。〈中略〉吾见夫今日志士。往往自恣於声色狗马。而以为不拘小节者有焉矣。干渴於公卿王侯。而以为借途办事者有焉矣。吾岂敢遽谓此中之必无人才。顾其不墮落者幸而已。故寡欲为学三杰之第三义。〈中略〉卑屈怯懦之徒。一遇逆难而遂退转焉。则事无论小大。而无一可成。而岂知过此逆而难之一关头。则必有顺而易者之在其後。苟一退转。则并其前途之顺者易者而失之也。故坚忍精进为学三杰之
--

第四义。〈中略〉农夫出疆。犹不能舍耒耜。市偿营业。犹不能无资本。学问阅历者。实吾辈之耒耜之资本也。日言爱国。而不汲汲於此措意。惟拮据一二空论高谈雄辩以为快者。非欺人即自欺也。故做预备工夫为学三杰之第五义。

结论中所揭示‘五义’，可以概括为①不欺骗自己；②始终如一；③高贵清廉的品性；④坚忍不拔；⑤用学识和素养准备。这五个教训就是作者通过『意大利建国三杰传』最终表现出的期待。相反，在申采浩译本中没有提及有关五义的内容。申采浩译本的“结论”以翻译部分梁启超文本为开头。其主要内容强调了虽然过程中充满了苦难和逆境无数，但为祖国着想的心实现了意大利建国这一目标。从第二段“无涯生이 曰”开始，申采浩开始陈述自己的感想和主张。具体对照如下表所示。

〈表7〉梁启超译本与申采浩译本的“结论”部分内容对照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p>〈前略〉 意大利建国。自发轫以至告成。中间凡五十餘年。大波折者六次。小波折者十餘次。其间危机往往在一发。使其气一馁焉而即败。使其机一误焉而即败。乃其败也一而再而三以至於十数。而馁焉者无一焉。此或失机而常能有不失焉者与之相救。合天下古今之壮剧活剧惨剧悲剧险剧巧剧。以迭演於一堂。嘻。何其惊心动魄不可思议至於此甚也。岂有他哉。人人心目中有『祖国』二字。羣走集旋舞於其下。举天下之乐。不以易祖国之苦。举天下之苦。不以易祖国之乐。人人心目中有祖国。而祖国遂不得不突出不涌现。佛说三界唯心所造。孔子曰。我欲仁。斯仁至矣。西哲曰。人皆立於所欲立之地。岂不然哉。岂不然哉。〈后略〉</p>	<p>新史民曰 伊太利建国이 发軔으로 始호야 告成에 至호되 中间凡五十餘年인디 大波折者六次오 小波折者十餘次라 其危机가 往々一发에 至호야 其气一馁호면 难可复振이어늘 乃其败也가 一而再호며 再而三호야 以至於十数败호되 其气는 未尝一馁故로 失於此로되 必得於彼호며 失於彼로되 必得於此호야 天下古今의 壮剧活剧惨剧悲剧을 括合호야 一堂에 迭演호니 壮哉라 其惊心动魄에 不可思议가 何以至於此오 盖人人心目에 祖国二字가 皆有호야 天下의 乐으로 祖国의 苦를 不易호며 天下의 苦로 祖国의 乐을 不易호니 祖国이 安得不涌现이며 祖国安得 不突出이리오 观於此에 厌世의 妄念을 可一破며 欲速의 谬見을 可一洗로다</p> <p>无涯生이 曰吾读伊太利三杰傳호되다가 〈后略〉</p>

申采浩用“송백(松柏)의 절개(松柏的气节)”、“철석(铁石)의 강건함(铁石的坚韧)”等来极力称赞三杰，并强调如果不是三杰，意大利本身就不可能存续，接着依次举出马志尼，加里波第，加富尔的事例，强调他们各自的价值。

另外,“爱国者”相关的内容贯彻“绪论”的始终,但在“结论”中并没被提及,这也是值得关注的事实。“绪论”中共出现了30次与“爱国”相关的单词,其中“爱国者”25次,“爱国”4次,“爱国心”1次。但是“结论”中出现的与“爱国”相关单词却只有“爱国男儿”和“爱国同胞”2次。特别需要注意的一点是,在“绪论”出现频率高达25次的“爱国者”一词,在“结论”中一次也没有被提及。取而代之的是“三杰”这个词。申采浩的“结论”中,“三杰”出现的频率高达28次。这与“绪论”中“爱国者”一词的频率相似。从上述〈表5〉中用点划线标注的部分可以看出,即使将“三杰”改为“爱国者”,也能明确地传达其含义。我们不难推测,“绪论”与“结论”的前後构成对比是作者有意安排的,即为了强调和巩固“爱国者”等同於“三杰”的概念。

但是申采浩并不是只把通过爱国摆脱困境的主体限定在三杰身上。并表明这样的主体不一定非要像三杰一样。也因此他在结论中提及并强调了“无名的三杰”的作用。一如“玛志尼党中에 无名之玛志尼가 当不知几千几百人이며 加里波的麾下에 无名之加里波的가 当不知几千几百人이며 加富尔幕里에 无名之加富尔가 当不知几千几百人이라.”中所说,如果没有“无名的三杰”,即使有三杰,也没有办法摆脱国家的困境。这与梁启超在结论中强调的“抑意大利有名之杰三。而无名之杰尚不啻百千万。使非有彼无名之杰。则三杰者又岂能以独力造此世界也。”等内容是一致的。

2) B类: 所示内容进存在於梁启超译本或者申采浩译本中的情况

在前文中,我们通过译本的结构相似性和内容相似性,说明了梁启超译本是申采浩译本的参照本。在这後续章节中将对两个版本的差异进行探讨,本章节将对只存在於梁启超译本或申采浩译本的表达进行比较分析。²¹⁾

21) 如第一章引语中所分析的一样,本文将申采浩译本视为梁启超译本的再译本。因此,推测只有与日文译本的内容进行比较後才能掌握梁启超汉文译本中的内容。但是在经作者对日文译本和汉文译本的内容进行比较後,认识到掌握了梁启超译本的相关内容在日文译本中没有直接反映。因此,决定将只存在於梁启超汉文译本或申采浩汉文译本的内容视为一种类型进行分析。

本文以梁启超译本中的标点“。”为基准，逐句将译本内容进行了对照，根据统计的对照数据，可以发现只在梁启超译本中出现的内容有618处（其中从第1节到第26节共609处），另一方面，只在申采浩译本中出现的内容有42处（其中从第1节到第26节共42处）。²²⁾在本节中，将重新探究正文(从第1节到第26节)范畴内只在梁启超译本中的内容，并从对客观内容的叙述差异和翻译者的主观论述两个方面进行剖析。

首先，导致描述客观内容时出现差异的原因，我们可以推测是基於对传达意思的便利性和节约用纸空间等方面的考虑。在叙述客观内容时，只留下主要内容，对其他琐碎的内容进行选择省略是常见的手法。申采浩译本也可以捕捉到这种处理方法的痕迹。该译本在内容译述方面，相比较与前者，在意义传达上具有简洁明了的特性，但由於其译述过程中省略了部分内容，破坏了信息的多样性。分析其中被省略部分的特徵，我们大致可以整理成4类。一是对有关人物行迹记述的省略，二是对有关事件背景、结果和原因记述的省略，三是对名称的记述的省略，四是对相关条约、原则概念和引文记述的省略。下文中将通过具体例子分别对这4类特征进行对比分析。

〈表8〉类型①：对有关人物行迹记述的省略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英最爱自由之国。而加富尔旧游地也。 其士大夫之贤者。多所交识。 而玛志尼久旅斯土。 屡著论各报中。论意大利国情。	英国은 自由를 最愛하는 国也며 加富尔의 旧游地也며 ()且玛志尼가 斯土에 久旅한 结果로 伊太利의 国情을
b	当时国会既 踴躍莫敢决。 而政府诸同僚亦 无一人 与 彼同志者。 纷纷辞职去。	当时国会诸員은 踴躍莫敢决하고 政府诸僚는 () 纷纷辞职去한지

上表引自梁启超译本的例子中用粗体字表示的部分是關於人物行迹的叙述。a是介绍加富尔在英国的交往活动和马志尼在新闻报纸上的活动，b是记述政府官员因为与加富尔在政治立场上不同，所以不支持加富尔的内容。但

22) 作者通过以梁启超译本中的标点“。”为基准，使用Python程序对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的文本内容做了以小句为单位的萃取，并在Excel表格中做了1:1的详细对照，最後得出了A、B、C三类差异的具体数据。本文中所提及的数据均出自於此统计。

此部分内容在申采浩译本中被省略掉了，只着重介绍了相关事件的要点。比起对事件进行复杂冗长的叙述，申采浩译本的处理方式，在信息传达上显得简洁高效，对于受教育程度不高的读者更具亲和力。

〈表9〉类型②：对有关事件背景、结果和原因记述的省略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俄皇欲先发制人也。忽发兵十五万压土境。土人告急於法。 法乃说英国以相从事。英国疾俄之南下也。又自倭打卢後四十年无战事。人心思动也。 於是土法英联军抗俄。开格里米亚之大战。实一千八百五十四年三月也。	俄皇이 先发制人の 策으로 忽然十五万大兵을 兴发하야 土境을 压하거늘 土政府가 法国에 告急하야 ()一千八百五十四年三月에 法英土三국이 联军抗俄하니라
b	彼以为吾既乘战胜之威。并伦巴的、俾尼西亚。则土地人口。皆已三倍於今日。泱泱大国之基已立。	盖战胜之後에 伦尼的俾尼西亚를 合并하야 ()大国的 基础가 已立커던
c	促其回答。英国见事机之迫也。出而任调人之役。其调停之大畧曰。	其回答을 催促하거늘 英国이 出而调停하야 曰

上表引自梁启超译本的例子中用粗体字表示的部分分别是关于事件背景、结果和原因的描述。a是介绍英国加入联盟的历史背景，b是描述“伦巴的”和“俾尼西亚”两国合并后的结果，即土地现状，c是揭示英国介入调整的原因。此部分内容在申采浩译本中并没有被提及，申采浩译本中只交代了两国合并的基本信息。

〈表10〉类型③：对名称的记述的省略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是根於『为国民。For people』由国民。By people』两大义而来者也按西哲言。政治者有三名。言最简而最精曰 Of people 曰 For people 曰 By people 第一义谓国者。人民之国也。	是为国民()、由国民()의 泰西政治学者가 三句名言이 有하니 () 第一义曰国也者는 人民之国也오
b	玛志尼 Ginseppe Mazzini 加里波的 Ginseppe Garibaldi 加富尔 Camillo Benso di Cavour	

〈表10〉引自梁启超译本的例子中用粗体字表示的部分是关于对名称的描述。表10中提出的用粗体字标注的部分是关于名称的描述。a是在梁启超译本中对“为国民”和“由国民”概念的英文表述，b是介绍“三杰”的汉字名和英文名。在汉文译本中，用英文对单词概念或人物的名字进行解释，不仅表现了强调的意图，还重新利用英文原著中使用的表现来提高作品的说服力。申采浩译本中只保留了主要内容的汉字表达，如果在前文脉络中已经提及相同的汉字名词或概念，後文中则不会重复进行表述。这样的处理手段，对于当时的受众群体（对于汉字和英文的识别能力普遍不高）更具可读性，也使得翻译工作更加简洁高效，最大程度利用版面空间。

〈表11〉类型④：对相关条约、原则概念和引文记述的省略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乃急归而说其王阿尔拔曰。语有之。『虽有智慧。不如乘势。 虽有磁基。不如待时。意大利统一之业。始终不可以已。我王其无意乎。 今皮阿士倡自由。民应如响矣。	即日归来하여 阿尔拔를 说하여 曰 「諺에 有之호되 智慧가 有하여도 乘勢호만 不如 恒다 하니이다 () 今에 皮阿士가 自由을 倡함에 应者如响하니
b	则其宪法亦废弃久矣且立宪国有两事最不可缺。其一。则君主不敢任意蹂躏宪法。其二则国民知宪法之可宝贵是也。 凡已有特权者。谁乐分之以与人。故民间无革命思想。则君主断不能以完全之宪法与民。	其废弃가 已久矣리니 ()

〈表11〉引自梁启超译本的例子中用粗体字表示的部分是对相关条约、原则概念和引文记述的内容。a中对为说服“阿尔拔”王引用的谚语的内容进行了详细记载。但申采浩译本中只保留了引用的部分话语，没有翻译发话者对谚语的主观论述。此外，如b所示，在前者中详细介绍了立宪国不可或缺的两个原则。但是後者中没有提到这一部分。

另一方面，在这两个译本中出现的对翻译者的主观论述的处理也是值得注意的。主观论述部分也可以根据论述内容的性质进行类型化区分。本文将翻译者的论述内容的性质分为3类。即对前文内容的感想，纯粹的感叹表达和

反覆的表达(对前文内容的总体陈述或比喻)。各个类型的具体范例将通过〈表12〉、〈表13〉、〈表14〉做具体的对比分析。

〈表12〉类型⑤-1: 对前文内容的所感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惟相与错愕赞叹心口相语曰。『不意阿布土山下一蕞尔国。乃能有此人才。』嗟乎。猛虎在山。藜藿为之不采。苟有人焉。何小之云。君子读加富尔传。不禁吞声饮泪。而叹彼之以千里畏人者。不知复何面目以立於天地也。	心口相语曰 不意케라 阿布土山下一小国에 此人가 材乃有ㅎ다ㅎ더라 ()
b	嗟乎。哀莫哀於无国之民。後世读史者。旁观犹为感慨。而况於身历之者乎。()甯复知十九世纪之下半纪。距今最近数十年之间 俨然一新造国。	哀哉라 无国之民이여 後世读史者도 慷慨의 泪를 难禁ㅎ려던 而况 身亲当之者乎아 当是时ㅎ야 莫不曰伊太利国은 已亡의 국이오 伊太利国民은 已死의 民이라 ㅎ더니 乃者 距今数十年前、十九世纪의 下半纪에 俨然一新국이

〈表12〉中用粗体字所表示的部分是译者的主观论述，是对前述内容的感想。从范例中可以发现在汉文译本中出现的梁启超的主观论述在国汉文译本中被省略，同时在国汉文译本中增加了汉文译本中没有的申采浩的主观论述。出现这种差异的原因在於面对中国和韩国的国情，梁启超和申采浩各自的立场和对“三杰”故事的理解。我们还观察到梁启超在表达主观感受时经常使用典故或谚语等方式进行表述，申采浩则更偏向於使用更加简单朴素的表述。这是由中韩文化差异引发的翻译者自身的语言习惯和句子以及文章记述法的差异导致的结果。

〈表13〉类型⑤-2: 纯粹的感叹表达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踟天躅地。无所告诉。()	踟天躅地에 无所告诉ㅎ니 哀哉 垓라
b	於戏。钦哉。意大利万岁。	於戏라 () 伊太利万岁

上表中粗体字表示的内容是两个译本中出现的纯粹的感叹表达。如b所显示的那样，梁启超译本在表达感叹时会加上多组感叹词。通过使用多个在意义上没有太大差异的感叹词进行表述从而强调译者的主观感受。这种方式在汉语的传统句法表现上被普遍运用。相反，在韩汉混用体的句子表达上，并没有采用那样的方法。而是只相应部分使用单个感叹表现进行叙述。此外，a中我们观察到申采浩译本的一些感叹表达并不存在在梁启超译本中，这是申采浩在译述前文内容后自发添加的主观性表达。

〈表14〉类型⑤-3: 反覆的表达(对前文内容的总体陈述或比喻)

序号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撒国虽小。余振臂一呼。集我老弱。 峙我莼粮。蜂蚕有毒。 将军敢谓取数百万撒的尼亚人民如缚鸡乎。	撒国이 虽小나 余가 振臂一呼하야 集我老弱하리니 此数百万撒国人을 将军이 其将如缚鸡乎아 将军乎어
b	我辈苟坚持此主义。虽复中道以死。 而此同仇敌愠之念。 犹将传诸我子孙我辈以枪礮与独立心遗子孙。	我輩가 此主义를 坚持하면 虽不成而死라도 我輩의 枪炮와 独立心이 子孙百世에 相传하어

〈表14〉中用粗体字表示的部分属于对前文内容的重复表述。其中a是梁启超用比喻手法重复强调前文的内容，即追加引入的典故。前文中表示虽然“撒的尼亚”国家很小，但其中老弱病残者聚集在一起，可能会成为很大的力量，梁启超使用成语“蜂蚕有毒”来再次强调力量虽小但不可轻视的含义。这部分内容出现在国王所说的话语中，申采浩译本中只翻译出了要聚集老弱者力量的呼吁。不难推测，由于汉语中“蜂蚕有毒”的四字成语是韩国人不常用的表达方式，不利于韩国的读者准确把握含义，所以申采浩故意将其去掉。b中的粗体字部分是对前文内容的总体性陈述。申采浩译本的翻译过程中，对前面已经展开的内容不再进行总体陈述，以达到节省空间和内容传达上简洁高效的目的。

目前为止，综合上述各类具体范例，我们考察了B类特点内部因细微差异而出现的子类型。下表中对B类差异现象及其子类型的特点进行了综述和总结。

〈表15〉B类(所示内容进存在於梁启超译本或者申采浩译本中的情况)

对客观内容的省略	① 对有关人物行迹记述的省略
	② 对有关事件背景、结果和原因记述的省略
	③ 对名称的记述的省略
	④ 对相关条约、原则概念和引文记述的省略
对主观内容的省略及添加	⑤-1 对前文内容的感想
	⑤-2 纯粹的感叹表达
	⑤-3 反覆的表达(对前文内容的总体陈述或比喻)

3) C类: 所示内容相同但表述不同的情况

本章节将集中分析C类差异的特点和范例。同时根据范例所体现出的不同特点, C类差异又可以分化出4个子类型, 即, ①完全使用相同的汉字词, 在意思上也相互对应的情况; ②同一含义下使用不同的汉字的情况; ③表示相同的意思, 但句子数量不同或句子顺序不一致的情况; ④为了表达相似的意思, 使用典故或比喻表达的情况。

本文旨在分析以梁启超译本为参照本的申采浩译本在内容和汉字表达上与梁启超译本的差异, 因此, 在本节中不具体分析C类差异的子类型①, 而是将焦点放在分析子类型②~④上。

〈表16〉类型②: 同一含义下使用不同汉字的情况

特点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单纯错误	自般琶西莎儿以来。	船琶西沙儿以来로
b. 缩写	当此之时。何图一旦为北狄所破蹂躏。	一朝에 北狄의 蹂躏을 经는 以後로
c. 概念替换	日削月蹙。三輶於西巴尼亚。四輶於法兰西。五輶於日耳曼。	日削月蹙하야 今日에는 西班牙、明日에 法兰西、又明日에는 日耳曼 等国의
d. 同类词替换	嗟乎。	哀哉라
e. 强调方式	惟有撒的尼亚Sardinia国王之一家而已。	惟撒的尼亚一家而已인디
f. 地理名词	意大利三字。	伊太利三字가
g. 内容反复	仅为地理上之名词。	仅是地理上의 名词로 若存实亡者]

〈表16〉中给出的是C类差异中子类型②的范例。在这些范例中，两个译本虽然表达了相同的意思，但在汉字的使用上存在著区别。我们观察到，在a中，两者传达了相同的意思，但在记述同一个名字时，在梁启超译本中使用了“般”，在申采浩译本中则使用的是“船”。究其原因，古罗马历史初期主要是庞贝(Pompeii)、凯撒(Caesar)和克拉苏(Crassus)三大军阀的斗争史阶段。梁启超译本中，将庞贝(Pompeii)翻译成“般琶(banpa)”，凯撒(Caesar)翻译成“西莎儿(xi sha er)”。因由汉字中的“般(ban)”字与“Pom”在发音上的具有相似性，因此“般”的出现具有一定的合理行。但是，申采浩译本中使用的“船(Chuan)”字并不能像前者那样处理，本文的理解是其为因繁体字汉字的形态相似性而引发的单纯错误，这一点也从侧面为申采浩译本以梁启超译本为参照进行译述的事实提供了合理的证据。

范例b中粗体字作为时间副词，都表达了“在某一个时间点”的含义。不同的是，这样的时间点表达在梁启超译本中用了4个汉字实现，在申采浩译本则中通过2个汉字实现。该译本中的翻译虽然简洁，但失去了“当此”所体现的“就是现在”的意思。“一朝”则可能被理解为“某一天”，从而在时间概念上传达出一种模糊的含义，在这一点上申采浩的意图似乎只在此强调时间条件功能。

范例c中的粗体字是对事件的时间发展顺序做交代。我们可以观察到梁启超译本中使用了数字，而申采浩译本则直接使用了时间副词。导致这样差异的原因，可以理解为由梁启超和申采浩叙述同一历史事件的发展时的侧重点不同导致。前者在强调顺序的同时也注重於体现次数，後者则侧重於事件发生的时间的先後。

d-r的范例中体现的差异是因为翻译者语言背景和习惯的差异导致的。d是感叹表现的使用上的差异。e是在强调的方式上出现的差异。为了强调“撒的尼亚”这个国家，在梁启超译本中增加英文注释，申采浩译本中则做了下划线处理。f则是对同一词汇在音译上存在的差异体现。

g中用粗体字标注的部分是翻译者的主观判断。“若存实亡”是“有名无实”的意思，与前面“仅为地理上之名词”的表述相对应，此处应理解为是申采浩自己的主观表述。

〈表17〉类型③: 表示相同的意思, 但句子数量不同或句子顺序不一致的情况

特点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a. 顺序颠倒	涌出於残碑累累荒殿寂寂之里。 泱泱然拥有五十馀万之精兵。二百六十馀艘之军舰。六千馀英里之铁路。十一万馀英方里之面积。二千九百馀万同族之人民。	五十馀万的精兵과 二百六十馀艘의 军舰과 六千馀英里의 铁路와 十一万馀英方里의 面积과 二千九百馀万의 同族人民으로 荒尘은 漠漠하고 残碑는 累累한 里에서 涌出하야
b. 融合	毋甯自隐焉以为他日之地。当其翩然归耕也。其友有贻书吊之者。惜其以有为之身。受嫉当途。老於山野。加富尔戏答之曰。『事未可知。天若假公以年。仁看他日加富尔为全意大利宰相之时矣。』	自隐之计로 翩然归耕하더라 一友人이 書를 貽하야 有用之才로 山野에 埋沒함을 嗟惜하여 기거늘 加富尔가 答曰 「公이 他日에 加富尔가 全伊太利의 宰相되실 時를 仁看하리」 하니

〈表17〉中给出的是C类差异中子类型③的范例。在a中, 梁启超译本引用内容的第一句(用粗体标注的句子), 出现在了申采浩译本中同一文段的最後部分。这类现象的出现, 我们可以理解为是梁启超和申采浩在内容的理解和规划陈述上的差异导致的。范例b中体现的是两国语言的句法机构和叙述法的固有特点而导致的差异。即梁启超译本中两个或两个以的句子在申采浩译本中融合成了一个句子来表达。本文推测, 这也是出於意思传达的便利性和节约用纸空间的考虑。

〈表18〉类型④: 为了表达相似的意思, 使用典故或比喻表达的情况

特点	梁启超译本	申采浩译本
表述替换	噫嘻, 伟人伟人。云中鹤耶。朝阳凤耶。虽欲学之。乌从而学之。 苏子卿之栖海上。胤子已生。陈伯之之望江南。羣鸞撩乱。 盖至是而加将军之客南美者忽忽十四年矣。	噫嘻라 伟人 伟人이어 云中鹤耶아 朝阳凤耶外아 虽欲学之나 乌从而学之리오 人世가 如泡하고 岁月이 不留하야 加将军이 南美에 留住하지 忽忽十四年矣라

〈表18〉中给出的是C类差异中子类型④的范例。范例中粗体字标注的部分是两个译本相互重叠的内容, 区别在於梁启超译本中以对句的形式引进典故, 申采浩译本则使用更为简单的比喻句式。典故是写文章时常用的表达方式, 中国人已经很熟悉了。虽然无法确定申采浩自己能否很好地利用典故来

进行叙述，但是他为了让朝鲜读者容易理解不熟悉的内容，使用了更简单的比喻表达方式进行译述，此方法更为高效。

综合上述各类具体范例，我们考察了C类特点内部因细微差异而出现的子类型。下表中对C类差异现象及其子类型的特点进行了综述和总结。

〈表19〉C类（所示内容相同但表述不同的情况）

① 完全使用相同的汉字词，在意思上也相互对应的情况	
② 同一含义下使用不同汉字的情况	a. 单纯错误；b. 缩写；c. 概念替换；d. 同类词替换； e. 强调方式；f. 地理名词；g. 内容反复
③ 表示相同的意思，但句子数量不同或句子顺序不一致的情况	a. 顺序颠倒；b. 融合
④ 为了表达相似的意思，使用典故或比喻表达的情况	表述替换

4. 结语

19世纪末到20世纪初，随著西方近代化的影响的深入和日本、中国以及韩国地区的近代化思想的萌芽和发展，大量的西方历史传记被引入东亚地区。这些历史传记被翻译成多种语言，以便在知识分子或民众中传播。『意大利建国三杰传』是其中的代表。

这部历史传记通过“西欧—日本—中国—韩国”的途径被翻译成多种语言。在翻译过程中，由於翻译者的政治倾向和各国的文化差异，翻译者接触文本的视角和意图，以及内容表现上出现了不同。比其他东亚国家更早进入近代化发展过程的日本在引进和翻译西方历史传记方面迈出了第一步，日本的翻译工作以忠实於原作的态度进行。日本译者平田久的译本在翻译过程中虽然增加了其主观性的讨论，但从文本结构到内容叙述，他的译本几乎完全与Marriott的原著保持了一致。中国学者梁启超和韩国学者申采浩在引进和翻译西方历史传记方面，与平田不同，他们各自选择了不同的方法，结合了符合各自国家地区近代化过程的方式进行译著。因此，在梁启超译本中表现出了与

之前的译本在内容结构和论调上的变化。同时，韩国知识分子试图通过梁启超的著作寻求克服国难的解决方案，因此梁启超译本流传到韩国，为申采浩译本提供了模板。也因此申采浩译本在结构和内容方面与前者具有共同特点。但由于国政差异和文化差异，申采浩译本在内容展开和汉字表达等方面，与梁启超译本相比，展现出了不同的特征。

本文对有著高度相似性的梁启超译本和申采浩译本之间的差异进行了考察，对其在内容构筑和汉字使用上的差异进行类型化分析，并探究其原因。从分析的结果中得知，申采浩译本和梁启超译本的序论部分，二者根据各自国政的差异，对“爱国者”形象的思考、对“理想乡”的愿望、以及刻画应该如何学习“三杰”的方式进行了不同的阐释。作者在两个译本的结论部分也进行了不同的叙述。梁启超注重培养中国三杰，提出‘五义’，申采浩则强调“无名三杰”的重要性。在本文中，将其视为A类差异。另外，申采浩译本在翻译梁启超译本时省略或额外添加的内容被视作B类差异。该类型的差异中包括了省略梁启超译本中出现的人物行踪、事件的背景和原因、固有名称、条约或原则或引文内容等客观内容和主观内容(感叹表现等)，以及添加申采浩自己的主观论述等差异的子类型。最后，在本文将两个译本中内容相似，但表现上出现差异的情况划分为C类差异。汉字的使用上的差异和内容上实现顺序的差异、修辞技法的差异都包含在这一类别中。具体来看，在汉字词汇的使用及表现上，申采浩译本出现了单纯错误、对内容的缩减或替代，对内容的反覆强调等特点。在内容叙述上，申采浩译本也体现出了其独有的特点，主要表现在句子语序的变更和复文的简单化等方面。在修辞手法上，申采浩译本为了让读者更容易理解不熟悉的内容，使用了更简单的比喻表现，代替了梁启超译本中普遍出现的引用‘典故’的手法。由此判断，申采浩译本并不是单纯地将梁启超译本的汉语文本改为韩汉混用文体，而是将焦点放在如何对民众进行西方历史文化信息的高效普及和爱国救国思想的传递上，这样的‘二次创作’充分地反映了申采浩的世界观。

本文侧重於分析版本间的汉字表达方式以及表述内容上的差异的研究，对于扩充该书的译本根据传播对象国社会文化背景的不同而产生的的相异译

介样相的整体研究具有一定的助推作用，同时本文的研究成果也对共处汉字文化圈内的东亚地区的文献翻译和对比研究具有一定的参考价值。

◆ 参考文献

1. 单行本

- 신채호, 『伊太利建国三杰传』, 광학서포, 1907.
우림걸, 『한국개화기문학과 양계초』, 박이정, 2002.
주시경, 『이태리건국삼걸전』, 박문서관, 1908.
한영균, 『현대 한국어 형성기의 새 국한혼용문의 등장과 그 변천』, 연세근대한국학총서 143 L-116, 2021.
梁启超, 『意大利建国三杰传』, 上海: 广智书局, 1902
平田久, 『伊太利建国三杰』, 东京: 民友社, 1892.
J. A. R. Marriott, *The Makers of Mordern Italy*, London: Macmillan and Co., 1889.

3. 论文

- 강영주, 「근대 역사소설의 선행형태 -애국계몽기의 전기문학」,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pp.32-33.
김수자,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 번역 목적과 ‘영웅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pp.45-78.
손성준, 「『이태리건국삼걸전』의 동아시아 수용양상과 그 성격」,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7.
성현자, 「동아시아문학의 연구 단재(丹齋)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연구 - 이태리건국삼걸전과의 비교」,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제3권, 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pp.307-359.
이재선, 「신채호의 역사 · 전기 소설」, 『한국사학집』 제6집, 한국일보사, 1984, pp.189-218.
우림걸, 「개화기 문체에 끼친 양계초의 영향」, 『한중인문학연구』 제5집,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0, pp.72-106.
_____, 「梁启超 역사 · 전기소설의 한국적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제6집,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1, pp.66-94.
정은경, 「개화기 현채가(玄采家)의 저(著) 역술(译述) 및 발간서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4집, 한국서지학회, 1997, pp.303-334.

- 정환국,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 상관성 ; 근대계몽기 역사 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4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pp.1-32.
- 한무희, 「단재와 임공의 문학과 사상」, 『우리문학연구』 제2집, 우리문화회, 1977, pp.5-29.
- 陈利今, 「对梁启超『意大利建国三杰传』唯心史观的剖析与批判」, 『史学理论研究』 第1期, 1995, pp.26-35.
- 吴汉全, 「梁启超与中国近代史研究」, 『西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47卷 第6期, 2021, pp.232-241.
- 袁鸿宇·秦方, 「“意大利建国三杰”形象在近代中国的塑造及演变」, 『清史研究』 第1期, 2022, pp.112-124.
- 张乃禹, 「梁启超史传作品在韩国开化期的译介及其影响」, 『新文学史料』 第3期, 2016, pp.106-112.
- _____, 「近代韩国小说革命理论与梁启超文学思想之关联」, 『山东社会科学』 第2期, 2016, pp.108-113.
- 郑宣景, 「韩中英雄叙事的译介——以对『意大利建国三杰传』的接受为中心」, 『西北师范大学国际文化交流学院会议论文集』, 2015, pp.120-124.
- _____, 「『意大利建国三杰传』번역을 통해 본 한중 영웅서사 수용의 재맥락화」, 『중국소설논총』 제46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5, pp.257-286.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24일
심사완료일	2024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ation of
『The Makers of Modern Italy』 in East Asia
-Centered on Liang Qichao's translation and Shin Chae-ho's translation-

Teng, Yulong · Ko, Seok-Joo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Liang Qichao's translation and Shin Chae-ho's translation of 『The Makers of Modern Italy』,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an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content construction and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in a typological manner. The results shows the two translations differ greatly in their prologues and conclusions, which is regarded as a type A. And the reasons for this lie in the two translators' reflections on the image of the 'patriot'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their wishes for the 'ideal country', their portrayal of how to learn from the 'Sanjie'. The omissions or extra additions in the translation of Liang's translation are categorized as type B, witch includes omission of objective contents such as the movements of characters, background and reasons of events, inherent names, treaties or principles, or quotations that appear in Liang' translation, and subjective contents such as exclamations, etc., as well as the addition of Shin's own subjective discourse. The cases with similar contents but different forms of expression are categorized as type C. Differences in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differences in the order in which the content is realized, and differences in rhetorical techniques are all included in this category. Through this, Shin's translation is believed to be close to a second creation that reflects his worldview, rather than simply changing the style of the text.

Keyword The Characteristics of Translation, The Makers of Modern Italy, Liang Qichao's translation, Shin Chae-ho's translation, Typological manner, Differences

论朴婉绪小说的生态女性主义书写

叶蕾蕾*

국문요약

박완서의 소설은 에코페미니즘적 시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의 1970-1990년대에 발표한 일련의 소설들은 여성과 자연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성과 자연이 억압 받는 내재적 논리의 유사성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이원적 사고방식을 해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권 전체의 입장에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여성=자연=생명=생산'이라는 에코페미니즘 공식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자연의 치유력과 생태 공동체에 대한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양성 평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에코페미니즘적 비전과 인문적 배려를 표출하였다.

주제어 박완서, 자연, 식물, 여성, 에코페미니즘

〈目録〉

1. 序论
2. 本论
 - 1) 女性人物与植物意象
 - 2) 男性中心主义与不育的“育婴器”
 - 3) 女性“关怀伦理”与母性的再生产
 - 4) 自然治愈与生态共同体
3. 结论

* 中国重庆工商大学讲师 (本文是重庆市教育委员会人文社会科学研究项目“生态批评视域下的当代韩国女性小说研究”(项目编号: 20SKGH107)的阶段性成果)

1. 序论

朴婉绪(1931-2011)是韩国文学史上最具有影响力的作家之一。她的文学作品数量庞大,从时间跨度上看,其作品贯穿了整个韩国现当代史,勾勒出韩国现当代社会的立体图景。朴婉绪的小说以生态女性主义视角,书写了人类中心主义思想引发的生态环境被破坏的问题,以及男性中心主义思想导致的女性受压迫的问题。细读她的小说作品,我们不难发现生态女性主义几乎贯穿其整个创作过程。尤其是在1970-1990年期间写成的小说中,能够同时看到权力支配下的女性和被扭曲的自然的的面貌。此时的“自然”一般以植物的形象登场,且无一不是以非正常的面貌示人,清晰地表明了受压迫的女性与被破坏的自然之间的相似性,也从侧面显示了女性解放和自然解放之间的内在联系。其后期作品聚焦于自然的治愈力,以及对生态共同体的追求,表达出希望建设两性平等、人类与自然和谐共存的生态女性主义理想和人文关怀。在以往的朴婉绪小说研究中,对父权制意识形态下的女性受害问题探讨得较多,但是从生态女性主义视角对此进行深入剖析的较少。¹⁾

“生态女性主义(Ecofeminism)”一词由“女权主义(Feminism)”加上意为“生态”或“环境”的前缀“Eco”组合而成,这一构词方式已经清楚地指出了其主要内涵,即它既是“具有环境视角的女性主义研究”,同时也是“具有鲜明女性主义特色的环境研究”。²⁾作为20世纪70年代末西方环境运动与女性主义相结合的产物,生态女性主义将生态与女性在伦理层面结合在一起,把对父权制的批判列为认识生态问题的关键,并尝试重新定位女性和自然在人类发展进程中的地位和作用。朴婉绪的小说从生态女性主义观点出发,强调了女性和自然

1) 先行研究成果当中,金知恩(김지은)虽然从“父权制批判”、作家的“生态感觉”、女性“养育的伦理”、“生命本原价值”的恢复以及“有机体的联系”等多个维度剖析了朴婉绪小说中的生态女性主义视角,但在相关研究方面仍留下了广阔的探索空间。这是因为,生态女性主义与传统女性主义的关键差异在于,它强调所有理论和实践均须融合生态学观点。因此在探讨小说中男性对女性的压迫问题时,必须深入挖掘这一社会现象与自然界现象之间的内在相似性和关联性,如此方能真正凸显生态女性主义的视角。-김지은, 『박완서 소설의 에코페미니즘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3.

2) 韦清琦·李家奎, 『生态女性主义』,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9, p.1.

的同质性，突出了母性的保护本能和关怀伦理。更加难能可贵的是，作者将两性问题上升至地球和全人类的高度，从生态圈的宏大视角对此进行了关照。朴婉绪的小说还书写了因重男轻女思想而导致的堕胎风潮，表达了对自然治愈力的肯定和对生态共同体的追求。朴婉绪小说中体现的这些特点，均有待于从生态女性主义视角重新解读。

2. 本论

1) 女性人物与植物意象

父权制社会建立在统治逻辑的基础上，推崇价值二元论和价值等级论，它往往赋予一方更高的价值，使它具有排他性。此时的自然，则往往处于“他者”、“边缘”、“失语”的地位。³⁾而生态女性主义反对一切统治逻辑，它认为自然是和人类具有同等地位的生态存在。在生态女性主义视野下，自然和女性互为彼此，二者之间的界限不再那么清晰。在朴婉绪的小说中，女性和自然惊人地相似。她的小说中充满了众多的植物性想象力及隐喻，而这正是她将女性与自然视为同质性存在的重要例证。

短篇小说《枯花》⁴⁾中，年近花甲的主人公去参加侄女的婚礼，在返程中她与一位老绅士不期而遇，互生情愫。但当她不经意间从镜子里看到自己的裸体时，不由得呆住了。岁月流逝，年轻时养儿育女的丰腴的身体此刻俨然一株枯萎的花朵。她明白自己再也无法开花结果，自然也不可能再一次拥有“释放本能的时间”了。炽热的情欲只属于年轻的身体，如今像“枯花”一样丧失了生产性的年老的躯体早已失去了重新开始的力量。与此同时，她终于明白自己和那位老绅士的所谓爱情，不过是一时的情绪波动，是无法实现的一场幻影。小说文如题名，它聚焦失去生产性的女性身体，将女性与自然的同质性展现得淋漓尽致。而在《亲切的福姬》⁵⁾中，象征幸福的紫荆树和象征死亡的罌粟

3) Rosemarie Putnam Tong 等,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이소영 等译, 서울: 한신문화사, 2000, pp.1-2.

4) 朴婉绪: <枯花>, 『孤独的你』, 朴善姬、何彤梅译,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2006.

花的果实——鸦片，共同构成了一组诡异的植物性想象。小说中，十九岁的福姬进京后在杂货店大叔家里做保姆。福姬有生以来第一次体会到的“神秘体验”来自于一个青年大学生的关心。隆冬季节，青年为福姬皴裂的手背涂上润肤油，他的神情真诚而单纯。这一刻，福姬“感觉自己的身体好像变成了一株紫荆树”，那是“光秃秃的村落里唯一一株开花的树木”，干枯晦涩的枝干虽不曾结出花蕾，却“突然之间喷吐出千娇百媚的紫红色花朵来。”（183-184页）那些绽放的花朵，象征着主人公打破其女儿、妻子的身份给她带来的女性刻板印象，绽放出属于生命本身的喜悦和光彩。长久以来，福姬为了生存不得不戴着“亲切”的面具，取悦丈夫和婆婆等人。她能坚持到现在，靠的是那个“扁圆的铁盒子”——装满罂粟花果实的汁液做成的鸦片。铁盒无数次给她以慰藉，成为了放在身边便可以安心的“银妆刀⁶⁾”。婚后的福姬再也不会产生自己变身为紫荆树的幻想，而是终日与“死亡盒子”里的鸦片为伴，随时准备结束自己的生命。这部作品中，无论是象征幸福的紫荆树，还是象征死亡的罂粟花的果实——鸦片，均透露出植物与女性之间的象征隐喻，暗含着深刻的生态女性主义内涵。

生态女性主义不仅关注人类之间存在的各种压迫与被压迫的关系，还聚焦人类想要支配自然世界的企图。当女性和自然都处于被支配地位时，女性与自然之间的关联性就成为一个重要课题。生态女性主义领军人物之一的凯伦·沃伦(Karen J. Warren)在他提出的核心假设中指出，对妇女的压迫和对自然的压迫之间有着重要的联系，理解这些联系的本质，对于充分理解妇女和自然所遭受的压迫是十分必要的。⁷⁾著名学者鲁枢元在其著作《文艺生态学》中也曾指出，女性危机与生态危机之间常常存在同步关系，自然遭逢劫掠的时刻，往往也是女性受到奴役的时刻。⁸⁾生态女性主义的视域下，性别压迫与自

5) 朴婉绪，《亲切的福姬》，李贞娇、陈亚男译，北京：清华大学出版社，2016。

6) 古时朝鲜半岛的父母送给女儿用来防身用的银制小型佩刀，当遭遇不测的时候，女孩可以用刀来结束自己的生命，保护自身贞洁。

7) 罗斯玛丽·帕特南·童，《女性主义思潮导论》，艾晓明等译，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02，p.370。

然的受压迫经常交织在一起，两者往往相辅相成。朴婉绪笔下女性人物的植物意象并非停留在生物学特性的相似性上，它还表现为女性和自然在受压迫命运上的惊人的相似性。在她的小说里，父权社会中受到压迫的女性形象与病态的自然形象经常同时得以呈现，清晰地表明了女性解放和自然解放的内在联系和必要性。

短篇小说《看家的日子结束了》⁹⁾中，父权社会中男性对女性的控制和以男性为代表的人类强加于自然的控制同时得到了清晰的呈现。小说中，丈夫闵教授被突然上门造访的神秘客人带走，妻子只能无奈地目送丈夫离开。丈夫吩咐妻子照顾好婆婆以及他的盆栽，还仔细说明了服侍母亲和盆栽的方法。丈夫离开后，妻子不仅忍受着患有轻微老年痴呆的婆婆的刁难，而且按照丈夫交代的那样，每天让盆栽晒太阳、调节房间的温度、按时给盆栽浇水。但是不知为何，这些盆栽无论如何都无法让她感受到爱意。忿恨之余，她开始反省家中的状况。

丈夫似乎对花盆里被压缩的大自然很满意，可除了感到有些可怜，我对这些被强制矮化的树木没有任何兴趣。可是那天，看到丈夫最珍贵的那棵松树盆栽的根部，我的内心感受到一种异样的震动。松树的上半身犹如悬崖上的巍巍青松，高贵地舒展着，可根部却像蛇一样弯曲着盘在一起。应该是人为抑制的生长让它以这种模样痛苦地扭曲着吧。我想，家里的祥和与和睦也是丈夫像管理盆栽一样，根据他的爱好，修剪、打磨、压制而创作出来的作品吧。

(《看家的日子结束了》，『朴婉绪短篇小说全集2』，294页)

她终于明白，家里的生活就像丈夫培植的盆栽一样，外表虽然看上去体面、高雅，但其根基其实是扭曲和畸形的。丈夫的短暂离开让她重新感受到了长期在心里受到压抑的人生激情，她的行为渐渐失控。她决定亲手拆散这些年丈夫精心布置的家庭框架，而令人意想不到的的是亲子关系竟然因此得到了

8) 鲁枢元，《生态文艺学》，陕西：陕西人民教育出版社，2000，p.91.

9) 朴婉绪，《看家的日子结束了》，『朴婉绪短篇小说全集2』，首尔：文学村，1999.

改善。丈夫回家后，虽然妻子看家的日子就这样结束了，但她作为一个女性的觉醒已由此开始。

2) 男性中心主义与不育的“育婴器”

韩国家庭的传统价值观深深植根于儒教传统和父权家长制，只有儿子才能继承家业的重男轻女思想根深蒂固。发表于1985年的短篇小说〈接生瓢〉，反映了韩国社会普遍存在的这种传统价值观。在小说中，婆婆不满儿媳两胎生的都是女儿，说这是“断别人家香火的事情”，埋怨儿媳为何不通过羊水检查查明胎儿性别，及时采取措施终止妊娠。事实上，韩国社会关于堕胎的争议由来已久，但为了传宗接代而一直采取默认的态度，其内在根源正是韩国社会盛行已久的重男轻女思想。玛利亚·米斯(MariaMies)表示，在印度，羊水检查曾一度广泛用于性别鉴定，其结果父权制得到进一步强化。¹⁰⁾生态女性主义在反思人类中心主义伦理观的同时，站在女性立场审视生态问题，旗帜鲜明地反对父权制度下的男性中心主义。已有学者指出，重男轻女思想导致的人为终止妊娠的行为与自然的可持续性发展危机之间存在着一定的内在联系，遗传及生殖工程技术的发展正在使植物的种子和女性的子宫成为新的被动客体。¹¹⁾这种剥夺自然生产力的行为势必造成自然的可持续性发展危机。为了家族的传宗接代，借助现代医疗手段提前查明胎儿性别，以防止女婴出生的做法，将直接导致男女性别比例的失衡，继而会造成严重的生态问题。

2008年，朴婉绪的中篇小说〈梦中的育婴器〉被译成中文发表在『世界文学』杂志上。¹²⁾在这篇小说中，作者已经清晰地表明了对于生态系统的忧患意

10)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p243.

11) 孟山都公司开发了抗除草剂和病虫害的基因改良种子，为保护知识产权，他们将不育基因注入棉花作物，使收获的种子不再发芽。这种做法剥夺了植物种子的生产力，会带来自然的可持续性发展危机。-이귀우, 『여성과 자연의 식민화에 대하여 - 에코 페미니즘』,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2000, p339.

识。小说的主人公受妹妹之托，到幼儿园给参加演出的侄子录像，却没想到期间邂逅了一位令她心仪的男士。难言的诱惑和随之而来的自责感在她心中激烈地博弈，等到心灵的天平回到原点之后，她仍然感到心有芥蒂，无法释怀。她无法想象在这片土地上竟然有一种人即使没有儿子也不会感到自卑。原来，这位男士没有儿子，只有两个女儿，但他说自己从来没有因此而感到“不幸”。他说的每一句话都如此真诚，叫人无法产生怀疑。这位男士还说起了去年自己所在的杂志社采访妇产科医院时的一段经历。当时他已经注意到幼儿园里男孩和女孩的比率严重失调，脱离了正常的轨道。他希望探索其中的深层原因。结果他对现代医学充满了怀疑，甚至认为“如果（医学技术）危及到人类的未来，那就不应该当做是医学的凯歌，而是要唤起人们扬弃和拒绝的共鸣”（157页）。

“那是非常恐怖的事情。万无一失的方法，是以杀害女胎为前提的。只要是女胎，仅以这样的理由，就要周密地、有计划性地、富于科学性地，不留痕迹地除掉。医学不仅能保证胎儿肯定是女胎，而且负责杀害。直到怀上男胎为止，一次又一次地杀害女胎，这就是所谓的科学技术的发达。”

（〈梦中的育婴器〉，『世界文学』，157~158页）

东西方文学都有将女性比作大地的传统。如前文所述，生态女性主义者尤其重视基于大地的女神信仰，认为土地的生产能力与女性的生育能力之间有着内在联系。也就是说，被剥夺生育能力的女性身体和无法再生产的贫瘠的大地具有某种同构性。需要警惕的是，人为终止妊娠的做法不仅仅是反生命和反女性的，也是反生态的。男性中心主义思考方式在持续物化女性的再生产能力的同时，会严重危害到生态界的平衡和可持续发展。上述引文内容可谓触目惊心，现代医学不仅能够鉴别胎儿的性别，而且能够左右胎儿的命运。正是在这个意义上，玛利亚·米斯认为生命工程在本质上是不道德的。她认为新的医学技术必然使妇女的身体成为新的被动客体，从而使妇女比以往

12) (韩) 朴婉绪, 〈梦中的育婴器〉, 薛舟、徐丽红译, 『世界文学』第1期, 2008.

任何时候都更加对象化和被动化。¹³⁾那位男士在妇产科医院目睹的可怕事实警告人们：“重男轻女思想和现代医学合作造成的性别比率，将来会危及到我们的生存环境”（159页）。不难看出，那位男士的上述话语也是作者对重男轻女思想引发的堕胎风潮最为直接的生态学认识。通观全篇我们还可以发现，这篇小说最为清晰地表达了作者对性别比率等人口问题的生态学认识。在小说中，那位男士甚至预言，如果男女性别比例严重失衡，女性的商品化现象将在所难免。到那个时候，“女人被列入财产目录，成为权势和地位的象征。女人变得不再是人，这也意味着男人不再是人。”（154页）

朴婉绪在长篇小说『傲慢与梦想』『欲望的阴翳』等众多作品中，均流露出对人口问题，以及地球承受能力的担忧。与此同时，她也认识到男女性别比例严重失衡同样会引发严重的生态灾难。由此可见，作为一个长期关注女性问题的世俗作家，朴婉绪对父权制的批判没有仅仅停留在对二元式思维方式的解构上，而是站在生态的高度，关注生态系统的可持续发展问题，表现出作者对社会生态秩序深沉的忧患意识。这一点尤其难能可贵。

3) 女性“关怀伦理”与母性的再生产

小说〈那凶险岁月中的白头翁〉发表于1977年，它讲述了两位老妇人在极端情况下展现出来的母性特有的保护本能和关怀伦理。第一个登场的是八旬老妇，她浓妆艳抹，深入敌穴，希望牺牲自己来保全村子里的其他年轻女性；第二个登场的老妇人听闻战场上的子弹偏爱童男，便将“性”作为救命的礼物送给了名为金一兵的士兵，使其获得了战场上宁信其有不信其无的护身符。值得一提的是，小说题目中的“白头翁¹⁴⁾”是一种开紫色花朵、浑身长有白色绒毛的植物。其韩语名称是“할미꽃”，由“할미（奶奶）”和“꽃（花）”两个词组合而成。美国伦理学家卡罗尔·吉利根（Carol Gilligan）提出了关怀伦理学（Ethic of Care），它认为，受心理因素、生理因素以及社会因素等的综合影

13)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마, 同上, pp.219-245.

14) 学名为Korean pasque flower.

响，男女在作道德决定时的态度是不同的。¹⁵⁾很明显，上述故事中的母性保护本能和关怀伦理均来自女性视角和母性经验，它有别于男性逻辑推理的方式。女性主义的关怀伦理始于对道德责任的关注，其基础是女性独有的情感体验和母性思维，这样的心性更适合于思考人与自然的关系，因此后期的生态女性主义者很快将此延伸至自然的领域，呼吁人类将自然视作鲜活的现实，努力践行女性的关怀伦理。

生态女性主义者相信，养育子女的母性体验使女性天然地具备了拒绝战争的独特动机，以及爱护生命的独特实践。恢复生命的源泉是生态女性主义的终极目标，在以生命的可持续发展为目标的生态话语中，生命源泉的恢复同样是重要议题。韩国文学评论家姜仁淑指出，延伸至并无血缘关系的孩子的爱是朴婉绪文学的重要核心之一。¹⁶⁾朴婉绪在小说中，对由重男轻女思想导致的堕胎现象，女性遭受的身心双重伤害，以及性别比例失衡的先兆等进行了批判，同时对鲜活的生命发出了热切的呼唤。在她看来，孩子保留着未受世俗污染的纯真，对孩子的爱与热爱自然的心在本质上是相同的。正因为如此，在朴婉绪的小说中，自然因素常常作为唤醒人物对生命的渴望的关键性因素出现，并在故事发展中发挥重要作用。这一点，从短篇小说〈哭声〉和中篇小说〈那个秋天的三日〉中可见一斑。

在小说〈哭声〉¹⁷⁾中，一对夫妇生下了患有脑瘫的婴儿。夫妻二人每天默契地向神祈祷，希望神能收回孩子的生命。直到孩子真的死了，他们却从此陷入合谋杀死自己孩子的负罪感中。自己创作的“最初的作品”惨遭失败的挫折感和谋杀亲子的负罪感，使他们彻底失去了再次拥有亲生骨肉的可能。可是没想到，邻居夫妇的一次吵架给他们提供了新的契机。妻子收留了邻居夫妇吵架时被赶出来的孩子，孩子整夜未眠，黎明到来之前，孩子望着窗外说了一句：“早晨是绿色的。”(57页)从那以后，每当凌晨无法入眠时，她便会凝视着

15) 陈子雪，「论吉利根基于女性视角的关怀伦理思想」，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2016，p16.

16) 강인숙, 『박완서론- <울음소리>와 <비슷한 방들> <포말의 집>의 비교연구』, 『동일인문학』第26期, 1994, p.22.

17) 朴婉绪, 〈哭声〉, 『朴婉绪短篇小说全集4』, 首尔: 文学村, 1999.

窗外，这时耳边就会响起孩子的那句话。终于有一天，当她经过夏花开得正旺的小区花坛的时候，心中不禁涌出对新生命的渴望。“她想拉着邻居家孩子的手在花园里散步，然后教给他各种花的名字和颜色的名称。还有，当孩子撅起嘴唇说出‘草绿色’这个单词的时候，她要亲一亲他的嘴唇。”小说中围绕“花坛”进行的这一段描写显得意味深长。正如姜仁淑所说的那样，和前面提到的“凌晨”这一时间段以及“草绿色”的色彩一样，“花坛”也是和孩子具有某种同质性的事物。¹⁸⁾这从小说中列举的“蔷薇、紫茉莉、鸡冠花、蛇目菊、桔梗花、百日菊”等大量花草名称中也可窥一斑。此时的主人公虽未清晰地认识到这一点，但她已经明白“这种虚幻的想法也是内心的某种映射”。最终，她和同样总是听到孩子哭声的丈夫产生了“幸福的共鸣”。她撕下了“那层可恶的异物”，至此，他们的“性”成为了“超越情欲、表达对生命的强烈渴求”的东西，即成为了生命本身。

在小说〈那个秋天的三日〉¹⁹⁾中，作者描写了只做人流手术的“东部医院”的女医师。女医师从医三十多年，成为了这一带远近闻名的人流手术高手。满五十五岁的那一天，女医师决定从此金盆洗手。可是从两个多月以前开始，她突然产生了接生新生儿的强烈冲动。距离医院关门的日子越来越近，她焦急地等待着临盆妇女的到来。只剩下两天的时候，女医师不得已又为一位孕妇做了人流手术，然后看到了那个几乎毫发无损的还不到三个月大的胎儿。胎儿豌豆般大的头部上面，一双眼睛仿佛太阳花的种子。望着胎儿尚未产生意识的眼睛，她感到了对这个弱小生命的深深的怜悯和沉重的负罪感。早年被外国士兵强奸的痛苦经历，使她一直希望通过人流手术帮助那些可怜的女人。但现在，她的这一信条开始动摇。到底是选择救人的医术，还是选择杀人的医术？她看着那双太阳花种子般的胎儿的眼睛，再也无法抑制对新生命的强烈的憧憬。终于，最后一天到来了。她要最后一次为一个即将临盆的女孩做流产手术。但是恍惚间，她已将婴儿接生了下来，并且放到了象征着生命正面

18) 강인숙, 同上, p.21.

19) (韩) 朴婉绪, 〈那个秋天的三日〉, 『妈妈的桩子』, 首尔: 世界社, 1994.

价值的天鹅绒椅子上。

啊啊，至此我已无需再隐瞒什么。我想要一个孩子。一个能让我养育和爱护的孩子。最后想要用自己的双手接生新生儿的愿望也不过是出于对婴儿的贪恋而已。我感到我诚实的愿望冲破一切压迫和面具，像生命一样顽强地喷涌而出。

(《那个秋天的三日》，『妈妈的桩子』5页)

望着眼前“命运像露珠一般”的早产儿，她一心只想救活他（她），于是疯了一般地跑到了有“育婴器”设施的大医院，可孩子还是死掉了。她怀抱着死婴回到了自己的新家，她冥冥中已把他（她）当作自己的孩子。早年被强奸的经历让她几十年的时间里都沉浸在复仇的快感里，从未正视自己真正的内心。此刻的她宁愿守着“哪怕是婴儿的坟墓”，等待春天在上面洒满太阳花的种子。让女医师多年的信条开始动摇的，是胎儿那双太阳花种子一般的眼睛；给她带来希望的，则是她亲手播撒下的太阳花种子。以上两部小说中的女主人公均是在遭受心理创伤的状况下，由代表自然的植物性因素唤醒她们内心对新生命的渴望。而使它成为可能的，正是“女性=自然=生命=生产”的女性生态学公式。²⁰⁾

4) 自然治愈与生态共同体

沃伦曾指出，在精神上亲近自然，可以为女性提供一个治愈来自父权社会伤害的庇护之所。另一位生态女性主义代表人物苏珊·格里芬也表示：“女性亲近自然是克服并幸存于男权社会的一个重要策略。”²¹⁾在朴婉绪的小说中，女性是最具自然气质的代言人，反过来自然又是女性治愈创伤的疗养地和天然的精神避难所。此时的自然不但被凸显为还原女性生命本真、使女性心灵获得解放的天然空间，而且成为人类与自然、男性与女性的新生态共同体得

20) 김미현, 『여성 문학을 넘어서』, 서울: 민음사, 2002, p.273.

21) Karen J.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p.195.

以构筑的地方。

小说〈虚幻的蝴蝶〉²²⁾中，作者设置了世俗观念无法施展威力的自然空间，描写了年轻的“子然师傅”和年逾七旬的英珠母亲找回生命本真的虚幻场景。英珠母亲一度深信“不能由儿子养老是最可怜、最不光彩的”（119页）事情，因此即使被儿媳整日锁在家里，依然不愿意让女儿赡养自己，精神恍惚中多次朝着儿子家的方向离家出走。母亲出走六个多月后，英珠终于在首都近郊的一处寺院里发现了母亲。在这个挂着“天开寺”牌匾的“岛”一般的老房子里，还住着一位年轻的住持“子然师傅”。英珠找到母亲的时候，眼前出现了这样的景象：

菩萨前的莲灯下，两个穿着僧服的女小说人在细声细语地说着话剥沙参皮。无比温馨和谐的空气像春日里蒸腾的地气一般正从两个女人的身边缓缓升起。比身子大多了的僧服使母亲瘦小的身躯像折起翅膀斜着的蝴蝶。不，不，不仅仅是因为肥大的僧服吧。还因为完全摆脱了长久以来生活的重压和残留的那份轻松和自由！至今有谁能让母亲如此自在和幸福过？过了七十的老人怎么会这样无邪和天真？

怎么说那也不是现实，是虚幻。英珠与母亲近在咫尺，但不能迈过去。因为她站着的地方是现实。现实和虚幻之间，即使咫尺之隔、即使再透明也是不能跨越的两个完全不同的世界。

（〈虚幻的蝴蝶〉，『孤独的你』，141页。划线部分为原书漏译内容，笔者在此做了补充。）

一度被关在房间里成为被监视对象的母亲，此刻竟然化身成为自由的蝴蝶。虽然近在咫尺，但英珠却感觉到自己和母亲之间似乎隔着千山万水，因为她所在的地方是“现实”，而母亲所在的地方却是不属于世俗人间的梦境般的“虚幻”世界。在由“世俗观点”支配的城市里，母亲在儿子和女儿的拉锯战中越来越迷惑，在稀里糊涂的状态下作出离家出走的举动。被儿媳锁在家中的母亲精神恍惚，瘦小的身躯紧张得汗毛倒立，眼神中写满戒备，显露出对他人的

22) (韩) 朴婉绪, 〈虚幻的蝴蝶〉, 『孤独的你』, 朴善姬·何彤梅译,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2006.

攻击性；但在远离城市、孤岛一般的寺院里，一切世俗的道德义务不复存在，仿佛回到未被世俗污染的“自然”状态。评论家朴慧敬在书末的作品解读中对“子然”这一法名进行了分析，指出“子然”与“自然”谐音，它很可能是作家有意为之。²³⁾

小说《慷慨的饭桌》²⁴⁾中，主人公所在的首尔和景实生活的乡村这两个空间形成了鲜明的对照。如果说首尔的土地是用来赚钱的工具，带给人的只有嫉妒、猜忌和兄妹反目，那么，景实所在的乡村的土地则是“治愈之地”，它常年生产各种绿色食物，这些绿色食物不仅有益于人的身心健康，还可以治疗各种成人病和癌症。小说中，景实摆出乡下特有的“慷慨的饭桌”招待主人公，各种纯天然、无农药的野菜抚慰主人公病弱的脾胃，使她产生一种恍如隔世的感觉。主人公原本好奇景实是如何从白发人送黑发人的悲痛中解脱出来的，但现在她终于明白，是这片土地给予了景实重生的力量。在这段描述中，大自然拥有的惊人的治愈能力得到了很好的体现。

小说《只为思念》²⁵⁾中，作者讲述了世外桃源般的小岛的故事。小说中，“我”和妹妹虽然名义上是堂姐妹，但不同的阶层属性让“我”有了一种高高在上的优越感，总是站在富有者和施舍者的立场对待妹妹，习惯于享受妹妹付出的劳动，却把堂姐妹间的亲情忘得一干二净。酷暑难耐的夏季，妹妹来到南海某个小岛度几天假。这个小岛叫“侍郎岛”，仿佛“人间仙境”，“夏无三伏，冬无三九”，“田野四季常青”，充满非现实之感。劳苦半生的妹妹在这里找到了幸福的归宿，决定将自己的余生在这个小岛上度过。这个小岛民情纯朴，不存在所谓的等级观念或主仆意识，“打过一两次照面就开始用非敬语”交流（25页）。在这个等级秩序解体的天然空间里，妹妹的身体逐步恢复了健康，心灵也重新获得了自由。看到妹妹身上发生的变化，“我”终于放弃了长久以来对妹

23) (韩) 朴慧敬, 《作品解读》, 『那个女孩的家』, 京畿道: 文学村, 2006年, p.326.

24) (韩) 朴婉绪, 《慷慨的饭桌》, 『亲切的福姬』, 李贞娇·陈亚男译,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2016.

25) (韩) 朴婉绪, 《只为思念》, 『亲切的福姬』, 李贞娇·陈亚男译,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2016.

妹的“主子心态”，使彼此之间重温久违的亲情。“我”虽然放弃了前往侍郎岛探视妹妹的计划，但决定把这个小岛当作思念的空间珍藏在心里。

冬暖夏凉的南海小岛，金黄的银杏叶飘落在绿莹莹的草地上，年过七旬却依然性感的渔夫，刚从纯净海域归来，走在回家的小路上，自豪地提着出水不久的粉红色鲷鱼，温柔漂亮又擅长烹饪的妻子在殷殷期盼，那是怎样的风景啊。每当念起那样的小岛，我的心底就汇聚起思念之泉，思念之情是一种祝福。

(〈只为思念〉，『亲切的福姬』，25~26页)

3. 结论

生态女性主义希望以生态智慧建构女性解放的前景，并且认为生态问题的解决必须包含女性主义视角。朴婉绪早已看穿韩国的女性解放道路道阻且长，加上她长久以来关注生态问题，于是女性问题和自然问题在她的文学世界中相遇，造就了其小说创作的生态女性主义视角。朴婉绪在小说创作中，从生态女性主义视角出发，肯定了生命的价值，恢复了女性被破坏的生育能力，重塑了女性完整的身体。朴婉绪小说中等级秩序解体的自然空间，不仅给女性赋予了治愈身心的力量，而且消除了尖锐的性别对抗，女性与男性、人类与自然由此形成了和谐相处的生态共同体。

◆ 参考文献

1. 资料

- 朴婉绪, 『妈妈的桩子』, 首尔: 世界社, 1994.
 _____, 〈哭声〉, 『朴婉绪短篇小说全集4』, 首尔: 文学村, 1999.
 _____, 『朴婉绪短篇小说全集2』, 首尔: 文学村, 1999.
 _____, 『那个女孩的家』, 京畿道: 文学村, 2006.
 _____, 『孤独的你』, 朴善姬、何彤梅译, 上海: 上海译文出版社, 2006.
 _____, 『亲切的福姬』, 李贞娇、陈亚男译,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2016.
 _____, 『梦中的育婴器』, 薛舟、徐丽红译, 『世界文学』第1期, 2008.

2. 单行本

- 김미현, 『여성 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손덕수·이난아 译, 창작과 비평사, 2000.
- 이귀우, 『여성과 자연의 식민화에 대항하여 - 에코 페미니즘』,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Rosemarie Putnam Tong 等,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이소영 等译, 한신문화사, 2000.
- 罗斯玛丽·帕特南·童, 『女性主义思潮导论』, 艾晓明 等译, 武汉: 华中师范大学出版社, 2002.
- 鲁枢元, 『生态文艺学』, 陕西: 陕西人民教育出版社, 2000.
- 韦清琦·李家鑫, 『生态女性主义』,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19.
- Karen J.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A Western Perspective 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3. 论文

- 강인숙, 『박완서 론- <울음소리>와 <비슷한 방들> <포말의 집>의 비교연구』, 『통일인문학』 제26권, 건국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4, pp.5-33.
- 김지은, 『박완서 소설의 에코페미니즘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3.
- 陈子雪, 「论吉利根基于女性视角的关怀伦理思想」, 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 2016.

논문 접수 일	2024년 2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3월 14일

Abstract

A study of Ecofeminism Writing in Park Wan-seo's novels

Ye, Leilei

Park Wan-seo's novels reveal a clear Ecofeminism perspective. Her novels not only emphasize the homogeneity of women and nature, but also pay attention to the synchronization and internal logic similarities between women and nature under oppression. Her criticism of patriarchy does not just stop at the deconstruction of the binary thinking, but stands on the height of the ecological circle and focuses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system. From her novel, we can clearly see the female ecological formula of "women = nature = life = production". Her later works reflect the healing power of nature and the pursuit of ecological community, expressing the ultimate concern of ecofeminism in trying to establish a society of gender equality, harmony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Keyword ParkWan-seo. Nature, Plants, Women, Ecofeminism

한중인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문헌 유사도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국문으로 쓴 논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지를, 중문으로 쓴 논문은 ‘CNKI論文查重’의 〈文本複製檢測報告單(全文標明引文)〉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저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신청서’에 반드시 저자정보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첩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학회사무실 주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이은희 교수 연구실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5.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6.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중계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7.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①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②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변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彙報

- 2024.2.14. 한중인문학연구 82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4.3.6. 한중인문학연구 82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4.3.13. 한중인문학연구 82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 2024.3.26. 한중인문학연구 82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 2024.3.30. 한중인문학연구 81집 발간

2024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82집 투고 마감(2024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82집 발행(2024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83집 투고 마감(2024년 04월 3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83집 발행(2024년 06월 30일)
- 5) 제5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4년 7월 2일~6일, 중국 절수의국어대 및 절강성 일대) –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연대와 지원
- 6) 한중인문학연구 84집 투고 마감(2024년 08월 1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84집 발행(2024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85집 투고 마감(2024년 11월 10일)
- 9) 한중인문학연구 85집 발행(2024년 12월 30일)

〈알림〉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2. 『한중인문학연구』 83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4년 04월 30일
- 발행 예정 : 2024년 06월 30일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한중인문학회 제14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4.1.1~2025.12.31)

역 대 회 장 :	김상대(전 아주대)	한계전(전 서울대)	송현호(전 아주대)
	최병우(전 강릉원주대)	박윤우(전 서경대)	한용수(동국대)
	임경순(한국외국어대)	유성선(강원대)	김유중(서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김호웅(연변대)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의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회 장 :	이은희(한성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구재진(문학:세명대)	김원중(고전:단국대)
	김 호(역사:서울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임대근(문화:한국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이선이(여성:경희대)	이해영(중국학: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병찬(서울:덕성여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풍기(강원:강원대)
	윤의섭(충청:대전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혜영(전라:조선대)
	송현정(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김형규(아주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박선옥(한성대)	차희정(명지대)	임대근(한국외대)
	박 진(국민대)	정진석(강원대)	조명숙(경희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최미숙(상명대)	윤선자(전남대)
	박진호(서울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u>[연구]</u> 조하연(아주대)	김근호(전남대)	김원중(단국대)
	송윤미(강원대)	이미옥(서울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효영(강원대)	송재연(제주대)	이명아(국민대)
	최유학(중앙민족대)	왕녕(대원외국어대)	전월매(청진사범대)
	<u>[국제]</u> 전공(국민대)	이영남(광서사범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신영덕(인니국립대)	박춘란(사천외대)	엄홍화(회해공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김환기(동국대)	박강(부산외대)
	이정란(한중연)	홍순애(동덕여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김상일(동국대)	김현주(한국외대)
	최재선(산업대)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이영호(제주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호정(서울대)	한창훈(전북대)	전영근(광동외대)

<u>[정보]</u> 송지언(홍익대)	강남옥(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u>[출판]</u> 김진규(가천대)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이기원(강원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간 사(3) : 행정학술-이윤정(한성대), 편집정보-이수진(서울대) 형재연(한성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남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헌(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심정창(북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중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일용(홍익대 명예)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장 : 정래필(영남대)

편집위원(13) : 전 궁(어학(중), 수도권:국민대)	백승호(한문학(한), 수도권:국민대)
김지혜(한국어교육(한), 수도권:명지대)	홍인영(현대소설(한), 수도권:육군사관학교)
유정은(철학(한), 강원:강원대)	최호영(현대시(한), 강원:강원대)
오현아(문법교육(한), 강원:강원대)	박은정(고전문학(한), 경상:영남대)
구영산(현대교육(한), 충청:충남대)	이인화(문학교육(한), 전라:전북대)
한위성(고전(중), 해외:중국대련외국어대)	조용준(역사(중), 해외:중국길림대)
이혜영(문학(중), 해외:중국해양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유중(서울대)

위원(14) : 이은희(서울대)	정래필(영남대)	김형규(아주대)	박선옥(한성대)
조하연(아주대)	최호영(강원대)	김정우(이화여대)	김진규(가천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 궁(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연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82집

2024年 3月 27日 印刷

2024年 3月 30日 刊行

發行人 : 이 은 희

事務室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이은희 교수 연구실

한중인문학회 이은희

T. 02-760-4381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